지긋지긋한 야근을 몇 달째 하다 보니 먹는 게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조금만 더 하면 끝나는 프로젝트의 끝이 보였다.

아침부터 머리가 핑 돌았지만 부실한 아침 식사 때문이란 생각에 가볍게 생각했다.

그동안의 고생들이 드디어 빛을 보는가 싶었다.

고3 시절 어른들이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에 속아 고등학생 시절 죽으라 공부만 했다. 안정권으로 서울의 중상위 대학에 들어와 보니 고3 시절보다 더 지옥 같은 대학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표에 맞는 수강신청부터 끝도 없는 과제….

거기다 수백만 원의 돈까지….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다.

휴학은 죽음이다 생각하며 하루를 쪼개고 쪼개서 졸업까지 했다.

졸업 전 바로 알만한 중견기업으로 취업하기까지 고생이었다.

그뿐이면 다인가……. 대학 때의 진상들은 손톱의 때만큼 비교도 안될 정도로…. 회사에는

미친 인간들이 넘쳐났다. 또라이불변의 법칙…. 부서엔 또라이가 한 명씩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발령 나면 멀쩡하던 사람이 또라이로 변하는 무시무시한 사회생활…. 그 생활을 10년 이상을 버텼다. 오로지 승진을 위해서…….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대리에서 과장 승진하는 게 정해졌다. 팀원의 모든 사람들이 축하까지 해줬다.

동기인 김대리만 빼고……. 같은 대리면서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는 안된다고 말하던 김 대리에게 본때를 보여줄 생각을 하니,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서류정리를 마지막으로 퇴근길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시야가 어지러워졌다.

쿵…….

"사람이 쓰러졌다!!!"

"누가 119 좀 불러줘요~"

내 주변으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난 다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다.

내 몸은 아래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거 같은데 난 붕 날아올라 내 몸을 보고 있었다.

내 몸 주위로 의사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하며 호흡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었지만, 이미 늦은 듯했다.

그리고 죽었다.

의사는 내가 과로사로 죽었다고 말했다.

말도 안 되는 과로사로…….

꽃다운 청춘 35살 과장이 되어보지 못한 채...

뼈 빠지게 주말도 없이 일만 하다가 죽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꼭 놀고먹는 인생을 살리라….

다짐했다.

2화 모든건 계획대로?!

눈을 떠 처음으로 본 곳은 화려한 문양의 천장과 샹드리제, 중세시대를 생각나게 하는 인테리어, 말도 안 되게 부풀어 오른 드레스와 멀미가 나올 거 같은 레이스 장식…. 이곳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손바닥을 펼쳐 위로 뻗어보니, 짧고 자그마한 아기 손이 보였다. 그리고 내 입엔 쪽쪽이가 물려 있었다.

아기인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며칠을 누워서 자고, 먹고 하는 생활을 하며 생각했다.

마지막 기억으론 분명 의사가 쓰러져 있는 나를 보며 사망선고를 내리 던 게 기억났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서른다섯 살 장세 휘는 과로사로 죽어버렸다.

억울했다. 그리고 다시는 일만 하며 청춘을 버리며 살지 않겠다 다짐한 기억이 났다.

다시 태어난 나는 꽤 있는 집 자식으로 태어난 거 같다. 옆에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병을 물려주던 여자들이 나를 보며 아가씨라고 불렀다. 고급스러워 보인 비단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끔 와서 한 번씩 안아보곤 금방 사라졌다.

전생의 내 처지를 불쌍히 여겨 신이 이번 생은 돈 많은 집 딸 태어나게 해주고 평생 놀고먹으라는 계시인 게 분명했다.

다시 한 번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했다. 놀고먹으며 흥청망청 살 거라고!!

"루나아가씨께서 예쁘게도 웃으시네요~"

유모인 사라가 나를 들어 올리며 따라 웃었다.

다시 태어난 나의 이름은 루나 벨 브라이트고, 현재 17살이 되었다. 브라이트 가문은 원래는 평민이었다. 증조할아버지는 성문을 지키던 기사였다. 그당시 커다란 반란이 있었는데 증조할아버지가 크게 활약해 왕에 눈에 띄었고, 자작이 되었다.

그 당시 살고 있던 땅을 하사받았다고 한다. 원래 평민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정을 눈감아도 알 수 있을 정도였고, 평판이 좋았던 우리 가문 사람들에게 사람들도 협조적이었다. 나 또한 어린 시절엔 아가씨라고 불렸지만 마을 사람들과 허물없이 지내왔었다

적당히 그들과 지내며, 적당히 생겼고, 착하며 돈 좀 있는 집 자식이랑 결혼해 잘 먹고 잘사는 게 내 목표였다.

하지만 그 목표가 깨졌다.

모든 원인은 어머니와 앙숙인 옆 동네 귀부인 세실리아 자작부인과 티타임을 가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화를 내며 들어온 이후부터 어머니는 급속도로 몸이 안 좋아지셨고, 침대에 누워계시는 날들이 많아지셨다.

팔불출인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 멀리서 의원을 모셔오기도 했다

"루나, 오늘 이렇게 널 부른 이유는 내가 죽기 전에 우리 가문에서 왕실 공무원 한 명 정돈 나와야 하지 않겠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가문은 대대로 왕실기사 출신들이 많잖니 콜록"

심하게 기침을 하며 좋지 않은 안색을 한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아무 말도 없자 어머니는 마저 말을 이었다.

"그래서 널 왕실로 보내야겠어."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라 말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왕실에 가서 일한다니요?!"

내 말이 끝나자 더욱더 기침하며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는 말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이 어미를 위해 그 정돈 들어줄 수 있지 않겠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이미 지원 기간은 지났다고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왕실에서 일하는 낮은 계급의 공무원들은 대게 황실에서 관리하는 아카데미 출신의 평민들이었으며 능력을 인정받거나 공을 새우면 작위를 받고 더 높은 계급으로 승진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며 물론 일부 공무원들은 귀족들의 자녀들을 왕실로 보내 일을 시키거나 능력이 뛰어날 시 추천받아 일을 했다. 물론 고위관리자들은 예외로 말이다.

자발적으로 왕실로 보낼 땐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

"그건 이미 처리해두었다. 자작님께서 이미 신청해서 답까지 받았다."

침대 옆 작은 서랍에서 황실도장이 찍혀 있는 편지를 꺼내 내게 건넸다.

'루나 벨 브라이트 자작영애

왕실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

대력 17년 5월 1일까지 왕실로 입궁하길 바란다'

부들부들 떨면서 편지를 노려보고 있자 어머니는 다시 말했다.

"딸 걱정 마라 알아보니 왕실에서 지낼 고도 마련해주고 짐은 이미 사라가 다 싸서 마차에 실어두었단다 넌 출발만 하면 돼"

파리해진 안색을 한 어머니가 웃었다.

^^^

2화 모든건 계획대로?!

"전 절대 안가요! 안간다구요!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일을.."

배신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내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더욱더 심하게 기침하셨다.

"콜록콜록 콜록 컥"

입을 가리던 하얀손수건 사이로 빨간 피가 보였다.

"어머니..피...피가!!!"

"사실 몸이 점점 안좋아진다는걸 요즘들어 느끼는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태연히 입가의 묻은 피를 닦아내며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문을 위한 나의 마지막 소원이구나"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린시절 적응하기 힘들어하던 날 위해 부모님은 아낌없는 사랑을 나누어 주셨다.

결국 난 왕성으로 향하는 마차에 몸을 실었다. 떠나기전 아비지와 작별인사를 나눴다.

"거기가서 기죽지 말고, 자 이건 내가 주는 비상금이란다. 내딸 건강조심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이 못난아비를 용서해라"

"제가 죄송하죠, 어머니옆에서 간호해드려야되는데..."

나의말에 화들짝 놀라며 지 내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며 손사레를 치며 급하게 말했다.

"아..아니다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들어줘야지."

그렇게 난 17년동안 잘지내던 영지를 떠났다.

왠지 다시 시작된 고난길에 그곳에서도 잘 지낼까 걱정이 되었다.

'참 아버지가 주신 건 뭐지?'

아버지가 주신 작은 상자에는 보석과 금화 몇개가 들어있었는데, 그사이로 편지가 보였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딸 루나

미안하고 정말 미안해

사실 몇일전에 다녀간 고 여우같은 기집애가 우리가문은 무식해서 몸으로 쓰는 일만 한다며 비웃는게 너무 열이받아 이런일을 꾸몄구나 그래도 여기보단 거기가 내 딸의 능력을 마음껏 펼쳤음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한것이니 너무 배신감 들지 않아했음좋겠다.

그리고 난 아주 건강하니 내 걱정은 하지말고 왕궁에서도 잘지내길 바란다. 그리고 만에 하나 다 때려치고 집으로 내려올시 그 뒷감당은 상상에 맡기마 참 하녀한명은 다음주정도에 올려보내마

P.S. 손수건의 피는 토마토주스였단다 엄마 연기력 짱이지?'

그리고 두번째장에는

'내딸 루나

미안하구나 부인이 너무 성화를 부려 이일에 가담하게 되었단다..

의사말로는 화병이라니 일이 해결되면 자연히 낫는다고 하는바람에...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단다'

"이런...미친...... 당했다!!!!"

처음부터 날 왕성으로 보내기위한 계획이였다.

부모님의 어이없는 사기연극에 화가나 편지를 박박 찢어버리고 마차안에서 소리소리를 지르며 발광을 시작했다.

"어떻게 나한테!!!"

부들부들 떨리며 이 배신감을 부모님에게 당장 표출하고 싶었지만 당장 집으로 가자니 어머니가 무서웠다.

역시 모든세계의 어머니는 무서웠다.

그래서 그렇게 나랑 눈도 못마주치고 쭈뼛거리던 아버지가 이해됬다.

나의 지랄발광을 하던중 마차는 수도에 도착했다

"도착하셨습니다"

^^^

2화 모든건 계획대로?!

마부의 목소리에 발광을 멈추고 헝클어진 머리를 만지며 마차에서 내렸다. 왕성이 가까이 보이자 수도에 도착했다는 실감이 들었다. 내 앞에는 꽤 귀엽게 생긴 오두막집이 보였다.

멍하니 집주변을 보고 있는데, 마부가 빠르게 짐을 옮겨놓고는 급히 사라졌다.

아마 마차 안에서 지랄발광을 하던 소릴 들은 게 분명했다.

"아…. 먹고노는 생은 이번 생도 망했구나"

소리 내서 말하니 더 서글퍼졌다. 왜 하필 세실리아 자작부인과 그때 그런 말을 했으며, 어머니는 왜 그런 말에 넘어갔는지..

이미 후회해도 늦었지만 말이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긴 갈색 머리를 질끈 묶고 짐을 꺼내 정리를 시작했다.

평상복과 잠옷, 언제 받은 것인지 모를 왕성에서 입는 제복(제복을 본순간 소름까지 돋았다.)까지.. 한참 정리를 끝마치자 진이 빠졌다.

며칠을 혼자 생활하는데 적응도 하고, 집 근처를 돌아보며 자주 가는 단골식당도 만들고, 필요한 생필품도 사두다 보니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생각보다 5월 1일은 금방 다가왔다. 준비한 제복을 입고 집을 나오니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왕성 앞 분수대 앞에는 같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가만히 구석진 곳에서 기다리자 분수대 돌담 위로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다.

"자 이제부터 명단을 부를 테니, 순서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

웅성거리던 소리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 조용해졌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 맨 앞에 서 있던 하인을 따라 이동했다

우리는 한 달간 왕실에 관한 예의를 익혔다. 수도에서 떨어진 영지 사람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활했던 것들을 통합하기 귀한 교육을 받았다.

한 달 동안 인사, 식사예절 등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며 그 안에서도 4가지 그룹으로 나눴다.

첫 번째 그룹은 아카데미 출신인 평민들로 출세를 위해 뭐든지 할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귀족이지만 평민과 함께 일한다는 게 불만인 그룹, 세 번째 그룹은 귀족이지만 어떻게든 황태자나 공작, 꽤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과 혼인하고 싶은 그룹, 마지막은 내가 속해있는 그룹은 왕실에서 받는 월급만으로 감사해 하며 출세든, 혼인과는 멀고 일하는 것에 감사해 하는 평민들이 속해 있는 그룹이다.

그중에 주근깨가 잘 어울리는 아리엘과 빨간 머리가 인상적인 제니와 친구가 되었다.

"오늘 드디어 일하는 부서가 정해진대. 좋은 사수 만났음 좋겠다"

"아까 하는 말 들었는데, 2명만 안 걸리면 된대…. 레이 조우라는 사람이랑 칼리아 딘 베네치아란사람…. 아주 유명하대 성격이 아주 특이하다고…. 밑에 직원들이 버텨내질 못한대"

아리엘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동안 우리를 교육했던 사람들이 일일이 호명하며 위치가 적혀 있는 종이를 나누어 주었다.

"루나 벨 브라이트 왕실 제1 과학관 소속 발령"

위치가 적혀 있는 쪽지를 받자 내 주위로 아리엘과 제니가 사색이 되어 위로해주었다.

"어쩜……. 레이 조우라는 사람이 거기 관리자라던데"

"루나"

'" 힘내.."

'여기 온 순간부터 불행이 연속이구나 내 인생이 어디 가겠어..'

둘을 보며 올라가지 않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어 보였다.

[작품후기]

수정완료

^^^

5화 시작

커다란 장미공원은 지나쳐 건물사이의 커다란 복도를 지나니, 새하얀 건물이 나왔다.건물앞에는 '제1 과학관'이라고 써있었다.

심호흡을 하며 건물안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령받은 루나라고합니다."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길래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원래 인사를 싫어하는 사람은없지'

책상위에 있던 얼굴하나가 서류사이로 얼굴만 내밀며 나를 쳐다보았다.

순간 눈이 마주쳤다.

하얀 피부에 꼭 탈색한것마냥 연한노랑빛이 맴도는 머리색에,얇게 쌍커풀졌고, 눈꼬리가 살짝쳐져 착해보이는 인상, 맑아보이지만 어딘가 지루해보이는 눈동자. 빨간 앵두같은 입술은 한마디로 미소년이였다.

'설마 저사람이 레이조우?!'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 그는 한마디했다.

"서재 정리하시면됩니다."

다시 고개를 숙이고 서류에 집중했다.

우물쭈물 거리다 결국 서재로 보이는 공간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책과 새책, 잉크냄새가 서로 섞여 이상한 냄새가 먼자 났고,사방이 벽면으로 된 책꽂이에는 꽉꽉 들어찬 책과 반은 바닥에 내팽겨쳐있는 책들이 보였다.

'우와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책장이다 그리고 여길 혼자 정리해야되고..'

일단바닥에 아무렇게나 떨어져있는 공식과 낙서가 가득종이를 주워 한쪽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반도 하지 못했는데, 벌써 점심시간이 다되었다.

"식사안하러 가세요?"

나의 말에도 묵묵히 서류만 봤다. 잠시 기다려도 봤지만 아무말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 전 밥먹으러 갔다오겠습니다."

원래 초반에 습관을 잘못들이면 당연하다고 생각되기때문에 처음부터 당당하게 말해야한다. 장세휘시절의 첫번째 깨달음이였다.

꽤가까운곳에 식당이 있어 배식을 하고나니, 벌써 아리엘과 제니가 자리를 잡고 나를불렀다.

"루나! 여기!!"

제니의 옆자리에 앉자마자 아리엘이 궁금하단 얼굴로 물어봤다.

"거긴 쫌어때? 그 레이라는 사람은 만났어??"

"밥먹으란 소리를 안해서 혼자 밥먹으러왔어"

빵을 찢어 스프에 찍어 입에 넣으며 말했다.

"그래도 되? 그러다 짤리는거 아냐?

"다 먹고살자고 하는짓인데, 밥도 못먹게 하면 안되지"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잘생겼다며...

왠만한 여자들보다 이쁘게 생겼다던데.. 처음에 얼굴보고 접근했던 여자들이 하루도 안되서 다 나가 떨어진대"

고개를 숙이며 속닥거리듯 제니가 말했다.

"응.. 잘생기긴했더라"

아까 본 하얀 얼굴에 노랑머리를 떠올리며 빠르게 식사를 마쳤다.

"먼저갈께~"

아무리 점심시간이지만 대답을 듣고 나온게 아니라 종종걸음으로 다시 서재로 들어갔다.

들어가기전 살짝 책상을 보니, 그자리에 못박은 듯 그는 계속 그자리에 앉아 있었다.

'일중독인가'

몇일을 서재에 박혀 책정리만 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책정리만 하는게 어뗘냐는 마음으로 콧노래까지 불러가며 사다리위에 앉아 책을 꽂아넣었다.

"잠깐 내려오시죠"

맑은 목소리에 고개를 숙이니 그가 밑에서 날 바라보고있었다.

서둘러 사다리에서 내려왔다.

"책정리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거죠?"

"비슷한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요"

"흐음.....이름이?"

먼가 골똘히 생각해 보이는 그 얼굴이였다.

"루나요"

"내이름은 레이 조우입니다 레이라고 부르세요"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다시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기시작했다. 왠지 인정받은 기분이 들었다.

[작품후기]

깜찍둘맘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미리 써둔거 계속 수정중이라서 ㅜㅜㅜ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할께요~

^^^

5화 시작

이름까지 정식소개받자 레이는 나에게 일을 시켰다.

"루나, 앞으로는 출근하자마자 내앞으로 오는 우편물부터 분리해서 놔주시면되요, 여기 문양을 보고 정리해주면됩니다."

내앞에 아무렇게나 쌓여 산을 이루고 있는 우편물을 내밀었다. 한번에 기억할수 없기때문에 쓰여 있는 문양을 수첩에 그린뒤에 동그라미 엑스 표시로 적어넣고 있자 그런 모습이 신기했는지 레이는 말없이 지켜보다 다시 말했다

"여기있는것들에 대해 모를꺼라고 생각하고, 틈틈이 서재에 있는 책을 보며 익히고, 우선 내가 메모해주는 물품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전엔 완전 없는 사람 취급에 숨막히는 분위기가 사라지자 이정도 사회생활이면 평생 다닐만 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틈틈히 레이의 메모심부름을 할때 꼭 수첩에 한번더 적고 나중에 책을 찾아보기도했다.

소소한 즐거움도 있었다. 처음 레이가 부탁한 화학재료를 받으러 물품1과에 갔을때 정말로 과학1과에서 왔냐고 물어보던 사람들 표정이 정말 웃겼다.

"저..정말로 제1과에서 나왔다고요?"

모두 놀라서 신기한듯 계속 물어봤었다.

"여...여기, 레이님의 글씨가 맞아!!!!!"

"앞으로 제가 올꺼같은데 잘부탁드립니다"

뒤돌아서는 내손을 꼭잡고 오래오래 다녔음 좋겠다고 다들 응원해 주었는데.....

---------

출근하자마자 콧노래를 부르며 우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레이가 말했다.

"지금 중앙회의실로 가보세요"

책상에서 왠만하면 떨어질줄 모르는 레이가 공문을 읽어보라며 내밀었다. 조만간 황태자 생일로 열일 무도회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공문이였다.

중앙회의실 근처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말고도 많은 부서에서 지원나왔는지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듯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홀안이 조용해졌다.

'응? 누가 들어왔나?'

내뒤로 누가 들어왔는지 뒤를 돌아보자 아무도 없었다. 다들 정확하게 나를 보고 있었다.

'뭐지.. 내가 머 잘못했나?'

"안녕하세요~"

싸한 분위기에 되도 안되는 억지웃음을 지으며 모두를 보며 멋쩍게 웃었다. 더 싸해진 홀안에서 자기들끼리 눈치를 보다 이내 마음먹었다는듯 그중 가장 새침하게 생긴 여성이 말을 걸었다.

"니가 한달째 1과학관에서 일하고 있다는 걔맞지?"

초면에 반말과 함께 날 아래위로 내리 훑었다.

그녀의 무례한 행동에 기분이 아주,몹시 안좋았지만 완만한 사회생활을 위해 웃으며 말했다

"어"

내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성격도 좋아보이는거 같지 않은데 어떻게 붙어있는거지?"

"특별히 이쁜거 같지도 않은데 왜 아직도 안짤리는거지!!!"

"이쁜걸로 따지면 예전에 들어온 도로시가 제일 예뻤지"

"몸매는 그전에 들어온 레시가 좋았지"

'이것들아 다들린다'

내앞에 여자는 분하다는 듯이 다시 말했다.

"어떻게 안찔리고 일하는거지!!!"

"나도 모르지. 본인한테 가서 직접물어보든지"

나도 정말 궁금하단 얼굴로 고개를 옆으로 살짝 기울이고 말했다.

왕실공무원은 처음 배당받은 부서를 마음대로 바꿀수 없다. 또한 원하는 부서로 갈수 없고 다른부서로 옮기는절차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다. 불미스러운일이 생기지 않는한말이다. 오로지 쉽게 그만두는 방법은 사수가 된 상사요청이 있을시만 가능했다. 이건 계급이 높은 평민출신들을 위한 제도였다. 콧대높은 신입귀족이 평민밑에서 일할수 없다며 몇번이고 불만을 토해내 그뒤로 정해진 규율이였다.

"흥"

레이에게 직접가 물어볼 용기가 없던 그여자는 가재미눈을 한뒤 돌아갔다.

그뒤로 피곤에 찌든 공무원이 앞으로나와 일정을 외쳤다.

"앞으로 두달뒤에 왕실무도회가 개최됩니다.

덕분에 우리들이 할일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부터 각자 맡은일이 적힌 이 종이를 성실히 이행하길 바랍니다"

내가 해야될일은 무도회에 참석하는 귀족의 명단수와 초대장을 확인하는 일이였다.

"저기보이는 하인10명을 데리고 가시면됩니다"

돌아온 나는 초대장을 내려놓고 바로 점심식사를 하러 갔다. 혼자 배식을 받고 앉는데, 어느샌가 옆에와 앉는 제니였다.

"제니 많이 피곤해보인다"

"말도마 이제 왕실에서 따박따박 월급나온다고 좋아했던게 어제같은데.. 심술이 다닥다닥 붙은 브릭스자작때문에 눈치보여 죽겠어 심지어 물심부름까지 날 시킨다고!!!!"

그녀는 속사포 렙하는 사람처럼 브릭스 자작에 대한 욕을 했다.

"루나는 어때? 잘해주셔??"

"머... 아직은 어려운게 없는데.. 이번에 중앙회의실 협조로 이번 황실무도회 초대장 발부해줘야되......"

"역시 남의돈 버는게 쉽지 않아"

둘다 한숨을 쉬며 밥을 먹었다.

[작품후기]

깜찍둘맘님 호이챠님바람부는목련님코멘트 감사합니다~

뮬그레이스님 수정했습니다~

완결까지가 목표입니다!!!!

^^^

5화 시작

장세휘 시절에도 일복이 터져서 결국 과로로 죽더니, 루나 일때도 일복이 많은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영혼에 일 많이 부려먹어도 됩니다 이런게 새겨 있는게 아닐까 말도 안되는 웃기는 상상까지 들었다.

커다란 지도를 펴놓고 명단과 편지를 확인하던중 아까 말한 주의사항에 대해 생각했다.

"매년 편지를 못받는 귀족분들이 몇분 계시니 꼭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지도를 보며 가장 멀리 있는 영지부터 사람을 보내야하니, 먼지역의 명단을 지도를 보며 확인하고 있었다. 뒤에 서 있던 하인 5명을 불러 각각 배달해야되는 편지를 주며 말했다.

"초대장을 전달하되 꼭 집사를 통해 전달하고 여기 보이는 빈공간에 집사이름과 서명을 꼭받아와야한다"

"네?"

매년 초대장을 배달하던 하인들이 처음보는 요구사항에 놀라 되물었다.

"집사한테 이름과 서명받고 초대장을 전달해, 그리고 너희들 신분패 좀 보여줘"

나의 말에 꾸물꾸물 신분패를 꺼내보였다. 난 그 신분패를 보며 이름과 배달하는 귀족의 이름을 써 놓았다.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다.

한국에서의 우편집배원을 생각하며 떠올린 방법이였다.

"만약 집사가 뭐라고 하면, 올해부터 방침이 바꼈다고 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초대장을 받을수 없다고"

몇일을 초대장과 명단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인까지 보내고 새로작성한 명단을 들고 일어났다.

교육기간동안 궁안 구조에대해 알려줬지만 복잡한 곳은 수첩에 몰래 적어놨었다. 수첩을 보며 왕실기사단으로 향했다.

멀리서도 들릴만큼의 기합소리에 맞게 잘 찾아왔다는 생각에 슬쩍 웃으며 건물로 들어섰다.

꽤나 큰 건물안에 보좌관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커다란 서재앞이였다.

"안녕하세요 이번 중앙관리과 지원나온 제1과학관소속 루나 벨 브라이트라고합니다. 새로 작성한 왕실초대장명단입니다"

얼굴도 보지 않고 최대한 예의있는 몸짓으로 인사를 올리고 서류를 내밀었다.

나의 인사에도 아무말 없던 그는 보좌관이 대신 전달한 서류를 보기시작했다.

'휴'

그제야 고개를 들고 그를 봐라봤다.

커다란 창 앞으로 보이는 햇살을 잔뜩 받은 수려한외모에 한국이였다면 아이돌이나 모델, 연기자가 어울릴꺼같았다. 은회색머리에 어딘가 서늘하고 날카로워 보이는 눈, 그안엔 깊어보이는 검정눈동자..

긴손가락으로 서류를 읽고 있는 그.

나도 모르게 넋놓고 바라보았다.

'이왕실은 유전자가 남다른가'

"아직 할말이 남았는가"

'크윽 어떻게!!!! 목소리도 완전 좋아'

살짝 낮게 울리는 목소리에 심쿵한 심장을 살짝 쥐고 물러났다.

"아닙니다.! 그럼 안녕히계세요~"

서둘러 인사를 마치고 나왔다.

건물밖에는 웃통을 벗고, 기사들이 서로 대련을 하고 있었다.

비율좋게 자리잡힌 근육들을 보며, 므흣한 표정을 지었다.

'눈요기가 아주 좋아! 매일매일 오고싶다'

아주 천천히 걸으며 건물을 빠져나왔다.

칼리아의 수석 보좌관은 한편으로 신기했다. 칼리아 딘 베네치아 공작.. 나라의 보안과 수도기사단장을 맡고 있는 있으며 현 폐하의 가장가까운 친구이자 최측근인 그.. 또는 왕실안 3손가락 안에 드는 미남, 많은 영애들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

자기 사람이 아니면 딱히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가 아까 신입 공무원으로 들어온 여자의 명단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무..무엇이 잘못 되었습니까?"

보좌관은 식은땀을 흘리며 물었다. 완벽주의에 가까운 칼리아가 또 무언가 잘못된 점을 짚는게 아닌가 조마조마했다.

"완벽해"

"네 완벽하.. 네? "

그제야 보좌관 손에 있던 명단을 황급히 보자 지역별로 가까운곳에서 먼곳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있었다. 매년 이맘때 명단작성으로 몇번의 실수때문에 골머리를 썩였던것이다.

"이번에 들어온 신입공무원이 아주 일처리를 잘하나봅니다"

"아까 제1과학관소속이라고 안했나?"

"맞습니다. 거긴 레이 조우남작님이 계신곳 아닙니까...신기하네요"

"흐음"

칼리아는 명단을 다시 보다 아까 황급히 나가던 그여자뒷모습을 다시 떠올렸다.

[작품후기]

관심 가져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무도회가 열리기전 왕실공무원 전용 제복을 받았다. 교육받을때 평상복, 무도회용, 외부손님용 등등 행사에 따라 입는 용이 달랐다.

어딘가 어색한 제복을 입고, 왕실 궁전 입구앞 계단옆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하인들에게 인사했다.

"오늘이 첫날이다. 초대장 받으면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자"

그앞을 기사들이 줄맞춰 입구를 지켰다. 저멀리 보이지도 않는 줄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다.

벌써부터 질리는 거같았다.

"루이 아도라 베키 백작님 입장하십니다"

기사의 큰소리와 함께 시작을 알렸다.

명단을 확인후 그옆에 체크와 인원수를 썼다. 인원체크는 모든 파티의 기본이다. 이런저런 파티가 많다보니, 나중에 예산안을 짤때도 참고할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기때문이다.

정신없이 체크 하다보니, 살짝 마음을 놓고 있을때였다.

"내가 누군줄 알고 가로막고 있는거야!!!!!바로 시마 클리프 갈리 남작이란 말이야!!!"

갑자기 들리는 소리에 깜짝놀랐다.

안정감있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던터라 약간의 짜증과 궁금증으로 앞으로 다가갔다.

얼굴엔 심술이 더덕더덕 붙고, 인심인지 지방인지 모를 뱃살을 가진 40대 남성과 나이가 20살도 안되보이는 어린여자, 그뒤에 그와 똑같이 생긴 심술궂게 생긴 여자가 있었다.

그들을 막고 있는 기사들이 보였다.

"무슨소란인가요?"

일단 차분히 말한 내 목소리에 순간 먹잇감을 발견했다는 듯 잔뜩 흥분한 남자가 말했다.

"오호라. 니가 여기 책임자인가?"

"네 제가 책임자입니다."

책임자란 소리에 한층더 커진 목소리로 남자가 말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인가본데, 우리저택으로 온 초대장을 받지 못했다. 너때문에 우리가문이 웃음꺼리가 되게 생겼단 말이다!!"

큰소리 친 그남자는 어린여자를 힐끔 바라보면서 한껏 으스댔다.

'지금 이러는게 더 웃음거리가 된거 같은데...'

왕성안에 입지가 좁다 보니, 이런식으로나마 자존감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앞쪽에서 큰소리가 나자 뒤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시선을 집중해 오는게 느껴졌다.

나에게도 시선이 집중되는게 느껴지자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빠르게 뒤적거렸다.

"시마 클리프 갈리남작님, 집사이름이 알티 맞나요?"

"......그..그걸 어떻게...?"

서류한장을 보여주며 다시 말했다.

"시마 클리프 갈리남작님 북부지역에서 꽤 떨어져 혹시라도 초대장이 도착안했을까 싶어 집사에게 초대장을 받고 이렇게 서명을 받아두었습니다"

내말이 끝나기도 전에 빨갓게 달아올라 있던 얼굴색은 점점 흙색으로 변했다.

'꼬숩다 이놈아, 내가 너같은놈들 한둘은 꼭 나올줄 알았지'

결국 스스로 본인저택의 집사가 모자라던지, 본인의 실수로 초대장을 잊어버린게 되자 그는 창피함과 다른 분노에 부들부들 떨었다.

"감히 니년이!!!!!"

어디나 진상이 있기마련이다. 이어코 손을 올린 남작의 모습에 한대 맞고, 크게 뜯을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았다.

한참을 눈을 감고 있는데도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 슬그머니 눈을 뜨니 어제본 잘생긴남자가 남작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조용히 입장하시는게 좋을듯 하오"

"카..칼리아 공작님.."

어제 본 잘생긴 남자가 칼리아 딘 베네치아 공작인가보다. 그의 등장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왕실내에 잘생긴 사람 베스트 3안에 들며, 일등신랑감으로 미혼의 여성들에게 인기 폭팔한다고...

하지만 여성에게 딱히 관심이 없는건지, 여성에게 빈틈을 남기지 않는다고 안타깝다는 그의 소문을 제니와 아리엘에게 들은적이 있었다.

'눈이 웃질 않아'

본능적으로 저런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 겉으론 웃고 있지만 뒤로는 칼을 품는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타입이란걸 알았다. 어젠 잘생긴 얼굴에 홀딱 넘어갈뻔해서 몰랐지만 지금이렇게보니 확실히 알수 있었다.

칼리아의 등장에 진상남작은 자신의 식솔들과 함께 빠르게 입장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일을 한것뿐, 그보다 손에든게 머지?"

"초대장을 받은 집사들의 이름과 서명입니다"

그는 집사들의 서명을 꼼꼼히 쳐다봤다. 그사이 난 다시 마저 남은 명단 체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까전 시마남작옆에 진상이라고 작게 메모했다.

한차례 소동이 있고 난 후 주춤하던 줄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다시 집중해서 명단체크를 시작했다.

칼리아는 어느새 사라져있었다.

"루나!!!"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쳐다보니, 밝은목소리의 어머니였다. 그옆에 아버지도 보였다.

"아버지!!!!어머니!!"

거의 3개월만에 보는 부모님이였다. 아까 진상남작의 일때문이였는지 갑자기 부모님얼굴을 보니 눈물이 나올꺼같았다.

그말을 듣기전까지만.....

"건강하셨어요?"

"그럼 니가 왕실에 있는한 건강하단다"

역시 어느 세계든 엄마는 강했다...

'어릴땐 이런분이 아니셨던거같은데...'

어머니의 뻔뻔함에 옆에서 눈도 맞추지 못하는 아버지가 안쓰러워 보였다. 그래도 작은 영지를 다스리는 영주신데...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여성호르몬이 증가해서 인지 어머니한테 꼼짝못하시는듯했다.

"아 하녀를 보내려고 했는데, 하급공무원은 하녀를 둘수 없다고 하더라"

"네~ 저두 교육들으면서 들은거라, 1년안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서, 처음1년은 규율이 생각보다 엄격하더라고요"

살짝 어머니에게 다가가 귀에 작게 말했다.

"흠!"

어머니 뒤로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자 어머니는 그제야 뒤를 돌아보았다.

"루나 여긴 내 친.한.친.구.세실리아 자작부인이야"

친한친구에서 강조하며 어머니는 소개했다.

'저여자때문에 내가 이고생이지...'

"안녕하세요 왕실 제1과학관소속 루나 벨 브라이트입니다"

최대한 화사하게 웃으며 미소로 엿을 날렸다.

"공무원이 됬다는 얘긴들었지만 여기서 만날줄은 몰랐네"

부채로 입을 가르며 말하는 태연히 말하는 그여자 목소리에 어머니의 웃는 얼굴사이로 빡침이 보였다.

"그래도 우리 루나가 유능해서 여기에 있는거지"

"여자가 왕실공무원이 되면 결혼도 늦어지고, 결혼도 안한 여자가 혼자 따로 떨어져사는것도 불안하잖니"

"넌 시대가 어느때인데 아직도 그런소릴 하니, 여기안에서 자연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덕분에 이혼율도 적다고"

서로 웃으면서 돌려까기 시작하는데, 보고 있는 내가 피곤할 정도였다.

"아직 뒤에분들이 안들어가셔서 여기서 이러지마시고, 입장부터 해주세요~"

"어머 내정신좀봐 루나 미안하구나, 우린 얼른 입장하자고요"

황급히 아버지와 세실리아자작부인을 데리고 어머니는 사라졌다.

'휴'

그분들이 사라지자 난 눈을 감고 의자에 털썩 주저 앉았다. 첫날부터 너무 피곤한 하루다.

[작품후기]

레드문101 코멘트 감사합니다~

글솜씨가 좋질 않아서 ㅜㅜㅜ 연참은 어렵고,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하겠습니다 ㅜ

^^^

5화 시작

얼추 귀족들의 입장이마무리되자, 곁에있던 하인이 말했다

"마무리는 저희가할테니 이제 입장하셔도될꺼같습니다"

나도 귀족이다보니, 참석하라는 눈치였다.

아까 진상남작도그렇고 자꾸입구주위에서 나를힐끔힐끔바라보며 맴도는 어머니도 그렇고 그냥빨리쉬고싶었다.

"아니야 안에상황보다가 일찍들어가쉴래"

하인은 나의말에 고개를끄덕이곤 명단과 초대장들을 정리했다. 발소리를 죽이고 무도회장을들어서자 환한빛에 눈이부셨다

어느정도 적응하자 천장에 달린 보석가능한 샹들리와 바닥은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깨끗했다.

저멀리선 황태자의 생일을축하하는 악사들의 연주가이루어지고있었다

장세휘시절 책과 영화에서 보던 화려한무도회의 기대는 와르르 무너졌다 이화려한 무도회를 만들기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가...이 깨끗한 무도회장을만들기위해 하녀들과 하인들이 몇날몇일이고 무릎이 닳도록 닦아댔는지 이눈부신 조명을달기위해 투입된 촛불이며 저앞에서 연주하고있는 악사들을 모셔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는지, 하하호호하고있는 저귀족들은 모를것이다

슬금슬금 구석진곳으로가서 허기진배를 채우기위해 음식쪽으로 다가가 악사들에게 빠진 사람들을구경하며 배를채웠다.

다들 보석에 비싼 드레스까지 입고 역겨운 향수냄새를 품기고 있었다. 만약 본인도 왕실공무원이 되지 않았다면, 저기서 음악을 듣고 있었겠지...

그때 대각선구석진곳에서 제니가 보여 반갑게인사하려다 그녀의표정을 보고 그만두었다. 다크써클은 깊이 내려와 있었고, 어딘지 누렇게 뜬 얼굴까지.....

그녀는 끊임없이 음식테이블에서 다먹은 음식을 체크하고있었다.

'필시 아는척했단 나도 같은 신세가 될꺼야'

모름지기 직장인이라면 월급 받는만큼만 일하며, 아는것도 모르는척 모르는것도 더모르는척하는것이 현명하다

빠르게허기를 채우고, 챙겨온 손수건에 간단한쿠키와 술을챙겼을때 였다

음악이 끝나자 모든귀족들이 박수치며, 환호했다

이때다싶어 얼른 무도회장을 빠져나왔다

사람이 없는곳을 찾다보니 한적한 정원까지 오게되었다.

연못위로 달빛이 반사되 주변까지 환해졌다. 주변에 털썩앉아 아까챙겨 나온 주전부리와 와인을 꺼내먹었다 맥주가 아닌게 아쉬웠지만 아쉬운대로 괜찮았다

멀리서 들려오늘 음악소리를 벗삼아 술을홀짝이다 기분이 살짝 좋아질 무렵이였다.

'부스럭'

작은 소리에 뒤를돌아보니, 아까 사라진 칼리아공작이 서있었다

'이런'

아무말도 못하고 그냥 얼어버렸다.

"아까봤던 신입이 아니던가"

"또뵙습니다 공작님,아까는 정말감사했습니다"

일어나며 술을 몸으로가리면 인사했다

공작은 내뒤를 슬쩍바라보더니 말을 이었다

"궁금한게 있는데..지난번 명단도 그렇고 오늘 서명도그렇고 혼자서 한일인가?"

"제가했는데요"

"아주참신한방법이흥미로워, 혹시나와 일해볼생각없나?"

"전.제가지금하고있는일에만족하고있습니다

공작님과 일할능력또한부족합니다"

"흐음"

"그럼 전이만..."

또책잡힐까싶어 술과주전부리를부랴부랴 챙겨들고 급히 인사한후 빠른걸음으로 사라졌다.

들어온지얼마되지않은신입에게 이무슨 일인가

최대한피하자. 그 잘생긴 얼굴에 빠져 스스로 간이고 쓸개고 다바치기전에.....

공무원이 된 후 되도록이면 조용히 가늘고 있는듯 없는듯 지내다 현금부자남편을 만나 여기저기여행하며 살생각인데, 계획이 자꾸 틀어지는거 같아서 무서웠다.

어제와다르게 꽤일사불니하게일이진행되었다 어제온명단옆에다시 체크를시작했다

사실 오늘부턴 다른사람과 교대후에 무도회 참석이 가능했지만 하고싶지 않았다. 왠지 힘이 저절로 빠진달까

어제와 마찬가지로 내가 일이 끝나기만 기다렸다는듯 입구쪽에서 계속 힐끔힐끔 바라보던 어머니는 오늘은 놓치지 않겠단 표정으로 나타났다.

"루나,오늘은 무도회에 참석해야 되지 않겠니?"

"한달내내 죽어라 일만 했어요 너무피곤해서 일찍들어가쉬고싶어요 "

"무도회가 끝나면 일주일은 휴가라고하던데"

"그.그건어떻게?어디서들으신거에요?"

무섭다 무서워 고작 이틀사이에 무슨 얘기까지들으신걸까

한발자국 물러서 도망갈궁리를하자 웃으며 다가온어머니는 내손을덥썩잡았다

"그럼내일은 참석할수있겠네 드레스는 내가미리준비한게있으니 조금있다줄께ㅡ 일하는것도좋지만 그래도 무도회인데 참석은해야지 우리딸"

나의대답을듣기도전에 빠르게어머니는 사라졌다

이미 거절할수없어져, 배나 채우자는 의미로 음식테이블에 가서 우적우적 신경질을 내며 배를채웠다. 역시 황태자생일이라 음식에 신경쓴게 확실히느껴졌다. 귀족들은 체면때문인지 간단한 와인이나 치즈종류만 먹었고 난 소스가 잔뜩 올라간 닭요리나 샐러드를 공약했다. 먹다보니 벌써 이틀째인데 나의상사 레이를보질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오늘도 일하나 싶어 먹던음식을 주섬주섬 손수건에 챙겨넣고 제1과학관으로 발걸음했다

[작품후기]

깜찍둘맘님,레드문101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메모장에서 옮기다보니, 잘못된 붙여넣기때문에...ㅜㅜ 중복으로 올라갔네요 수정했습니다.

재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춤법은 수정한다고 하는데 ㅜㅜㅜ 아직도 많이 부족하네요 ㅜ

^^^

5화 시작

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과학관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아직도 일하시는중이에요?"

갑작스런 나의 등장에 레이는 놀란듯 눈이 커져서 말했다.

"네"

"어제도 안보이시고, 오늘도 안보이셔서 한번 와봤는데, 여기계시네요"

난 주섬주섬 무도회장에서 가지고 온 음식들을 풀면서 말했다.

"식사하시는걸 못봐서 혹시 챙겨와 봤는데..혹시 괜찮으시면 드실래요?"

레이는 내가 늘여놓은 음식을 한참 보더니, 머뭇거리며 과일만 집어 먹었다.

오물거리는 그의 모습이 신기해서 나도 모르게 빤히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부끄러움에 앞에 노인 음식을 먹기시작했다.

"근데 왜 오늘도 여기서 일하고 계세요?"

"무도회는 재미없으니까요"

'아~'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거리며 수궁했다.

"......그리고, 향수냄새도 너무 심하고, 주변에 여자들이 너무 불편해서..."

같은 여자인데도 가끔 심하다고 생각될때가 있었는데, 남자인 레이는 더 싫었던게 분명했다. 평소 과학관에만 있어 볼 수 없는 그의 외모에 분명 미혼여성들이 이때다 싶어 더욱더 몰려들것이 눈에 그려졌다.

레이는 그때의 일이 생각났다는듯 눈을 찌푸렸다.

"매번 생각했던 건데 말 편하게 하세요~ 엄연히 제 직속상관이신데.."

"이게 편합니다"

"제가 불편해서요~ 실례가 안된다면 몇살이세요?"

"..............18살"

머뭇거리던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눈을 피하며 말했다.

"저랑 동갑이네요~ 그럼 말편하게 해도 되는데.."

"...............화안내요?"

"왜 화를내야되는데요?"

"내가 당신을 속였으니까?"

레이는 먹던 과일까지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언제 저한테 나이 말하신적 있었나요?"

그는 단지 레이라고 이름만 말했을뿐, 나이는 따로 말한 기억이 없었다.

머리를 갸웃거리며 생각해 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건 아니지만, 대부분 화를 내더라고요"

그는 씁쓸하다는듯 말했다.

아마 많은 사람들중 잘생긴 외모와 어린나이에 이용해 먹거나 자존심상한다는듯 굴었을께 뻔했다.

장세휘시절 나이가 어리다거나, 동갑인데 상사일 경우도 겪어봤다. 심지어 더 안좋은 경우도 겪어봐서 레이의 경우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어짜피 제 상관이신데 편하게 대하라고 물어본거였어요~ 다른의미는 없었어요, 몇살때부터 여기 계신거였어요?"

계속 나이얘기를 하면 불편해하는거 같아 살짝 주제를 돌렸다.

"과학관으로 들어온건 10살쯤 됬어요, 그전까진 칼리아 공작저에 있었죠"

'거기서 왜 그사람이 나와? '

레이와 말할수록 자꾸 궁금했지만 더이상 물어보는것도 실례일꺼같아 물어볼수 없었다.

"앞으로 잘부탁드려요~ 전 여기 온지 3개월정도 밖에 안됬잖아요"

손에 묻은 기름기를 옆에 있던 종이에 닦고 손을 내밀자 레이는 빤히 보다 수줍게 내손을 잡았다.

그와는 왠지 오래 볼꺼같은 예감이 들었다.

잘생긴남자와 친하게 지낸다는건 언제나 새롭고 짜릿한 기분이였다. 거기다 그의 웃는얼굴을 같이 지낸지 3달이 넘도록 처음봤다. 오늘은 기분좋게 잠들수 있을꺼같아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갔다.

"루나님!! 루나님 여기계세요?"

밖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에 황급히 나가보니, 하인 하나가 옷꾸러미를 들고 나를 찾고 있었다.

"브라이트 남작부인께서 꼭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옷꾸러미를 전달받아 뒤적거리니 짧은 메모가 나왔다.

-루나, 아무리 찾아도 니가 보이질 않길래. 내일은 꼭 무도회에 참석하길 바란다 -

전체적으로 핑크빛이 도는 기본바탕에 풍성한 레이스, 가슴엔 커다란 리본과 그안에 박힌 브로치까지.. 정확하겐 어머니 취향이였다. 보석상자와 구두까지...

왕실에 오면서 귀걸이는 커녕 비싼 악세사리는 착용하질 않았더니, 오랜만에 보는 것인데도 반갑지 않았다.

"오늘은 드레스 입으셨네요~"

한달 동안 하루도 빠짐 없이 보던 하인 중 하나가 아는척해왔다.

"마지막 날이잖아...."

마지막날이라 그런지 처음 참여하는 귀족들은 없었다. 그래서 하는일이 거의 없어진 난 의자에 앉아 드레스가 구겨지던 말던 신경도 안쓰고 넋놓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루나! 내가 준비한 드레스를 입었구나, 역시 잘어울려"

내가 일이 끝나기만은 기다렸다는듯 어머니는 나를 끌고 무도회장으로 들어갔다.

[작품후기]

바람부는목련님, 깜찍둘맘님,kingj2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항상 재밌게 읽어주시고,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하구요..

스토리는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글솜씨가 없어서 더딘거 같아 혼자 지웠다 썻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ㅜ

내일은 현충일이라서 쉽니다~

^^^

5화 시작

이곳이 한국이였다면 샵에 가서 머리와 메이크업을 받고, 백화점에 가 비싼 명품 원피스와 구두, 악세사리에 가방까지 매고 고급진 호텔라운지에서 와인을 먹고 있었을껀데,

아쉽게도 그때의 난 죽고 허리를 미친듯이 졸라매고 있는 코르셋에 나풀거리다 못해 팔을 펄럭거리면 날라갈거같은 드레스를 입고 있는 18살의 루나 벨 브라이트였다.

'도망갈까, 아직 어머니가 계시니 중간에 잡힐수도 있겠다'

어머니가 계시는 곳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저멀리 어느 귀족부인들과 하하호호 하고 있었다.

무도회장의 꽃인 음식테이블에 가서 와인을 들고 케익을 먹던중 제니가 보였다.

"제니!"

"루나! 오늘 너무 예쁘다 하마터면 못알아볼뻔했잖니..."

오늘도 다크써클 짙게 내려앉아 누렇게 뜬 얼굴로 말했다.

가족 외의 다른사람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으니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크음.. 고마워 , 식사는 했니?"

괜히 쑥쓰러워져 나는 말을 돌렸다.

"아니......오늘은 늦잠까지 자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이시간까지 일하고 있었네.."

제니는 울먹거리며 말했다.

'오....저런'

울먹거리는 그녀가 너무 안타까웠다.

난 바로 주변에 있는 음식들을 제니 주변으로 가지고 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입크기로 잘게 잘랐다.

"먹고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했어, 다 먹고살자고 하는 짓인데, 안보이게 이쪽에선 내가 가릴테니깐 얼른 먹어"

"루나..."

제니는 큰 감동이라며 날 바라보다 눈앞에 놓인 음식들을 먹었다.

3일내내 서있던 제니는 귀족들이 속닥거리던 얘기를 나에게 들려줬다.

누구네 집 귀족영애는 잘생긴 남창들 수집하는게 취미라는둥, 아는게 많다고 소문난 영애는 사실 아는게 없다는둥,,그러다 제니의 음료가 다 떨어진걸 보고, 제니와 와인이라도 할 생각에 와인을 들고 조심조심 걷고 있었다.

와인에 정신이 팔린틈을 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 어깨를 살짝 부딫치더니 손에 들고 있던 물을 내 드레스에 흘렸다.

"아차거워"

"주위 좀 잘 살피고 다니시죠 영애?"

드레스를 보다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쳐다보니, 이미 작정한듯 팔짱을 꼬고 한쪽 입꼬리를

올린채 웃고 있고 있었다.

그여자는 지난번 중앙회의실에서 나에게 말을 걸었던 여자였다.

계획적으로 날 엿맥이고 싶은가본데,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한쪽손의 와인을 놓쳤다.

"까악"

가까이있던 그여자의 드레스는 순식간에 붉은 색으로 물들였다.

자신만만하던 여자의 얼굴이 분노와 당황함에 붉어졌다.

"죄송해요~ 아시다시피 제가 주위를 잘 못살펴서...."

점점 번져가는 얼룩으로 그녀는 내가 한 말따윈 신경쓰지 않고, 와인을 지우기 위해 황급히 사라졌다.

'별것도 아닌게....'

다시 와인을 들고 제니 옆으로 가서 수다를 떨었다. 한참을 재밌게 수다를 떨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저기...영애..치마가 젖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내미는 손을 거절할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가만두는 사람이 없군'

손수건을 대충 문지르고 있는걸 보더니

"저쪽 휴게실로 가시면 제가 가지고온 수건이 있는데..."

두번은 부담스러워 거절하려고 보니, 내 드레스를 보고 속닥거리는게 느껴져 하는수 없이 휴게실로 들어섰다.

휴게실에는 이미 누군가 있었고, 남자였기때문에 다시 돌아 나갈려는걸 여자가 막았다.

"이렇게 둘이 있는시간을 만드는게 어려웠어"

"아버님 저는 밖에서 망을 보고 있겠습니다"

뒤를 돌며 말한 이는 진상남작이였다.

그리고 문을 막아선 여자는 진상남작과 닮은 여자였다.

이제야 함정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된 나는 머리가 아파왔다.

여전히 한손엔 와인을 들고 있었는데, 그여자가 나가기전에 얼굴에 부어버렸다.

"까악!"

아침드라마의 부자집엄마가 된느낌이였다. 그녀는 차마 와인을 닦지도 못하고 황급히 사라졌다.

"여자면 고분고분 조신히 집에서 몸치장이나 하다가 결혼이나 하지!!!! 왕실공무원이라니!!!!주제도 모르는....."

"시마 남작님...조금 진정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

"감히 니까짓게 나에게 명령하는게냐!!!"

나의 말에 더욱더 흥분한 그는 나를 때리려고 달려들었다.

그를 피하려고 뛰어다니며 밖에까지 들리게 큰소리로 외쳤다.

"여기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ㄱ...그만하지 못해!!!"

바로 코앞에 그의 얼굴이 나타나자 빠르게 구두를 벗어 뾰족한 쪽으로 그의 얼굴을 내려쳤다.

"악!"

진상남작은 자신의 얼굴을 두손으로 가리며 쓰러졌다.

"진정하라고 했지! 첫날부터 짜증나게 굴더니!!!"

그틈을 타 그를 항해 구두굽을 미친듯이 내려쳤다.

비명을 지르던 그가 조용해지고, 누군가 내손을 잡았다.

칼리아 공작이였다.

멈칫한 난 구두를 들고 일어나 머리카락을 넘겼다.

"휴.. 쫌 늦으셨네요"

칼리아 공작은 그런나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곤 말했다.

"이젠 어쩔셈이지?"

"밖에서 제가 소리지르는걸 들으신분들이 많을꺼라고 생각해요~ 설마 제가 남작님을 이렇게 만들꺼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저 좀 도와주세요........ 목격자가 되어주세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공작에게 말했다.

만약 내가 저 진상남작을 두둘겨 팼다고 공작이 증언한다면 인생 한번 재대로 꼬이는거다.

적어도 공작이 조금만 일찍들어왔더라면 상황은 달라졌겠지만 이미 늦어버린거 빠른 수습만이 생명이였다.

"그럼 나는 무슨 이득을 볼수 있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흐음...."

공작은 손가락으로 입술주변을 만지며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다.

"좋아 "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사들이 들어와 진상남작을 끌고 가버렸다.

기사와 함께 나가려던 공작은 뒤를 돌아보며 나에게 말했다.

"조만간 연락하도록하지"

공작의 말에 점점 나의 계획이 멀어져가는 순간이였다.

[작품후기]

깜찍둘맘님,바람부는목련님,레드문101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재밋게 봐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조금더 길게 쓰고 싶지만 ㅠㅠ 자꾸 짧네요 ㅜ

^^^

5화 시작

폭풍같았던 황태자의 생일이 끝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진상남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아보면 알수 있었지만 꿈자리가 사나울꺼같아 일부러 알아보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여전히 집무실에 틀어박혀 본인할일만 하던 레이가 고개를 들고 까딱 인사했다.

변화된 일상이였다.

살짝웃으며 레이책상앞에 아침에 만들었던 사과주스를 내밀었다.

"통 아침에도 멀 드시는걸 못봐서요..지난번에 과일은 쫌 드시는거같아 준비해봤어요~"

레이는 사과주스를 뚫어져라 보더니 나의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고마워요~"

귀여워귀여워 !!!!!

역시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되

아침부터 횡재한 기분으로 우편물을 분리했다.

이번 무도회를 통해 우편물앞에 있는 문양이 어디 가문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는데, 하나같이 레이앞으로온 우편물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가문이였다.

"이렇게 답장하지 않고, 버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나의 말에 레이는 얼굴을 단번에 찌푸리고 말했다.

"예전에 한번 멋모르고, 공작님을 따라 방문했었는데 여간귀찮게 구는게 아닌지라 그뒤론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그럼 제가 정중히 거절하는 답장이라도 쓸까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레이는 우편물에는 관심없다는듯 다시 책에 코를 박고 무언가 열중히 써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분류한 우편물을 가지고 무도회동안 생긴 나의 책상으로 가 우편물들을 차례대로 열어보았다.

「존경하는 조우남작님께

요즘 날씨가 선선하니 아주 좋습니다.

남작님께서 저희 크림슨가문에 방문하여 주신다면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오신다고만 하신다면 아무걱정없이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크림슨 후작-」

「친애하는 레이님께

몸은 건강하신지 잘지내시는지 저는 늘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 보냈던 서신의 답장이 없으신걸 보니 많이 편찮으신거같아 저희가문의 최고 의사와 함께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저는 언제든 괜찮으니 불러만 주신다면 바로 찾아 뵙겠습니다. -브릭스후작-」

대표적인게 이 두가문이였는데, 하루에 하나씩 보냈다. 얼굴한번만 보여주면안되냐는 둥, 보고싶어 죽겠다는둥 정말 눈이 찌푸려질만한 이야기가 많았다.

"연애편지도 아니고 이게 머람..."

"그런 저급한 편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물품 좀 가져다 주세요"

레이는 메모를 내밀었다.

거기엔 빼곡히 적혀져 있는 물품들을 읽으며, 왕가에서 키우는 온실과 물품1과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루나님!!!!! 한동안 안보이셔서 그만두신줄 알았습니다"

물품을 정리하던 사람들이 몰려와 반겼다.

"내가 황태자전하의 탄생일 도와드리러 갔을수도 있다고 했잖아"

"네~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몇달동안 레이님을 도와드릴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목록중에 조금씩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조금씩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모르는 약품들이 워낙 많다보니, 보면서 공부를 하려고 받아왔다.

"레이님 여기 메모하신물품들입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아까 마져 하던일을 마무리했다.

최대한 정중하지만 방문할수 없다는 편지를 썼다.

그리곤 아까 받은 약품과 식물들을 펼쳐놓았다.

이름만 가지곤 그의 효능을 모르기때문에 서재에 있던 책도 꺼내들고 적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레이를 도우기 위해선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했다.

어느정도 분위기도 익혔고, 오래 편하게 일하기 위해선 공부해둘께 한둘이 아니였다.

멀리서만 보던 도서관은 가까이 보니 꽤나 낡았다고 생각했는데, 안에는 잘 꾸며 놓았다.

"제1과학관 소속 루나 벨 브라이트라고 합니다. 책을 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앞에 보이던 사서를 붙잡고 물어보았다.

"원하시는 분야가 어떻게 되십니까? 책을 가지고 오시면 신분패와 주시면 저희가 기록을 남깁니다"

'그건 어딜가든 비슷하구나'

"혹시 언제까지 도서관을 열어놓나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문을 닫는 일은 없습니다"

그날부터 퇴근후에 도서관으로 출근했다. 레이가 가지고 있는 책들은 거의 전공책 수준에 중간중간 다른대륙언어가 섞여있어 내가 읽기엔 너무 어려웠다.

그러는동안 사서들과도 친해졌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루나님"

배고픈 시간에 와서 가끔 간식거리를 같이 나누어 먹기도했다.

"루나님 혹시 그얘기 들으셨어요?"

뿔테안경을 쓴 사서하나가 쿠기를 내려놓더니 나에게 소근거리며 물었다.

덩달아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작게 물어봤다.

"무슨얘기요?"

"여기서 유령이 나온대요"

'잉? 왠유령.......?'

"저 여기 늦게까지 있는다고 겁나게 해서 쫓아내려고 하시는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저희야 어짜피 교대로 한명씩 밤에 남아있지만, 몇일전에도 코니가 여기서 유령보고 졸도한걸 다음날 제가 와서 발견했다는거 아닙니까..!!루나님도 여기 늦게까지 계시니깐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들은 쿠기를 다 먹더니, 급하게 퇴근준비를 하더니 사라졌다.

어느새 밖은 깜깜해져 있고, 주변엔 사람도 얼마 안남았다. 보통때라면 나도 저사이에 끼어 열심히 책을 읽었겠지만 귀신얘기를 듣고나니 서늘한 기분이 들었다.

'이런...다음부턴 쿠키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겠어'

[작품후기]

바람부는목련님,깜찍둘맘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부족한 솜씨인데도 읽어주시는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장세휘 서른다섯에 루나 벨 브라이트 열여덟살 도합 쉰셋의 중년의 나이지만 유령이라던가..귀신이라던가... 치가 떨리도록 싫었다.

장세휘시절 어릴때 TV에서 보던 전설의 고향이나 상영이 끝나 TV에서 해주던 공포영화를 잘못본 기억때문에 커서도 절대 보지 않던게 공포영화였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귀신이 나온다는 흉가 이런곳은 늘 피해다니고 듣지도 않았다.

그러다 보니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되살아나는 공포심에 당분간은 도서관에 오지 말아야 겠다며 짐을 챙겨들고 빠르게 도망치듯 나왔다.

한달내내 퇴근후엔 도서관에 가던게 그새 익숙해져서인지 오랜만에 날이 저물기도 전에 온 집은 어색했다.

"흠!흠! 집에오니까 좋다"

일부러 혼잣말을 했다. 거기다 더 과장되게 행동했다. 물을 마시고 물컵을 쿵소리가 날정도로 테이블에 내려놓거나, 걸어다닐때도 발을 크게 구르면서 쿵쿵소리를 냈다.

'난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

원래 생각나게 하고싶지 않은것을 떠올리는게 싫어 잡생각을 할수록 더 유령생각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거기다 점점 상상과 합쳐저 머리속에는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있었다.

'아 오늘 잠은 다 잤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잠이 오질 않았다.

밤새 뒤척거리다 결국 뜬눈으로 밤을 새곤 출근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힘없이 인사하는 날 보며 레이가 흠칫놀랬다.

"...............어디 아프세요?"

"아뇨.. 잠을 못자서..."

오늘도 잔뜩 쌓인 초대장과 우편물을 분리했다.

"혹시 도서관 유령얘기 아세요??"

레이는 골똘이 생각하다 생각났다는듯 말했다.

"아... 몇일전에 거기서 졸도한 사서한명을 진찰한 적이 있어요 말도안되게 유령이 있다면서...."

"................진짜로 유령이 있을까요?"

나의 말에 레이는 아직도 그런게 있는걸 믿는 사람이 있냐는 얼굴로 아무말 없이 쳐다보았다.

".......... 혹시 치안대에 지원요청을 의뢰할수 없을까요?"

"사람이 쓰러졌으니 가능은 하겠지만, 유령이란 말을 넣으면 아마 비웃음 당하지 않을까요?"

"하아... 그러겠네요, 도서관 사람들과 상의해봐야겠어요"

일찍온다고 온 식당엔 여전히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다. 높은 계급을 가진 공무원들은 집무실로 음식을 배달받지만 말단인 공무원들은 식당을 이용해야 하는 룰이 있었다.

레이는 과학관에서 생활하다보니 전용 하녀가 3명은 있었는데, 늘 식사때가 되면 알아서 음식이 배달되었다.

음식을 손에 들고 빈자리를 찾으려 두리번거리는데 누군가 내이름을 불렀다.

"루나!!!"

거의 몇달만에 만난 아리엘은 살이 몰라볼정도로 쪄있었다.

"아리엘! 오랜만이다..! 제니는 그래도 간간히 마주치는데...안본사이에 건..강해보인다"

살쪘다는 말은 여자에게 큰실례라 살짝 돌려말했다.

아리엘은 나의말에 크게 웃었다.

"하하하하 못알아볼정도로 살이 찌긴했지!! 우리부서엔 여자들이 대부분이라 이것저것 주전부리를 많이 먹었더니 순식간에 이렇게 됬어.. 일도 편하고 사람들도 편하니깐 . 지금입고 입는 제복도 새로 맞춘거야"

"...사람들이 좋아서 다행이다"

"넌 레이남작님 밑에서 일 할만한가봐 우리부서 사람들은 루나가 얼마동안 버틸지 내기까지 했다니깐"

아리엘은 처음 교육받았던 한달동안은 참 소심하고 귀여운 아가씨였는데, 어떻게 몇달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탕하게 변해있었다.

"잘해주셔, 내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지"

"루나 너라면 잘할꺼라고 생각했어, 아참 요즘 그 소식은 들었어? 사람들만 모이면 그얘길 하던데..."

"도서관 유령사건?"

"너도 알고 있었구나..예전에 공무원 하반기 정규시험에서 떨어진 귀족하나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사다리에서떨어져죽은 귀신이 죽은지도모르고 돌아다닌다더라,,,,몇일전에 또 도서관에서 기절한 사람이 발견됬다면서.. 벌써 7명째잖아, 난 소름이 돋아서 도서관근처엔 얼씬도 안해."

"아리엘!!!! 다먹었음 가자!!!"

뒤에서 아리엘을 부르자 아리엘은 남을 빵을 급하게 입에 넣고 일어나며 나에게 말했다.

"루나, 너도 조심하라고..."

그녀는 신신 당부하듯 나에게 말하곤 동료들과 사라졌다.

아리엘의 말까지 들으니 입맛이 사라졌다. 꾸역꾸역 수프를 마지못해 먹곤 조용히 일어나 도서관을 향했다.

"루나님..이시간엔 무슨일로?"

"어제 그런얘기까지 들으니 무서워서요... 치안대에 지원요청은 하셨나 해서요"

"안그래도 오늘부터 정찰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사서의 말에 어제밤의 고생이 생각나지 않은듯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오늘부터 다시 도서관에 와도 되겠네요~!!!"

퇴근시간이 되자마자 부랴부랴 도서관으로 향했다 자고로 고기와 공부는 중간에 끊기면 흐름이 막히니까 꾸준히 하는게좋은거다

"아무래도 사람소행같지않아보여서인지, 2명밖에 지원나올수없답니다 저기보이시죠? 혼자어슬렁거리는사람"

하얗게질린 사서가 날보자 위로했다

"두명이라면서요? 왜혼자에요?"

미리 눈여겨봤던 책을 찾아들고 자리에 앉으며 물어보자 사서는 큰한숨을쉬며 말했다

"교대근무랍니다"

도서관에 유령이나온다는 소문때문인지 늦은시간까지 앉아있는사람이 많지않았지만 치안대에서 보초까지 서준다는말에 손가락에 꼽을정도의 사람은 앉아있었다

왠지 안심스러워서 오늘도 레이한테 받은 메모의 풀이름과 효능에 대해 책을찾아보며 적어가고있었다

한참 열공모드로 공부하고있던차에 분위기가 조용한거같아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니 나밖에 남지않았단걸 알게되었다

낮엔 아무렇지않던 도서관의 분위기는 밤이되자 으스스하게 변해있었다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면서 공포영화의 첫번째법칙인 혼자있음 죽는다는생각에 빠른걸음으로 도서관복도로 나왔다

'뚜벅뚜벅'

유독 크게울리는 구두소리에 침을 크게삼키고 손에쥔 두꺼운 책을 품에 꼭쥔채로 걸었다

입구가 가까이 보이자 안심이 되는순간

누군가 쓱하고 소리없이 지나가는 기척이 뒤에서 느껴졌다

공포영화의 두번째법칙인 돌아보면 죽는다는생각이 들면서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려는 목을 억지로 힘을주곤 앞만보고 걸었다

입구가 코앞으로 보이자 더 빨라지는걸음으로 거의 달려가다시피 뛰어 빠져나오려는데 누군가 내어깨에 손을 올렸다

까악!

난그자리에서 주저앉아 눈을감고 두꺼운책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말했다

"저리꺼져! 사라져"

무서워서 뒤는돌아보지도 못하고 혼자 정신놓고 울면서 무슨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나중엔 엉엉울었다

"살려주세요! 엉엉"

"휴"

어딘가 익숙한 한숨소리에 눈물을 닦으며 뒤를 돌아보니 칼리아공작이 서있었다

[작품후기]

선작, 코멘트감사합니다

선거하는날이라 휴일이라 한편더올립니다. 재밌게 보셨음 좋겠네요

응원해주시는 분들 항상 큰힘을 얻고 있습니다

모바일로작성하는거라 오타가심할수있습니다!ㅜ

^^^

5화 시작

칼리아 공작을 봤을때 한가지 생각만 들었다.

'기절하고 싶다'

드라마에선 이럴때 잘도 기절하더니 난 온몸으로 창피함을 느끼고 있었다.

어떻게 왜 매번 저사람 앞일까....

저사람의 노예가 되길 내운명은 바라고 있는것일까...

점점 진정됨을 느낌으로 눈물을 닦고 벌겋게 달아오른 눈주변을 꾹꾹 손으로 누르며 말했다.

"흠흠 여긴 무슨일이세요?"

"하도 흉흉한 소문때문에 불시검문으로 와봤지 그대는 여기 주저 앉아 머하고 있는거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요...저좀 도와주시겠어요?"

칼리아는 한손으로 내 팔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볍게 나를 들어 일으켰다. 처음엔 휘청였지만 다리에 힘을 더 주자 서있을수 있었다.

주변에 떨어져 있던 책들을 마져 잘 정리후에 탁탁 털어 다시 양손으로 껴안았다.

그런 나를 지켜보던 칼리아는 책 제목을 봤는지 나에게 물었다.

"그정도 간단한 지식이면 레이가 알려줄텐데?"

"레이님은 제 상사지만 개인선생이 아니니깐요, 업무적인 일은 가르쳐 주실수 있지만 이런 지식적인건 제가 익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는 꽤나 재미있다는듯 웃었다.

"귀족영애치곤 색다로운 발상인데?"

"그냥 남들한테 폐안끼치고, 있는듯 없는듯 있다가 조용히 저희 영지로 가는게 꿈입니다."

"왕실공무원이 됬는데 후작이나 공작눈에 띄여 혼인하는게 아니라니..꿈이 굉장히 소박하군,"

"죽고싶지 않으니까요, 여긴 말한마디에 사람이 죽을수도 있으니까요"

권력에 눈이 멀은자, 욕심이 도가 지나친자, 멍청해서 이용당하다 죽는자 왕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바치고 그위에 올라간 사람들....

가늘고 오래 살고 싶은 나는 이곳에 오래 있을 생각이 없다. 앞으로 2~3년 안에 나와 자유롭게 살아가리라...

도서관을 나와 정원을 걷고 있는데, 분명 도서관에 불이 다 꺼졌을껀데, 순간적으로 환해졌다가 깜깜해졌다.

나와 칼리아는 도서관 건물을 다시 바라봤다. 하지만 불은 다시 켜지지 않았다.

"보....보셨어요?"

"다시 가봐야겠군, 혼자 갈수 있겠나?"

소문에 의하면 여자에겐 빈틈따윈 남기지 않는다던데... 여기까지 데려다 줬다는 생각에 살짝 얼굴이 붉어질 뻔했지만 그전에 추태를 생각하니, 괜한생각이라 생각했다.

"같이 가시죠, 혼자 있음 죽어요"

나의 말에 무슨 말이냐는 표정으로 서있었지만 그냥 지나쳐 도서관으로 다시 앞장서서 걸었다.

불이 꺼져있는 도서관은 아까보다 더 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꿀꺽'

어느새 나는 칼리아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갔다. 손이나 옷을 잡고 싶었지만 이 무슨 추태인가 싶어 손에 든 책을 손이 하애지도록 꽉 껴앉았다.

복도에는 우리 두사람의 구두소리가 울렸다.

"여기군"

망설임 없이 들어간 칼리아를 놓칠까 싶어 황급히 따라 들어갔다.

여기저기 둘러보는 칼리아가 멈칫하자 갑자기 시커먼 무언가가 튀어나와 칼리아를 공격했다.

칼리아는 나를 자기 뒤로 보내곤 공격하던 것의 팔을 잡곤 무기를 내리쳤다.

빠각 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졌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였다.

깜깜했지만, 사람이란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무기가없어진걸 알자마자

"잘못했습니다"

젊은 남성의 목소리였다.

그는 천천히 밝은 곳으로 나왔다.

나이는 한 13~15 사이쯤 보이고 질좋은 옷을 입고, 얼굴에 윤기가 좔좔 흐르는게 귀족자제인듯 했다.

"누구시죠?"

칼리아 뒤에서 고개만 빼꼼이 내밀고 물었다.

"..........전.... 휴 필레타 가문의 장남 에반입니다"

머뭇머뭇 말하는 그는 칼리아를 힐끔힐끔 바라보았다.

"필레타 가문에서 왜 이시간에 도서관에서 사람이 아닌척 장난질을 하고 있는거지?"

"그...그것이 이번 황실 기사단 모집에 기본소양과목은 아무래도 이곳에서 하는게 잘되서...."

왕실기사단은 1년에 한번 정규시험을 통해 필기,실기 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 실기시험도 까다롭다고 정평이 나있지만 필기시험 또한 만만치 않다고들 한다.

가문이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아들들을 기사단에 함부로 입단시킬수 없다. 한마디로 낙하산은 존재하지 않았다. 황제는 실력주의를 좋아했다.

"그래서 아직 기사로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말에 더 고개가 푸욱 숙여지며 작게 끄덕거렸다.

"아버님께서 절대 들키면 안된다고....... 절대 나쁜의도로 그런건 아니였습니다!!!"

에반은 황급히 말하며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다고 다신 안그러겠다고 울면서 매달렸다.

에반의 큰소리에 밖에 있던 필레타경이 들어왔다.

그는 칼리아와 그의 바지에 매달려 울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보곤 상황판단이 됬는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죄송합니다. 공작님!!! 한번만 봐주세요"

부자지간이서 칼리아의 다리에 매달려 우는 장면은 정말 가관이였다.

아직 왕실기사단도 아닌 아이를 본인마음대로 도서관까지 출입시키고, 다른사람에게 들킬까 유령소동까지....

그들을 보며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던 칼리아는 입을 열었다.

"이미 부상당한 사람도 여러명 나오고, 소문도 황태자 전하까지 알고 계신다. 이사안은 조용히 넘길순 없다. 조용히 자택에서 대기하도록...!!처벌은 그뒤에 자택으로 사람을보내지"

칼리아는 가차없이 그둘을 떼어놓고, 뒤돌아서며 걸어가다 나를 바라봤다

"여기 계속있을껀가?"

"네?! 아닙니다 저도갑니다"

나는 황급히 칼리아를 따라 쫓아나갔다 앞으로 도서관에 마음껏 올수있겠다는 생각에 안심했지만 한편으론 저부자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두사람때문에 놀라 쓰러진사람들을 생각했을땐 결국 저사람들은 가해자일뿐이다

이로써 도서관유령의 작은소동의 끝이였다

[작품후기]

응원해주시는분들 덕분에 힘이납니다

코멘트 선작 추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3화끝부분 대사 조금수정했습니다 재밌게쓰려다보니 급한마음에 너무 이상한ㅜㅜ죄송합니다

닉네임 바꿔서 못알아보시는분들은없으시죠 ,,너무오래된 닉네임이라 바꿨숩니다

^^^

5화 시작

연참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도서관의 작은 소동은 필레타경이 기사소행이 부족해 혼자 공부하는 모습을 다른이에게 보여주고싶지 않아 벌어진 일로 마무리 되었다.

물론 에반이야기는 전혀 빠져 있었다. 몇달 감봉처리 된다는 필레타경은 아마 칼리아 공작에게 무척이나 고마워 할것이다.

몇달 감봉으로 아들의 앞날을 지켜냈으니 말이다.

그뒤로 다시 도서관은 활기차 졌다. 사서들은 다른의미로 바빠졌다.그간 오지 않던 사람들이 몰렸기때문이다.

그들은 차라리 유령이 있을때가 나았다며 남몰래 한숨을 쉬곤했다

이제 곧 상반기평가가 있었다.

하급 공무원인 5~7급들은 일년에 두번 평가시험을 치뤄야했고, 3~4급상급 공무원은 일년에 한번만 평가시험을 치뤘다.

물론 직위를 받은 귀족들은 시험을 보지 않았기때문에 더욱더 악착같이 승급하고 싶어들 했다.

7급 신입공무원들은 처음 1년동안

평균 점수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짐싸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기때문에 다들 예민해 있었다.

우리 부모님이 다스리는 브라이트 영지는 궁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남쪽지역에 작은 소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몇일 전 편지가 도착했다.

「사랑하는 우리딸 루나에게

지난번 무도회때 열심히 일하고 있던 너의 모습은 너무 감동이였단다. 그뒤로 어디 아픈곳은 없는지 이 엄마는 너무 걱정되는구나...곧 상반기 평가 시험도 있는데 건강 꼭 챙기고, 식사도 잘했으면 좋겠구나, 우리딸이 어딜가든 잘하겠지만 혹시라도!!! 만에하나!!! 일.부.로. 시험에 떨어져 돌아올생각은 하지 않는게 좋을꺼같구나... 그뒤에 일어날 일은 상상에 맡기마 난 우리 딸을 믿는단다

건강 잘챙기고 사랑한다 우리딸」

이곳에서 제일 무서운건 엄마라는생각이 들었다.미리 이렇게 협박 편지까지 보내시니 말이다.

몇일간 도서관을 다니며 공부하던 레이의 메모속 약품들은 어느정도 익혔다. 덕분에 잡일은 많아졌다하지만 다른 부서 사람들보단 일이 적었다

레이는 혼자 일했던 시간이 길어 일반적으로 누구와 같이한다는 개념보단 자신이 꼭 할필요가 없는 일을 시켰다.

덕분에 전문적으로 일하는것보단 쉬운 일들을 해나갔다.

나에게도 어느정도 평균점수를 받기 위해선 약간의 공부를 해둬야했다.

이미 도서관은 거의 만석이라 사람들이 많았다

쉽지않겠지만 빈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루나! 여기서 머해?"

무도회 이후 처음보는 제니는 그때 이후로 편하게 지냈는지 짙게 내려온 다크써클은 사라져 있었다.

"오랜만이다 제니, 이제 곧 상반기 시험때문에 공부하러 도서관에 왔지"

"그래? 그럼 저리로 갈래? 아까 우리부서 사람들이 자리 미리 맡아 뒀었거든."

"내가 껴도 괜찮겠어? 괜히 나때문에 자리가 부족하면 어째.."

"걱정마. 여기 도서관 사서들이랑 친해져서 몇자리 더 맡아달라고했거든"

제니의 말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리에 갔다. 이미 몇사람이 와서 공부를 하던중이였는지 제니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자 나도 덩달아 같이 인사했다.

그들은 날 보더니 눈이 커다래져 물었다.

"혹시 레이조우 남작님과 같이 일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맞는데요... 루나 벨 브라이트 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 동기가 조우남작님 부서로 발령났다가 이틀만에 쫓겨났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제후배가 하루만에 울면서 뛰쳐나왔고요"

"아...... 정말 안타깝네요"

"공부하러 오신분들이 왜이렇게 사담이 길어요"

그들은 나에게 더 말을 걸고 싶어했지만 제니가 내앞으로 와 조용히 제재시켰다.

제니는 다른사람들의 눈을피해 조용히 재작년부터 나왔던 시험문제라며 종이들을 넘겼다.

부서가 크다보니, 이런것도 돌려 보는 모양이였다.

이건 그래도 부서들끼리 자기네 식구들만 보는거 같은데, 괜히 제니한테까지 불이익이 올까 제니의 팔을 잡고 다른사람의 눈을 의식해 조심히 물었다.

"제니 나한테 이렇게 돼?? 이건 너희 부서에서 돌려보려고 가지고 온거잖아"

"괜찮아 루나, 안그래도 모르게 한부 더 복사한거니깐 걱정하지마"

"그래도 어떻게 그래..."

"지난번 쫄쫄굶어 죽을뻔한 날 구해준 빚 갚는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봐."

제니는 날 보며 씩 웃었다. 그리고 다시 몰래 다른 한부도 내밀었다.

"이건 아리엘이 받은 자료래. 우리둘꺼 미리 복사해 둔건데, 너 만나기 힘들다고 따로 나한테 맡겨놓은거야 이것도 가져가"

"이런.... 너무 감동이다."

"그렇게 감동이면 나중에 합격하고 샤스프한 베이커리에서 디저트 쏘던지"

"그래, 꼭 살께 고마워"

음료도 같이 사야겠다고 다짐후에

제니와 아리엘이 준 자료를 쭉 읽어봤다.

에드몬트 왕국은 대력 2년에 있었던 커다란 일은 무엇인가, 왕국과 전쟁한 나라는 어디인가. 현재 왕국에 적용되어 있는 정책을 3가지 쓰시오.

대부분 서술형인데, 열심히 외우면 평균점수는 받을수 있을꺼 같았다.

레이는 내가 상반기 시험을 본다며 당분간은 과학관에 오지 않아도 된다며 나를 배려해주었다. 시험에만 집중하라고 해서 몇일을 도서관으로 출근하다시피 했다.

대망의 시험날....

아침부터 다들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였다. 평가시험에서 떨어지면 그것만큼 창피한 일이 없기에 다들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아침에 일찍와 레이의 우편물을 분리한뒤 바로 시험보러 나오던중 레이가 시험 잘보라면서 공부가 잘된다는 볼펜을 부끄럽게 내밀었다.

앞으로도 정의로운 월급도둑이 되기위해 화이팅을 외치며 시험장으로 들어섰다.

장세휘 시절 수능때 이후로 이런 긴장감은 오랜만이였다.

시험은 작년에 나왔던 문제와 비슷하게 나왔고, 그와중에도 대리시험참석자와 컨닝하는 사람이 나와 한바탕 어수선했다.

생각보다 시험은 잘 치뤘고, 시험장을 나오다 에반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에반은 나를 향해 먼저 아는 척을 했다. 난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지 두리번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왠일이세요?"

"조금 있으면 토벌전이라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상반기 평가시험이랑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길래 이번 기사시험에 응시했거든요"

"네~"

에반은 나의 말에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안그래도 지난번 영애를 놀래켜 드려 죄송하다고 꼭 말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니 다행입니다."

"그래요. 꼭 합격해서 기사가 되길 응원할께요. 하지만 다른사람이 들을수도 있으니 그 얘긴 더이상 하지 않는게 좋을꺼같네요"

내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에반은 눈웃음까지 치며 웃었다. 귀여운 리트리버강아지가 생각났다.

에반은 나에게 한차례 더 죄송했다며 인사를 꾸벅하고 사라졌다.

몇시간뒤 중앙행정반 앞 합격자와 불합격자 명단이 붙어 있었다. 불합격자 명단 밑에는 일주일안에 본인집으로 돌아가라는 말도 적혀 있었다.

내이름과 아리엘, 제니 이름까지 확인후에 과학관으로 돌아왔다.

레이에게 볼펜을 돌려주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붙었어요~ 볼펜 빌려주신거 감사했어요"

나의 말에 레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잘생긴 남자의 웃는 얼굴은 언제나 기분좋은 법이였다.

[작품후기]

선작 코멘트 추천 항상감사합니다

다음편으로

^^^

5화 시작

상반기 시험이 끝나자 일주일동안 궁안은 시끄러웠다. 불합격자들의 울음소리와 항의하는 소리에 하루정도는 시끄러웠지만 어린황태자가 직접 나와

"그대들의 실력이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건가?"

그 한마디에 불합격자들은 짐을 싸서 조용히 사라졌다.

이놈의 왕실은 돈이 썩어나는지 행사가 끝없이 이어졌다. 상반기 평가시험이 끝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중앙행정과에서 지원요청 공문이 날라왔다.

「루나 벨 브라이트님

올해 가을 추수전을 위해 사냥전을 개최합니다. 인력이 부족하여, 오늘 오후 중앙회의실로 오시기바랍니다.」

왕국 주변은 땅이 비옥해 농작물을 많이 심었는데 가을 추수전은 농민들에게 아주 예민한 시기다.

주변에 산으로 둘러 쌓여있다보니, 이맘때쯤 곡물을 노리고 야생동물이나 마물들이 종종 논가로 내려와 농민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황제는 몇년전부터 벨라레드 산맥 근처에서 토벌전을 열었다 산맥앞쪽에 여러 내노라 하는 가문들이 참석했다 올해는 기사시험 실기를 토벌전을 통해 뽑기때문에 규모가 남다르다고 들었다

토벌전을 함으로 농민들의 사기도올라가고, 귀족들의 위신을 새워주기위한 방법이였다.

또한 각가문의 레이디들 또한 그기간엔 벨라레드 근처의 벨라신전에 가 그들의 안전과 죽은 동물들을 위해 기도했다.

터덜터덜 중앙회의실로 향하자 지난번 무도회때보단 사람이 확실히 적었다 .

나에게 관심을 두던이들도 사라졌다.

오늘도 피곤에 찌든 행정반소속사람은 나에게 안내종이와 초대장을 챙겨주었다

"이번에 참가하는 귀족명단입니다. 올해 마물들 기운이 심상치않는다 하여 출중한 10가문만 참석하게 했다는군요. 1년에 한번만 참석하다보니, 천막이나 깃발은 각 가문에서 기사들이 챙기겠지만 궁사람들꺼나 혹시모를 약제도 챙겨야 할껍니다 창고는 남쪽 파란건물이니 거기서 챙기시고, 자세한 사항은 종이에 적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일하는사람이 나밖에없는거아냐,'

시종하나가 나를 창고로 안내했다.

작은 연못을 끼고 돌아 도착한 창고는 관리인이 따로없는지 허름했다.

끼익

거친 문소리와 함께 뽀얀 먼지가 우릴 반겼다

콜록 콜록

손수건으로 입을가리며 안에들어가자 겨우 작년에 쓴것인데도 5년은 써서 낡아보이는 천막이 보였다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하는건지 짜증이 났다

나의 표정을 보곤 시종은 급하게 말했다

"이거 아무래도 새로 사야겠네요. 작년에 관리하시던분이 토벌전이후로 사직하셔서 관리를 아무도안했나보네요. 천막은 제가 여기있는갯수만큼 새로 사야한다고 신청하겠습니다. 루나님은 초대장부터 발부하시죠"

"물품이 오면 바로알려줘. 나도 상태는 봐야하니까"

시종은 날 창고에서 밀어내곤 행정관으로 바로가보겠다며 사라졌다.

이번 시종은 빠릿빠릿해서 일이 금방끝날꺼같아 기분이 좋았다.

오자마자 지도와 명단을 보며 초대장을 확인했다.

짧은 동선으로 하루에 두가문씩 방문할계획을 잡고, 지난번 무도회때 받았던 집사서명을 보며 집사이름을 명단옆에 적었다

또한 필요한 물품도 초대장안에 꼼꼼히 적어 같이 동봉했다

시종말로는 가끔 필요한 기본 용품을 가지고오지 않은 가문이 하나씩 나와서 골치가 아프다는말을 들었다.

혹시모를 응급한상황을 대비해 온실과 물품과에 들려 응급약품도 구비해야하기때문에 그곳부터 방문했다

"안녕하세요"

"오전에도 오시더니, 또오신건 처음이네요 혹시 빠트린물건이 있었나요?"

"아니요 지금온건 토벌전 대비때문에 왔어요"

"그놈의 토벌전때문에 저희도 비상입니다 필요한물품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작년 기록을 기준으로 붕대와 천, 작은 기구같은걸 비슷한 갯수대로 주문하고

혹시몰라 여분도 챙겨놓았다 각 귀족들은 자신의 기사들이 챙기지만 왕실공무원이나 이번기사시험을 보는이는들은 각자 챙겨야할때가 많기 때문이다.

물품과 사람과 함께 꼼꼼히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온실로 향했다

온실은 물품과 바로 뒤에 있었는데, 이곳에는 사교계를 위한 꽃을 위한 1온실과 치료를 위한약초가 자라는 2온실, 과일과 차를 키우는 3온실이 있었다.

가끔 레이의 심부름으로 2온실에 오곤 했지만 이렇게 바빠보이는건 처음이였다. 얼른 한명을 붙잡고 필요한 약재들을 적어 두번을 확인후 빠져나올수있었다.

"루나 여긴왠일이야?"

3온실에서 나오던 아리엘과 마주쳤다.

"토벌전 때문에 지원왔지"

"안그래도 3일이나 야외에서 생활한다고 건과일이 필요하다지, 신전에 머문다던 영애들이 마실 차까지 준비해야되서 미칠지경이야"

아리엘은 너무 바쁘다며 울상지었다.

"그래도 우린 직접 참가는 안할꺼같으니 위로삼아야지 아참!지난번 작년시험문제 너무 고마웠어. 제니랑 같이 휴일에 샤스프한 베리커리에서 크게 살께"

"샤스프한? 와 휴일이 기대된다 그리고 이거, 새로나온 건과일인데 한번 먹어봐. 그럼그때보자"

아리엘은 나에게 작은 보따리를 몰래 내밀었다.

그때 앞에가던 사람하나가 아리엘을 불렀고, 그녀는 급히 인사하더니 그를 따라 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다 작은보따리를 주머니에넣고 뒤돌아 걸었다

오늘 할일은 끝이났다.

머리속으로 내일부터 방문해야 할 귀족명단을 기억하며 실수하지않게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작품후기]

선작, 코멘트, 추천 감사합니다

짧지만 잘부탁드립니다

조회수가 4천명이 넘었습니다! 깜짝 이벤트로 주말에도 조심스럽게 올려봅니다 제가 관종끼가있는지 ,,,,요새 글이 팍팍 진도있게 써지내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절 힘이 팍팍나게합니다 부족한글솜씨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께 언제나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각 가문의 영지들은 왕국을 둘러쌓고 가장 가까운 곳이 칼리아 딘 베네치아 공작이 있는 곳이고, 나머진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후작과, 백작의 영지가 있었다.

백작가는 워낙 멀어서 시종들을 시켜 보내버렸다. 월급에 받은만큼만 일하고싶은 직장인이였다. 지난번처럼 꼭 집사의 서명을 받아오라는 당부와 함께...

백작가보단 후작 영지가 가깝다지만 하루 꼬박 걸리는곳도 있어서 단기 출장을 생각하고 짐을 쌓다.

하루를 꼬박 기차에서 보냈다. 숙식도 기차에서 해결했지만 기대이상이였다. 기차에서 내리자 대기하고있던 마차를 타고반나절은 더 가야했다. 아무리 왕실 직원 마차이지만 자동차보단 승차감이 안좋아서 엉덩이도 아프고, 흔들림때문에 멀미가 날정도였다.

끝끝내 헛구역질까지 올라오려할 때 마차가 멈쳤다.

내가 온다는 정보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미 집사와 하녀가 나와 있었다.

"어서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사는 정중하게 나를 맞아주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나도 고개를 숙여 예를 갖췄다.

아리스타후작의 응접실은 오래되보이지만 고급진 가구가 어우러져 웅장함마저 돌고 있었다.

'달그락'

이곳저곳 돌아보던중 시녀 하나가 차를 내어주었다.

"저희 아리스타 영지에서만 나는 차입니다. 피로 회복에 아주 좋지요"

"감사합니다. 이번 토벌전 초대장은 여기 있습니다. 보시고, 여기 서명좀 부탁드립니다. 아놀드 집사님 맞으시죠?"

말을 하면서 작은 가방에서 초대장과 서명 받을 종이를 꺼내 놓았다.

집사는 내가 자신의 이름까지 알고 있던게 놀라웠는지 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난번 무도회도 그렇고, 저의 서명까지 받는게 처음이라 얼굴 한번 뵙고 싶어 응접실로 모셨습니다. 혹시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후작이나 공작가의 집사들은 귀족들이 많았다. 오래전부터 그들을 모셔왔고, 자부심 또한 남달랐다.

"불쾌할 일이 어디있겠습니다. 제가 맡은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바이니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까지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차를 한입 마셨다. 따뜻한 차가 들어가니 멀미도 어느정도 가라앉았다. 집사는 초대장 뒤에 있던 안내종이까지 꼼꼼히 읽어보더니, 종이에 서명을 했다.

"이렇게 꼼꼼히 안내종이까지 준비해주실줄 몰랐습니다"

집사는 웃으며 말했다.

"제가 모든게 처음이라 실수할까 염려되어서요. 그보다 여기 있는 가구들은 조금 특이한거 같네요"

자꾸만 칭찬하는 집사의 말이 부끄러워 차를 다시한번 마시며 말했다.

나의 말이 끝나자 집사는 기다렸다는듯 눈을 빛내며 말했다.

"일도 꼼꼼히 하시는 분은 무언가 다르시군요~ 여기 응접실에 있는 가구는 아리스타 영지에서 자라는 퓨서나무로 아주 튼튼하고 촉감 또한 남다릅니다. 벌써 300년이 넘은 오래된 가구 이지요 디자인도 그당시 수도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다 몇달을 걸려 완성했습니다. 제작과정도 몇년에 걸쳐 아주 신중하게 만들었답니다."

'잘못걸렸다.'

괜히 말을 돌리려다가 된통 잘못걸린느낌이였다. 집사는 나의 어색한 미소에도 계속해서 후작가에 있는 인테리어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아리스타후작의 침실에 있는 인테리어와 가구, 그리고 위치까지 몇시간을 걸쳐 집사는 계속 칭찬했다.

마차를 오래 타서 멀미가 났던것과는 다른 어지러움이 시작되려던 차에 다른 마을로 갈수 있었다.

물론 가기전에 아리스타영지에서 나는 특산품을 사는것도 잊지 않았다.

나머지 두가문인 체이스후작과 에리엘후작가는 무난하게 끝마칠수 있었다.

혹시몰라 대문앞에 미리 나와있던 집사에게 바로 초대장을 넘겨주고, 집사에게 서명받았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디아 후작가에 도착했다.

이곳은 수도안에서도 유명한 곳이였다. 클라우디아 후작은 나라에서 3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 여서, 후작건물자체도 유명했고, 클라우디아 후작의 막내딸인 아만다 벅 클라우디아는 절세미인으로 유명했다.

나도 여자지만 미인은 언제봐도 기분이 좋으니 이왕 온김에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작은 기대도 있었다.

"안녕하세요 왕실에서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이번엔 마다하지 않고 들어갔다. 혹시 절세미인을 볼수 있을까 몰래 두리번 거리며 들어왔지만 화려한 바로크 형식의 인테리어가 독보이는 응접실이 나를 반겼다.

내가 앉자마자 어디선가 시녀가 나와 내 앞에 차를 내왔다.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일이나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초대장과 서명종이를 내밀었다.

"여기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집사는 초대장을 받자마자 종이에 서명했다. 차를 마시며 서명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차에 누군가 응접실로 들어오는게 보였다.

세상에.. 그렇게 아름 다운 여성은 처음 보았다.

벚꽃을 닮은 분홍머리에 커다랗고 맑아보이는 눈.. 오똑한 코, 꽃잎을 머금고 있는 듯한 입술, 피부는 얼마나 투명하고 환한지... 얼굴에서 빛이 났다.

숨도 못쉬고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의 눈빛에 부끄럽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먼길오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전 클라우디아후작의 막내딸 아만다 벅 클라우디아 입니다"

그녀의 인사에 넋을 놓고 있다 말했다.

"안녕하세요 왕실 공무원 루나 벨 브라이트 입니다"

"제가 몸이 약해 평소에 외출을 못해, 왕실이야기를 듣고싶어서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모든지 다 말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난 상사도 레이 한명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없었다. 딱히 일얘기 빼곤 해줄만한 이야기가 없었다.

"죄송해요. 제가 일하는 곳이 제1과학관이라 .........."

"그럼 혹시 칼리아공작님은 만나신적 있으세요?"

그녀는 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이 초롱초롱 해져서 물었다.

"네.. 지난번 황태자저하 탄생일때 뵈었죠"

도서관 유령사건은 간간히 밤마다 이불킥을 부르는 상황이라 말하고 싶지 않았다.

아만다는 황홀한 표정을 하며 또 물었다.

"몇달전 수도에 나갔다 곤경에 빠진 절 구해주셨는데, 그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저에겐 흑마 탄 왕자님이셨다니깐요. 이번 토벌전에서도 잠시나마 만나 볼수 있을지 이 소녀는 기대가 크답니다"

"아하하하하... 네 꼭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아만다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졌는지, 그날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의 은회색 머리카락이 얼마나 휘날렸는지, 허리에 찬 검은 또 그의 팔과 얼마나 어울렸는지, 눈빛으로 사람을 죽일뻔했다는 둥 정말 끝이 없었다.

옆에서 집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말을 계속 들어주다간 하루가 다갈꺼같아 다 식은 차를 한번에 마셨다.

"아직 업무가 끝나질 않아 아쉽지만 다음에 들어야겠네요"

영업용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자 아만다는 아쉽다는 얼굴로 집사와 배웅했다.

아리스타 영지와는 다른의미로 피곤했다.

하지만 아직 한군데가 남아있었다. 아만다가 그렇게 찬양해 마지않은.....

칼리아 공작가가 말이다.

[작품후기]

깜찍둘맘님 코멘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관심이 저에겐 큰힘이되네요

즐겁지않은 월요일 화이팅!

^^^

5화 시작

반나절을 더 달려 칼리아 공작가에 다다르자 마차는 멈췄다. 마차는 질리도록 타서, 당분간은 마차는 보기만 해도 싫을 정도였다.

약간의 토기가 올라오는걸 심호흡으로 가라앉히고 머리를 정돈후 마차에서 내렸다.

이미 마중나와 있는 집사와 시종을 보면서 빨리 서명을 받고 집에가서 따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쉬고 싶은 생각뿐이였다.

"안녕하세요~ 왕실에서 나왔습니다. 집사 제임스 입니까? 여기 서명좀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는 제임스가 아니라 아놀드 인데요. 제임스님은 저희 총괄 집사님이시라.. 지금 안쪽에 계신듯한데, 안에서 기다리시면 모셔오겠습니다."

"아..아닙니다. 초대장만 전달해드리고, 받는 서명이라 집사님께서 해주셔도 됩니다."

"전 권한이 없습니다. 집사님을 모셔 오지요"

'그냥 서명만 해주면 될것을....'

먼가 속는 기분이 들었지만 서명을 받지 않고 갈수는 없었다. 아직도 도서관 사건으로 밤바다 이불을 뻥뻥 차내지만 일은 일이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택의 주인을 본적없으니, 서명만 빠르게 받고 나오면 되겠다는 가벼운 마음이였다.

확실히 밖에서 봐도 커다란 성하나가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올수록 더 대단했다.

정원은 얼마나 넓은지 뒤쪽까지 이어져, 숲을 이루고 있었고, 사람 손 하나 안탄 곳없이 정교하게 가꾸어져 있었다.

응접실 또한 크고 고급스러워 보였다.

딱봐도 비싼 가구들과 하나하나 신경쓴거같은 조명에 심플한 인테리어, 사방을 둘러싼 책장까지...

'심심하지 않게 책이라도 읽으라는건가'

"조금만 기다리시면 집사님을 불러오지요"

그들은 내가 앉자마자 차를 내오더니 사라졌다.

이런 비싼 인테리어 소품을 언제 보겠냐는 마음에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보고 있었다. 물론 절대로 손은 대지 않았다.

괜히 깨지기라도 하면 인생 종치는거다.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자 자리에 앉아 지금까지 갔던 후작가 서명과 명단을 체크했다.

내일부턴 시종이 주문했다는 천막의 상태와 깃발도 볼 생각이였다. 내일 해야할 일들을 차근차근 수첩에 적어넣었다.

차를 한입 마시며 고개를 들었는데, 어느새 온건지 칼리아 공작이 반대편 의자에 앉아 조용히 나를 보고 있었다.

"푸핫"

너무 놀라 뿜었다. 컵에 대고 뿜어서 다행이도 내얼굴에만 튀었다. 손수건을 꺼내 황급히 닦으며 일어나 인사를 했다.

"콜록콜록, 안녕하세요 베네치아 공작님. "

"밝은 곳에서 보는건 오랜만이군."

도서관 유령사건 이후 칼리아를 만나는건 처음이였다.

"여..여긴 왜??"

더듬거리듯 말했다.

"내 집무실에 내가 있는게 당연하지 않은가?"

그는 다리를 꼬며 여유로워 보이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네? 공작님 집무실이요? 제임스 집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제임스 보단 나한테 직접 갔다주는 편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니, 아까 응접실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당연히 손님이 오면 응접실로 안내할줄 알았지...

그는 내게 초대장을 어서 달라는 손짓을 했다.

작은 한숨과 함께 가방에서 초대장을 꺼내 손위에 올렸다. 그러자 그는 그자리에서 초대장을 열어 확인하더니 뒷장의 안내종이까지 꼼꼼히 읽었다.

"이것도 직접 준비??"

"네"

왠지 숙제검사를 맡고 있는 기분이였다. 꼼지락 거리며 대답했다.

"초대장도 건내 드렸으니 그럼 전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초대장도 직접 전달했으니, 서명은 생략해야겠다며 벌떡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가려던 참에 집사가 들어왔다.

듣도 못한 디저트와 함께.........

"오랜만에 오신 손님이신데 조금 더 쉬다가 가시지요"

이미 칼리아 공작은 집사가 가지고 온 차를 음미하며 마시고 있었다.

칼리아 공작도 나에게 눈짓으로 어서 먹으라며 권했다.

머뭇거리며 앉아 내앞에 있는 케이크을 한입 먹었다.

"으~흠"

나도 모르게 콧소리가 나왔다. 정말 맛있었다. 지금까지 먹었던 케이크와는 달랐다. 입에서 살살 녹아 내리는 그맛...

순식간에 케이크를 다 먹고 입맛을 다셨다.

언제 또 이런 고급진 케이크를 먹을 수 있을지 아쉬운 마음이 들어 예의가 아닌걸 알면서도 접시를 박박 긁어 포크를 한번더 입에 물었다.

내가 케이크를 다 먹길 기다렸다는듯 칼리아 공작이 말했다.

"내 여자가 되는게 어때?"

쨍그랑

입에 물고 있던 포크가 떨어지고, 저절로 입이 벌어졌다.

"무...무슨 소릴하시는...."

저 잘생긴 남자가 머라고 하는지 처음엔 잘못들은 줄알았다.

칼리아는 여전히 빙그레 웃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내심장이 터질꺼같고, 얼굴로 열이 오르는걸 느껴졌다.

그동안 우리사이엔 이렇다할만한 핑크빛 분위기따윈 존재하지 않았다.

설마.. 첫눈에 반했나? 생각해보니, 전생이나 현생이나 딱히 연애를 했던 기억이 없었다.

"난 그대가 마음에 드는데.... 내 밑에서 일할 생각 없나?"

'그럼 그렇지, 말을 똑바로 해야지'

그 잠깐사이에 이 남자와 결혼까지 하는 말도 안되는 상상까지 했다 현실로 돌아왔다.

살짝 부끄러워져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흠....전 이미 왕실 공무원입니다."

두근 거리는 마음을 다잡고 차를 마셨다.

다 식은 차였지만 들떳던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런것쯤은 아무 문제 없는거 알고 있을텐데.."

칼리아는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전 2~3년 뒤에 그만두고 영지로 돌아갈 예정이라..."

"거기가서 머 할예정인데?"

"먹고 놀껀데요"

당당한 나의 말에 칼리아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흠.. 내 밑으로 오면 아쉽지 않게 챙겨줄수 있는데?"

"돈은 많아 봤자 저같은 여자한테 도둑이나 사기꾼만 꼬이겟죠... 그정도로 많을 필요도 없고, 가지고 싶지 않아요"

"내 저택의 요리사를 전속으로 주지....어때?"

칼리아의 말에 약간 솔깃했다.

매일매일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를 먹을수 있다니..

하지만 인생을 또 일하는것에 목숨걸고 싶지 않았다.

"꽤나 솔깃했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귀족이라면 명예나 출세, 돈을 바랄줄 알았는데?"

"전그냥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다가 먹고싶은거 먹으러 다니고, 그러다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싶은게 목표라서요...."

"그렇담 내 밑에서 2년만 일한다면 그뒤로 브르노이성에서 평생 놀고 먹도록 해주지. "

브르노이 성은 우리영지에서 가까운 곳이였다.

왕국 일간지에 아름다운 성으로도 꼽힌적이 있고, 절벽위에 지어진 성은 절경 또한 예술이라며 소개된적이 있었다.

어릴때 멀리서 보기만 한곳인데..그곳에서 보내는 먹고 노는 것은 얼마나 짜릿할것인가.

'계약직 직원에게, 이정도라니...'

"크음..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입꼬리가 피식피식 올라가는걸 절제하며 물었다.

"난 내가 눈독드리는건 가져야하는 성미라... 어떤가? 내밑으로 올건가?"

"한가지 걱정되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왕실 공무원이 된걸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그만두는건 어려울꺼같은데요"

상반기 시험때도 어떻게 알았는지 협박 편지를 보내시던 분이시다. 그런데.. 그만둔다고 하면 머라고 하실까.. 상상하는 것 조차 무서워 고개를 저었다.

"그거라면 걱정마. 적당히 병행하면서 일하게 해줄테니..."

칼리아의 말이 끝나자 집사가 종이 두장을 들고 들어왔다. 아까 들어왔던 아놀드 집사가 아니라 처음보는 집사였다. 느낌상 그가 제임스 집사라는걸 알았다.

거기엔 언제 받아 적었는지 방금 말한 조항들이 적혀 있는 계약서 였다.

"난 모든 확실한게 좋아서"

"제신변을 보호해주신다는 조항도 있으면 좋겠군요 무슨 일을 시키실지 모르겠지만..."

"흠...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오늘부터 기사하나를 붙여주지"

공작가에 드나든다면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니, 이정도 서비스는 요구할만했다.

이렇게 투잡할 생각은 없었지만 조금만 고생한다면 노년을 위한 노후대책이라고 생각하기로했다.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칼리아 공작은 가지고 싶은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적당히 먹고 떨어지는게 이득이였다.

꼼꼼히 계약서를 읽고 서명란에 싸인했다. 계약직에, 끝이 확실한 근로계약서였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루나라고 불러주세요"

앞으로 2년간 말입니다.

[작품후기]

글이 써지는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깜찍둘맘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ㅜ

선작,추천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1!!!

즐겁지 않은 화요일..전 언제나 주말만 바라보고 사는 직장이니까요 ㅜ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걱정이네요

^^^

5화 시작

입궁하자마자 꽤나 쌓여있는 레이 앞으로 온 우편물을 정리했다. 그리고 살포시 아리스타 영지에서 가지고 온 특산물 중 퓨서나무로 만든 만년필을 선물했다.

그리고 내가 없는동안 주문해 두었다는 천막을 보러 창고로 향했다.

낡고 허름하던 천막은 어디론가 버리고, 새 천막과 깃발들이 가득 차 있었다.

중앙회의실에 가서 토벌전에 참여하는 귀족들 명단과, 천막, 깃발 준비가 끝났다고 보고했다.

중앙행정관은 고생했다며 손을 흔들어 보였다.

이로서 내가 해야될 토벌전 준비는 끝이 났다. 한동안 조용한 생활을 할수 있겠다며 기뻐했던것도 잠시...

점심쯤 받은 쪽지엔 '방문 요청'이라는 짧은 메모가 있었다. 내가 방문하길 원하는 곳은 칼리아 공작밖에 없었다. 퇴근후 칼리아 공작저에 들렸다.

내가 올줄 알고 있었던 제임스 집사는 이번에도 칼리아공작의 응접실이 아닌 집무실로 안내했다.

"안녕하세요 각하"

"간만에 잠은 잘잤나? 난 토벌전 때문에 바쁠 지경인데, 이시기에 기사시험까지 몸이 두개가 되도 모자랄지경이야"

"힘드시겠네요."

집사가 테이블에 쿠키와 차를 내려 놓는걸 보며 말했다.

어제 먹었던 케이크와는 다르게 겉은 살짝 딱딱하지만 속은 촉촉한 쿠키를 맛봤다.

역시 고급진 맛에 감동해서 또 하나 입에 넣었다.

어떻게 이런맛을 낼수 있는지 한입한입 음미하며 천천히 씹었다.

"........................벨라레드에 자네도 함께 가는게 좋을꺼같군"

쿠키에 정신이 팔려 앞부분은 못들었다. 그래도 토벌전에 같이 가자는 말은 들었다.

말도 안되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각하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저같은 연약한 인간이 그런곳에 갔다가 개죽음 당할껍니다!!! 그리고 저같은 사람이 죽어 봤자 일간지에도 실리지 않을꺼라고요!!!"

"걱정마. 계속 내옆에 있을테고, 혹시라도 나와 떨어지면 다른 기사들이 보호해줄꺼야"

"제가 계약전에 분명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는게 목표라고 했는데.. 하루만에 이러시면 계약 위반아닙니까?"

"안전하다니까 그대의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시 복귀시켜준다니까"

"........ 계약무효는 안되겠죠?"

"당연한걸"

"..........그럼 위험수당이나 따로 챙겨주세요."

울며 겨자 먹기로 말했다.

"그러도록 하지"

털석 주저 앉았다. 사기당한기분이였다.

급속도로 우울해지는 기분을 쿠키로 달랬다.

그럼에도 쿠키는 여전히 맛있었다.

"그럼 토벌전까진 쉬도록"

그는 나에게 더이상 불만은 듣지않겠다는 듯 서류를 보기시작했다. 한숨을 푹푹 쉬며 집무실을 나오자 제임스 집사가 나에게 댁에 가서 드시라며 방금먹은 쿠키를 잔뜩 챙겨 주었다.

토벌전 당일아침은 비가 올꺼같이 먹구름이 잔뜩 낀 날씨였다.

왕궁앞에는 각 귀족들의 기사와 시종, 그들을 마중나와 있는 영애, 기사시험을 치르려 모인 이들과 왕실 기사단까지..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장통이 따로 없었다.

황실정예기사단이 단상위로 오르자 조용해졌다. 그뒤 바로 황제가 올라와 연설했다.

"올해도 개최되는 토벌전에 많은 가문들이 참가해주어서 고맙소. 또한 상반기 기사 시험까지 치뤄져 어수선하겠지만........"

나는 대외적으로 칼리아공작의 하급기사 시험을 지원해주는 역할이였다.

두리번 거리며 칼리아를 찾았다. 화려한 외모에 그는 토벌전을 대비해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주변의 귀족영애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그도 나를 발견했는지 이쪽으로 오라는 손짓을 했다.

사람들을 해치며 칼리아 옆쪽으로 이동했다.

칼리아가 다른사람이 듣지 못하게 작게 말했다.

"꼴이 그게 머야"

"저도 살아야죠."

토벌전에 나도 같이 가야 한다는 말을 들은 다음날 도서관에 들려 「숲에서 혼자 살아가기」 , 「야생에서 필사적으로 살아남기」와 레이에게 부탁해 벨라레드 지도를 받았다.

생명에 연결된 부분은 외우고 그것도 모자라 작은 수첩에 적어 넣었다.

그결과 편하게 입은 사냥복 위에는 겹겹이 입은 옷과 작은 보조가방을 한쪽어깨에 메고, 뒤에는 커다란 짐가방을 메고 있었다.

".........내가 지켜준다니까"

"혹시모를 조난을 대비하는 겁니다"

더이상 날 말릴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한숨을 내쉬며 칼리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 다들 몸 건강히 다녀오길 건투를 비네"

황제의 말이 끝나자 칼리아는 검을 빼들고 맹세를 하자 다른 기사도 검을 빼들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뒤로 귀족영애들이 기사들을 기원하기 위해 만든 손수건을 건네주고 있었다.

바로옆에서 손수건을 받던 기사가 검을 들고 외쳤다.

"그대를 위해 커다란 놈으로 잡아오리다!"

사냥한 마물들은 대부분 마법사의 실험실로 가거나 신전에 바치고, 짐승들은 마음에 들어하는 영애에게 바치며 고백하는게 어느새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다.

도대체 죽은 짐승으로 귀족영애들은 멀하는지 어이가 없었지만 그 말을 들은 귀족영애는 감격했다.

내가 괜히 부끄러워지는걸 느끼며 그둘을 바라보고 있자 어느새 귀족영애들의 손수건 칼리아가 말했다.

"왜 받고싶은가?"

"아뇨. 귀족여자가 죽은 짐승으로 멀할까 궁금해서요"

저 순진한 귀족영애가 직접 짐승의 뿔을 자르고, 가죽을 벗기는 상상을 하다 그만두었다.

"그저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지"

칼리아 옆으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보였다.

몇일전 칼리아와 만나는걸 고대한다는 아만다였다. 여자들의 시선집중을 받고 있는게 칼리아 공작이라면, 남자들의 시선집중을 받고 있는건 아만다였다.

그녀는 부끄러워 하며 칼리아에게 다가왔다. 그 둘이 같이 서 있는것만으로도 번쩍번쩍 빛이 났다.

그둘은 정말 잘어울리는 한쌍이였다.

"안녕하세요 베네치아 공작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만다 벅 클라우디아 입니다."

칼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영애"

그의 말에 아만다는 환하게 웃었다.

그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더듬거리며 아만다가 말했다.

"저... 지.... 지난번 도와주신 보답으로 손수건을 준비했습니다."

주변에서 안타까워 하는 소리들이 들렸다.

칼리아 공작은 빤히 손수건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죄송합니다 영애, 전 손수건은 받지 않습니다"

칼리아는 다시 미소지으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아까보다 더 크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만다는 자신을 거절한 칼리아에게 울먹거리며 최대한 웃음지어 보이며 꾸벅 인사를 하고 사라졌다.

옆에서 보던 내가 다 민망할 정도였다.

사라지는 아만다쪽을 보자 그녀에게로 미혼귀족들이 몰려들었다. 그녀를 가로 막아선건 차기 당주가 될 그녀의 오빠 휴이 벅 클라우디아였다.

이번 토벌전에 참여하는지 그도 갑옷을 걸치고 있었는데, 아만다와 같은 머리색에 칼리아와는 다른 다정한 분위기의 미남자였다.

그는 살짝 칼리아를 째려보곤 자신의 동생을 위로하고 있었다.

칼리아는 모른척 말에 올라탔다.

민망한 분위기에 칼리아가 마련해 준 말에 나도 올라타자 갑옷을 입은 기사가 크게 외쳤다.

"시험보는이들은 이앞으로 오시오. 앞으로 산맥까지 왕실 천막과 깃발을 들고 가는게 첫번째 시험입니다. 숲입구까지 도착하면 거기서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소."

뒤에 있던 기사가 배치가 끝났는지 깃발을 흔들자 칼리아를 필두로 출발했다.

[작품후기]

나물2님,미엔투님,바람부는 목련님,깜찍둘맘님,레드문101님 코멘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코멘트가 지금까지 연재화중 많이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ㅜ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벨라레드 산맥으로 들어서는 입구는 꽤나 차가운바람이 불었다.

이제 가을의 날씨를 만끽하고 있는 수도의 날씨와는 다르게 일찍 찾아온 겨울바람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다.

도착해서 보니, 왕궁에서 출발할때보다 사람이 줄었다는게 눈에 보일정도였다.

"도착한 자들은 나에게 와서 이름을 말해 주면 된다."

그들은 쉴틈도 없이 천막과 깃발을 내려놓자마자 자신의 이름을 말하려 모였다.

첫째날은 이곳에서 하급 기사 시험을 치를 예정이였고, 둘째날부터는 각 귀족들과 숲 더 안쪽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각 귀족들의 기사들과 왕실 시종들은 천막을 치기 시작했다. 기사시험을 보는 이들 빼고 오늘은 쉴 예정이였다.

나는 근처에 있는 호수로 내가 타고 온 말을 데려가 물을 먹게끔 했다. 그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피비린내가 났다.

왕실기사 하나가 그 새 커다란 사슴을 사냥했는지 죽은 사슴피를 천막과는 떨어진 곳에 뿌리고 있었다.

그모습을 보고 있자 칼리아가 옆에 와서 말했다.

"사슴피 냄새를 맡은 육식동물들이 오면 그때 기사시험을 진행할꺼다. 그옆에서 호명된 이름과 채점하는걸 잘 기록 하도록 해"

"네"

칼리아의 말에 근처 커다란 바위 위에 종이와 펜을 들고 앉았다.

피냄새를 맡았는지 곧 여우 한마리가 숲에서 나오자 선발조로 뽑힌 5명이 그앞을 섰다.

각자 빨간색,파란색,초록색,노랑색,검정색 색깔천을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다들 처음엔 머뭇거리며 공격하는걸 주저했지만 빨간색 천을 두른 이가 공격하자 너도나도 때거지로 공격했다.

"빨간색 몸의 균형이 잘 잡혀 있음. 노랑색 근력부족. 주의력 부족 파랑색,검정색 지구력 부족. 초록색 몸을 잘 움직임 노랑색 팔근육 잘사용못함"

부단장이 그들이 공격하는 모습을 보더니 말했다. 난 빠르게 적어 내려갔다.

작은여우라서 시험은 금방 끝났다. 그들은 나에게로 와서 각자 이름을 말했고, 색깔 옆에 이름을 적었다.

멧돼지,여우,사자 크게는 곰까지 나왔고 처음방식대로 시험은 진행 되었다. 다만 큰 동물은 인원수가 8명까지 늘어났다.

시험이 끝나자 기사는 사슴피에 물을 붓고 흙으로 덮었다.

"내일까지 합격자는 상의해서 알려주도록 하지 이만 쉬도록."

시험을 보는 동안 각 막사가 지어졌다.

지금까지 열심히 적은 종이를 가지고 칼리아 막사로 들어갔다.

막사안에는 칼리아공작과 제2기사단장 블리스와 부단장 해리가 있었다.

표를 만들어 한장에 5명의 인적사항과 특이사항 들을 기록한걸 보여줬다.

"흠...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만들어 편하군요"

블리스는 내가 만든 표를 보더니 감탄했다.

"이런 방식으로 기록한건 처음보는군요. 아주 기발해요"

해리도 내가 만든 표를 칭찬했다.

옆에서 칭찬을 계속하자 나도 모르게 광대가 올라갔다. 칭찬은 역시 고래도 춤추게 한다더니 기분이 좋았다.

"자, 그럼 누굴 뽑을지 결정하자고"

칼리아는 나에게 눈짓으로 나가도 된다고 사인을 보내자 바로 막사를 나왔다.

'드디어 자유다'

반나절을 말을 타고 산을 오르고 얼마 쉬지도 못하고 바위에 앉아 받아쓰기를 시키다니... 완전 악덕고용주 였다.

거기다 여자가 몇명 없었다. 의학관에서 지원나온 몇명의 여자와 나, 5명밖에 없었다.

내가 쉴곳을 찾아 두리번 거리니 칼리아 공작 막사를 지키던 기사가 말했다.

"브라이트님의 막사는 바로 옆입니다."

지켜준다더니 막사도 바로 옆으로 배정한 모양이였다.

막사를 들어가기전 손이라도 씻으러 호수를 향해 걸었다.

그러자 어디선가 많이본 얼굴 하나가 말했다.

"브라이트님"

"아.. 필레타님"

에반이였다. 그 반나절간의 체력시험을 합격하고, 두번째 시험까지 치룬듯 했다.

계속된 받아쓰기 때문에 난 사람들의 얼굴도 못보고 머리를 종이에 쳐박고 글씨만 써서 누가 누군지도 몰랐다.

"이렇게 위험한 곳까지 오셨을 줄은 몰랐네요"

"지원 나왔죠. 할일이 워낙 많다보니...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좋은 결과 있길 바랄께요"

"감사합니다"

"음....저와 오래도록 붙어있으면 부정행위라고 생각할꺼에요 이만 자리로 돌아가시는게 좋을꺼 같군요"

이젠 피곤해서 머리가 깨질듯이 아파왔다.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살살 누르며 말했다.

"아..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그럼 전이만"

에반은 급히 사라졌다.

드디어 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막사로 들어갔다. 칼리아가 편의를 봐줬는지 막사에는 아무도 없었다.

출발할때부터 메고 있던 커다란 가방을 손을 뻗으면 닿는 위치에 내려놓고 작은 가방은 여전히 메고 누웠다.

체력이 거의 다한 느낌이였다.

순식간에 잠들었다.

주변의 웅성거림 때문에 잠에서 깼다.

약간 멍한상태로 앉아 있으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일어났군"

언제 들어온 건지 칼리아 공작이 화로 가까운 곳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숙녀가 자고 있는방에 말도 없이 들어와 있다니...'

그의 무례함에 화가 났지만 배고픈게 먼저였다. 배를 채울 생각에 움직이자 어느새 준비 한건지 화로 근처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과일, 육포, 고기가 들어간 스프와 빵이 준비되어 있었다.

생각해보니, 오늘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은 기억이 없었다. 서둘러 앉아 스프를 떠먹었다.

왕궁에서 먹던 그맛은 아니였지만 야외에서 이정도면 양호한 수준의 맛이였다.

내가 먹기 시작하자 칼리아도 앞에 있던 과일하나를 집어 먹기 시작했다.

"식사 하라고 말하려 들어왔더니, 자고 있길래......"

"첫날부터 너무 부려먹는거 아닌가요? 계약조건을 수정해야 될꺼같아요"

"너무 잘해내니 그런거지, 앞으론 이런 일없을꺼야 덕분에 합격자도 빨리 나오고 좋지 멀"

화사하게 웃는 그의 얼굴에 죽빵을 날리고 싶었다.

자고로 잘생긴건 3년은 간다더니, 3년은 커녕 하루만에 식어버릴 노동이였다

"저택으로 돌아가면 당분간 주방장에게 최고급 디저트 준비해놓으라고 할생각이였어."

나의 살기를 느꼈는지 그가 덧붙여 말했다.

"전 숲 안쪽까진 절대안가요. 때려죽여도 안갑니다"

"안그래도 여기서 대기하라고 할참이였어. 아니면 내일 탈락자들과 돌아가도 되고"

"아니요 아까 잠깐 호수주변을 보니까 레이님이 평소에 자주쓰시는 약재들이 많아 그거나 뜯어가려고요"

"그럼 오늘밤은 편히 쉬도록"

칼리아는 내가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나갔다.

오늘은 체력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일찍 잘 생각이였다.

준비된 커다란 가방에서 여기 오기 전에 만들어 둔 최대한 물에 강한 천으로 만든 침낭을 꺼냈다.

아무리 입구지만 습기때문에 눅눅할수 있어 특별주문으로 만들어 둔거였다.

처음 주문했을때 주인장의 돈주니까 만들지만 이런 이상한걸 왜 만드냐는 얼굴이 기억나 풋하고 웃었던 기억이 생각났다.

뒤척거림없이 눕자마자 깊게 잠들었다.

[작품후기]

나물2님, 깜찍둘맘님,노란후리지아님,바람부는 목련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무리되지않은 선에서 올리도록할께요. 건강까지 걱정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나름 맞춤법은 네이버에 쳐보면서 쓰고있는데 ㅜ 틀리다니 더욱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읽을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5화 시작

특별 제작한 침낭과 따뜻한 화로의 조합은 최고였다. 눅눅한 습기 없는 그날아침은 최고의 상쾌함으로 기분좋게 일어났다.

침낭을 정리하던 중 시종이 들어와 간단히 챙겨주는 아침을 먹고 나오니, 새벽에 이슬이라도 내렸는지 땅은 촉촉히 젖어 있었다.

내가 자고 있는 동안 기사시험에 합격한 자들이 나왔는지 커다란 나무기둥에 합격자 명단이 나와 있었다.

그곳에 모여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한쪽에선 기뻐하는 무리와 다른쪽에서는 침울한 분위기의 무리가 있었다.

그중 에반은 합격했는지 즐거운 얼굴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가서 축하한다고 말할까 하다 씻지 않은 얼굴로 인사할수 없어 모른척 뒤돌아 섰다.

아침안개가 뿌옇게 끼어 그 위로 햇빛이 부서져 호수위를 금빛으로 뿌린 모습은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한편으론 뜨거운 수증기 같아 보이는 호수의 물에 손을 살짝 담가보니 당연히 물은 차가웠다.

'그럼 그렇지'

간단히 씻고 나서 잠을 깰겸 호수 근처에 자리 잡고 앉았다.

주변에는 레이가 자주 사용하는 전태풀이 잔뜩 나있었다 손으로 뜯으며

멍하니 앉아 오늘은 레이에게 갖다 줄 약재나 뜯으면서 농땡이 필 생각에 살짝 미소지었다.

"여기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지 몰랐군"

칼리아가 발소리도 없이 옆에 와서 말을 걸었다.

깜짝놀라 반사적으로 발로 걷어 찰뻔 했다.

살짝 옆으로 피한 칼리아 때문에 균형을 잃고 호수로 미끄러질 뻔한걸 칼리아가 잽싸게 허리를 잡아 구해줬다.

"놀랐잖아요"

"난 줄 알고 발길질 하는거같았는데,,,."

칼리아는 내허리에 있던 손을 치우며, 눈을 흘기며 말했다.

'예리한 사람같으니.....'

"으흠 그럴리가요."

시치미를 때며 환하게 웃으며 다시 앉았다.

"채비가 끝나는대로 숲안쪽으로 출발할꺼야. 진짜 같이 안가도 되겠어?"

"거기가 더 위험 할꺼 같네요. 갔다오세요 여기서 기다리면 돼죠"

"그래. 그럼 해리는 여기서 대기할꺼니까 같이 있도록 해

그런데 그가방은 아직도 메고 있나?"

"네 어떤 일이 일어날지모르니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가 막사로 가자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나도 곧 따라 일어났다.

원래대로라면 왕궁에서 벨라레드 산맥까지 바로 게이트를 타고 왔지만, 기사 시험때문에 일부러 말을타고 왔기에 숲 안쪽까진 게이트로 가게 되었다.

마법진위로 하얀 게이트가 개방 되어 반대편 숲안쪽 까지 보이자 귀족들과 기사들이 이동했다.

어느정도 이동이 끝나 칼리아가 마법진을 밟으려던 순간,

마법진이 빛나기 시작하더니 숲 여기저기서 빛이 나더니, 폭팔하기 시작했다

말들은 놀라 사람들을 떨어뜨렸고 여기저기서 비명이 난무했다.

방금전까지 평화롭던 숲속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지고 전쟁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광경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폭음과 함께 귀에선 삐-소리만 들리고, 슬로우모션처럼 사람들이 천천히 날라가고 살점이 터졌다.

이 갑작스런 상황에 멍해졌다.

".....나.! ...ㄹ.......나! 루.......나!"

누군가 내 어깨를 정신없이 흔들자 흐릿하던 초점이 칼리아 공작에게 향했다.

"정신차려"

"카......칼리아? "

그는 잠깐 멈칫하더니 그대로 내손을 잡고 빛이 나지 않은 쪽으로 달려나갔다. 나는 그가 이끄는 쪽으로 이끌려갔다.

'쿵...쿠쿵'

설상가상으로 폭음 때문에 주변의 몬스터들이 그소리를 듣고 몰려왔다.

칼리아는 작게 욕설을 내뱉고는 허리에 차고 있던 검을 뽑아 들었다.

내가 더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게 내앞에 섰다.

루나로 살면서 이렇게 커다란 마물을 본적은 처음이였다.

마법도, 검도 사용하는 세상이지만 지금까진 사람 사는곳이 다 똑같지란 마음으로 살았는데..

다른 세계라는 것이 실감 되었다.

마물의 커다란 포호와 함께 칼라이는 앞으로 뛰어 나갔다.

그의 눈동자와 같은 검정색 아우라가 검을 감싸더니, 일격에 마물을 쓰러뜨렸다.

"가자"

양옆으로 새빨간 뿔을 달고, 온통 빨간 피부색에 언뜻 보면 소와 비슷한 생김새지만 두발로 걷는 레드무스는 벨라레드 숲 안쪽에만 사는 마물이였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숲입구까지 단체로 나타났다.

칼리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레드무스를 베어나갔다.

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그의 움직임은 민첩했으며, 망설임 조차 없었다.

레드무스의 피부는 굉장히 딱딱해서, 검으로는 베어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칼리아는 잘만 베고 있었다.

우리는 레드무스를 베면서 계속 앞으로 나갔다.

땀 한방울 흘리지 않은 칼리아가 레드무스의 피를 뒤집어 썼다.

이 끝이 없는 곳에서 언제쯤 탈출 할수 있을까란 생각을 하다가

유독 몬스터가 안보이는 공간이 보이자 급하게 뛰어가며 칼리아를 불렀다.

"각하!!! 이쪽으로 오세요!!!"

손까지 흔들며 펄쩍펄쩍 뛰자 칼리아는 내 쪽을 황급히 뛰어왔다.

"빨리 떨어져! 여긴 이동 마법진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발밑에 마법진이 빛을 내며 시야가 환해졌다.

"으앗!!"

[작품후기]

하울e님,노란후리지아 님,호이챠님,깜찍둘맘님,나물2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21화까지 왔습니다. ㅜㅜ

이런날도 오게 될줄이야...

앞으로 더 힘차게 완결까지...

^^^

5화 시작

방금 전까지 피터지게 싸우던 장면에서 아무것도 없이 나무만 우거진 조용한 이곳으로 이동 했을때의 이질감이란.......

분명 함정카드가 발동한 것마냥 새하얀 빛무리가 칼리아와 나를 감싸안았다.

붕 뜨는 느낌에 이렇게도 죽는구나 하며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고 있었는데, 시야가 환해지는 것을 느끼고 앞을 보니, 아무것도 없이 조용했다.

흔한 새소리도 없이....

"아무래도 숲 안쪽으로 들어온거 같군"

칼리아가 옆에서 검을 허리에 찬 검집에 넣으며 말했다.

"어째 숲 안쪽이 더 안전한거 같습니다"

'분명 때려죽어도 안온다고 했던 숲 안쪽이였는데...'

죽지 않기 위해 달려온 곳이 숲 안쪽 부근이였다. 그것도 잘못된 마법진때문에....

우리는 아무말 없이 걸었다.

칼리아는 앞서 가며 잡초를 꾹꾹 밟아서 내가 뒤에서 편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걸었다.

안그래도 커다란 나무들 때문에 숲이 그늘져 어두웠지만 해가 지려는지 점점 어두워져 갔다.

"아무래도 오늘은 노숙을 해야 될꺼 같군. 저기 보이는 동굴로 가지"

칼리아는 동굴 안쪽에 위험한 것이 없는지 탐색하는 동안 주변에 마른 나뭇가지를 왕창 주워왔다.

작은 보조 가방에서 성냥을 꺼내 불을 붙여 모닥불을 만들었다.

칼리아는 근처에 물이 있었는지 몸과 머리카락에 달라 붙어 있던 피를 닦아 물이 뚝뚝 떨어진 채 동굴벽에 기대 앉았다.

은은한 모닥불의 빛에 젖은머리에서 떨어지는 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모습에 뇌쇄적이다 못해 색기가 좔좔 흘렀다.

'꿀꺽'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을 보고 침을 삼켰다.

더이상 그모습을 보다간 후회하는 일을 만들꺼같아 뒤에 메고 있던 가방을 뒤져 수건을 꺼내 칼리아에게 던졌다.

"ㄱ... 감기 걸리시겠어요. 닦는게 좋을꺼 같네요"

침넘어가는 소리에 부끄러워 일부러 더 큰소리로 말했다.

눈을 감고 있던 칼리아는 어떻게 내가 던지는 수건을 보지도 않고 받아 머리를 털었다.

"미안하군....자꾸 고생만 시키는거 같아서..."

"네. 저도 공작님을 만나고 사건 사고 중심에 늘 있는거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못놔줘"

그는 수건을 머리위에 덮곤 살짝 웃었다. 낮게 울리는 그의 목소리가 심장을 간질거렸다.

레이와 일하면서 잘생긴 남자에게 면역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였다.

잘생긴 남자는 언제나 짜릿했다.

레이가 귀여운 강아지라면 칼리아는 섹시하고 나른한 느낌의 표범이였다.

이러다간 코피가 날꺼같아 다른 생각을 하기로 했다.

긴장이 풀렸는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쪽팔려.......'

급하게 가방을 뒤지다 혹시 몰라 비상식량을 챙겼던게 생각나 육포, 물병, 아리엘이 줬던 건과일을 꺼냈다.

"별거 아닌데 쫌 드세요."

그는 내가 펼쳐놓은 음식들을 보다 하나씩 집어 먹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무말도 없이 먹는데만 열중했다.

그사이 다시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오기전 불을 피워서 다행이네요"

초겨울 날씨에서 비까지 내리니 갑작스럽게 추워졌다.

으슬으슬 떨리는 몸을 모닥불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문득 앞에 앉은 칼리아는 옷까지 젖어 있어 더 춥지 않을까 하다 아침에 챙긴 침낭을 꺼냈다.

부시럭 거리는 소리를 내자 칼리아는 눈을 떠 나를 바라보았다.

"덮으세요"

그는 내가 내미는 처음보는 침낭을 받아 이리저리 보며 말했다.

"가방에서 별게 다 나오는군"

"이런상황까진 생각 안해봤지만 혼자 조난 당할껄 생각해서 준비한거 뿐이에요"

"이건 뭐지? 그냥 담요가 아닌데?"

"아... 제가 특별제작한 침낭이란건데.. 숲이 워낙 습해서 최대한 물이 스며들지 않은 천을 겹쳐서 만든거에요"

"음... 생각보다 괜찮네..앞으로 야영하게 되면 요긴하게 쓸수 있겠어"

침낭이 괜찮았는지 연신 칼리아는 꼭 돌아가면 제작해야겠다고 중얼거렸다.

"혹시 아까 싸우시면서 다치신덴 없으세요?"

"............없어"

약간 뜸들이며 말하는 칼리아가 팔을 슬쩍 가리며 말했다. 그의 팔을 쳐다보자 피가 낫는지 소매가 빨갛게 젖어있었다.

"아까 레이님 갔다드릴려던 슈를 뜯었어요. 이리 줘보세요"

슈는 항생제와 마취 역활을 해주는 약초였다.

"없는게 없군..."

그는 군말없이 팔을 내밀었다.

앞으로 있을 전투에 대비해 유일한 전투원인 그가 부상으로 싸울수 없게 되면 둘다 개죽음일 뿐이다.

체력을 비축할 수 있을때 해두는 편이 좋았다.

나는 말없이 슈를 돌로 찧어 가방에서 붕대를 꺼내 칼리아에게 다가갔다.

"경황이 없어 지금에야 말하는거지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는 척 붕대를 감으며 말했다.

아까 마법진이 터지면서 칼리아가 데리고 뛰지 않았더라면 죽었을지도 몰랐다.

심지어 잘못된 마법진속에도 망설임없이 뛰어왔다.

물론 그와 계약때문에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지만 결국엔 내 선택이였다.

그는 약속대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얼마나 비겁해지고 야비해지는지 알고 있기에......처음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 커다란 가방을 챙겨서 메고 다녔다.

혼자라도 살아 남을수 있도록.....

"지켜준다고 했잖아"

내머리 위에서 들리는 낮은 목소리에 다시 심장이 간질거리는 기분이 들었다.

"크흠! 피는 멈췄고, 이정도면 몇일은 견디실수 있을꺼에요"

자꾸만 간질거리는 기분에 헛기침을 하며 그와 멀리 떨어지며 말했다.

[작품후기]

마녀유야님,미엔투님,나물2 님,깜찍둘맘님,노란후리지아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호작,추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열심히 달리고 있네요 탄력받은김에 계속가야지.. 안그럼 흐지부지 될까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5화 시작

칼리아와 루나가 사라진 숲 입구 쪽에서는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제2기사단장인 블리스는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였다.

안쪽까지 이어진 게이트는 어디로 사라지고, 마법진만 빛나더니 숲 여기저기서 폭발이 계속 이어졌다.

그바람에 기사들과 기사시험 본 자들 중에 부상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나마 다행인건 다른 귀족들의 기사들은 이 폭발에 휘말려 들지 않아 인명 피해가 적었다는 것에 안도 했다.

"다들 움직이지 말고 그자리에 가만히 있도록!!!"

어디서 어떻게 폭발이 일어나는 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왕좌왕 움직일수록 사람만 다칠 뿐이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서서 폭발이 잦아 들기를 기다리며, 근처 기사들에게 큰소리로 말했다.

폭발은 곧 잦아 들었다. 하지만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였다.

커다란 폭발소리에 숲안쪽에 있던 마물들이 숲입구까지 몰려왔다.

블리스는 몇일전 자원해서 토벌전에 참석한다고 했던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일... 그는 검을 휘둘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레드와이즈의 머리를 날려 버리고 달려드는 레드와이즈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부리를 이용해 공격하는 레드와이즈의 머리를 살짝 피하자 다른 한쪽 머리가 그를 공격했지만 그는 검을 가로로 휘둘러 레드와이즈의 머리를 한번에 잘라냈다.

레드와이즈,레드무스,레드로스 ... 그것들은 주로 숲 깊숙한 곳에서만 사는 마물들이 였다.

아무리 폭발소리 때문이지만 그것들이 이렇게 숲 입구까지 나온것에 의문점이 가득했다.

레드와이즈들을 베고 난 칼에서는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그나마 레드와이즈는 머리가 둘 달린 타조와 같은 모습이라 베기가 쉬었지만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재생하는 귀찮은 마물이였다.

블리스는 그걸 알고 차근차근 머리를 잘라냈다.

주변에 있던 해리는 어느새 기사시험을 보던 이들 중 다치지 않은 이들을 4명씩 짝을 이뤄 레드와이즈의 머리를 베고, 레드무스는 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가볍게 벨수 있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며 지시하고 있었다.

주변엔 기사와 기사 지망생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

그들은 주변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던 검을 빼들었다.

어설프게나마 그들은 비교적 쉬운 레드와이즈를 죽여나갔다.

어느정도 주위가 정리가 되자 그들은 저멀리 레드무스를 손쉽게 베고 있는 칼리아를 보았다.

칼리아는 주변으로 몰려드는 레드무스를 피해 가장 먼저 달려드는 레드무스를 정확하게 두 동강 내며 앞으로 밀어버렸다.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 주춤거리던 레드무스의 심장을 정확하게 찔렀다.

칼리아의 주변에는 피와 그의 사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제일 앞쪽에서 활약중인 칼리아 덕분에 뒤쪽의 기사들은 손쉽게 마물들을 물리칠수 있었다.

블리스는 다시한번 칼리아에게 마음깊이 충성을 맹세하며 그의 뒤를 따라 몬스터를 죽여갔다.

"단장님 각하가 보이질 않습니다!! 같이 계시던 루나님도 안보입니다!!!"

어느새 헐레벌떡 뛰어온 해리가 빠르게 보고했다.

"무슨 소리냐!!! 분명 방금전까지만 해도 저 앞에서..."

손가락으로 가르킨 곳엔 아무도 없었다.

"젠장!!! 대체 어디로 사라지신거냐...!!!!"

블리스는 이미에 맺은 피를 거칠게 닦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폭발하는 마법진 말고, 이동마법진도 있었던 듯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곳 상황이 정리되는대로 먼저 숲 안쪽으로 가신 귀족들과 합류한다. 각하는 그뒤에 생각하자"

블리스의 말이 끝나자 주변에 있던 기사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한편 게이트를 타고 이동한 아리스타후작은 당황했다.

칼리아공작의 바로 앞에서 이동했것만 칼리아 공작은 보이지 않고 게이트는 닫혔다.

아무리 기다려도 게이트가 다시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클라우디아경은 말했다.

"아무래도 게이트에 문제가 생긴듯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마자 멀리서 커다란 폭발 소리가 들리며 땅이 잘게 흔들렸다.

예민한 말들이 한차례 흥분했지만 노련한 기사들이 말들을 진정시켰다.

"다시 숲 입구로 가야되는게 아닌지 모르겠군요"

체이스 후작은 멀리 숲을 내다 보며 말했다. 그의 말에 다들 고민을 했다.

사건이 일어난 이상 더이상 토벌전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곧 숲 입구로 이동했다. 서둘러 이동했지만 게이트가 없어, 반나절이나 허비했다.

숲 입구는 아침과는 다르게 울창했던 나무들은 쓰러져 있거나 꺾여 있었고, 땅도 이곳저곳 갈라져 있었다.

먹구름이 몰려온 하늘은 어두워져 곧 비가 내릴껏만 같던 날씨는 입구에 도착하자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도착한 그곳은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다.

마물들은 다 죽어 바닥은 제색을 잃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부상자와 사망자, 사체가 아무렇게나 방치 되어 있었다.

피비린내에 비냄새가 섞여 바람을 타고 그공간을 채웠다.

"다치신 곳은 없으신가요?"

왕실 제2기사단장인 블리스가 돌아온 귀족들에게 보고를 했다.

갑작스런 폭발로 인해 부상자와 사망자가 생겼고, 폭발소리에 마물들이 출현했고, 맨 앞에서 싸운 칼리아 공작은 현재 행방불명 상태였다.

조금씩 내리던 비는 점점 빗방울이 굵어졌다.

아리스타후작과 클라우디아경은 칼리아공작을 찾으며 마법진 조사를 하기로 했고, 나머지 체이스후작과 에리엘후작은 이곳을 수습하고, 부상자들을 안전하게 의료기관에 옮기기로 했다.

아리스타 후작은 기사 몇명과 함께 공작이 사라졌다는 마법진을 둘러 보았다.

비때문에 일부가 지워져 있었지만 이동마법진이였다. 누가 이곳에 이런 마법진을 설치했단 말인가...

그는 이번사태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계획된 일임을 알았다.

[작품후기]

바람부는목련님,레드문101님,호이챠님,미엔투님,깜찍둘맘님,애나70님,나물2님,노란후리지아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조회수가 만명이 넘었어요~

재밌게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아리스타후작은 작게 그려진 마법진을 보며 칼리아 공작이 멀리 가지 못했을 거라 추측했다.

혹시라도 마법진이 지워질까 그 위에 커다란 담요로 덮어 더는 지워지지 않도록 했다.

그는 마음이 더 급해졌다.

비에 씻겨 점점 희미해져 가는 흔적이 다 사라지기 전 그들을 찾아야 했다.

후작의 뒤에서 계속된 수색작업을 하던 이들은 이미 비 오는 산길을 오느냐 핼쑥했지만 한시가 급했기 때문에 내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쉽게 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런..비가 점점 굵어지는군요"

어느새 그의 옆으로 온 클라우디아경은 하늘을 보며 말했다.

바로 옆에서 말하는 클라우디아 경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빗소리에 묻혔다.

아리스타 후작은 점점 초조해졌다. 빗소리가 굵어지다 못해 폭우수준으로 내렸다. 하늘은 어느새 밤처럼 새카매해 졌다.

"휴...오늘은 그만 돌아가도록 하죠..여기서 더는 수색작업을 한다면 저희 쪽에서도 인명피해가 나올 거 같군요"

아리스타후작은 어쩔 수 없이 고삐를 돌렸다.

"쉽게 그칠 비가 아닌듯한데..폐하께 보고부터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처 마을에 도착한 이들은 체스터후작 일행과 합류했다.

밖에 상황을 보고 온 체스터후작은 어깨에 묻은 비를 털며 말했다.

"아무래도 그래야겠습니다. 사망자도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게이트를 열었던 마법사도 죽지 않았습니까..."

클라우디아경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도 어찌.. 공작님을 찾지도 않고 철수한단 말입니까!!!"

"공작님은 왕실 최고 기사 아니십니까.. 우선 부상자부터 제대로 치료받게 하죠.."

에리엘후작은 어느새 의자에 앉아 한손엔 와인을 들고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아리스타 후작은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에리엘 후작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였다.

밖은 계속된 비 때문에 발이 묶여 이도 저도 못하고 있었다.

다들 날이 밝는 대로 폐하께 보고 드리고 다시 팀을 꾸리기로 했다.

깊은 밤이 될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었다.

그나마 내가 챙겨온 침낭을 몸에 두르고 모닥불 가까이 앉아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계속된 모진 바람 소리에 결국 눈을 떴다.

몸은 춥다고 느끼지 않았지만 소리 때문에 왠지 내가 추운 거같은 느낌이 들어 침낭을 더욱 끌어안았다.

모닥불 앞으로 동굴 벽에 기대 침낭을 두른 채 눈을 감고 있는 칼리아가 보였다.

그저 멀거니 앉아 불에 비친친 그의 얼굴을 계속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쩌다 저 사람의 눈에 띄여서 계약을 맺고 이곳까지 와 조난까지 당한 걸까...'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휴"

"잠이 안 오나?"

눈만 감고 있었던 건지 칼리아가 내 한숨 소리에 눈을 뜨고 말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라 흠칫 놀랐다.

"네. 바람소리 때문에요"

"아직 해가 뜨려면 멀었는데, 자두는 게 좋아"

"이미 잠도 깼는데요. 저 때문에 깨신 거면 더 주무세요"

그는 침낭 속에서 아무 말도 없이 바깥을 바라봤다.

다시 잘 기색이 보이지 않자, 어색한 침묵만 동굴 안에 감돌았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우연이 아녔다. 우리가 숲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게이트를 열자마자 숲 속 곳곳에서 나타난 마법진이라던가.. 거기서 일어난 폭발이라던가..누구를 겨냥한 걸까...

이 사단은 결국 칼리아 공작이나 폐하가 제일 큰 피해를 볼 것이다.

"각하와 폐하를 곤란하게 하려는 걸까요?"

"이제 알아봐야지"

그는 연신 하늘만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폭우수준으로 내리던 비는 아침이 되어서야 이슬비처럼 내렸다.

더이상 기다릴 수 없던 우리는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남은 육포와 말린 과일을 먹던 우리는 내 작은 가방에 지도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역시 사람은 배불러야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지'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마을까지 가야 되겠어"

그에게 레이가 준비해준 지도를 내밀었다.

그는 이런 것도 준비했느냐는 얼굴로 나를 잠깐 바라보더니 벨라레드의 지도를 유심히 봤다.

그리곤 근처 나무 밑동이 잘린 곳으로 가 나이테 폭을 보더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했다.

우리는 동굴을 나와 남쪽으로 계속 걸어갔다. 남쪽 방향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폭우가 올까 부지런히 둘 다 말도 없이 걷고 걸었다.

어느 허름한 여관에 도착해서야 긴장이 풀렸다.

"빈방 두개주시오"

칼리아의 말에 여관주인장은 우리 둘을 아래위로 훑었다

곧 고개를 끄덕이더니 방으로 안내했다.

꽤나 허름한 방이었지만 침대가 있었다.

보통 평민들은 침대가 없는 집도 있었기에 허름한 외관에 침대는 기대조차 안 했는데 작은 욕실까지 붙어있었다.

완전 횡재한 기분에 얼른 씻고 고단한 몸을 침대에 뉘고 싶었다.

"난 바로 옆방이니 편히 쉬도록 "

칼리아는 그 말을 끝으로 옆방으로 들어갔다.

목욕을 마치고 작은 대야에 뜨거운 물을 받아 침대 아래 두고 발을 담갔다.

왕실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귀족이라 이렇게 오랫동안 걸은 적도 밖에서 자본 적이 없었다.

발은 퉁퉁 붓고 까져서 쓰라렸지만, 피로가 풀리는 거 같았다.

"아 천국이 따로 없구나"

'똑똑'

"다 씻었으면 준비하고 밑으로 내려와"

칼리아는 문밖에서 말하곤 내려 가버렸다.

서둘러 발을 닦고 신발을 신으려다가 퉁퉁 부운 발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신발을 내버려두고 주변에 있던 짚으로 대충 꼬여 만든 신을 신고 내려갔다.

칼리아는 이미 저녁 식사를 주문했는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앞에 가서 앉자 칼리아는 빤히 나를 바라봤다.

"왜.왜요?"

저도 모르게 움츠려들며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대는 참 이상해 귀족이 아닌 거 같담 말이지"

"제가요?"

'혹시 지금까지 너무 품위 없이 행동했던가.. '

"보통의 귀족 아가씨라면 발이 그렇게 되기 전에 내게 불평이라도 했을텐데 그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단 말이지."

그가 턱을 괴고 손가락으로 내 발을 가리키자 부끄러움에 뒷걸음쳤다.

"그..그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빨리 마을에 도착해서 쉬고 싶었고요"

그의 눈을 피하며 빠르게 의자에 앉았다.

앉자마자 음식은 나왔고, 둘 다 말없이 음식만 입에 넣었다.

식사가 끝나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며 오늘 밤은 푹 쉬라며 칼리아는 당부했다.

[작품후기]

바람부는 목련님, 깜찍둘맘님,Fysb님,노란후리지아님,나물2님,미엔투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추천,선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느덧 조회수가 만천명이 넘어갑니다 크윽 ㅜㅜㅜ 이런 감격스러운...일이 ㅡㅜ앞으로 더 힘내겠습니다!

날씨가 덥다가 비오다가... 완전 출근하기 싫은 요즘이네요...

^^^

5화 시작

루나는 식사를 마치고 바로 방에 들어와 누워 그대로 잠이 들었다.

적막한 밤은 작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오래된 침대는 작은 뒤척임에도 삐걱거리며 큰소리를 냈다.

다시 잠들기 위해 몇 번이나 눈을 감았지만,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다.

결국 일어난 루나는 침대 끝에 걸터앉았다.

'삐걱'

침대는 다시 한 번 듣기 싫은 소리를 냈다.

그저 멍하니 앉아 깜깜한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불빛한점 없는 창밖은 깜깜한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다.

물이라도 먹으려고 몸을 일으키자 또다시 침대에선 녹슨 소리가 울렸다.

'뻐걱'

점점 거슬리는 소리에 다시 잠들 생각이 사라졌다

근처 의자에 앉아 책이라도 읽어 볼까 싶어 초에 불을 붙였다.

깊은 어둠은 그녀의 숨소리마저 잠식시켰다.

'삐걱삐걱'

'삐걱'

어디선가 시작된 불편한 소음에 눈살을 찌푸리며 일어났다.

오래된 여관이라지만 방음도 최악이라니...

'삐걱'

'삐걱삐걱'

'삐걱삐걱삐걱'

끝날줄 모르는 소음에 짜증이나 쾅쾅 옆벽을 발로 내리쳤다.

그런데도 더욱 심해지는 소리에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바로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옆방은 칼리아가 묶는 방이었다.

'이 새벽에 훈련이라도 하나....'

괜히 얼굴을 붉히며 고민하고 있던 찰나...

'쾅'

거칠게 문을 여는 소리에 놀라 쳐다보니 칼리아가 검을 든 채 들어왔다.

"괜찮나?"

"괜찮습니다"

그는 검을 뽑아 들고 있었다. 그 검에는 새빨간 피가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가자"

그의 말에 한치 망설임도 없이 나는 바로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겨 그를 따라나섰다.

검을 쓸 능력도 안 되는데,그의 발목을 잡을 순 없었다.

미적거렸다간 그의 약점이 될 뿐이다.

그와 함께 빠르게 계단을 내려갈 쯤, 어디선가 발소리도 내지 않은 복면을 쓴 남자들이 달려들었다.

칼리아는 검으로 첫 번째 남자의 목을 찔러 넣은 후 바로 뒤에 있던 남자의 심장을 찔러 넣었다.

그의 망설임 없는 움직임에도 음추려 들지 않고 복면 쓴 자들은 계속해 그의 목숨을 노렸다.

밖으로 나온 우리를 쫓아 그들이 한꺼번에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검을 들고 있었고, 흉흉한 기색을 내보내고 있었다.

수적으로 불리한 칼리아지만 침착해 보였다. 오히려 복면쓴 남자들이 안달이었다.

서로 눈치를 보더니 복면 쓴 자들은 칼리아를 향해 뛰었다.

칼리아는 단숨에 위로 박차 올라 가장 가까이에 있던 남자의 머리를 벴다.

머리가 베인 남자가 쓰러지기도 전에 바로 옆에 있던 남자의 몸을 두 동강 냈다.

순식간에 두 명을 처지한 칼리아는 숨소리 한번 흩트려 지지 않았다.

계속된 공방에도 칼리아는 지친 기색이 없었다. 여관 앞마당은 어느새 빨간 웅덩이와 시체뿐이었다.

결국 승산이 없다 판단했는지 복면 쓴 자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괜찮으세요?"

그들이 사라진 걸 확인하자 칼리아에게 가서 물었다.

"후... 아무래도 당장 돌아가야겠군"

칼리아는 피가 묻은 볼을 닦으며 말했다. 그는 어제 여관에 미리 준비해달라고 부탁한 말 두 필을 보더니 나에게 물었다.

"방금 같은 일이 또 생길지도 모르니 말은 함께 타고 가도록 하지"

"네"

죽는 것보다 말을 같이 타고 가는 게 나았다.

그는 말 위에서 손을 내밀었다.그의 손을 잡고 말에 올랐다.

동쪽에서 서서히 해가 뜨고 있었다.

이제 아침이었다.

하루를 쉬지 않고 꼬박 달려 공작저에 도착했다.

중간에 딱 한 번 잠깐 쉬더니, 둘 다 말도 없이 계속 달려왔다.

한시가 급했기에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내색할 수 없었다.

그것보다도 등 뒤의 칼리아의 단단한 가슴과 숨소리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칼리아는 공작 저에 도착하자마자 시종에게 말을 맡기고 말했다.

"그동안 피곤했을 테니, 이곳에서 쉬도록 해"

공작 저에 도착하자 어떻게 집에 갈까 생각을 하던 중 칼리아의 말에 멈칫했다.

"설마 그 일을 당하고 집에 갈 생각인가?"

칼리아는 눈을 찌푸리며 말했다.

"언제 또 습격당할지도 모르는데,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도록 해. 필요한 게 있으면 아놀드에게 말하고 그동안 고생했어"

칼리아는 내 대답은 듣지도 않고 빠르게 사라졌다.

아놀드는 나에게 욕실이 딸린 손님방을 내어주었다.

방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똑똑'

"안녕하세요 아가씨 오늘부터 아가씨의 시중을 들 제인이라고 합니다"

주근깨 가뜩한 소녀가 들어왔다. 시중들 하녀까지 붙인걸 보니 꽤 오랫동안 공작 저에 머무를 꺼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래 나도 반가워, 우선 목욕부터 하고 싶은데..."

나의 말에 제인는 재빨리 욕실로 들어가 물을 받았다.

조심스럽게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제이는 나의 목욕을 돕기 위해 옆에 섰지만, 손짓으로 나가라고 했다. 혼자 있고 싶었다.

뜨거운물에 몸을 담그자 하루 동안의 피곤이 잠시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자 하루 전 상황이 또렷하게 생각났다.

발밑에 아무렇게나 쓰러져 있는 시체의 잔재와 피....

서로 죽이기 위한 살기...

몇일 전 마물들에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과는 다른 충격이었다.

무서웠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무력감...허탈감...

칼리아가 없었다면 분명 자신은 죽었으리라....

그 생각마저 들자 갑자기 몸에 한기가 들었다.

대충 몸을 닦고 나오자 제인이 수건으로 머리를 말려주었다.

그녀의 시선은 곧 나의 발에도 닿았다.

"아가씨!!!!"

물집이 터져 진물이 흐르고, 피가 질질 흐르던 발을 보자 제인은 황급히 나가 약과 붕대를 들고 들어왔다.

"어쩌다 발이 이리되셨어요..."

제인은 자신의 상처라도 되는 양 나보다 더 안타까워했다.

조심스럽게 치료를 마친 발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다.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의사를 부르겠습니다"

제인의 보고를 받았는지 아놀드가 말했다.

"혹시 공작님을 뵙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엄청나게 바쁘셔서.. 따로 만나 뵙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공작 저에 머무르는 동안 체력훈련을 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정돈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쉬십시오"

아놀드는 제인을 데리고 나갔다.

발까지 치료받고 나자 긴장이 풀렸는지 잠이 왔다.

푹신한 침대에 눕자 뒤척임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작품후기]

레드문101님,바람부는 목련님,깜찍둘맘님,나물2님,sh8738님,노란후리지아님 코멘트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글에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공작저로 돌아온 칼리아는 숨 돌릴 틈 없이 바빠졌다. 먼저 간단히 씻고 궁에 갈 채비를 했다.

며칠 동안 행방불명된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황제에게 무사히 돌아왔다고 알려야 했고, 그간의 사고도 보고해야 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한 정원이지만 이 구역은 황제의 최측근에게만 허락된 곳이기에 칼라이는 누구도 만나지 않고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었다.

공작저에 도착하자마자 비밀스럽게 황제에게 서신을 보냈기에, 이미 황제와 토니백작이 와 있었다.

황제는 그간 있었던 사정을 그저 말없이 듣고 있었다.

칼리아의 말이 끝나자 그곳엔 정적만 감돌았다.

처음 말을 꺼낸 건 황제의 책사인 토니였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같이 휘말렸다는 영애는 괜찮습니까?"

"그녀는 지금 내 집에서 쉬고 있지. 이 사태가 끝날때까진 계속 데리고 있을 예정이야"

칼리아의 말에 토니는 안도했다.

그간 드문드문 루나라는 하급 공무원의 활약상에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런 인재를 잃는 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

곰곰이 말없이 생각하던 황제가 말했다.

"칼리아 자네가 생각하기엔 어떤 거 같나?"

"분명 내부 소행입니다. 숲 안쪽으로 가려던 게이트에 함정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다른 귀족들은 안전히 숲 안쪽까지 도착하자마자 일어난 것 또한 계획적으로 보입니다."

"벨라레드 산맥 근방은 길리 마르시아 남작의 영지입니다"

토니의 말에 황제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마르시아 남작부터 조사하겠습니다"

"마르시아 남작은 에리엘 후작 직속라인 아닌가..."

"독단으로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

"그렇다면 아리스타 후작을 불러오죠. 그들과 함께했으니 이상한점을 알고 있을지도요"

"레드무스가 숲 입구까지 온 것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아는 황제와 토니와 이야기할수록 피로감이 몰려왔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다.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다.

"그럼 정식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칼리아는 황제에게 인사를 하고 은밀히 공작저로 돌아왔다.

좋은 침대와 안전한 장소에서 푹 자고 일어난 루나는 그동안 긴장 상태가 풀리는 듯했다.

하루 동안 말을 타서 약간의 근육통이 생긴 거 빼곤 몸 상태도 좋았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제인이 들어와 세수할 물을 들고 시중을 들어줬다.

제인의 안내를 받아 식당에 들어섰다.

공작저의 식당은 루나가 사는 집을 두 개는 붙일 정도로 넓고 높았다. 식탁도 고급스러워 보인 나무로 솜씨 있는 장인이 만든 듯했고, 반대편이 잘 보이지 않도록 길고 컸다. 식탁 가운데에는 오늘 아침 뜯은 싱그러운 꽃과 화려한 은 촛대가 있었다.

이곳저곳 둘러보고 있으니 어딘지 피곤해 보이는 칼리아가 반대편에 앉았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칼리아는 나의 말에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대는 간밤에 잘 잤나?"

"네.각하께서 신경 써주셔서 편히 쉬었습니다"

곧 주방장이 식사를 가지고 들어왔다. 처음에는 밤새 자느냐 비어 있을 위를 데워줄 호박 스프가 나왔다.

우유가 들어가 호박과 잘 어우러져 속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스프를 다 먹자 샐러드와 빵, 과일이 나왔다.

역시 공작저의 요리사는 대단했다. 무엇하나 맛없는 것이 없었다.

"진범을 찾을 때까지만 내 집에서 지내도록 하지"

"제가 그들에게 노출되었을까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두어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둘 순 없어. 어쨌든 나 때문에 말려들었잖아"

"휴.. 저도 죽기는 싫으니까요"

"그리고 아놀드에게 들었어. 체력훈련을 하고 싶다면서?"

칼리아는 차를 마시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네...이번일을 겪으면서 제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게 되었어요.. 제몸하나는 지킬 수 있을 정도는 되고 싶습니다"

"당분간은 푹쉬다 적당한 사람 하나 구해보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칼리아는 궁에 들어 가봐야 한다며 일어났다.

난 주방장이 가져다주는 달콤하고 폭신폭신한 케잌까지 다 먹고 천천히 일어났다.

공무원이 된 이후 이렇게 한가롭게 시간을 보냈던 적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물론 며칠은 좋았다.

침대 밖으로 한발자국 나가질 않는 안전한 삶이란.....

아무것도 안하고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졸리면 잠들고, 일어나면 공작저의 훌륭한 디저트를 먹고, 다시 이불속으로 기어들어갔다.

하지만 그것도 몇일 하고 나니 허리가 아파서 그만두었다.

이곳은 티비도, 컴퓨터도 없어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딱히 시간 때울만한 것이 없었다.

아놀드에게 물어 공작의 서재로 가 책을 읽기로 했다.

로맨스소설이라도 읽으며 시간을 보낼 생각에 기대가 부풀어 올라 있었다.

칼리아의 서재는 레이의 서재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모던한 톤으로 깔끔하고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는 서재는 칼리아의 성격이 보였다.

한 바퀴 돌며 제목을 읽었지만, 마음에 드는 책은 딱히 보이질 않았다.

그나마 레이의 일을 도울 때나 빌려보던 책들은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머리 아프게 보고 싶진 않았다.

결국, 책한권 손에 들지 못한 채 서재를 나왔다.

'그럼 그렇지....'

칼리아 공작 서재에 로맨스소설이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다.

내 뒤에서 계속 머뭇머뭇하던 제인이 말했다.

"혹시 찾으시는 책이라도 있으신가요?"

"으응? 아냐. 설마 공작님께서 그런 책을 읽을 리가 없지.."

미련을 못 버리고 멈칫멈칫 서재 쪽을 바라보자 제인이 다시 한번 더 물었다.

"무슨 책 찾으시는 데요, 제가 집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냐아냐. 정말 괜찮아"

놀란 나는 제인의 말에 손까지 흔들며 부정했다.

로맨스소설을 고르고 있는 제임스라니... 그건 정말 안될 말이었다.

결국 은밀히 제인 옆으로 붙어 속삭이듯 물었다.

"혹시 읽을만한 로맨스소설 같은 게 있을까?"

제인이 나의 말에 그제야 환한 웃음을 지었다.

"당연히 로맨스소설은 공작님 서재에 없죠, 저희가 읽던 책이라도 괜찮으실까요?"

"상관없어, 그저 가볍게 읽을 생각이라서"

"방에 먼저 가 계시면 구해다 드릴께요"

벌써 멀리 뛰어가며 제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제인,조용히....."

붉어지는 얼굴을 밑으로 숙이며 중얼거렸다.

[작품후기]

바람부는목련님,깜찍둘맘님,노란후리지아님,나물2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조회수 덕분에 힘이 납니다!!!

부족한 솜씨임에도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네요~ 더위는 덜 타긴하는데.. 습한게 싫다는 ㅜㅜㅜ

-----------코멘트 보고 수정했습니다.감사합니다

^^^

5화 시작

제인의 호들갑스러운 행동에 부끄러워져 방으로 뛰어들어가다 시피했다. 곧 제인은 책 여러 권을 들고 상기된 표정으로 들어왔다.

"루나님, 제가 엄선해 들고 온 책이니 꼭 재밌을 거에요"

자랑스럽게 가슴을 내밀며 제인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행동에 웃음이 나 작게 웃으며 그녀가 가지고 온 책들을 살펴보았다.

"황제의 애첩, 후궁과 기사, 하녀의 덫, 황제는 왜 시녀에게 소고기를 주었을까, 백작 부인"

점점 수위가 높아져 가는 책 제목을 읽다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책 제목에 제인을 바라보자 제인은 방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원래 소설은 자고로 야해야 재밌죠"

한숨을 쉬며 가장 건전해 보이는 책을 들어 읽기 시작했다.

토니는 울고 싶었다. 토벌전이 끝나고 불미스런 일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철야가 시작되었다. 칼리아 공작이라도 저택으로 돌아가면 본인도 조금은 쉴 수 있겠다는 생각과는 달리 칼리아 공작은 첫날 입궁 후 계속 궁에서 지냈다. 덩달아 토니도 당연히 궁에서 밤샘 작업을 쉼 없이 했다.

황제는 오전 칼리아가 입궁하자 토벌전에 참가했던 귀족 모두를 불러들였다.

그들은 일찍이 돌아와 궁에서 쉬며, 행방불명 된 칼리아를 구할 인원을 짜고 있었다.

회의실에는 황제와 칼리아, 토니가 앉아 있었다.

칼리아의 모습을 본 에리엘 후작은 빠르게 와 그의 옆에 서 울먹이며 말했다.

"공작님!!! 무사하셨군요!! 정말 걱정 했습니다!!!!"

그의 가식적인 얼굴에 아리스타 후작은 얼굴이 굳었다. 걱정된다는 사람이 와인을 먹고 아침엔 숙취가 심해 하루 반나절을 누워 미적거리던 사람이었다. 그의 숙취 때문에 궁으로 들어오는 시간 또한 하루를 소비했다.

"혹시 내가 사라진 동안 이상한 일이 있었나?"

에리엘 후작의 말을 끊으며 칼리아가 말하자 아리스타 후작은 조용히 말했다.

"게이트를 통해 숲 안쪽으로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야생동물 한 마리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건 필시 누군가의 계획된 소행입니다"

체이스 후작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말에 모두 침묵했다. 훌쩍거리던 에리엘 후작도 어느새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황제는 턱을 괴고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칼리아를 보며 말했다.

"이번 토벌전 사건에 대해 모든 조사권을 칼리아 공작에게 일임한다. 누군가의 소행인지 내 앞으로 데리고 오도록"

황제의 말에 칼리아 공작은 한쪽 무릎을 꿇고 말했다.

"꼭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아는 바로 벨라레드 숲 입구로 마법사와 기사 조사단을 꾸려 보냈다. 그리고 마르시아 남작을 당장 수도로 소환했다.

그는 이미 부르기도 전에 무언가에 잔뜩 겁먹어 덜덜 떨고 있었다.

그런 남작을 칼리아는 표정 없이 바라보았다.

"왜 부른지는 알고 있겠지?"

"전…. 전 잘 모…. 모릅니다."

덜덜 떨며 꽉 쥔 주먹은 손톱이 깊게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였다. 그 모습을 보던 칼리아는 그저 빤히 남작을 바라보았다. 남작은 아무것도 없는 곳을 연신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다. 남작이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

둘 다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 집무실은 무거운 침묵만 감돌았다.

"ㅅ. 살려주십시오"

덜덜 떨던 남작은 얼굴이 눈물 콧물이 줄줄 흘러 볼썽사나웠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칼리아에게 애원했다.

마르시아 남작은 원래도 간이 작은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영지에 만족하진 못했지만, 머리가 좋지 못해 늘 이용만 당했다. 또한 큰일을 도모할 정도의 배포가 없었기에 이번 일을 그가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언제나 에리엘 후작의 뒤 꽁무니만 따라다니며, 비위를 맞추던 자였다. 그런 자가 지금 고문도 하지 않았는데 벌벌 떠는 모습은 수상했다.

조금만 더 압박하면 술술 불꺼 같았다.

"전..전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그저 마물들만 유인……. 커..컥"

갑자기 남작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지, 그는 연신 목을 감싸며 바닥을 굴렀다.

"ㅇ...이대로.. 죽을...순....."

곧 피 거품을 물며, 눈의 실핏줄까지 터져 벌겋게 변한 눈도 감지 못한 채 남작은 죽었다.

그의 죽음으로 치안대 기사들이 집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남작의 시체를 조사했다.

"반지에 독이 묻어 있던 모양입니다"

기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반지를 꺼냈다. 나머지 기사들은 남작의 시체를 들고 나갔다.

마침 숲 마법진을 조사하던 기사 하나가 들어왔다.

"공작님, 비에 마법진은 다 지워져 더는 조사하기가 힘듭니다. 레드무스의 사체 주변에 누군가의 소행으로 야생동물 사체가 조금씩 숲 입구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칼리아는 다리를 꼬고 앉아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그날 저녁 아리스타 후작은 은밀히 칼리아 공작이 있는 집무실로 찾아갔다.

"무슨 일이지 후작?"

아리스타 후작은 말없이 책상 위에 종이 하나를 올려놓았다.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펼쳐 보자 그곳엔 마법진이 그려져 있었다.

비록 완성된 마법진은 아니었지만 대강 어떤 모양인진 알 정도 였다.

"음?"

"게이트 주변에 있던 마법진을 따라 그린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라면 알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몰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생했네"

"아무리 생각해도 에리엘 후작이 꾸민 일 같군요. 그날 마을에 도착하니 이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면 빠져나갈 구멍정돈 만들어 뒀을 거다. 마법진은 은밀히 조사하도록 하지"

토벌전의 불미스러운 일은 마르시아 남작이 꾸민 일로 처리되었다. 그는 죄책감에 자결한 걸로 처리되었고, 수사는 종결되었다.

며칠 만에 저택으로 돌아온 칼리아는 잠을 잘 못 잤는지 까칠한 얼굴로 아침 식사를 했다. 루나는 괜히 오랜만에 보는 고용주의 눈치를 보며 식사했다.

"저…. 이제 제집으로 돌아가도 되겠죠?"

"아니…. 돌아가기엔 이르다."

"왜요? 신문에는 마르시아 남작님이 벌인 일로 끝났잖아요"

"표면적으로 덮은 것일 뿐,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어. 그러니 그냥 여기 있도록"

"그럼 전 언제 출근하나요?"

"그건 호위기사 하나 붙여줄 테니 다음 주부터 출근하도록"

그는 피곤한 얼굴로 일어났다.

커다란 저택에, 친절한 하녀, 맛있는 식사까지….

너무 좋았지만 내 집이 아니라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불편했다.

하지만 그의 피곤한 얼굴을 보니, 더는 불만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작품후기]

바람부는 목련님, 나물2님, 깜찍둘맘님, 노란후리지아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 해주시고, 별점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솜씨에도 ㅜㅜ 응원해주셔서 큰힘을 얻고 갑니다.

-----------------깜찍둘맘님 코멘트보고 수정했습니다.

^^^

5화 시작

칼리아는 반나절 만에 바로 호위를 붙여주었다

칼리아가 호위로 붙여준 기사는 잿빛 머리의 검게 그을린 피부, 딱 봐도 든든해 보이는 기사였는데, 매우 호탕한 아저씨였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우디라고 소개했다.

우디는 나를 아가씨라고 불렀다. 편하게 루나라고 부르라고 말했지만 호탕하게 웃으며 계속 아가씨라고 불렀다.

그의 고집에 항복한 나는 그가 아가씨라고 부르는 걸 내버려 뒀다.

우디는 나의 체력훈련 선생님도 겸하기로 했다.

그는 새벽부터 문밖에서 큰소리로 나를 깨웠다. 제인이 방으로 들어오려던 걸 한사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입구에서 싸우는 소리에 일어나 우디를 따라 아침부터 체력훈련을 했다.

"아가씨는 근력도 부족하고, 기초 체력도 없어서 검이나 총은 들 수 없겠군요. 우선 근육부터 만들죠"

그때부터였을까...

개고생의 시작이......

그는 넓고 넓은 공작의 저택 뒤에 있는 공원이라는 숲을 계속 뛰어다니게 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서 빈둥빈둥됬던 게 어제 같은데…. 일상이 이리 바뀌다니... '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 온몸은 땀으로 젖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목에서는 쇠 맛이 느껴졌다.

털썩하고 주저앉자 우디는 물을 주며 말했다.

"아침 식사 하고 보죠"

싱긋 웃는 우디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다.

오랜만에 저택으로 돌아온 칼리아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오늘도 푸짐한 아침 식사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덜덜 떨리는 손을 붙잡고 힘겹게 수프를 떠 입에 가져갔다.

'아침에 운동했더니 오늘따라 밥이 더 꿀맛이야.'

한 방울도 흘릴 수 없다는 의지로 초집중모드로 수프를 조심스럽게 먹었다.

조금씩 익숙해지자 어디선가 한숨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칼리아 수프에 수저를 담고 작게 한숨을 쉬고 있었다.

"각하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가요?"

"곧 있을 기사 수여식 때문에 골치가 아파"

칼리아는 머리가 아프다는 듯 찡그리며 말했다.

"일손이 많이 부족한가요? 안 그래도 불미스러운 사건을 아직도 조사 중이신 거 같던데..."

"그 일은 이미 은밀히 알아보고 있으니, 괜찮다. 공주님 때문에 그렇지"

어느새 수프를 다 먹은 난 칼리아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입맛이 없는지 들고 있던 수저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칼리아의 말에 의하면 이번 기사 수여식은 토벌전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신전에 기도를 올렸던 귀족영애들도 참가한단다.

그렇게 되면 왕족 중 대표자가 나와 그들을 위로하고 짧게나마 연설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일은 황후가 나섰다.

그러나 올해 몸이 안 좋은 황후는 공기 좋은 남쪽의 섬으로 요양을 가 있었기 때문에 13살밖에 안 된 공주가 연설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그 공주님이 사람 많은 곳에만 가면 기절한다는 게 문제였다.

공주는 대외적으론 몸이 아프다는 걸로 소문이 났을 뿐.

1년에 한 번 건국 제때가 아니면 얼굴을 잘 비추질 않았다.

그런 그녀가 연설이라니…….

칼리아가 머리가 아플 만했다.

"공주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되신 건데요?"

후식으로 나온 과일을 살짝 얼린 샤베트 종류를 먹으며 물었다.

입에서 사르르 녹는 게 아주 일품이었다.

"5살? 6살? 그때 쯤이였던거 같은데…. 자세히는 나도 잘 몰라

칼리아는 곧 내 눈치를 보더니 물었다.

"그대가 한번 만나볼 생각 있나?"

"제가 무슨 재주로 공주님을 고쳐요?"

"그저 한번 얘기라도 해보는 게 어떠한가"

다 죽어 가던 얼굴을 하던 그의 얼굴이 거짓말이라는 듯 그가 말했다.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도록 하지 조만간 자리를 만들도록 하지"

이미 나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그가 자리를 떠났다.

오후는 우디와 함께 또다시 기초 체력을 훈련하기 위해 숲에 들어가 훈련을 받았다.

죽는 것보단 낫겠지 란 마음으로 이를 물고 열심히 그의 말에 따라 움직였다.

우디는 딱 나의 체력에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분명 가볍게 뛰기밖에 시키지 않는 거 같은데, 숨이 턱까지 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대로 자면 분명 내일 몸살이 날 거라며 극한스트레칭까지 마치자 파김치가 된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내일은 입궁해야 되니, 그만하겠다고 했다.

조만간이라는 게 다음날이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공주님이 사는 곳은 어떤 곳일까 작은 기대를 하며 화원을 지났다.

어제의 격한 스트레칭이 도움이 됬는지, 생각보다 큰 근육통은 없었지만, 아직도 찌르르한 고통은 있었다.

매일 가던 길과는 다르게 온통 화려한 꽃길이 나의 눈을 사로잡았다. 잘 다듬어진 꽃 사이로 코가 아릴 정도의 꽃향기가 서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있었다. 커다란 화원을 지나자 공주가 지낸다는 건물이 나왔다.

이미 마중 나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벨리카부인과 하녀가 나를 보고 인사했다.

"어서 오시지요. 공주님은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서자 아기자기한 소품에 분홍 분홍 한 레이스에 어떻게 구한 것인지 가구도 온통 분홍색으로 맞춘 응접실의 한가운데 앉아 있는 작은 인형 같은 존재가 있었다.

솜사탕이 떠오르는 듯한 분홍 머리카락 색에 왕족에게만 보인다는 금빛 눈동자, 하얀 얼굴에 무표정하게 앉아 있는 게 누군가가 조각한 예술품 같았다.

눈이 마주치자 무표정했던 얼굴이 화사하게 웃었다.

"어서 오세요. 카르엔 리 그라니아 입니다"

아직 앳된 그녀의 목소리 또한 듣기 좋았다.

"루나 벨 브라이트 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작품후기]

깜찍둘맘님,고양이눈님,노란후리지아님,나물2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미리 준비한 테이블에는 작은 꽃들이 화병에 꽃여 있고, 이 나라에선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문양이 잔뜩 들어간 티세트와 한 쌍을 이루고 있었다.

과일이 잔뜩 올라가 생크림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케이크와 얇은 과자 위에 크림치즈와 빨간 과일이 올라가 화려한 디저트가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리 앉으세요"

제 또래에게 맞지 않게 어른스럽게 말하는 그녀는 어른 옷을 억지로 입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벨리카부인의 안내에 따라 맞은편에 앉자 자연스럽게 내 옆자리에 벨리카 부인이 앉았다.

시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내 앞에 있는 잔에 차를 따랐다.

공주가 차를 마시자 그녀를 따라 차를 마셨다.

응접실은 조용한 침묵만 감돌았다.

"급하게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어, 차린 게 별로 없네요"

어색함을 깨고자 벨리카 부인이 말했다.

"아닙니다. 이렇게 화려한 디저트는 처음 봅니다. 베네치아 공작님 저택에서도 이런 건 보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 머무르고 계신 곳이 베네치아 공작님 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그동안은 그저 벨리카 부인이 말하는 말에 호응하던 그녀가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물었다.

아무래도 이 귀여운 아가씨는 칼리아를 좋아하는 게 분명했다.

작게 웃으며 티를 내지 않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흠흠…. 황궁보단 작지만, 확실히 넓고, 웅장했습니다. 집사들도 2명이나 있었고요"

공주는 나의 몇 마디에 황홀한 상상을 하고 있는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그러다 궁금한 게 생기면 물어봤다.

시간은 금방 흘러 약속한 시각을 넘어서자 루나가 인사를 올리고 사라지자 방에 남은 벨리카는 의문이 남은 얼굴로 말했다.

"어째서 취임식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황홀감에 빠져 눈이 살짝 풀려 있던 공주는 벨리카의 말에 현실로 돌아왔다.

시녀와 벨리카가 남게 되자 한층 발랄해진

"그러네!!! 공작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만...."

"내일은 취임식에 참석해 달라고 말하겠죠?"

"아마 그러겠지......"

벨리카의 말에 공주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공주를 괴롭힌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처음 사람 많은 곳에서 기절한 공주를 보고 황제는 처음엔 의원을 불러 진료를 봤지만, 딱히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다. 말도 안 되게 쓴 약을 처방받아 먹던 그녀의 증상에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자 그 뒤로 신전에서 고위 사제가 나와 신성력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마법사까지 불러들여 마법을 불어넣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황제는 나이 어린 자신의 딸을 사랑했으므로 귀족들에게 은밀히 공주의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 없었다.

그 과정에서 카르엔 공주는 마음에 큰 상처를 얻었다.

자신을 병자로 취급하며, 은근 무시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만약 칼리아 공작이 직접 와서 간청하지 않았다면, 루나라는 하급공무원도 돌려보낼 생각이었다.

살짝 옅은 갈색 머리의 아가씨는 그저 이곳에 와 차를 마시며 공주의 호기심을 채워주곤 가버렸다.

방심한 후에 기습할 예정인가……

카르엔과 벨리카는 생각이 복잡해졌다.

그녀 또한 지금까지 온 자들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들의 생각을 뒤엎었다.

루나는 똑같은 시간에 그저 디저트와 차를 마시곤,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눈 뒤 똑같은 시간에 인사하고 떠났다.

처음에 이를 경계하던 두 사람도 어느새 루나와 사담을 나누고 있었다.

루나는 불치병에 걸린 불쌍한 공주가 아닌 그저 13살의 카르엔으로 봐주고 있었다.

언제나 자신의 궁 안에 갇혀 만나는 이도 없이 쓸쓸한 카르엔은 어느새 루나가 오는 시간을 기다려졌다. 주변에 제 또래 하나 없는 카르엔에게 루나는 첫 친구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이주가 지나갔다.

그날도 어김없이 티타임을 즐기려던 루나가 말했다.

"카르엔 공주님 오늘은 부탁이 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벨리카 부인과 케르엔은 루나 몰래 서로 눈짓을 했다.

"오다 보니 공주님 화원보단 별로지만 꽤 괜찮은 곳이 있어 오늘은 그곳에서 티타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하는 대요"

"ㅅ..싫ㅇ...엥? "

루나가 치료를 받아보라며 사람을 만나달라 요청할 줄 알았던 두 사람은 순간 황당해서 말을 잃었다.

루나는 그것이 거절이라고 생각했는지, 침울한 표정을 했다.

카르엔은 루나의 표정을 보고 다시 말했다.

"어딘데? 가자"

황급히 말한 카르엔은 벨리카와 시녀들에게 서둘러 채비를 하라고 이른 뒤 루나를 따라 밖으로 나섰다.

루나가 데리곤 곳은 넓은 공터였는데, 사면이 밝은 청색의 예쁜 꽃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상하게 사람 하나 보이질 않았지만 카르엔은 그것마저 좋았다.

화려한 공주 궁과는 다르지만 매일 보던 꽃이 아닌 다른 꽃을 보던 카르엔은 신기한 눈으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꽃을 구경했다.

은은한 향을 내뿜고 있어 티타임을 가지기에도 좋은 장소였다.

커다란 나무 밑 시원한 그늘 테이블을 놓고 주위 풍경을 감상하며 마시는 타르트는 최고였다.

치즈가 적절히 녹아 입안에서 부서져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도 아까울 정도였다.

"오늘따라 타르트가 정말 맛있어."

카르엔은 연신 싱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했다.

그녀의 모습을 보며 벨리카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거 같았다.

여기서 울면 주책없어 보일까 앞에 놓인 차를 마시며 눈물을 함께 삼켰다.

"원래 밖에 나와서 먹는 음식은 더 맛있는 법이지요"

카르엔과 같이 웃으며 루나가 말했다.

"나 여기 마음에 들어, 앞으로 여기서 보자!!!"

"이 정도도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작품후기]

호이챠님,미야비양님,나물2님,고양이눈님,깜찍둘맘님,노란후리지아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해주신분이 300명 넘었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곧 30회가 다 되어 갑니다 ㅜㅜ 이렇게까지 써보다니 ㅜㅜㅜㅜ

^^^

5화 시작

그 뒤로 루나와 카르엔, 벨리카부인은 약속이나 한 듯 당연하게 꽃이 만발한 공터에서 티타임을 즐겼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점점 꽃이 차오르는 모습을 보며 카르엔은 즐거워했다. 언제나 자신의 궁에서만 지내던 그녀는 이렇게 오랜 시간 밖에 나와 있는 게 처음이었다.

연신 두리번거리며 매번 테이블 자리까지 옮기는 그녀의 모습은 제 또래 같았다.

공터에서 티타임을 가지기 시작한 일주일이 지나자 루나는 위로 솟은 커다란 단상을 보며 말했다.

"시종에게 들은 건데.. 저 커다란 단상 위에도 화려한 꽃으로 장식한다더군요, 그리고 저기서 아래를 보는 기분은 최고 일 거라고 했어요"

루나의 말에 카르엔은 눈을 빛내며 내일은 당장 그곳에서 티타임을 가지자고 졸랐다.

카르엔은 요즘 너무 즐거웠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방문한 칼리아가 소개해준 그녀는 자신을 불쌍하게도, 처량하게도 바라보지 않았다. 그리고 방문 목적인 기사 취임식에 관한 이야기도, 어쩌다 그리 사람 많은 곳을 피하게 되었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와 같이 있으면 카르엔은 멀쩡한 사람 같았다.

모르는 이가 지나다닐 때마다 눈치를 보며 덜덜 떨지 않아도…. 주위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었다.

다음날 시종에게 말해 커다란 단상 위에 차려진 화려한 디저트보단 아래 경치를 목이 빠지게 보던 카르엔은 난간에 손을 얹고 고개만 돌린 채 말했다.

"루나! 역시 너의 말을 듣길 잘했어! 여기서 보는 경치는 정말 상상 이상이야"

"공주님 그러다 떨어지십니다. 몸을 더 안으로 하세요"

벨리카 부인은 안절부절못하며 카르엔의 몸을 끌어당겼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은 카르엔은 다시 고개를 돌려 내려다보이는 풍경에만 집중했다.

"괜찮아"

제 또래의 얼굴을 한 카르엔의 웃는 모습에 벨리카 부인은 또다시 울컥하는 마을을 진정하기 위해 차를 마셨다.

루나는 벨리카 부인의 그런 모습에 살짝 미소를 지었다.

"공주님은 동물 좋아하세요?"

여간해서 공주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 루나의 말에 카르엔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다시 웃으며 말했다.

"귀여운 동물은 좋아하지…. 다람쥐나 토끼?"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하는 카르엔의 귀여운 모습에 루나는 다시 한 번 웃었다.

"근데 꼭 마물전이다 뭐다 하면서 머리 잘린 사슴 몸통을 바칠 때면 그 쓸데없는걸 왜 바치는지"

머리 잘린 사슴 몸통이 생각이라도 났는지 카르엔은 인상을 쓰며 말했다.

왕국의 하나 있는 공주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귀족들은 종종 공주님에게 바친다며 꽃과 함께 죽은 동물들을 바치곤 했다.

카르엔은 그 징그러운 사체를 보며 칭찬해달라며 뿌듯해하는 기사의 얼굴을 발로 차버리고 싶은 충동을 참으며 억지웃음을 지었던 지난날을 떠올렸다.

벨리카 부인은 카르엔이 아기 때부터 돌봐온 사람이었다. 카르엔이 이렇게 크게 웃으며 지냈던 날은 그날 이후로 처음이었다.

갈색 머리의 영애가 온 후 카르엔은 늘 즐거워했다. 그래서 그녀가 너무 고마웠다.

그런 그녀가 티타임이 끝나고 은밀히 따로 보자며 벨리카 부인을 불렀다.

"저를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처음과는 달리 경계심 없이 궁금증만 가득한 얼굴을 보며 루나는 웃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요. 공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형 얼굴을 좋아할지 몰라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따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루나는 꽤 오랫동안 계획한 것인지 종이에 스케치가 되어 있는 동물의 얼굴을 보여주며 카르엔의 취향에 물었다.

그녀의 이상한 행동에 벨리카 부인은 멈칫했지만, 그동안의 행실로 보건대 분명 카르엔 공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몇 장을 골라 루나에게 내밀자 그녀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내일 또 보자는 인사를 한 뒤 사라졌다.

단상에 올라 티타임을 가진 이후부턴 카르엔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큰 공터를 제 앞마당처럼 여기저기서 티타임을 가졌다.

어떤 날은 루나가 커다란 식탁보 같은 것을 잔디 위에 깔고 갈색 바구니에 간단한 샌드위치와 과일을 넣어왔다며 색다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내 카르엔을 즐겁게 하기도 했다.

단상 위에는 구하기도 어렵다는 분홍 장미꽃이 넝쿨을 이뤄 난간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와 어우러져 하얀 작은 꽃들이 분홍장미의 색을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었다.

그날은 루나가 보이질 않았다.

분명 매 같은 시간에 카르엔을 기다리고 있을 갈색 머리의 그녀가 보이질 않았다. 카르엔은 울상이 되어 가만히 있질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그녀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질 않았다. 더욱더 초조해진 카르엔은 벨리카부인을 붙잡고 몸이라도 안 좋은 것이냐며 걱정했다. 당연히 영문을 모르던 벨리카 부인도 공주의 모습에 초조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때였다.

저 멀리 커다란 덩치 하나가 그녀들을 향해 뒤뚱거리며 걸어왔다. 오랜만에 본 낯선 이에 카르엔이 잔뜩 굳어 벨리카 부인의 뒤에 숨었다.

하지만 뒤뚱거리던 걸음걸이를 생각해 호기심이 생겨 눈만 빼꼼히 내밀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귀엽게 생긴 동물 인형 탈을 쓴 이였다. 그는 말도 하지 않고 카르엔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멍하니 바라보던 카르엔은 저도 모르게 같이 손을 들어 인사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카르엔의 한쪽 손을 잡고, 무릎을 꿇으며 그 커다란 인형 탈의 입을 가져다 대며 입을 맞추었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카르엔과 벨리카 부인은 웃었다.

그러자 그 인형 탈의 머리를 벗자 루나가 나왔다.

"깜짝 선물이었는데, 놀래셨습니까?"

안 그래도 일반성인 여자를 두 명을 붙여놓을 정도의 덩치에 얼굴만 귀엽게 만든 동물 인형 머리를 뒤집어쓴 모습도 이상했지만 그 안에 루나가 나오자 둘은 눈은 튀어나올 정도로 놀랬다.

"루...루나..이..이게 무슨"

"지난번 인형극을 보고 싶다고 하신 게 기억나서, 제 식대로 한번 인형을 만들어 보았는데 괜찮으셨어요?"

확실히 지난번 귀여운 동물 이야기를 하며 왕궁 밖 축제 때 마을 아이들을 위해 작은 인형극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카르엔은 부러워했다.

그 작은 이야기까지 놓치지 않고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루나에 감동한 카르엔은 눈 주변이 붉어졌지만 이를 숨기기 위해 루나를 껴안으며 말했다.

"응…!!! 너무 마음에 들어"

카르엔에 말에 어디선가 대기 중이던 루나와 비슷한 탈을 쓴 이들이 하나둘씩 나와 카르엔 앞에 꾸벅 인사를 하더니 춤췄다.

초록색 커다란 잎과 보라색, 연한 청색의 꽃과 어우러져 그들은 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뒤로 종종 티타임을 가지며 그 인형 탈을 쓴 자들과 즐겁게 어울렸다. 동물 탈은 모양도 여러가지라 질릴 틈이 없었다.

인형 탈을 쓴 자들을 보조하기 위해 시종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지만 카르엔은 그것마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커다란 덩치들 때문에 사람이 잘 보이질 않았기 때문이었다.

[작품후기]

노란후리지아님, 깜찍둘맘님, 고양이눈님 코멘트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깜찍둘맘님 하트시크널까지 ㅜㅜ 너무 감사해요~

(선작, 별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벌써 30화네요~ 시작이 반이란 마음으로 꾸준히 쓰려고 노력중입니다.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카르엔이 동물인형탈에 익숙해지자 루나는 동물얼굴의 탈 뿐만 아니라 귀엽게 만든 사람탈을 쓴 이들도 데리고 왔다.

탈을 쓴 이들을 모아 목소리 없는 연극을 시작했다. 오로지 몸짓을 이용한 연극이었다.

그들의 덩치가 워낙 큰데 동작 또한 크다보니, 멀리서 심부름 하던 어린 시종들이 호기심에 기웃거리는걸 보고 루나는 카르엔에게 손가락으로 그들을 가르켰다. 차마 다가오진 못하고 멀리서 쳐다만 보고 있는 시종들의 모습을 본 카르엔은 그들이 와도 좋다고 동의를 하자 어린시종들은 활짝 웃으며 카르엔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들은 곧 같이 어울려 연극을 감상하기 시작했다.

어린시종들은 집안에 진 빚에 팔려오거나 돈이 없어 자발적으로 들어온 이들이 대부분이였으며 어려운 예법과 그들을 업신여기는 귀족, 같은 시종이면서 어른이란 이유로 그들을 부려먹는 일이 많아 웃을 일이 없었다.

그저 휑하던 공터는 싱그러운 꽃들과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처음엔 인형탈 쓴 이가 더많아 사람이 있는지 잘 몰랐지만 점점 인형탈 쓴 이를 줄이며 하나씩 사라지자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 있는게 보였다.

하지만 카르엔은 이미 그들과도 얼굴을 익혀 어색함을 느끼지 못했고, 어린시종과는 웃으며 공주궁에서 가지고온 초코쿠기나 디저트를 나눠 먹는 사이까지 되자 그녀는 더이상 사람들과 있는게 어렵지 않았다.

루나는 다시 벨리카 부인을 찾았다.

카르엔공주는 그날 어린 시종들과 넓은 공터를 뛰어다니느냐 체력을 다해 낮잠을 자고 있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루나님!!! 덕분에 요새 공주님께서 매일 웃으십니다"

생명의 은인이라도 되는 냥 벨리카 부인은 루나의 손을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말했다. 제 나이에 맞게 응석부리지 못하고 권력에 이용당할까 주목받을까 궁에만 숨어 있는 카르엔을 늘 안쓰러워 했다.

요즘 카르엔을 보면서 벨리카 부인도 기분이 좋았다.

"공주님이 좋아하시니 저도 좋습니다"

벨리카 부인을 따라 웃으며 루나는 말했다.

루나는 기뻐하는 벨리카 부인을 보며 긴장했다.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왔지만 결코 쉬운 부탁은 아닐꺼란걸 알고 있었다.

"저...... "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루나를 보며 벨리카 부인은 웃음을 멈추고 루나에게 말했다.

"취임식때문인가요?"

루나의 속을 들킨거 같아 뜨끔했지만 결국 해야할 말은 해야 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곧 취임식이 시작되니까요. 베네치아 공작님께서는 그저 공주님이 그자리에 참석해 딱 한마디만 해주시길 바라십니다"

벨리카 부인은 루나의 말에 한숨을 쉬었다. 그 한마디가 정말 쉽지 않은건 둘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요즘 사람들과 어울리는 카르엔의 모습은 한결 좋아 보였지만 아직까지도 가끔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불편한 침묵만 감돌았다.

벨리카 부인은 한참을 고민하다 루나를 보며 말했다.

"공주님께는 말안하고 당일 참석하시게 할까요?"

그녀의 말에 루나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그건 절대 안됩니다. 공주님께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본인의 일인데 당사자가 모른다니 말이 안됩니다. 강요도, 설득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사실대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못하겠다 하시면 다른 답을 찾아보죠"

벨리카 부인은 단호한 루나의 모습에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다.

다음날 루나는 저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다. 벨리카 부인에겐 단호하게 말했지만 카르엔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밤새 고민했지만 결국 정면돌파할 생각이었다.

모름지기 솔직한게 최고였다.

"저.. 공주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카르엔은 그날도 어느 때처럼 인형탈을 쓴이들과 손을 잡고 꽃을 둘러보던 참이였다. 카르엔은 그들에게 먼저 가있으란 손짓을 한후 루나와 오랜만에 티테이블에 앉았다.

어린시종들과 인형탈을 쓴이들이 온후론 한 곳에 오래 앉아 있지 않았기에 루나와도 마주 앉는 것이 오랜만이였다.

"이번 토벌전과 기사 취임식 때문에 그런거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이마에 맺은 땀을 손수건으로 훔치며 카르엔은 웃으며 말했다. 카르엔이 먼저 말할줄 몰랐던 루나는 당황해서 할말을 잃었다.

"어...어떻게..."

"이래뵈도 난 공주야 루나......."

어린 그녀의 모습을 감춘 뒤 씁쓸하게 웃는 카르엔의 모습에 루나는 슬퍼지는 기분을 느꼈다.

"루나가 날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알아.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안계시는데 이번엔 나도 꼭 참석해야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카르엔은 이번엔 천진하게 웃어보였다.

기사 취임식은 금방 다가왔다.

파란하늘에 맑은 구름이 떠올라 화창한 날이었다. 카르엔은 전날부터 잠을 이루질 못했다. 공식석상엔 몇년만에 제대로 서보는건지..... 이른아침부터 피부에 좋다는 마사지와 향료를 듬뿍 넣은 반식욕을 했다.

벨리카 부인 또한 지난밤 한숨도 이루질 못했다. 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카르엔은 늘 입던 간단한 드레스 대신 몇일전 황제가 보내준 풍성한 레이스에 최고급 천과 단추는 사파이어로 장식된 고급 드레스를 입었다.

머리 손질부터 시작해 공들인 화장까지...

그녀는 13살의 아이로 보이지 않았다.

긴장하면 안된다는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아 덜덜 떨리는 손을 붙잡고 크게 숨을 내쉬고 있었다.

"공주님, 밖에 칼리아 딘 베네치아 공작님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칼리아는 깔끔하게 다려 입은 제복을 입고 한쪽 머리를 넘겨 왁스로 고정한 모습으로 카르엔 공주를 찾아왔다.

그녀의 호위를 맡게 된 칼리아는 아침일찍 루나가 전해달라는 상자를 카르엔에게 전달했다.

아직도 진정되지 않은 손으로 힘겹게 상자를 열자 그곳엔 한손에 들어오도록 작은 인형들과 쪽지가 들어있었다.

「공주님 너무 부담가지실 필요없습니다. 긴장하시지 않게 공터에서 만났던 동물인형탈들을 작게 인형으로 만들었어요 손에 쥐고 계신다면 아무도 모를꺼에요」

그 작은 인형들을 손에 꼭 쥐고 카르엔은 말했다.

"이제 가죠"

그라니아왕국의 유일한 공주 카르엔 리 그라니아의 입장이 시작 되었다.

[작품후기]

깜찍둘맘님, 류민♡님, 노란후리지아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해주시는분,재밋게 읽어주시는 분, 추천해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깜찍둘맘님 쿠폰후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몇수는 얼마 안되지만 꾸준히 정해진날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숩니다.

부족한 점 많은 글 재밌게 읽어주시는 분들 덕분에 힘을 얻습니다!!

^^^

5화 시작

카르엔은 루나가 준 인형을 손에 꽉 쥔 채로 칼리아의 호위를 받으며 밖으로 나왔다.

평소와는 다른 두꺼운 화장, 무거운 머리 장식, 보석이 잔뜩 달린 드레스, 굽 높은 신발….

무엇하나 익숙한 게 없는데, 카르엔은 불안함을 느끼질 못했다.

익숙한 길을 지나오자 어딘가 낯익은 장소로 도착했다.

루나와 함께 티타임을 가졌던…. 어제까지도 있었던 그 넓은 공터였다.

물론 귀족들의 눈을 즐겁게 하도록 갚비싼 테이블과 의자, 그위에 장식된 꽃장식과 처음 보는 사람들...

모두 낯설었지만 카르엔이 좋아하던 청색 꽃과 보라색 꽃은 여전했다.

"카르엔 리 그라니아 공주님 오셨습니다"

입구 옆에 서 있던 시종 하나가 크게 외치자 웅성거리던 내부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곧 다시 작은 소리로 속닥속닥 거리기 시작했다.

소문으로만 듣던 카르엔의 등장에 다들 할 말이 많은 듯 보였다.

그들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고 곧바로 단상에 오른 카르엔은 왕의 바로 옆자리....

원래대로라면 자신의 어머니가 앉아야 할 자리에 당당히 앉았다.

왕은 며칠 전 참석해 달라며 드레스와 장신구를 보냈지만 진짜로 카르엔이 참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입구에 선 카르엔을 보자 왕은 체통도 잊고 딸에게 뛰어가 껴안을 뻔 했다.

공식 석상에서 보는 건 '그날' 이후 처음이었다.

그날은 정확히 카르엔이 6살 되던 해였다.

왕은 남자 형제는 많았지만, 여자 형제는 없었다. 왕비가 왕자를 낳았을 때도 기뻤지만 몇 년 뒤 카르 엔이 태어났을 땐 이루 말할것 없이 기뻤다.

그런 그녀를 위해 모든 걸 해주고 싶었다. 왕의 집사가 틈만 나면 딸 자랑을 하던 모습이 배알이 꼬였던 그지만 이젠 집사의 마음을 절실히 알게 되었다.

카르엔의 미소에 하루가 행복했고, 처음 아빠라고 말을 했을 땐 저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모든 사람들의 애정과 관심을 듬뿍 받고 자라던 카르엔은 하루가 다르게 어여쁜 공주로 자랐다.

그녀가 공식 석상에 나타난 건 6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귀족 앞이었다. 그동안은 왕이 워낙 귀하게 여겨 다른 사람 앞엔 보여주질 않았다.

그런 그녀가 공식 석상에 나타난다는 말에 소문을 듣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녀의 얼굴을 보기 위해 진기한 선물을 가지고 방문했다.

카르엔도 제가 주인공인 걸 아는지 단상위 의자에 앉아 방긋방긋 잘도 웃었다.

행렬은 끝을 알 수 없도록 선물 공세가 이어졌다.

카르엔은 벨리카 부인과 함께 화장실을 찾아 복도를 나서던 중 에리엘 백작과 마주쳤다.

그는 어린 카르엔에게 웃으며 인사를 올렸다.

당시 왕권은 약했다. 왕이 되기 위해 형제들을 쳐내고, 자기 뜻을 반대하는 귀족들을 무너뜨렸다.

그 과정에서 왕권에 힘을 실어줄 귀족은 몇 없었기에…. 중립을 지키고 있던 몇몇 귀족들의 힘이 강했다.

당시 에리엘은 백작이었다

에리엘 백작은 중립을 지키던 클라우디아 후작을 믿고 기고만장해져 있었다.

술이 얼큰히 취한 에리엘 백작은 벨리카 부인에게 질 나쁜 농담을 하며 추파를 던졌다. 벨리카 부인은 혹시라도 카르엔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질 나쁜 농담은 수위를 넘어서자 벨리카 부인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졌다. 카르엔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에리엘 백작을 손으로 밀었다.

"하지마!!!!"

작은 아이의 힘으로 밀릴 리 없는 성인 남자의 힘에 결국 넘어진 건 카르엔이였다.

억울한 카르엔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에리엘 백작은 주저앉아 있는 카르엔을 일으키며 카르엔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조금만 더 크면 내 침대에 들어와도 되겠어 하하하하하"

그의 수치스러운 말에 벨리카부인은 부들부들 떨면서도 차마 나서질 못했다.

그저 그녀는 에리엘백작의 손에서 빨리 카르엔을 데리고 와 뒤에 숨겼다.

에리엘 백작은 두 사람의 모습에 흡족해 카르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 일을 왕에게 고한다면, 벨리카 부인과 왕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않겠지.."

사악하게 웃으며 떠난 에리엘 백작은 사라졌다.

그동안 카르엔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와 관심만 받아오다 처음 악의를 받았다.

그녀는 그저 울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숨만 쉬었다. 자리로 돌아온 카르엔은 아까처럼 웃지도 못하고 넋 놓고 있다 맨 앞자리 좌석에 앉아 있는 에리엘 백작의 모습에 기절했다.

그 뒤로 몇 번의 희롱과 몇 번의 기절은 그녀를 공식 석상에 설 수 없게 만들었다.

당연히 왕은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카르엔은 그 사건에 대해 절대 입을 열지 않았다.

카르엔이 자리에 앉자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설을 시작했고, 곧 수석 신입 기사가 단상에 올라 서명식을 맞췄다. 그때까지도 카르엔은 기절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긴장한 그녀는 차분해지려 뒤쪽에서 대기 중인 시종을 불러 차를 가져오게 했다.

조용히 나와 그녀의 찻잔에 차를 따르던 시종은 낯이 익은 자였다.

넓은 공터에서 카르엔과 디저트를 같이 먹으며 공연을 보던 이 중 하나였다.

이 또한 루나의 작은 배려란 걸 알게 된 카르엔은 차를 마시지도 않았는데 긴장감이 풀렸다.

곧 수석 신입 기사가 카르엔의 손등에 키스하며 맹세의 의식을 하려고 카르엔이 일어서며 그에게 다가가자 단상 앞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는 에리엘후작의 모습을 보자 또다시 몸이 부들거리며 아무 생각을 할수 없었다. 그녀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칼리아가 루나를 급하게 찾았다.

자신의 뒤에서 몰래 카르엔을 살피던 그녀도 사라졌다.

그때였다.

공터 바깥에서 커다란 인형 탈을 쓴이가 우스꽝스러운 손짓과 발짓을 하고 있었다.

귀족들은 앞으로 보고 있었기에, 단상의 왕족들만 볼 수 있었다.

공황상태의 카르엔도 그 커다란 인형 탈을 보게 되었다.

인형 탈을 쓴 이는 며칠 전 연극에서 카르엔이 웃으며 재밌었다는 장면을 혼자 연기하고 있었다.

카르엔은 이제 에리엘후작의 모습은 기억나지 않았고, 그저 앞에서 자신을 위해 연기하고 있는 인형 탈만 바라보았다.

멀쩡해진 그녀의 손등에 맹세의 의식이 치러지고, 카르엔이 자리에 앉아 인형 탈을 쓴이는 황급히 사라졌다.

행사는 커다란 사건 없이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작품후기]

류민♡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 추천,별점 감사합니다!!!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 수정했숩니다. (황제에서 왕으로...제국이 아닌데... 막 쓰다보니.. 죄송합니다)

^^^

5화 시작

루나는 칼리아에게 공주를 만나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공주를 만났다.

이 나라 저 나라 유명하다는 의사, 사제, 마법사까지 고치지 못한 병을 자신이 무슨 수로 고칠 수 있느냐는 생각에 가볍게만 생각했다.

살면서 처음 본 공주님은 동화책에나 나올 정도의 귀여움과 아름다움이 있었다.

일개 하급공무원인 나에게 어딘지 모르게 위축된 모습은 참 안쓰러워 보였다.

하지만 곧 내 코가 석 자인데 누굴 걱정하느냐는 마음에 안쓰러운 마음을 지웠다.

티테이블에 올라온 과일이 잔뜩 올라간 생크림케익을 입에 물자 이곳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눈앞에 보이는 디저트를 야금야금 먹고 있는데, 어색한 분위기를 참지 못하는 벨리카 부인이 칼리아 공작에 대해 말하자 공주는 언제 눈치를 봤느냐는 듯 칼리아에 대하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우디와 체력단련시간을 보내고 들어오니, 칼리아는 벌써 왕궁으로 출근했었다.

앞으로 있을 기사수여식으로 왕궁 전체의 보안유지를 돌아봐야 한다며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왔다.

얼굴 보는 게 점점 힘들어 질 거란 생각이 들었다.

공주는 칼리아가 동화 속에 나오는 왕자님급으로 생각하는 듯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홀린 것인가.....

나에게 칼리아는 그저 사람부려 먹는데 탁월하신 분이었다.

그리고 무척이나 잘생긴 그 얼굴........

동굴에 둘이 있을 때 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카락과 묘한 색기 어린 얼굴….

작정하고 누굴 꼬신다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었다.

분명 공주도 얼굴에 넘어간 게 확실하다며 혼자 고개를 끄덕거렸다.

얘기할수록 공주는 순진한 구석이 있었다.

혹시라도 내가 기사수여식에 참여해달라는 말을 할까 슬금슬금 눈치 보는 것도 귀여웠다.

속이 뻔히 보이는 상대와 이야기 하는 건 꽤 오랜만이었다.

점점 카르엔 공주가 마음에 들었다.

갈수록 경계심을 풀고, 바깥세상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올 때면 젖살이 빠지지 않은 볼이 발그레져 생기가 흘렀다.

루나는 힘닿는 곳까지 카르엔 공주를 도와주고 싶었다.

만나기 힘든 칼리아에게 쪽지를 남겼다.

공주님을 도와주고 싶다고...

그러기 위해선 먼저 수여식이 열리는 장소를 상세히 알려달라고….

제임스를 통해 장소를 알아 낸 뒤 루나는 곧장 그곳으로 갔다.

아무것도 없이 잔디와 잡초가 무성히 자라 있었고, 덩그러니 커다란 단상만 있었다.

당장 제임스에게 말해 시종들을 데리고 와 넓은 공터를 꾸미기 시작했다.

늘 같은 시간에 카르엔을 만나고, 공터로 와 그들을 도왔다.

장소가 너무 넓어 일손은 계속 부족했다.

오후에 하는 체력훈련도 접고 잡초 뽑기에 매달렸다.

공터는 꽃과 잔디로 채워졌다.

루나는 뿌듯한 마음으로 공주를 초대했다.

장소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곳에서 티타임을 가졌다.

진한 장미 향이 아닌 은은한 꽃향이 차와 어우러져 한층 더 안정감을 줬다.

틈틈이 카르엔이 관심을 가졌던 것들, 좋아하지만 직접 할 수 없는 것까지 기억했다.

벨리카 부인에게는 따로 카르엔이 좋아하는 것들에 관해 물었다.

하지만 딱히 이렇다 할 좋은 생각이 나지 않던 차에 카르엔과 축제 이야기를 나눴다.

"6살 이후로 사람 많은 곳을 가보질 못해서, 시반달연극도 못 봤었던 게 제일 아쉬웠어."

당시 왕궁에는 시반달이라는 연극이 유행했었는데, 반달이라는 극단에서 영지 각지를 돌며 순회공연도 했었다.

그래서 모르는 이가 없었고, 못본이가 없을 정도로 크게 흥행했었다.

카르엔은 몇 년 동안 순회공연을 한 시반달연극을 못 본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루나는 거기서 좋은 생각이 났다.

당장 제임스를 통해 조각가와 의상디자이너를 불렀다.

수도 안에서도 유명한 톰과 욘은 칼리아의 이름으로 금방 달려왔다.

톰에게는 먼저 여러 동물 스케치와 얼굴을, 욘에겐 인형 몸통을 만들어 달라며 계획을 말했다.

그들은 루나의 이상한 요구에 머리를 갸웃거렸지만 재밌겠다며 흔쾌히 허락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그들은 전문가라 금세 틀을 잡았다.

단순 작업은 카르엔의 하녀들과 루나가 맡았다.

바느질 작업은 그녀도 할 수 있는 일이라 어렵지 않게 그들을 도왔다.

생각한 기간 안에 만들기엔 촉박했다.

루나가 계획한 시일 내에 하기 위해 그들은 곧잘 밤을 새웠다.

그들의 곁엔 루나도 함께였다.

잦은 밤샘으로 루나는 눈 밑에 검게 변했고, 자주 졸아서 바늘에 찔리는 날도 생겼다.

하지만 그 인형 같은 공주님이 환하게 웃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다.

반창고로 바늘에 찔린 손을 가리기 위해 티타임에는 하얀 장갑을 끼고 나타났다.

마침내 제작된 인형 탈은 루나가 입기에도 손색이 없었다.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을 본 톰과 욘은 재밌다며 손뼉까지 치며 좋아했다.

카르엔의 앞에 나설 땐 조금 떨렸다.

싫어하면 어쩌나.....

하지만 곧 그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

카르엔은 환한 웃음으로 루나를 반겼다.

인형 머리를 벗고 얼굴을 드러내자 카르엔이 달려와 안길 땐 그간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작은 공주님이 제게 와 안기다니....

점점 자신감이 생긴 루나는 당시 시반달연극의 대본을 입수해 카르엔의 하인들과 연습했다.

하녀들은 그들의 인형 옷을 만들고, 더없이 공주 궁은 활기찼다.

카르엔은 성인남자…. 특히 배가 나온 남자를 무서워해 티타임에는 언제나 어린 시종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루나가 처음 인형 탈을 쓰고 나타나자 차마 곁으로 오진 못 하고, 주위를 돌며 그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루나가 하는 것에 좋아했다.

곧 카르엔에게 허락을 받자 어린 시종들은 카르엔과 어울려 루나가 준비한 연극을 함께 관람했다.

카르엔은 늘 벨리카 부인 뿐이었는데.......

루나는 어느새 공터에 있는 사람들과 어색함 없이 어울리는 모습에 카르엔에게 기사 수여식에 대해 말했다.

이미 참석하겠노라고 말하는 카르엔의 눈엔 단호한 결의가 보였다.

혹시 모를 불안감에 루나는 또다시 은밀히 수석신입기사도 데리고 왔다.

그는 흔쾌히 루나의 계획에 참석해주었다.

낯을 가리던 카르엔은 걱정과 달리 기절하지 않았다.

기사수여식 당일..

루나는 전날 카르엔의 걱정에 밤새 한숨을 이루어질 못했다.

당연 몸 상태도 별로였다.

카르엔을 위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 잠을 자질 못 해 멍한 상태였다.

기사수여식이 얼마 남지 않자 칼리아는 아예 궁에서 먹고자고를 했다.

며칠 만에 만날 칼리아의 얼굴엔 야근의 흔적 따윈 없었다.

'잘생긴 사람은 다크써클도 안생기나.....'

루나는 정말 멍한 상태였다.

제임스를 통해 카르엔이 참석한다고 칼리아에게 알렸다.

그 자리에 루나도 서기 위해 칼리아와 함께 움직였다.

카르엔이 등장하자 주변의 귀족들이 수군거렸다.

"공주가 추녀라 숨겼다더니, 거짓말이었구먼"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더니, 저리 멀쩡한걸...."

"어쩜 저리 아름다울까…. 성인이 되시면 왕궁에서 최고의 미녀가 되시겠어."

그들의 목소리에 칼리아의 뒤에서 루나는 왠지 모를 흐뭇함을 느꼈다.

카르엔은 지금까지의 소문과는 다르게 우아하게 등장해 조용히 왕의 옆에 앉아 수여식을 지켜봤다.

그러던 중 갑자가 카르엔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루나는 일이 잘못되어간다는 걸 알자 혹시 몰라 챙겨두었던 인형 탈을 쓰러 달려나갔다.

모든 귀족은 앞을 바라보고 있어 단상에서 인형 탈을 쓴 루나를 볼 수 있는 건 왕족들뿐이었다.

대충 상황을 알고 있던 왕과 왕자는 루나의 모습에 당황하지 않았다.

루나를 발견한 카르엔의 얼굴에서 안도감을 읽고, 카르엔이 자리에 앉기까지 루나는 혼자 고군분투였다.

아직 한낮 날씨는 더웠다. 무거운 인형 탈을 쓴 루나는 그 속에서 땀범벅이 되어갔다.

곧 카르엔이 의자에 앉자 루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커다란 나무 뒤로 숨었다.

주저앉아 숨을 고르던 루나 앞에 검은 구두가 보였다.

칼리아였다.

안심한 루나는 인형 머리를 벗었다.

땀에 젖어 앞머리가 얼굴에 붙어 있고, 열기로 루나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작품후기]

레드문101님,초코칩푸라풏치노님,maria89님,나물2님,류민♡님,노란후리지아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별점,추천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오타수정 하는데도, 하나둘씩 보여 죄송합니다 ㅜㅜ

부족한 글에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공작님!!!"

루나는 칼리아를 보며 활짝 웃었다.

칼리아는 땀에 젖은 루나를 빤히 바라보다가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루나가 들고 있는 인형 머리를 대신 들어 바닥에 내려놓고 땀에 젖어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그의 조심스러운 손짓에 루나는 거칠게 내뱉던 숨도 참아졌다.

칼리아는 땀범벅이 된 루나를 보며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는 걸 느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사랑스럽다는 감정을 느꼈다.

당황스러운 감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도 저리 웃는다면 왠지 모르게 화가 날 거 같았다.

이미 시작된 감정은 멈출 도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칼리아는 빠르게 생각을 마치고 눈꼬리와 입꼬리가 내려가며 나른하게 웃었다.

루나는 대답이 없는 칼리아를 빤히 바라보며 그가 웃는 모습에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걸 느꼈다.

분명 아까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녀서 아직 진정되지 못해 심장이 빨리 뛰는 거라고 억지로 결론을 낸 후 그의 눈을 피했다.

그래서 일까.....

루나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옆으로 쓰러지려 하자 칼리아가 급히 손으로 그녀를 바쳤다.

"어디 아픈가?"

방금까지 웃고 있던 게 거짓말인 양 칼리아가 무표정으로 하지만 어딘가 급해 보이는 표정이었다.

루나의 대답은 들을 생각이 없었는지 칼리아는 루나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이 있군"

느긋이 말하는 목소리와는 달리 칼리아는 루나를 안아 들고 급히 공작 저로 향했다. 칼리아는 블리스를 불러 자리를 비울 테니, 그뒤의 일들을 하나하나 지시해 두었다. 그사이 열이 더 오른 것인지 루나는 정신을 차리질 못하고 있었다.

늘 늦은 시간에 오던 칼리아가 일찍 공작 저에 도착하자 제임스는 급히 나와 그를 맞이했다.

칼리아가 루나를 안아 들고 인사도 받지 않고 곧장 루나의 방으로 향했다.

제인이 방에서 청소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울상을 지었다.

칼리아는 침대에 루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뒤로 따라온 제임스에게 말했다.

"당장 의사를 불러!!!"

제인은 루나의 상태를 보다 땀범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칼리아와 제임스를 방 밖으로 쫓았다.

"땀을 많이 흘리셨어요. 이러다간 몸이 식을 거 같으니,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고 옷을 갈아입히겠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단정하게 누워 있는 루나가 보였다.

의사가 허둥지둥 도착했다.

한참 진찰을 마친 그는 말했다.

"감기몸살이군요. 며칠 푹 쉬고 나면 괜찮아 지실 겁니다"

의사는 제인에게 루나가 먹을 약을 처방 후 주의사항과 함께 적은 종이를 주고 갔다.

루나는 꼬박 하루를 죽은 듯이 자고 일어났다.

처음에 눈만 가만히 뜬 루나는 숙취처럼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다.

그러다 익숙한 천장이 눈에 보였고, 칼리아와 이야기를 하다 그뒤의 장면들이 생각이 나지 않자 벌떡 일어나 앉았다.

"일어났나?"

바로 옆에서 칼리아 목소리가 들렸다.

루나는 목소리가 들린 쪽으로 고개를 들자 제 방인 양 작은 테이블 위로 서류에 사인하고 있던 칼리아를 보게 되었다.

그는 루나가 일어나자 보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고 루나에게 다가왔다.

"갑자기 쓰러져서 놀랬어. 꼬박 하루를 누워 있었어."

계속 누워 있어서 눌린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칼리아가 말했다.

곧 칼리아에게 하루 동안 시달렸던 의사가 들어와 루나의 상태를 다시 살폈다.

"요 며칠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자..크흠..흠 자긴 했습니다"

잔뜩 잠긴 목소리에 다시 헛기침하며 목소리를 가다듬고 루나가 말했다.

의사는 루나의 말에 의심쩍은 듯 다시 물었다.

"적어도 5시간 이상은 주무셨습니까?"

"...........아니요"

그제야 의사의 눈을 피하며 루나가 손을 꼼지락거리며 말했다.

"감기 기운에 수면부족 상태라 갑자기 열이 오른 거 같습니다. 며칠 푹 쉬시면서 잠도 7시간 이상 주무시면 금방 나을 것입니다"

그는 칼리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자한자 힘줘 말하곤 가방을 들고 가버렸다.

그때까지도 칼리아는 루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말했다.

"왜 그렇게까지 했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한 칼리아는 루나가 말을 하려 입을 때자 다시 말했다.

"아니다....쉬도록 해"

나갈 생각이 없는 칼리아는 다시 자리에 앉아 서류를 뒤적거리자 루나가 말했다.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살짝 갈라진 목소리에 목에 손을 얹고 인상을 찌푸렸다.

"그래 난 신경 쓰지 말고 쉬도록 해"

점차 맑아지는 정신에 루나는 생각했다.

쓰러지기 전에도 칼리아가 이상야릇한 분위기를 만들더니, 아까도 멍한 상태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었다.

' 왜저러지....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정신으로 루나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결국, 회피를 선택한 루나는 칼리아에게 물었다.

"공주님은 괜찮으세요?"

마지막까지 그녀가 기사수여식을 끝내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게 생각났다.

"그래. 잘 끝나고 궁으로 돌아가셨어. 널 찾는다는 말에 몸이 좋지 않다고 전해드렸다"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던 칼리아는 한숨을 쉬며 다시 말했다.

"그대의 몸 상태나 생각하고 남을 걱정하는 게 어때"

"자고 나니 괜찮아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까지 저어가며 또다시 한숨을 쉰 칼리아는 다시 침대 쪽으로 걸어와 앉아 있는 루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침대에 눞혔다.

"아까 의사 말 못들었나 푹 쉬라고"

왠지 칼리아의 말에 거역할수 없게 된 루나는 마지못해 말했다.

"네......"

왠지 칼리아의 말에 거역할 수 없게 된 루나는 마지못해 말했다.

"네......"

하루를 꼬박 잠들고, 누군가 곁에 있다는 생각에 쉽게 잠이 오질 않았다.

계속 뒤척거리자 칼리아가 말했다.

"잠이 오질 않나?"

"........네"

결국 다시 침대에 기대앉았다. 칼리아는서류를 내려놓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죄송해요. 저도 제가 쓰러질 줄은 몰랐어요"

조심스럽게 칼리아의 눈치를 보며 말했다.

"공주와는 꽤 친해진 거 같던데...."

"귀여운 분이시니까요"

달달한 솜사탕을 닮은 연분홍색 머리카락을 가진 카르엔이 생각난 듯 루나가 작게 웃었다.

"이번 일로 전하께서 널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어. 다음에 같이 가는 게 좋겠어"

"저...전하께서요?"

"그래. 혼내시는 게 아니니 부담은 가지지 말고"

이미 부담스러워졌다.

"같이 가주시는 거죠?"

"그래"

루나의 말에 칼리아가 작게 웃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제가 어떻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옮겼지"

"윽……. 민폐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진 루나가 말했다.

"괜찮아"

"근데 공주님께서는 괜찮으시다가 왜 그러셨을까요?"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루나가 말했다.

"앞줄에 앉아 있던 건 아리스타 후작, 체이스후작, 클라우디아 경, 에리엘후작이였는데 그중 한 명을 보고 놀란 거 같았지"

"유독 덩치가 있고 배 나온 사람들을 보면 놀래 하셨어요"

[작품후기]

유리여니님,헤헤후후님,loooi님,ㆍ설렘ㆍ님,류민♡님,쵸코이온님,노란후리지아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수가 어느덧 450이 넘고 추천수가 천이 넘었습니다 ㅜ

항상 부족한 글솜씨에도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나기가 온다던데... 시원하게 쏟아져서 더위좀 가셨음 좋겠네요~

더위랑 냉방병 조심하세요!!!

^^^

5화 시작

"에리엘후작. 그작자가 또"

골치가 아픈 듯 머리를 짚으며 한숨을 내쉰 칼리아가 말했다.

"그분이라면......."

행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벌겋게 취해 있던 진상 느낌을 품기던 아저씨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더러운 변태한테 우리 귀여운 공주님이 무슨 일을 당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어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이불을 손에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길래, 공주님이 그 정도까지.."

"소문에 의하면 정부만 10명이 넘는다던데…. 그중에 어린애만 5명이고 그사이 공주한테까지 손을 뻗었을 줄이야."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공주님이 말을 해준 게 아니라서"

"그 정도 반응이면 정확한 거지. 지금 당장은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니 좀 더 기다려 봐야겠군. 그동안 푹 쉬도록 해"

칼리아는 여전히 이 방에서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저 객식구인 루나는 차마 뭐라고 하지 못하고, 그대로 누워 버렸다.

할 일이 없어진 루나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쓰고 눈을 꼭 감았다.

칼리아는 서류를 보는지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그날부터였다. 감기몸살에 며칠 잠을 못 자 쓰러지고 난 이후부터 칼리아가 자신과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처음엔 인식하지 못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테이블 위에 서류는 사라지고 칼리아도 보이지 않아서 내가 잠들자 갔구나 싶었더니, 식당에서 식사하고 자연스럽게 내 방으로 들어오더니, 자신의 지정석인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았다.

어느새 테이블 위에는 다른 서류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뭐지'

딱히 할 일이 없어진 루나는 힐끔힐끔 칼리아를 몰래 관찰하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화들짝 놀라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칼리아는 서류에 시선을 둔 채 말했다

"궁금해서 하는 말인데, 뭐하나 맡으면 그렇게 끝을 보는 게 성격인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지? 뭔가 이익을 바라고 하는 건가?"

"이익을 바라고 한다면 그렇게 못하죠. 그냥 전 뒤돌아봤을 때 후회하고 싶지 않아 그렇습니다"

칼리아는 다시 말이 없었다.

루나는 더는 누워 있어지고 싶진 않았다. 허리도 아프고, 눈을 감고 있어도 잠은 더는 오지 않았다.

결국, 잠깐 칼리아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제인을 불러 지난번 보다만 로맨스 소설들을 가져달라 부탁했다.

눈을 빛내며 걱정 말라며 사라지는 제인의 뒷모습을 보며 루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싸였다.

몇 시간 뒤 제인은 양손 가득 책을 가져왔는데, 이번엔 제목을 어디 갔다 팔았는지 보이지 않는 책이었다.

처음엔 식겁하고 멀리 처박아 뒀지만, 딱히 할 일이 없어 무료한 루나눈엔 자꾸만 그 책들에 시선이 가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조용히 한 글자 한 글자 정독했다.

루나는 곧 감탄했다

이렇게 참신하고, 격정적이며, 외설적이지만 한순간도 글자에서 땔 수 없게 만드는 책은 처음이었다.

칼리아가 들어 온 지도 모를 정도로 책에 빠져 있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은 밤샐 틈이 없었다.

제인은 그런 루나의 모습을 흐뭇이 바라보았다.

밤낮 가리지 않고 독서에 매진하자 칼리아는 처음 자신을 힐끔힐끔 바라보던 루나의 시선이 오로지 책에만 관심을 두자 왠지 모를 불쾌함을 느꼈다.

그리고 루나가 식사를 하느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제목도 없는 책을 읽어보았다.

야한 소설이었다.

첫 장부터 남녀가 뒹구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세세히 묘사되어 있는 글에 눈을 찌푸리며 당장 제인을 불렀다.

제인은 영문모를 표정으로 들어왔다 칼리아 손에 있는 책을 보고 깜짝 놀라 고개를 조아렸다

"이 책들은 네가 가지고 왔다던데...."

"아가씨께서 무료하다 하시어……. 제가 추…. 추천해 가지고 온 책입니다"

"하아"

머리가 아파진 칼리아는 당장 책들을 치우라고 명령했다.

제인은 양손 가득 들고온 책들을 하나하나 눈물을 머금고 치웠다.

배부른 배를 두드리며 기분 좋은 미소로 방에 들어온 루나는 아까 읽던 책들을 마저 읽기 위해 책을 찾았다.

공주와 기사가 만나 은밀히 도서관 뒤쪽에서 사랑을 나누기 직전까지 읽은 게 기억나 살짝 볼을 붉혔다.

"엥?"

분명 침대 옆 좁은 탁자 위에 책을 올려 두었는데, 책은 보이질 않았다.

아니 침대 안 보이는 쪽에 잔뜩 올려둔 책들도 보이질 않았다.

황급히 이곳저곳을 뒤져가며 책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책은 보이지 않았다.

방을 뒤집어 놓듯 찾을 수 없어 망연자실하게 침대 위에 앉아 있자 칼리아가 들어왔다.

차마 그에겐 책이 어딨느냐고 물어볼 수 없어 그 뒤를 따라온 제인에게 입 모양으로 책이 어딨느냐고 물었다.

제인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저었다.

칼리아가 뒤돌아 말했다.

"앞으로 그 책들은 반입금지다"

"네?"

차마 내용을 보셨냐고 물어볼 수 없었다.

그저 루나는 미친 듯이 몰려오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끄덕거렸다.

다시 무료한 생활로 돌아간 루나는 출근도 못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가 다시 견딜 수 없어졌다.

우디를 불러 새벽에 같이 체력훈련을 하기로 시작했다.

문제는 칼리아도 나와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집주인이 어디 있든 자신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지만 자신의 속도에 맞춰 같이 뛰고 있는 칼리아는 이상했다.

며칠 누워 쉬었더니, 금방 체력이 바닥난 루나는 숨이 턱까지 차서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숨 한번 흐트러뜨리지 않은 칼리아가 앉아 있었다.

"허...헉 헉 .. 공작님"

가쁜 숨을 쉬며 칼리아를 불렀다.

"왜?"

"요 며칠 왜 그러세요? 저 뭐 잘못했나요? 저 그 뒤로 책 안 읽습니다"

"아니"

"근데 왜 자꾸 저 따라다니세요? "

"아닌데"

시치미를 떼는 칼리아에 루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아닌 게 아닌데…. 정말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데요"

잘생긴 남자를 어떻게 신경을 안 쓴단 말인가…. 불편해 죽겠단 말이다.

분명 기사수여식 전까진 얼굴 보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는데 그 뒤부턴 이상하게 부담스럽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우연히 겹친 거 뿐이야"

당당히 아니라고 말하는 그에게 루나는 더는 밀어붙이질 못했다.

결국, 화제를 돌리기 위해 말을 꺼냈다.

"저 언제부터 출근할까요? 공주님도 한번 보고 싶은데.."

"이제 몸도 나았으니, 내일 나랑 전하께 같이 가면 되겠네"

칼리아는 내 대답도 듣지 않고 휑하니 저택으로 들어갔다.

황당함에 우디를 바라보자 우디도 영문을 모르겠는지, 어깨를 한번 으쓱 들어 올리곤 고개를 저었다.

[작품후기]

sekiei1123님,노란후리지아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추천, 선작 별점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긴장했었는지 아침 일찍 눈이 떠졌다. 비몽사몽 할 것도 없이 벌떡 일어났다. 유난히도 오늘은 날씨가 좋아 햇살이 창으로 환하게 들어왔다.

제인이 세숫물을 들고 들어와 간단히 씻고 깔끔히 머리를 한데 모아 올려 묶고 오래간만에 입는 제복은 어딘가 어색했다.

식당에 들어서니 칼리아는 이미 준비가 끝마친 상태로 앉아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작님”

“좋은 아침”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자, 갓 구운 따뜻한 빵에 과일 쨈을 듬뿍 발라 입에 넣었다.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한 빵과 새콤달콤한 과일 쨈은 궁합이 잘 맞아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역시 사람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잘 살 수 있는 거다.

문득 어디선가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지자 먹던 걸 중단하고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자 칼리아와 눈이 마주쳤다. 칼리아는 눈이 마주치자 환하게 웃었다.

‘왜 저래…. 부담스럽게’

며칠 동안의 행적을 보아한데 분명 나한테 잘못한 게 있는 게 분명했다. 안 그러면 얼굴로 날 홀릴 생각인가….

부담스럽게 잘생긴 그의 얼굴 때문에 다시 빵에 집중하려고 다시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먹는 척했다.

힐긋힐긋 칼리아를 바라보자 아예 턱까지 괴고 빤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러세요?”

결국, 부담스러운 시선을 참지 못하고 말하자 칼리아가 말했다.

“예뻐서”

순간 할 말을 잊었다.

또다시 환하게 웃는 얼굴에 나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다.

“공작님…. 진짜로 왜 그러세요?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신 건가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럼 계속 왜 그러시는 데요….”

한숨을 쉬며 말하자 그제야 칼리아는 진지하게 말했다.

“나랑 만나 볼 생각 없나?”

식당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마침 커피를 들고 오던 주방장은 칼리아의 말을 들었는지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바닥에 쏟았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칼리아는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있었다.

조용히 칼리아의 눈치를 보며 들어온 하녀가 쏟아진 커피를 치웠다.

깨진 유리를 조심스럽게 치우는 소리만 식당에 가득했다.

“저한테 진짜 왜 그러세요? 어려운 부탁 하실 일 있으세요?”

“아니 순수한 의도로 말한 건데..내가 그동안 그대에게 그렇게 내가 파렴치한으로 보였나?”

인상을 쓰며 칼리아가 말했다.

“그건 아니지만, 공작님께서 왜 저 같은 것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 잘생겨, 나이 젊어, 돈 많아, 능력 좋아, 집안 짱짱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남자가 심지어 지난번 숲에서 살짝 봤는데 몸도 좋아 보였다.

왜 일개 하급공무원에,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시골저작가의 여식과 연애라니, 왕국의 난다 긴다 하는 영애들과 귀족들이 난리가 날 것이 분명했다. 무엇보다 난 주제 파악이 빠른 사람이니 그가 정말로 나를 조…. 좋아해서 그럴 거란 생각이 들지 않았다.

또다시 불편한 침묵이 식당 안에 감돌았다.

칼리아는 오로지 내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공작님”

“왜? 내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이만하면 어디 가서 빠지진 않는데”

“너무 잘나셔서 문제입니다. 왜 저 같은…….”

“그대가 어디가 어때서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왜 본인을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이지?”

칼리아의 물음에 다시 입을 다물었다.

잘생기고, 나에겐 나름 친절한 이 남자를 좋아하고 싶지 않았다.

사람만 보고 좋아하기엔 난 너무 속물이었고, 그와 헤어지기라도 하면 골치 아픈 일들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베네치아 공작님, 저는 그저 고용주와 고용인으로 좋게 계약을 끝마치고 싶습니다”

“루나 너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속되는 칼리아의 돌직구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묘하게 차분해 보이기까지 하는 칼리아의 태도에 괘씸함마저 들었다.

왜 고백한 이 보다 고백받은 이가 더 여유가 없는 것인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할 것도 없습니다!!! 베네치아 공작님은 저에게 ‘갑’이시니까요!!!”

“앞으로는 칼리아라고 이름으로 불러”

“무..무슨 말도...”

내 말은 듣지도 않는지 고작 일개 하급공무원인 나에게 왕국의 유일한 공작인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허락했다. 기가 막힌 나머지 할 말을 잃었다.

“오늘은 너무 성급한 거 같으니, 이름으로 부르던가 고백에 답을 하던가 둘 중 하나만 하도록 해”

“그렇다면 고백에 답을...”

“거절은 거절하도록 하지. 오늘부턴 이름으로 부르도록”

혹시라도 내가 계속 말을 걸까 봐 칼리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일어나 식당을 벗어났다.

그러더니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칼리아가 몸을 돌려 말했다.

“천천히 준비하고 나와, 마차에서 기다리도록 하지”

그러더니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식당을 빠져나갈 때 따라잡으려 의자에서 일어났던 게 무색하게도 다시 주저앉았다.

“헐.........”

짧은 아침 시간에 일어난 일 치곤 충격은 컸다.

왕국으로 들어가는 마차 안은 불편한 침묵만 감돌았다. 식당에서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부족했다.

멘뭉 상태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나라의 왕을 보러 가는데, 긴장감은커녕 머릿속이 텅 비어 버렸다.

이게 다 내 앞에서 조용히 서류를 보고 있는 칼리아 때문이었다.

조용히 노려보고 있던 나의 시선이 느껴졌는지 칼리아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

아까 고백한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는 저 여유로움...

정말 언젠가는 꼭 초조한 그의 얼굴을 보고 말리라..

루나는 조용히 다짐했다.

“공작님”

본인을 부르는 것이 분명한데, 분명 방금까지 눈을 맞췄었는데 공작이라고 부르자 다시 서류에 시선을 돌렸다.

이 남자가 이렇게 유치했었나....

“이름”

“..........칼리아님”

“왜?”

그제야 다시 눈을 맞추며 물어온 그의 얼굴에 왠지 주먹을 날리고 싶어졌다.

“혹시 제 부서가 옮겨질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왜 레이와 일하는 게 싫은가?”

“아니요!!! 좋은 분이시라 오래 같이 일하고 싶어서요”

근래에는 카르엔공주 일 때문에 보진 못 했지만 왕국에 들어와 처음으로 만난 좋은 상사였다. 동갑이지만 배울 점도 많고, 무엇보다 일이 편했다.

사람에게 받는 호의가 익숙하지 않은지 가끔 얻어다 주는 마른 과일을 받곤 얼굴을 붉히곤 했다.

그때의 얼굴이 생각나 웃음 짓자, 칼리아가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았다.

“그 웃음은 뭐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차는 어느새 왕국 안에 도착했다.

[작품후기]

노란후리지아님,부산사람님,tintim님,ㆍ설렘ㆍ 님,유도비님,tmdtmdaka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추천, 선작, 평점 너무 감사합니다!

글이 너무 짧은거 같기도 해서... 일주일에 한편만 길게 해서 올릴까..

고민중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쓰려고 노력중입니다 ㅜ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칼리아는 내게 할 말이 더 있었는지 말을 하려다가 마부의 말에 다시 입을 다물었다.

왕국에 도착하자 자연스럽게 내리는 칼리아 뒤를 따라 내리려 하자 손을 내밀고 서 있는 칼리아가 보였다.

마지못해 그의 손을 잡고 마차에서 내렸다. 그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왕이 사는 궁은 카르엔의 궁과는 다르게 심심한 감이 있었다.

키가 큰 나무들은 보이지 않았고, 작은 제비꽃과 이름 모를 꽃이 장식되어 있었다.

궁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나무와 꽃은 보이질 않았다.

왕이 살고 있다고 해서 뭔가 웅장하고 고급스러워 보인 식물들이 자랄 줄 알았는데....

“이곳은 생각했던 것보다 삭막하네요”

조용히 살짝 앞서가던 칼리아가 나의 목소리에 걸음을 늦추고 발을 맞췄다.

“공주의 궁보단 아무래도 볼 게 없을 거야. 건물 안에서 정원이 한눈에 보이게 설계해 두셨거든. 암살자가 나무에 숨어들지 못하도록”

칼리아의 말에 고개가 끄덕였다.

‘그럴 만도 해’

그라니아 3세는 왕이 되어서도 왕권이 약해 흔들렸다. 이건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자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이었다.

당시 왕이 되고 싶은 귀족들은 한둘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 밤낮 가리지 않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

몇 년을 독과 암살의 위협 속에서도 국건히 자신의 목숨을 지켜냈다

그라니아 3세는 자신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칼리아 딘 베네치아 공작과 시저 보 아리스타 후작, 알리 칸 보니스 후작을 내세워 당시 왕권을 위협하던 귀족들을 처단했다. 그때 일로 칼리아와 알리의 이름은 왕국의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라니아의 검과 머리라고.......

그들을 꾀기 위해 많은 귀족이 움직였지만 살아남은 자는 없었다.

“아까부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지?”

골똘히 생각하던 중 걸음이 느려졌지만 칼리아는 그마저도 내 걸음에 맞춰 걸었는지 바로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전하를 만난다는 생각에 이제 조금 긴장이 되나 봐요”

어깨를 가볍게 털며 긴장감도 같이 털어 버렸으면 하는 소망으로 말했다.

긴장되긴 했다. 살면서 설마 왕을 만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좋은 분이시지. 가끔 짓궂은 장난을 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칼리아는 보기 드물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칼리아가 주군으로 섬기는 그라니아라....

“전하 베네치아 공작과 브라이트영애 들었습니다”

왕의 알현실 앞을 지키던 기사가 말하자 곧 문이 열렸다.

궁 앞마당처럼 고급스러워 보이는 기둥도 보이질 않았다. 그저 빨간 카펫과 그 양옆으로 서 있는 기사들만 있었고,

저위로 보이는 왕의 얼굴이 보였다.

어딘지 모르게 근엄해 보이고, 무표정으로 보이는 그라니아왕은 약간 무서워 보였다.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칼리아 딘 베네치아 전하를 뵙습니다”

“루나 벨 브라이트 전하를 뵙습니다”

칼리아가 먼저 인사를 올리자 눈치껏 그를 따라 어색하게 인사를 했다.

“잘 왔네! 잘 왔어!”

언제 그랬냐는 듯 그라니아왕은 자상하게 웃으며 의자에서 일어나 친해 우리를 반겼다.

기사 한 명이 우리를 안내했다. 알현실 옆 작은 공간에는 티테이블 위에는 준비된 차와 과자가 있었다.

“지난번 기사 수여식 때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날 바로 쓰러졌다지, 몸은 괜찮나?”

“..괘…. 괜찮습니다 전하”

“카르엔이 제 생일 이후 그날이 공식 석상에 얼굴을 내민 건 처음이네.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카르엔의 아비로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카르엔을 도왔는지 모르지만 고맙네”

한나라의 왕이 스스럼없이 고개 숙였다.

일개 하급 공무원.. 아니 변방시골의 자작영애에게...

충격이었다.

충격에 말을 잃었다.

모든 왕이 그렇지 않다는 것도, 권력의 최고층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그냥 가볍게 고마우니 소원을 말해 보라 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다.

“이..이러지 마십시오 전하,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주님이 좋아 한일입니다.”

“하하하하 그대도 카르엔에게 넘어간 것이지 내딸이지만 정말 귀엽지 않은가?”

소문으로만 듣던 팔불출을 눈앞에서 보았다.

눈앞에 있다면 껴안았을 거라며 왕은 쉼 없이 카르엔을 자랑했다.

칼리아는 익숙한지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도도하게 차를 마셨다.

당황한 건 나뿐이었다.

처음 1시간은 즐거웠다.

귀여운 인형 같은 카르엔의 외형과 순수한 성격에 대해 침이 튀길 정도로 그라니아왕과 칭찬 배틀이라도 할 듯 정신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좋은 말이라도 같은 이야기면 지루해지는 법!

결국, 1시간 30분쯤 지나가자 흥미를 잃고 그저 그라니아왕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그라니아 왕의 뒤에서 울 것 같은 얼굴로 서 있던 고위공무원이 칼리아에게 손짓 발짓 애원했다

그모습을 보던 칼리아가 말했다.

“전하, 공주님께서 영애를 기다리십니다.”

“응? 벌써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되었나? 카르엔의 이야기만 하면 내 도통 정신을 못차려”

자신의 모습이 전혀 기분 나쁘지 않다는 듯 호탕이 웃으며 그라니아왕은 일어났다.

“그럼 또 다음에 보자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전하”

마지못해 인사를 한 뒤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영혼이 탈탈 털린 느낌이었다.

“전하께서는 공주님을 정말 아끼시나 봐요 소문보다 더요”

“그렇지.......”

칼리아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기서부턴 찾아갈 수 있지? 조금 있다 데리러 오도록 하지”

조금 더 걷자, 익숙한 향과 꽃이 맞이해주었다.

카르엔이 사는 궁이었다. 오랜만에 와서인지 무척이나 반가운 느낌이 들었다.

이미 내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인 듯 벨리카 부인과 카르엔은 미리 나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주님!!!”

큰소리를 내며 뛰어가자 귀엽게 양 갈래로 머리를 묶은 카르엔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다.

“루나!!! 그동안 아팠다면서!!! 난 그것도 모르고...”

“아닙니다 공주님, 잠을 잘 못 잤을 뿐인데,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건강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날 곰돌이 탈 정말 고마웠어.”

“고맙다는 말은 벌써 전하께 많이 들었습니다. 공주님은 괜찮으셨어요? 그날 바로 오고 싶었는데..공작님이 워낙 과보호하셔서 지금 찾아뵙네요”

“으..응.. 곧 괜찮아졌었어. 바로 이곳으로 돌아오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바마마가 그날 오셔서 설마 우실줄은....”

부끄럽다는 듯 웃으며 카르엔이 말했다.

“예?! 전하께서 우셨......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직접 만나기 전까진 안 믿었을 거다. 방금까지도 카르엔 찬양하던 왕을 보고 난 후라 울었다는 말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았다.

[작품후기]

부산사람님 후원쿠폰 정말 감사합니다 ㅜ

늘다솜님,누란후리지아님,tintim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추천,선작,평점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용량은 이정도로 꾸준히 올리도록 하겟습니다

조만간 레이도 나와요~

------------수정했습니다 ㅡㅜ

^^^

5화 시작

카르엔은 제 아비의 모습을 알고 있는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다.

그런 공주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벨리카 부인이 말을 했다.

“그날 찾아오셔서 괜찮으냐는 말씀을 100번도 넘게 하시더니, 갑자기 조용해지셔서 보니, 눈물을 쏟고 계셔서 저도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 모습이 다시 기억났는지 벨리카 부인은 작게 웃음을 터트렸다.

“루나 정말 고마워요”

벨리카 부인은 진지하게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진지한 분위기에 부끄러워져 손을 빼며 말했다.

“부인까지 이러실 필요 없어요. 공주님께서 하신 일이지 전 정말 한 게 없어요”

“그래도 루나 덕분에 전하의 입지도 좋아지고, 공주님에 대한 소문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맘고생을 많이 했는지, 벨리카 부인도 눈시울을 붉혔다.

당황스러워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자 어디서 많이 본 시종들이 왔다 갔다 하는걸 볼 수 있었다.

“어?”

“공주님께서 그간 정이 들었는지, 전하께 말씀드려 어린 시종들을 공주 궁으로 다 데리고 오셨습니다.”

또래 친구가 없던 카르엔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했다. 어딜 가든 제일 힘든 일과 무시를 당하던 어린 시종들을 카르엔이 거둔 것이다.

처음 만났을 당시 우중충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제 또래의 모습을 한 그들과 앞마당에 핀 꽃들이 어우러져 있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시던 루나가 말했다.

“전 다시 제1 과학관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못 만나?”

과자를 먹던 카르엔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요. 지금까지처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올 수 있도록 허락받았어요”

“아쉽긴 하지만...루나는 원래 일하던 곳이 있으니…. 하지만 잊지 않고 꼭 와야 해!!”

카르엔은 활짝 웃었다. 처음 만났을 당시만 해도 눈도 못 마주치고 표정 없는 인형처럼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자신과 헤어지는 것에 아쉬워하다니...왠지 모를 뿌듯함에 루나도 카르엔을 마주 보고 웃었다.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곧 칼리아가 데리러 왔다.

또다시 아쉬워하며 배웅해주던 카르엔 몰래 벨리카 부인에게 쪽지를 남겼다. 벨리카 부인도 시치미 떼고 같이 루나를 배웅해 주었다.

“그동안 어디 가 계셨어요?”

돌아오는 마차 안.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칼리아의 시선을 피하며 물었다.

“잠깐 레이를 만나고 왔지!”

“잘 지내고 계시죠? 내일부턴 원래대로 둘이서 일하겠네요”

“둘이?”

칼리아의 눈썹 한쪽이 꿈틀했다.

“네, 아무래도 처음 들어왔을 때 배웠던 것들이 몸에 익어서 레이님과 일하는 게 좋더라고요. 공주님도 좋지만 좋은 것과 편한 것은 다르니까요”

칼리아의 표정이 점점 사나워졌다.

그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루나는 레이와 단둘이 일하던 것을 떠올리며 그 시간을 그리워했다. 레이는 평소에 본인 시간을 중요시하는 사람인지라, 집중하고 있으면 루나도 조용히 책을 읽거나 레이가 신경 쓰지 못하는 잡일을 했었다.

다른 곳에 비해 할 일만 잘 찾아 하면 여유로운 곳이었다. 커다란 집무실에는 침묵이 가득할 때가 많았지만, 숨 막히거나 어색하진 않았다. 저도 모르게 조용히 미소 짓고 있자 칼리아의 표정이 사나워지다 못해 주변의 공기까지 차가워졌다.

“응? 갑자기 한기가..”

퍼뜩 현실로 돌아온 루나가 소름이 돋은 팔을 비비며 칼리아를 바라봤다.

“어떻게 레이와 친해진 거지…? 말도 없고, 숫기도 없는 녀석인데.”

차가워진 표정과는 다르게 다정히 말했다.

“제 상사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저랑 동갑이기도 하고요”

“그것까지 알았나? 정말 많이 친해졌군. 레이가 웬만해서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말이야.”

“그건 또 저의 능력이죠”

더는 말하기 싫다는 의미로 눈을 살며시 감으려 했다.

나의 행동을 눈치챈 칼리아가 재빨리 다른 주제를 꺼냈다.

“후...... 아까 벨리카 부인에겐 뭘 주던데?”

“따로 한번 만나 뵙고, 공주님에 관해 물어보려고요. 아무래도 벨리카 부인이라면 확실히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물어보지 않았나?”

“네. 지금까진 전혀 물어보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덜덜 떨고 있던 공주님이 아직도 생각나서요”

작고 귀여운 공주가 숨도 못 쉬고 덜덜 떨고 있었다. 그녀를 다치지 않게 지켜주고 싶었다.

기사 수여식은 끝났지만, 공주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혹시.. 에리엘 후작님에 대해....”

“아아 그 점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감시를 붙였으니...”

“공주님에게 더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예전부터 계속 궁금했었는데, 그대는 어떻게 남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일 수 있지?”

“그냥 제가 좋아서 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봉사나 희생한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전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단지 결과가 좋았을 뿐이에요”

처음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갔을 때 사수였던 대리가 있었다. 그는 일도 열심히 했지만, 제 후임으로 온 그녀를 알뜰히도 챙겼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라 전화 받는 법부터 복사기 사용법, 상사들의 성격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며 회사에 적응하도록 도와주었다.

그의 밑에서 3년을 일했다. 혼자 악착같이 살아왔던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누군가가 나를 배려해 주고 생각해 주고 있다는 기분은 따뜻한 기분이었다. 그에게 보답하고 싶었고, 잘해내고 싶었다. 그러다 그가 해외로 발령 나자 따로 보답할 방법이 없었다. 그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 후임이 들어오면 그녀도 알뜰살뜰 밑에 있는 직원들을 챙겼다.

그러다 보니 습관이 되어 버렸다.

그때를 떠올리며 또다시 미소 짓고 있자 칼리아는 왠지 모를 불쾌감이 들었다.

그사이 마차는 공작저로 들어왔다.

“남은 시간은 푹 쉬도록 하지”

[작품후기]

ㆍ설렘ㆍ님,sekiei1123님,노란후리지아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평점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귀여운 공주님편이 끝났네요~

^^^

5화 시작

오래간만에 출근한 과학관은 그대로였다. 계절이 바뀌어 과학관 앞마당은 낙엽이 수북이 떨어져 있었고, 시종들은 연신 낙엽을 치우고 있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 수북히 쌓여있는 우편물과 서류 사이로 당연히 있어야 할 레이가 보이질 않았다.

“응? 웬일로 어딜 가셨지?”

우편물을 손에 쥐고 돌아서려는데, 책상 밑에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며 몸을 일으키는 사람은 다름 아닌 레이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에요?”

“올 때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던 레이가 아무도 없다는 걸 알자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다.

안본 사이 제대로 밥을 챙기지 못한 것인지 볼살이 쑥 빠져 있었다.

“들어올 땐 아무도 없었어요”

“휴...... 어젠 각하가 쫓아내 주셔서 오늘은 아직 찾아오질 않았나 보네요”

“혹시 우편물 속 사람들?"

사랑한다고 말만 안 했을 뿐 레이에게 집착하던 그들의 편지내용이 생각났다

“네.”

인상을 쓰며 레이가 말했다

“그동안 무슨 일인지 저도 알아야겠네요. 그럼 먼저 아침 식사부터 할까요?”

레이를 위해 공작저 주방장에게 부탁해 위에 부담 없는 샌드위치와 차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다.

레이는 여전히 이곳저곳 경계를 하며 샌드위치를 입에 넣었다가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오물거리는 게 귀여워 보였다.

말없이 그의 앞에 따뜻한 차를 밀어주었다.

한결 편안해진 모습의 레이가 말을 꺼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실험 중이었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며칠 전부터 그들이 들이닥쳐서 철거 머리처럼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들어온 것인지는 모르시나요?"

"안 그래도 어제 각하께서 며칠 정돈 과학관 출입을 허락하셨다고 말하러 오셨더라고요"

레이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아니 도대체 레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매일 무시하던 사람들을 불러모았단 말인가'

"당분간은 도서관에서 몸을 숨겨야겠습니다"

시무룩해진 얼굴로 말하는 레이를 보며 안쓰러웠다

잘생긴미소년의 슬픔은 나의 심장에 고대로 박혔다. 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보면 간이고 쓸개고 다바칠준비가 되어있다니,,,

레이는 빠르게 책상위에 필기도구와 몇몇 서류종이를 챙기더니 나가버렸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지금까지 밀려서 하지 못한 일들을 시작했다

우선 서재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책들을 주워 책장에 꽂아넣었다.

오랫시간이 지난 거 같은데 아직도 널려있는 책들이 많았다.

벌써 점심시간인지 배에선 꼬르륵 소리가 났다.

먼지를 털며 나오자 과학관 입구에는 처음 보는 이가 안절부절 서 있었다.

나이가 많이 든 이는 연신 두리번거리며 안절부절 이었다.

내가 다가가자 황급히 나를 잡으며 물었다.

"혹시 레이님 못 보셨소?"

"모..못봤는데요"

"하아...어제는 공작님께서 계시는 바람에 못 왔는데... 오늘도 안 계신다니.."

"혹시 레이님을 보시거든 크림슨 후작이 왔었다고 꼭 좀 전해주시오"

잔뜩 울상은 지은 후작은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 멀리 칼리아가 오고 있는 게 보였다.

"공작님 웬일이세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한 번도 칼리아와 마주친 적이 없어서 물었다.

그는 나를 쳐다만 볼뿐 대답하지 않았다.

"레이님이라면 도서관에 가셨는데요"

칼리아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한숨을 쉬며 말했다.

"칼리아님... 여긴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그제야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점심 같이 먹자고 기다렸지"

칼리아는 내 손목을 잡고 앞장서서 걸어갔다.

왠지 모를 피곤함이 몰려왔다.

과학관 앞마당 작은 공원에 이미 준비된 테이블에는 진수성찬이 마련되어 있었다.

멀리서부터 맛있는 음식냄새에 배에선 꼬르륵 소리가 계속 울렸다.

창피함에 헛기침하며 의자에 앉자 어디선가 나타난 시종이 음식을 덜어주었다.

"레이님은 식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고기를 썰던 칼리아의 눈썹이 움찔했다.

나이프를 내려놓고 물을 마신 칼리아가 말했다.

"그 녀석이라면 도서관 사서에게 일러두었으니, 식사는 챙겼을 거야"

"안그래도 얼굴이 많이 핼쑥하던데...아.. !!! 공...칼리아님이 입궁을 허락했던 귀족들이 찾아와 극성이라는 말을 들었어야 어떻게 된 거에요?"

"왜 레이가 궁에 들어와 일하게 되었는지는 들었나?"

"그냥... 공작저에 있다가 궁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들었어요"

"노예였던 그 녀석을 구출한 건 나였어. 말수도 없고 아무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녀석이었는데, 과학책이니, 식물 책 같은 것에 관심을 두길래 가정교사를 초빙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 가정교사들은 하나같이 천재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었고...

그해는 내가 공작으로서 작위를 받던 해라.. 골칫덩어리인 영지 하나를 받아서 같이 시찰 갔다가 그곳에서 나던 돌을 레이가 연구했는데, 어느정도 빛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걸 팔았지 은밀히 진행했지만, 중간에 말을 전달한 사람들이 있는 바람에 레이의 진가가 탈로 났어. 그 뒤론 레이를 포섭하기 위해 별 방법을 써 오자 결국 전하와 상의 후 레이를 궁에 온거지. 레이는 왕실의 인재라고..."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랐네요.. 근데 왜 요즈음에 궁에 들어온 거죠?"

"내가 입궁하는 걸 허락했지... 그들에게도 당근은 필요하니까..언제나 채찍만 휘두르면 탈이 나기 마련이거든"

"그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건가요?"

"당연히 아니지. 곧 레이는 나와 같이 영지 시찰을 나갈 거야. 그들도 찾아오기 힘든 곳으로"

"아...!! 그래서 허락하신 거군요"

나의 말에 칼리아가 고개를 끄덕이고 마저 식사를 시작했다.

"안그래도 어제 찾아와 계획을 말했으니, 곧 짐을 챙겨서 은밀히 공작저로 찾아올 거야"

"아...그럼 두 분이어서 가시는 거에요?"

"무슨 소리야. 당연 루나 너도 같이 가야지"

"그거야말로 무슨 소리를.... 제가 거길 왜 갑니까? 출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우리를 습격한 자들을 찾지 못했으니 계속 함께 움직여야지"

"그건 공...칼리아님이 못 찾은 거고, 전 출근을 해야죠"

"이미 정해진 사안이니 짐이나 싸두도록 해"

[작품후기]

날아라신문지님,sekiei1123님,ㆍ설렘ㆍ님,노란후리지아님,류민♡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평점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휴가중이라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ㅜㅜㅜ

^^^

5화 시작

"정확히 언제 출발하는 건가요?"

칼리아의 말을 듣고 체념하듯 말했다.

‘을의 처지란 이런 것이지'

"음..아무래도 일주일 뒤에는 출발할 예정이야. 미리 짐은 싸두고 멀기도 멀지만, 그곳은 매우 춥다고 하니 두꺼운 옷은 많이 챙겨둬"

칼리아는 하나의 조언도 같이 해주었다.

두꺼운 옷을 챙기려면 짐가방의 부피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그를 만나고 정말 파란만장한 일만 생기는 거 같아 한숨이 절로 나왔다.

칼리아는 멀리 떠날 것을 대비해 오전 근무만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었다.

덕분에 점심을 먹고 퇴근해서 여유롭게 짐을 챙길 시간이 생겼다. 밖에 나갈 때면 호위기사인 우디를 달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말이다.

이곳에서는 딱히 가방이라는 개념이 크게 없어서 딱딱한 나무상자 안에 넣어 마차에 실어서 이동했다. 숲에 갈 때도 나의 배낭을 특이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았다. 이번 출장은 꽤 멀리 가고, 짐도 많을 듯해서 여행용 가방을 만들기로 했다. 우선 대충 모양을 그린 뒤 톰에게 가져다줬다.

나무상자에 길게 손잡이를 만들고, 바퀴를 달아 달라고 위치와 구체적인 모양을 설명하자 나의 빈약한 그림보다도 더 구체적인 모형이 나왔다.

"루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정말 참신해"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들은 생각이었어"

적당한 핑곗거리로 말했다.

"지난번 동물탈 만들 때도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차를 그렇게 타고 다녔는데 난 왜 이런 생각을 못한 거지"

"얼마나 걸릴까? 최대한 빨리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걱정마. 이틀이면 완성되니까"

톰은 신나면서 작업에 들어가야 하니 얼른 가보라고 했다.

가게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망을 보던 우디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가방이 따로 필요합니까?"

"그럼요. 늘 짐마차가 파손당하거나 도적을 만났을 때 최소한의 물품 정도는 제가 타고 있는 마차에 실을 수도 있고, 직접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예전부터 생각해 두었던 거에요"

여전히 나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머리를 갸웃거리는 우디의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그와 걸었다.

톰을 만나고 나서 시장에 들러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샀다. 제인이 짐을 잘 싸지만 지난번 숲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유용하게 쓰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따로 챙길 생각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머!!! 오랜만이네요!!"

지난번 숲에 가기 전에 방수천을 샀던 가게에 들어오자 대번에 나를 알아본 주인이 잊지 않고 나를 반겼다.

"여기온지 오래된 거 같은데…. 절 기억하시네요. 지난번에 샀던 천을 또 살 수 있을까요?"

"그럼요! 특이하게 엮어달라고 하신 분은 처음이라 기억하고 있었지요. 지난번처럼 매듭도 연결해서 드릴까요?"

"아니요. 이번엔 이 그림처럼 바느질 하실 수 있나요?"

"음……. 이렇게 이상하게요??"

"네…. 이렇게 펼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누웠을 때 딱 제 키보다 약간 넉넉하게 만들고, 가운데에 단추를 달아서 잠글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특이한 모양은 처음이군요"

"지난번처럼 잘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처음 해보는 작업이긴 하지만 그다지 복잡하진 않아 이틀이면 완성될꺼 같군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곤 가게를 나왔다. 가게 앞에는 칼리아가 말을 타고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칼리아님 여긴 어떻게……."

칼리아는 말에서 내려와 옆에 서 있던 우디를 보며 고개를 으쓱거렸다.

그새 나를 쫓아다니며 보고를 하고 있었나 보다

"지난번 침낭이라는 물건은 나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이번엔 좀 더 새로운 물건인가?"

"장거리로 이동할 듯하여 노숙도 할 수 있을 거 같아 디자인을 조금 바꿔보았어요"

"흠…. 나도 써봐도 될까?"

"상관은 없지만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

"꼭 여기에서만 하란 법은 없으니까. 가자고"

칼리아는 내가 말에 탈 수 있도록 먼저 말 위에 오른 뒤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고 말 위에 오르자 칼리아가 바짝 나의 뒤에 붙었다.

그의 숨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들리자 나도 모르게 움찔하며 긴장했다. 누군가와 같이 말을 타본 건 처음이었다.

"힘 빼"

칼리아는 내가 긴장한걸 눈치챘는지 작게 속삭이듯 말하며 웃었다.

곧 도착한 곳은 아까와는 달리 고급스러운 가게 앞에 섰다.

이미 이야기가 오간 것인지 가게 주인과 그 뒤로 종업원들이 서서 우리를 맞이해주었다.

"공작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중히 인사한 그녀는 우리를 곧 커다란 방으로 안내했다.

"안녕하세요 한이라고 불러주세요"

나에게 한이라고 소개한 여자는 곧 종이와 필기구를 들고 들어왔다.

"저에게 설명해 주시면 그대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대충 그리고 설명할게요."

칼리아와 한은 내가 그림 그리는걸 지켜보았다. 방안은 잠시 침묵이 감돌았다.

"여기 이 구멍은 얼굴이 나오는 곳이고, 나머지는 누웠을 때 잠길 수 있도록 가운데 단추를 달았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크기는 한사람이 누워도 약간 넉넉할 정도였음 좋겠어요. 음…. 재질은 먼지가 되도록 안 붙고 물에도 젖지 않은 소재였음 좋겠네요."

"음..... 정말 신기하군요. 이걸 어떻게 쓰는 거죠?"

"야외에서 잘 때 쓰려고 합니다. 습기에도 강하고 체온 유지도 가능하죠. 딱히 짐을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요"

"정말 유용하겠네요"

한은 곧 고개를 끄덕거렸다.

"얼마나 걸릴 것 같나?"

"몇 개나 필요하신데요?"

한은 종업원들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하며 눈을 초롱초롱 빛냈다.

"우선 50개 정도만 ?"

"그 정도라면 삼일 정도 걸립니다."

"비용은 생각하지 말고 만들 수 있는 대로 만들도록 하게. 삼일 뒤에 찾으러 오지"

칼리아는 그 말을 하고 내 손목을 붙잡고 나왔다.

"이왕 온 김에 저녁 식사도 하고 들어가는 게 어때?"

"저.... 제 말만 듣고 50개씩이나 만드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지난번 동굴에서 잠깐 쓴 걸 응용해서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충분히 사용할 가치가 있는 물건이야."

"그렇긴 한데..."

"그럼 가자고"

연신 웃으며 칼리아는 시내 중심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작품후기]

노란후리지아님,maniere님,윤탱43님,나물2님,sekiei1123님,ㆍ설렘ㆍ님,Fysb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평점 모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글솜씨임에도 재밌게 읽어주셔서 제가 큰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칼리아가 데리고 온 레스토랑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곳인데 음식이 비싸 보이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오늘 이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식당 앞은 입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줄 서 있었다.

"설마 이곳에 들어가자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길게 선 사람들의 기세에 질려 칼리아에게 물었다.

"여기 들어갈 건데."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얼굴의 칼리아는 태연히 식당으로 앞장서 들어갔다.

칼리아르를 본 지배인은 가장 꼭대기 층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밑에는 도떼기시장처럼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것과는 달리 이곳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테이블도 창가 자리에 하나만 놓여 있었다.

건물부터 나 비싸다는 아우라를 풍기는 레스토랑을 설마 한층 다 빌렸을 거란 생각이 들자 이 남자의 경제관념이나 얼마나 썼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오늘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돼서 저랑 오신 건 아니시죠?"

"처음부터 그대와 함께 오려고 한 건데?"

더없이 가벼운 말을 내뱉는 칼리아었다.

순간 할 말을 잊은 채 뜨겁게 날 바라보는 그의 시선을 피해 창밖을 바라보았다.

"와 경치도 끝내주네요. 역시 돈이 최고…. 합"

마침 노을진 해가 창문으로 들어오자 순식간에 식당 분위기가 바뀌었다.

임기응변으로 그의 시선을 피하려 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그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풍경은 예술이었다. 또한, 밑의 작은 집들이 붉게 물들고 있는 모습은 뭔가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해 냈다.

넋을 놓고 있다. 결국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내뱉은 거 같아 재빨리 말을 그만두었다.

곧 지배인은 뒤에 종업원들을 대동한 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간단한 스프와 빵이 나왔다. 명성이 자자한 곳이라 스프부터 맛이 다른 곳과는 달랐다.

스프라고 하기엔 걸쭉한 느낌이었지만 오랜 시간 육수를 낸 것인지 깊은 맛이 났고, 목 넘김도 거슬리지 않았고, 끝 맛도 매우 깔끔했다.

공작저도 훌륭한 요리사가 있어 늘 즐겁게 식사를 했는데, 이 레스토랑도 만만치 않았다.

점점 입맛만 고급스러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배부른 고민도 해보았다.

어느 정도 식사가 마치자 지배인은 삼 층으로 된 접시를 들고왔다.

제일 위 칸은 색도 아름다운 과일 쨈과 초콜릿 소스가 아기자기하게 올라가 있었고, 두 번째 접시에는 쨈에 찍어 먹을 수 있는 빵이 있었고, 마지막 접시에는 색부터 고운 마카롱이 준비되어 있었다.

"와.."

화려한 디저트에 순수하게 감탄사가 나왔다.

역시 음식은 눈으로도 먹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칼리아는 제 앞에 있는 차만 마실 뿐 디저트에는 입도 대지 않았다.

"안 드세요?"

정신없이 먹던 걸 멈추고 달곰한 입안을 씁쓸한 차를 마시며 말했다.

"음...난 원래 단 건 잘...."

"식사하실 땐 잘 드셨잖아요"

"그래도 디저트는 영.... 못 먹겠더라고..이 차 한 잔으로 만족하니 괜찮아"

칼리아는 마시던 찻잔을 올리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아....."

왠지 나만을 위해 이 근사한 디저트를 준비했다는 말로 들려 심장이 간질거렸다.

다른 할 말도 딱히 생각나지 않아 차만 홀짝거리고 있었다.

칼리아는 내가 디저트를 어느 정도 먹은 것을 확인하자 말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물어봐도 되나?"

"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요"

"왕궁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서 일해본 적이 있나?"

"아니요. 전 궁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시골 자작 영애 일뿐이었습니다."

"처음 초대장 명단도 그렇고, 이번 그 물에 잘 젖지 않은..."

오늘 제작한 침낭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지 말을 잇지 못하는 칼리아에 냉큼 대답했다.

"침낭이요"

"그래 침낭도 생각해 내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의 말이 끝나자 뭐라고 답해야 하나 생각했다.

사실은 루나로 살기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지구에서 노처녀가 될 때까지 죽어라. 일만하다가 과로사했다고 말하기엔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볼 게 뻔했다.

"그저 조금 더 편하게 살 순 없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것들입니다."

나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느긋해진 분위기에 칼리아에게 물었다.

"저도 뭐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

"왜 저랑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생각한 의미로 만나보자고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대가 생각한 의미는 뭔데?"

"남녀 사이로 만나보자고 하신 거 아니신가요?"

제길……. 남자를 만나봤어야 밀당이니, 돌려서 말하는 방법이라도 알 텐데….

오로지 돌직구뿐이었다.

참담한 심정으로 머리를 만지며 말했다.

심지어 창피함은 오로지 자신이 감당하고, 고백한 이는 저렇게 여유롭다니...

"맞아. 난 그대의 기발한 생각과 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남을 위한 마음, 시키면 하기 싫어 인상을 찌푸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까지..

점점 눈을 땔 수 없게 되었지. 어때 내가 남자로서 매력이 없나?"

대놓고 테이블 위로 팔을 괴고 살며시 웃으며 얼굴을 내미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넋 놓고 바라보았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그건 아니지만..."

"그럼 만나면 되지!!"

"과....과분합....."

섹기까지 흐르는 농도 깊은 미소에 할 말을 잊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다 못해 귀 옆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 같았다.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로 열이 오르는 느낌이었다.

점점 다가오는 칼리아의 얼굴에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순간 숨 쉬는 것도 잊을 뻔했다.

시원한 향이 코로 들어온 후 촉하고 이마에 부드러운 무언가 닿은 후였다.

뒤늦게 이마를 손으로 가리며 놀란 눈으로 칼리아를 바라보았다.

"다음엔 긍정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지"

칼리아는 다시 장난 섞인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그의 행동이 마냥 싫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였다.

그런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방금 칼리아가 입 맞추고 간 이마가 뜨거운 것인지 내 심장이 뜨거운 것인지 모르겠다며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작품후기]

ㆍ설렘ㆍ님,나물2님,sekiei1123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평점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노란후리지아님 수정했습니다.ㅜ

^^^

5화 시작

어떻게 마차를 타고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멍해 있었다.

진정 되지 않은 머릿속에 아주 혼란스러웠다.

정리되지 않는 머릿속과는 달리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다.

그사이 톰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저 가방만 받고 가려던 나를 붙잡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안내한 그는 나에게 차를 내왔다. 그는 연신 내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다.

"내가 이틀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음....."

"캐리어?"

"이 가방을 캐리어라고 부르나? 이름도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고 아주 마음에 들어, 어쨌든 루나 나랑 같이 공동사업 해보지 않겠어? 이런 좋은 아이템은 우리끼리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도록 해야 해”

눈이 초롱초롱해서 말하는 톰이 왠지 부담스러웠다.

"사람들에게 팔만한 물건은 아닌데..."

"아니야. 루나 !!! 너무 겸손하군. 이틀 동안 내 작업실에 들러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말한 귀족이 몇 명이나 될 거 같아?"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톰은 계속된 나의 부정적인 말에 앞에 놓여 있는 식은 차를 벌컥벌컥 마셨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하지만 거절하기엔 그동안 고생해준 톰을 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톰은 내가 생각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 주었다.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30개만 만들어서 팔아볼까?"

톰은 이때다 싶었는지 지저분한 책상 위를 뒤적거리며 종이를 가져왔다.

계약서였다.

"이게 뭐야?"

"계약서 난 이 캐..리어를 독점해서 만들어 팔고 싶거든"

"흐음....이렇게까지 할줄은 몰랐어. 톰 그렇게 본격적으로 캐리어를 팔고 싶다면 아까 말한 대로 30개 정도만 시범적으로 파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사용에 대해 불편한 점, 좋은 점, 개선했으면 좋겠는 점을 다 받아서 조금 더 실용적이고 가격도 싸게 만든다면 평민들도 많이 애용할 거야. 귀족들이야 마차를 타고 이동하지만, 평민들은 개인 마차 타는 게 쉽지 않잖아. 거기다 짐이 섞이면 곤란하기도 하니, 캐리어에 이름을 새긴다든가, 문양을 새긴다면 좋을 거 같고...."

"역시! 본격적으로 나선 루나는 정말 멋지다니까. 루나말대로 할게. 판매수익은 60대 40 어때? 당연 루나가 60이지"

톰은 캐리어를 만들어 판다는 데에 더욱 신나서 말했다.

"그냥 내가 30으로 해 난 원래 캐리어로 장사할 생각도 없었고, 재료값과 인건비는 톰이 더 많이 나가잖아. 그리고 내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말하지 않는 조건에서 말이야."

"정말 괜찮겠어? "

톰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조금 불편한 모양이었다. 무언가 만들어 내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라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돈으로 사는 것 또한 당연했다.

"정말 괜찮아. 그리고 더는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괜히 공작님께 찍혀서 찍소리도 못하고 추운 지방으로 가야 되는 거 보면 모르겠니... "

"나도 소문으로 들었어. 왜 하필이면 왕께선 그런 땅을 공작님에게 하사했을까..."

"자세한 건 나도 잘 모르지만, 이번엔 레이님도 가신다니깐…. 다 무슨 생각이 있는 게 아닐까"

"엄청 추운 곳이라던데.. 몸조심해 루나. 도착하면 꼭 편지 보내."

톰은 가게 앞까지 마중 나와 계속 나의 걱정을 해주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겼지만,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 생각도 들었다.

앞으로 신경 써야 될 일이 느는 거 같은 기분이라 영 찝찝하기도 했다.

다음날...

레스토랑에서 그 후로 칼리아와 만난 건 삼일만이었다. 열심히 피해 다니기도 했지만, 떠나기 전의 칼리아는 정말 바빴다.

아침 일찍 왠지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마차에 오른 칼리아와 함께 침낭이 완성되었다며, 한의 가게로 갔다.

한은 싱글벙글한 얼굴로 가게 앞에 나와 우리를 맞이했다.

"오셨어요? 주문하신 물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웃는 한의 모습에 칼리아는 무표정하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종업원들은 천천히 완성된 침낭을 가지고 들어왔다. 칼리아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구석구석 침낭을 살폈다.

"루나 침낭은 어떤 거 같아?"

"네? "

침낭을 살펴보는 칼리아를 힐끔힐끔 바라보고 있다 흠칫 놀라 그제야 허둥지둥 만들어진 침낭을 살폈다.

확실히 실력 좋은 재단사들인지 바느질도 꼼꼼하고, 작은 가게에서 만들었던 천보다 훨씬 방수가 잘되어 보였다.

"만족스럽네요. 그때 말했던 디자인도 빼놓지 않고 잘 만들었고요"

고개를 끄덕거리며 침낭을 칭찬하자 어느새 내 뒤에 서 있던 한이 환하게 웃었다.

"만족하신다니 다행이군요. 공작님께서 원하시는 50개에 10개 정도 더 만들었습니다. 루나님 혹시 저희 가게에 독점적으로 팔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톰에 이어서 한까지...

왠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서 영 부담이 되었다.

"침낭을 만들면서, 야외에서 야영하시는 분들은 일부의 몇 명의 기사만이 아닌데….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면, 저희 왕국의 기사님들이 얼마든지 편하게 주무실수 있지 않을까요?"

초롱초롱한 눈을 빛내며 말하는 한은 어제 본 톰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인상을 쓰고 있자 칼리아가 내 앞에 서며 말했다.

"그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지 조금 있으면 멀리 추운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할 순 없지."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은 아쉬운 대로 물러났다.

돌아오는 마차 안은 묘한 침묵만 감돌았다.

가게로 향할 땐 칼리아를 의식해서, 그의 눈치를 봤었지만 이젠 그럴 정신이 없었다.

톰과 한에게 생각지 못한 제의를 받아서 침낭과 캐리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왠지 기분이 나빠 보이는 칼리아가 말했다.

"흠…. 그대는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군"

"제가 원해서 그리 된 건 아닙니다."

괴롭다는 듯 머리를 두 손에 쥐고 고개를 숙였다.

"내가 먼저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요즘 드는군."

"전 점점 바빠지는 거 같아 많이 싫습니다. "

죽을상을 한 나의 얼굴에 칼리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떠나기 전은 느긋하게 보내도록 해.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테니..."

"그래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죠."

칼리아는 정말로 떠나는 전날까지 날 부르지 않았다. 또한, 궁에도 출근하지 않게 해주었다.

[작품후기]

maria89님,너울하루님,나물2님,ㆍ설렘ㆍ님,리수진님,노란후리지아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 추천,평점 너무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떠나는 날 아침은 저택이 소란스러웠다.

멀리 떠나는 건 울며 겨자 먹기로 수도로 떠나올 때가 전부였던지라, 간밤에 설렘과 두려움으로 잠을 설쳤다. 칼리아도 이렇게 멀리 가는 게 처음인지 저택은 초비상상태였다.

그 어수선함에 덩달아 다른 때보다 일찍 일어났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

멍한 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으니 제인이 다가와 인사했다.

"공작님께서 이렇게 멀리 가시는 게 처음이라 두 집사님이 바쁘세요. 며칠 전부터 준비했지만, 워낙 챙길게 한둘이 아니라...."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는데 짐이 많아?"

"그래도 이동 거리랑 지금 가시는 곳이 매우 춥다고 하니 옷가지 챙기는 것도 만만치 않죠"

칼리아 공작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진 모르겠지만, 그의 저택에 있는 동안 그가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 옷만 챙긴다고 해도 꽤 큰 짐이 될듯했다.

"루나님도 슬슬 준비하셔야죠."

"그래."

꾸물꾸물 침대에 내려와 활동하게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식당으로 향했다.

내가 쉬는 동안에도 칼리아는 쉼 없이 일했는지 그 잘생긴 얼굴이 까칠해 보였다.

칼리아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눈을 감고 있었다.

"그동안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아아…. 당분간 자리를 비워야되니까 .."

오늘은 요리사도 바빳는지 간단한 샌드위치와 주스가 나와 있었다.

너무 일찍 일어나 입맛이 없었지만 배가 고프면 머리가 안 돌아 가기 때문에 꾸역꾸역 집어넣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마차를 타기 위해 이동했다.

언제 와있었던 건지 그사이에 또 수척한 레이가 마차에 앉아 있었다.

"레이님!!!!"

일주일을 보지 못했던지라 왠지 반가운 마음에 크게 이름을 불렀다

칼리아와 마찬가지로 며칠 동안 시달렸는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해주었다.

"식사는 하셨어요?"

"아뇨..."

혹시 몰라 주방장에게 남은 샌드위치를 싸달라고 하길 잘했다.

샌드위치와 주스를 레이에게 넘겼다.

"드세요. 입맛이 없어도 멀리 가시려면 드셔야 됩니다."

주스만 꿀꺽거리던 레이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레이는 그제야 샌드위치를 들고 오물거리며 먹었다.

왠지 어린 동생 같은 레이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사이 칼리아가 서류를 들고 마차에 오르려다 우리의 모습을 멈칫하더니 바로 마차에 올랐다.

"레이의 식사까지 챙기는 줄 몰랐군."

"같이 가신다고 하셔서 혹시 몰라 챙겨둔 거에요. 예전부터 출근할 때 레이님의 식사를 챙기던 게 습관이 돼서..."

다먹은 샌드위치 포장지를 치우며 말했다.

나의 말에 칼리아의 눈썹이 꿈틀했다.

"매일?"

"처음엔 그랬는데, 요즘은 궁으로 출근하는 일이 많지 않아져서…. 아까 보니까 칼리아님도 커피만 드시던데 샌드위치 하나 하시겠어요?"

왠지 권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 같은 분위기라 마지못해 하나 꺼내며 말했다.

칼리아는 샌드위치를 냉큼 받아먹었다. 분명 식당에서는 입맛이 없어 커피만 마시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었다.

곧 마차 안은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흠흠 추운 지역으로 간다는 말은 들었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는 못 들어서 가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게이트 2개를 넘어서, 마차로 하루 정도 더 가면 될 거 같군."

"그렇게 멀어요?"

"게이트 때문에 그렇게 멀다고 못 느낄 거야."

커다란 마차는 곧 출발했다.

우리 마차 앞으로 호위기사들이 말을 타고 앞장섰고, 우리를 태운 마차 뒤로 짐마차, 그 뒤엔 또 호위기사들이 말을 타고 따라오고 있었다.

작은 인원으로 출발한다고 했지만 적어도 50명의 인원이 움직였다.

딱히 말이 없는 레이와 여전히 서류를 훑어보고 있는 칼리아 그사이에 할 일 없는 나까지...

계속 바뀌는 바깥풍경도 어느새 지겨워졌다.

달그락거리며 달리는 말굽 소리와 적당한 진동…. 점점 아래로 떨궈지는 고개...

결국, 잠이 들었다.

번쩍

아차 하는 순간 잠에서 깼다.

여전히 마차는 달리는 중이었다. 하지만 시야가 이상했다. 분명 똑바로 앉아 있었는데, 왜 누워 있지...

거기다 왜 내 옆에 앉아 있어야 할 레이가 앞에 앉아 있는 거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위를 살짝 올려다보니, 칼리아의 얼굴이 보였다.

왜 내가 칼리아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 있느냐는 말이다. 미치고 팔딱 뒬 노릇이었다.

상황파악이 되자 벌떡 일어나 앉았다.

"깨어났나?"

"제..제가 왜 공…. 공작님 다리를 베고 누워 있...."

"이름!"

"칼리아님 다리를 베고 누워 있었을까요? 분명 레이님 옆자리였는데…"

"불편하게 창문에 머리를 박고 꾸벅꾸벅 졸고 있길래 편하게 누워 자라고 자리를 바꾼 거야"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듯 당연하게 말하는 칼리아 때문에 한숨이 나왔다.

"네에…. 감사합니다. "

모르는 척 기지개를 켜며 밖에 창문을 바라보았다.

"곧 게이트 근처다. 게이트를 넘어선 숲이 나오니 오늘은 그곳에서 야영을 해야 될 거야."

처음 이 세계에 마법이 존재한다고 들었을 땐 기쁨과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다. 적어도 손에서 불이 나오거나, 물방울을 손안에서 만들어 낸다거나 그런 작은 꿈들 말이다. 그런데 실상은 아니었다. 술식이 엄청나게 복잡한 공식도 알아야 하며, 불이나 물 종류의 마법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술식을 적어넣고 그 위에서 본인의 마나와 함께 작용해야 되는 것이었다.

이 세계 마법은 제한적이고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먼 거리를 갈 때 쓰는 게이트나 땅에 함정을 만들 때 주로 쓰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법사들은 늘 부족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마법사들은 늘 피곤해했다.

그래서 마법사가 되는 것을 포기했다.

우린 사람이 다니지 않는 숲 속에 짐을 풀었다.

많은 기사가 천막을 치고, 한쪽에선 먹을 물을 조달해왔다.

딱히 할 일이 없는 나는 그들이 움직이는 걸 거슬리지 않게 구석진 곳에 앉아 바라보았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요리를 시작했다

곧 숲은 고소한 냄새로 가득했다.

"루나님 얼른 이쪽으로 오세요."

제인이 큰소리로 나를 불렀다. 그곳엔 어떻게 차렸는지 커다란 식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로 한가득 음식이 올라가 있었다.

이미 칼리아와 레이가 앉아 있었다.

그들과 함께 식사가 시작되었다.

매일 말린 과일이나 간단한 음식만 먹는 모습을 보였던 레이가 정식으로 식사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천천히 오물거리며 고기를 썰어 입에 넣는 모습이 퍽 신기했다.

레이를 보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동생을 보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자꾸 챙겨주고 싶고, 삐쩍 마른 얼굴에 살이 올랐으면 했다.

레이를 힐끔힐끔 바라보다가 칼리아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어딘가 심기가 불편해 보였다.

고개를 푹 숙이고 식사를 마쳤다.

[작품후기]

리수진님,너울하루님,ㆍ설렘ㆍ님,라떼쟁이님,레이브첸님,노란후리지아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평점 너무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어쩐지 불편한 식사 시간이 끝나자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왔다. 내 뒤를 따라 나온 레이는 본인의 천막 대신 숲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따라갔다.

"어디 가시는 거에요?"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레이가 흠칫 놀라 황급히 뒤를 돌아 나를 바라보았다.

나라는 걸 알고 순식간에 안도한 얼굴이 되자 레이가 말했다.

"이 근방에 희귀한 식물들이 많아서 채집 좀 하려고요. 소화도 시킬 겸."

"저도 딱히 할 일이 없는데, 도와드려도 될까요?"

고개를 간단히 끄덕거린 레이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레이는 앞서 나가면서 이곳저곳에 있는 식물들의 이름과 효능에 대해 말해 주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에 같은 풀을 찾아 처음에는 그에게 보여주며 확인까지 했지만, 나중엔 눈에 익히자 혼자 채집할 수 있었다.

둘다 아무 말도 없이 집중하고 있자 제인이 찾으러 왔다.

"루나님 이제 조금 더 있으면 해가 진다고 천막으로 가셔야 됩니다."

"엥? 벌써 시간이 되었나. 레이님 이제 그만하죠."

레이도 그동안 채집했던 식물들을 정리해서 들고 갔다. 그 뒤를 따라 나도 식물들을 한 아름 들고 쫓아갔다.

야영 준비가 한창인 기사들과 시종들은 부산스럽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내 천막은 제인과 함께 쓸 예정인데…. 한쪽은 칼리아가 다른 한쪽은 레이가 머무는 곳이었다. 준비한 침낭을 제인에게 하나 넘겨주고, 레이의 천막에 들어갔다.

"레이님 루나인데….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아까 채집한 식물을 구석진데 밤새 마를 수 있게 잘 펼쳐 놓은 레이가 정신이 팔려 있자, 그가 일을 마칠 수 있게 조용히 기다렸다.

일을 마친 레이가 일어서자 침낭을 주며 말했다.

"잘 때 사용하시면 돼요. 여길 펼쳐서 누운 다음 앉아서 발밑부터 천천히 단추를 잠그시면 됩니다."

"이게 뭐라고 했죠?"

"침낭이요. 지난번 사냥대회 때 만들어 갔었는데, 칼리아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이번에 기사 들 거까지 만들었거든요. 아! 방수도 되니까 물에 푹 담그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에요"

이리저리 만져보던 레이가 말했다.

"직접 개발하신 겁니까?"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머리를 긁적이며 배시시 웃었다.

"혹시 사용해보고 불편한점 있으면 말 해주세요. 보안해서 나중에 다시 만들꺼에요."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루나의 모습에 레이는 작게 미소지었다. 물론 루나는 그의 모습을 보진 못했다.

"피곤하실텐데 그럼 주무세요~"

씩씩하게 말하고 레이의 천막을 나오다 자신의 천막에서 나오던 칼리아와 눈이 마주쳤다. 순식간에 인상을 쓴 칼리아가 말했다.

"왜 거기서 나오지?"

"침낭 챙겨드렸어요. "

말이 끝나자마자 제인이 나를 찾았다.

"루나님!!!! 얼른 이쪽으로 오셔야 될꺼같아요."

급하게 뛰어간 그곳엔 침낭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기사들과 시종들이 우왕좌왕 하고 있었다.

"여기 주목하세요~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테니, 집중하세요!!"

한숨을 쉬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주인없는 침낭을 들고 그들이 볼수 있게 조금 높고 커다란 바위로 올라갔다.

나의 말에 침낭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었다. 나도 모르게 움찔했다.

"잘 보시고 따라하세요. 먼저 이 침낭을 펼칩니다."

나의 말에 부산스러웠던 사람들이 천천히 따라하기 시작했다.

어느새 칼리아는 내 뒤에 바위에 앉아 구경하고 있었다.

"여기 단추달린 끝과 단추구멍이 있는 천을 바깥으로 펼치고 그곳에 다리를 뻗고 앉으세요.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펼친 천들을 모아 단추를 하나하나 잠그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내려와 뒤쪽에 잘 보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말해 주었다. 그들은 이제 우왕좌왕하지 않고 각자의 천막으로 향했다.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도 이제 천막으로 가서 쉴 요량으로 걸음을 옮기려는데, 칼리아가 내 앞을 화사하게 웃으며 가로막고 서 있었다.

"왜...왜 그러세요?"

왠지 그의 웃는 모습에 한 발짝 물러나며 물었다.

"침낭……. 사용방법 생각해보니 나도 몰라서...."

"아까 설명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설명이 끝나는 찰나에 와서 못 들었어. 가자"

내 손목을 잡고, 칼리아가 앞장서 걸은 곳은 칼리아의 천막 앞이었다.

어리둥절한 날 끌고 안에 들어가자 확실히 내가 머무는 곳보단 훨씬 좋고, 넓어 보였다.

천막 한가운데 날 내버려두곤 그는 침낭을 찾아 나에게 내밀었다.

"자"

"네?"

도저히 상황파악이 되지 않아 되물으니 그는 내 손에 침낭을 들려줬다.

"이제 시범 보여 주면 되겠어."

어딘지 신이 나는 칼리아에 마지못해 침낭을 펼쳤다.

"자 이렇게 펼치고.."

펼친 자리에 앉으려고 고개를 숙이니, 잽싸게 그 자리에 먼저 앉은 칼리아였다.

"그리고?"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내가 여기 있다고 못 할 것도 없잖아."

"그렇긴 하지만.."

왠지 칼리아에게 말리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그다음은?"

"휴... 이 펼쳐진 곳을 안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 단추를 하나하나... "

단추를 발끝부터 하나씩 잠갔다.

그동안 칼리아는 단추가 아닌 내얼굴만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에 시선이 뜨겁게 닿았다.왠지 즐기고 있는 느낌이였다.

"이렇게 단추를 잠그면 끝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목까지 단추를 잠그고 일어나려고 하자 칼리아가 내 손을 잡았다. 아까까지만 웃고 있던 칼리아가 무표정하게 날 바라봤다.

점점 다가오는 얼굴에 눈을 질끈 감았다. 심장은 터질 것 같이 쿵쾅거렸다.

그의 따뜻한 손이 내 입술에 닿았을 때는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다.

그 순간 입술 바로 옆에 칼리아가 가볍게 입을 맞췄다. 숨 쉬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놀랐다.

"아직 그대가 답이 없어 입술엔 하지 않았어.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인 답을 줬으면 좋겠군."

화사하게 웃는 칼리아를 멍하니 바라보다 내 천막으로 들어왔다.

"어디 갔다 오세요?"

제인이 말을 걸었지만 대답할 여유가 없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다 침낭 속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며 아까 그것이 꿈이 아니란 걸 증명하고 있었다.

이 마음이 설렘인지, 그저 칼리아의 행동에 놀랜 것인지 그녀로썬 알지 못했다. 그저 쉽게 잠들 수 없을 거란 것만 알았다.

[작품후기]

리수진님,호이챠님,라떼쟁이님,나울하루님,감꽃이님,은서임님,푸른다이아님,Fysb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평점 감사합니다.

부족한 글솜씨에도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타 수정했습니다~

^^^

5화 시작

밤새 잠을 설친 나는 퀭한 얼굴로 마차에 올랐다.

어젯밤 칼리아의 행동에 아침부터 그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아침 식사도 제인에게 가져다 달라 부탁해 천막 안에서 따로 먹었다.

밖은 어젯밤 사용한 침낭에 관한 이야기로 시끄러웠다.

"그 침낭이란 거 괜찮지 않았어?"

"자고 일어났는데 찌뿌둥한 것도 없더라고."

"난 간밤에 추위에 덜덜 떨지 않고 자서 기운이 넘친다니깐"

숲 날씨는 새벽에 이슬이 내려 습하고 축축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야영엔 침낭이 최고지. 다음번엔 텐트도 한번 만들어봐..'

방금까지만 해도 온통 칼리아 생각으로 정신없었지만, 그들 덕분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곧 레이와 칼리아도 마차에 올랐다.

밤새 잠 못 들게 만든 원흉은 누구보다도 상큼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와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어서 황급히 눈을 감고 자는 척 해버렸다.

머리 위에서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눈을 뜰 수 없었다.

"..........루....나..루...나...루나!!"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코가 닿을 거리에 칼리아의 얼굴이 보였다.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가 마차 천장에 머리를 찧었다.

"윽"

"이런 조심 좀 하지.."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 아파서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만졌다. 그런 나의 손위로 칼리아가 조심스럽게 머리를 만졌다.

"혹은 안 날 거 같은데?"

"무슨 일이에요?"

잠든 척 하려다 정말로 자 버렸나 보다....

깜짝 놀랐던 마음을 추스르며 물었다.

"눈이 오기 시작했어. 생각했던 곳보다 빨리 머물게 돼서…. 오늘은 여기서 날씨 상황을 봐야 될 거 같아."

칼리아의 말에 마차의 작은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자 눈발이 조금씩 날리고 있었다.

"아직 게이트 하나를 더 통과해야 되는데…. 좀더 일찍 필요한 물품도 구해야 해"

다시 말을 꺼낸 칼리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끼리 묵을 작은 숙소를 찾으면 되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쉴 곳을 찾으려면 빨리 움직여야 했다. 칼리아의 말이 끝나자 바로 일어나 마차를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목을 스치듯 지나가자 몸을 움츠렸다.

반나절 만에 날씨가 겨울의 중턱에 와있었다.

눈앞에 보이는 술집을 가리키자 칼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술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기사들이 꽉 차 있었다. 중앙의 빈자리가 칼리아와 자신의 자리라는 게 뻔히 보였다. 의자에 앉자 종업원으로 보이는 여자에게 따뜻한 스프와 빵을 주문했다.

주문을 받자 돌아서는 그녀가 입구에서 들어오는 칼리아의 얼굴을 보며 얼굴을 붉혔다.

곧 그의 뒤로 레이가 들어오자 그녀는 헉하고 소리까지 냈다.

턱까지 괴고 종업원의 행동을 쳐다보았다. 연신 그녀는 칼리아와 레이를 힐끔힐끔 바라보았다.

칼리아와 레이는 그녀의 뚫어질 것 같은 시선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간단한 스프와 빵만 시킨 거 같은데, 종업원은 수줍은 얼굴로 샐러드니, 파스타까지 가지고 왔다.

"저흰 이거 안 시켰는 데요"

"..서...서비스에요."

말은 내가 시켰는데…. 대답은 칼리아와 레이 쪽을 보면서 몸을 배배 꼬며 말하는 종업원에 한숨을 내쉬었다.

"휴……. 갑자기 웬 눈이람..."

갑자기 들리는 여린 목소리에 시끄러웠던 술집 안이 조용해졌다.

눌러 썼던 후드를 벗은 여자의 외모에 여기저기서 헉소리가 들렸다.

그 뒤로 다른 이가 들어와 후드를 벗었다.

그들은 클라우디아 남매였다.

아만다는 중앙의 칼리아를 봤는지 이쪽으로 사뿐사뿐 걸어와 인사를 건넸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이런 곳에서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얼굴까지 살짝 붉히며 수줍게 웃는 그녀의 얼굴을 본 이들이 웅성거렸다. 칼리아는 그런 그녀의 얼굴에도 말이 없었다.

"반갑습니다. 베네치아 공작님"

아만다의 뒤에 따라온 휴이가 인사를 건넸다.

"만나서 반갑군. 클라우디아경과 영애"

먼저 인사를 건넨 건 아만다였지만 칼리아는 휴이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다.

남매의 뒤로 블리스가 심각한 얼굴로 칼리아에게 말했다.

"날씨가 점점 심상치 않습니다. 인원이 많아 이곳은 너무 작아서 저희 일행이 다 쉬기엔 힘들 것 같습니다."

"음......"

블리스의 말에 칼리아가 생각에 잠겼다.

그런 칼리아를 보고 있던 휴이가 결심한듯 비장한 얼굴로 칼리아에게 말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게이트로 가시기 전까지 저희 영지에서 쉬시는 건 어떠신지요? 조금만 더 가면 저희 영지입니다."

휴이의 말에 밝은 얼굴을 한 이는 블리스와 아만다였다.

하지만 아만다는 칼리아가 거절할까 금방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 호의는 잊지 않도록 하지. 눈발이 더 심해지기 전에 그곳으로 간다."

칼리아의 말이 끝나자 술집에 반 이상의 인원들이 부산스럽게 짐을 챙겨 나갔다.

일어날 채비를 하자 휴이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희가 타고 온 마차바퀴가 망가지는 바람에 마차를 타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도록 하지."

칼리아와 레이의 가운데 내가 앉고, 맞은편으로 클라우디아 남매가 앉았다.

마차가 넓어서 불편한 건 딱히 느껴질 못했다.

여전히 뚫어질 거 같은 시선으로 칼리아를 바라보고 있는 아만다와 전혀 모르겠다는 듯 눈을 감고 있는 칼리아의 모습은 왠지 이질적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을 알 수 없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휴이까지...

밀폐된 공간의 어색함에 숨이 막혔다.

"저희 영지는 이 속도로 간다면 한 시간 정도만 가면 도착할 겁니다"

"어쩌다 이곳까지 오셨어요?"

어색함을 깨고자 휴이에게 말을 걸었다.

휴이도 내 의도를 눈치챘는지, 내 말에 바로 대답해 주었다.

"영지로 놀러 왔다가 근처 유명한 호수를 구경하다 갑작스럽게 마차 바퀴가 고장 나고, 눈까지 와서 당황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희도 클라우디아경과 영애를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사무적인 미소를 띠며 말했다.

어느새 눈을 떠 나를 바라보고 있던 칼리아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까보다 더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괜히 찔린 나는 그의 눈을 피하며, 휴이에게 말을 걸었다.

"게이트 까지는 영지에서 멀까요?"

"저희 영지에서 게이트까지는 얼마 안 걸리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성으로 가시면 편하게 있다가 가시면 됩니다. 아까 있던 작은 마을과는 다르게 저희 영지는 사람도 많이 살고, 물자도 풍부하거든요."

"네. 정말 기대되네요."

자부심까지 느껴지는 그의 말에 작게 웃었다.

[작품후기]

킬리언데이지님 후원쿠폰 감사합니다!!

리수진님,브란슈폴른님,호이챠님,극악한마녀님,노란후리지아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평점 감사합니다.

어쩌다보니 선작수가 천명이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5화 시작

영지 입구에 들어서자 그들의 집사와 하녀가 나와 있었다.

"늦으셔서 걱정했습니다"

"갑자기 마차가 부서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 오늘은 여기 계시는 베네치아 공작님 일행이 우리 성에서 머물 것이니 그리 알도록"

휴이가 집사에게 말했다. 그의 말에 집사와 하녀들은 인사를 한 뒤 분주히 움직였다.

시내 중심에 있는 칼리아의 저택에 비해서는 작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웅장한 느낌은 있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관리를 잘되어 있었다.

정원은 왜 이리 화려한 것인지, 눈이 오는 추운 날씨에도 빨간 장미가 피어 있었다. 이질적인 장면에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둘러보자 옆에 서 있던 칼리아가 웃었다.

"따라오세요~ 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휴이의 뒤를 따르며 계단에 올라서자 중간에 초상화가 보였다.

"이분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어딘가 휴이의 얼굴이 씁쓸해 보였다.

이 사람이 바로 클라우디아 후작……. 권력의 중심에 있는자...

흰머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기고 위엄있어 보이는 얼굴이었다.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청순하게 웃으며 방을 안내하는 아만다의 뒤를 따라 걸었다.

"갑작스럽게 손님방을 준비하는 바람에 조금 정리가 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은 양해 부탁해요~"

"이렇게 머물 곳을 제공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영애는 이방을 쓰시면 되고, 공작님은 앞방을, 남작님은 옆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멀리서 오시느냐 피곤하셨을 텐데 쉬고 계시면 식사시간에 맞춰서 부르겠습니다"

간단히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칼리아가 따라 들어왔다.

"칼리아님, 이방은 제 방인데요?"

"알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칼리아는 꼼꼼히 내 방으로 지정된 방을 수색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그는 소파에 앉았다.

"……. 여기선 최대한 말이나 행동 조심하도록 해. 그리고 되도록 그들 남매와는 친하게 지내지 않도록 조심해"

"왜요?"

"에리엘 후작의 뒤에 있는 게 누구라고 생각해? 그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일을 꾸밀 정도의 사람이 못돼, 클리우디아 공작이야. 물론 물증은 없지만."

"그럼 왜 이곳에 오셨어요? "

"내 식구들이 얼어 죽을 순 없잖아. 단 하룻밤이 될 텐데..."

그래서 그렇게 성격에 안 맞게 머뭇거린 모양이다.

"마음 같아선, 오늘 밤은 한방에서 지냈으면 하지만 여긴 보이지 않은 눈과 귀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조심하도록 해"

"조심할게요."

"그럼 조금 있다 식사시간에 보자고"

그제야 칼리아가 방에서 나갔다. 그가 나가고 바로 침대에 앉아 신발을 벗고선 그대로 누워버렸다.

좋은 마차라곤 하지만 계속된 이동에 피로가 쌓이던 참이었다.

그대로 깜박 잠이 들었다. 밖에서 시녀의 노크에 깨어났다.

어느새 밖은 빨간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부스스한 머리를 높게 하나로 다시 묶고, 구겨진 옷을 손으로 피며 신발을 신고 나가자 시녀가 식당으로 안내했다.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는 레이와 칼리아와 반대편에는 클라우디아 남매가 앉아 있었다.

"제가 제일 늦은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시선 집중에 고개를 숙이며 인사 후 황급히 자리에 앉았다.

"아닙니다. 저희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휴이는 말과 동시에 시종들에게 손짓하자 음식을 하나씩 내오기 시작했다.

작게 들려오는 은은한 음악 소리에 맞춰 식기들의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음식은 맛있었다.

칼리아의 저택에 잇는 요리사 못지않게 혀를 즐겁게 해주었지만 어색한 공기는 여전했다.

레이는 워낙 포커페이스인지라 무표정하게 음식만 먹을 뿐이고, 칼리아도 어딘지 굳은 표정으로 연신 음식만 먹었다.

반대편을 힐끔 바라보자 아만다는 조신하게 음식을 먹으며 어떻게 하면 칼리아에게 말을 걸까 봐 이쪽을 연신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던 휴이가 말했다.

"이번에 전하께 하사받은 땅을 조사하러 가신다고 하시던데……. 날씨가 이래서 벌써 힘드시겠네요."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는게 아닐까요. 벌써 이렇게 경과 영애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말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칼리아와 워낙 말이 없는 레이를 대표해 말했다. 그러자 칼리아가 내 말이 끝나자마자 한숨을 쉬었다.

그 뒤로 왠지 눈치가 보여 더는 한마디 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음식을 입에 넣었다.

어색한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자 레이와 나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다.

어느새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칼리아가 말했다.

"루나 어색한 건 알겠지만 더는 그들과 말을 섞지 않는 게 좋아. 괜한 말 한마디로 정보를 제공해줄 수도 있어"

"그래도... 클라우디아 경은 그리 보이지 않아서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네"

그제야 칼리아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밖에서 야영하는 것보다 더 불편했다. 몸은 편할지언정...

딱히 할 일이 없어진 나는 방안을 여기저기 기웃거렸다.

손님방이긴 하지만 늘 관리가 되어있던 터라 손에는 먼지 하나 묻지 않았다.

금방 재미가 없어진 나는 몸이나 씻자는 생각에 욕실에 들어가 반신욕을 즐겼다.

며칠 동안의 피로가 한순간에 풀리는 기분이었다.

앞으로 반신욕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피부가 쭈글쭈글 해질 정도로 오랜 시간 탕에 들어가 있다 나왔다.

노곤해진 몸을 이끌고 침대에 들어가 그대로 잠이 들었다.

깊이 푹 잔 거 같은데 일어나 보니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다.

더는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방을 조용히 빠져나와 정원으로 향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인데도 희미하게 보이는 화려한 장미정원은 들어온 순간부터 장미 향이 코를 찔렀다.

빨간 장미 위에 쌓인 눈은 어딘가 이질적이었다.

"한겨울에 장미라니..."

그것부터가 이상한 거였는데...

정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니 중간에 한두 개씩 빨간 장미가 아닌 파란 장미가 보였다.

온통 빨간 장미 중에 파란 장미는 유독 더 튀어 보였다.

"빨간 장미만 심었는데 이렇게 가끔 파란 장미가 필 때가 있습니다"

어느샌가 옆에 와 말을 거는 휴이에 깜짝 놀라 한걸음 물러났다.

"깜짝 놀라게 해드린 거 같아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발소리를 못 들어서...."

칼리아도 그렇고, 휴이도 그렇고 이 나라 기사들은 죄다 발소리 없애는 법부터 배우는지 깜짝 놀랄 때가 많았다.

"한겨울에 장미라니…. 정말 특이하네요"

"아버지와 아만다가 좋아해서요. 열을 흡수하는 돌까지 사들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피는 파란 장미는 정원사의 손에 싹둑 잘려나갑니다"

어딘지 슬픈듯 말하는 휴이였다.

"장미라고 모두 같은 빨간색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파란장미, 흰장미 저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가졌는데, 꼭 없앨 필요는 없을 거 같군요"

나의 말에 휴이의 눈동자가 한없이 흔들렸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다른데, 그걸 꼭 사람의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태어난 그 자체로도 아름다우니까요"

나의 말에도 한동안 말이 없는 그였다.

[작품후기]

리수진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평점,추천 너무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휴이를 내버려두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앞으로 게이트 하나를 더 통과한 후 꼬박 하루를 마차에서 보낼 예정인지라 가지고 있던 캐리어를 열어 짐을 정리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옷을 하나씩 껴입기 시작했지만, 확실히 이곳은 옷이 얇았다.

눈에도 옷이 금방 젖어 체온을 빼앗기기도 했고, 무엇보다 옷이 너무 무거웠다.

몸을 단련하는 남자들이면 몰라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버거울 것이다.

가볍게 온 눈은 털어낼 수 있고, 안에 솜을 넣어 가볍지만, 보온성은 최고인 패딩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 아직까진 비슷한 것도 발견하질 못했다.

칼리아는 아마도 이 저택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어 보이니, 식사를 마치면 바로 떠날 수 있게 짐을 챙겨 문 옆에 놓아두었다.

마침 하녀가 아침식사시간임을 알렸다.

문을 열고 나오자 칼리아와 마주쳤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흐트러짐 없는 깔끔한 넥타이에 칼같이 다린 셔츠를 입고 살짝 넘긴 앞머리

잘생긴 얼굴에 뭐든 안 울리는 게 있으랴...

오늘도 어김없이 심기가 불편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완 달리 일찍 도착했는지, 식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칼리아와 함께 의자에 앉았다.

"레이 님은요?"

"별로 생각 없대서, 조금 더 자라고 했어"

"아…. 그래도 아침은 드시는 게 좋은데..."

아쉽지만 여긴 공작저가 아닌 이상 따로 식사를 챙길 수 없었다.

앞으로 더 가야 할 여정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레이에 물어보려 의자에서 일어나려는데, 클라우디아 남매가 식당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의자에 앉았다.

"어젯밤은 잘 쉬셨어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칼리아의 행동에도 기죽는 법이 없는 아만다가 다시 말을 걸었다.

아만다를 보면 느껴지는 게 사랑만 받고 자란 명랑하고 활발해 보이는 성격이었다.

그러니 저렇게 칼리아가 대놓고 눈치를 주는데도 상처받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다.

저 정도 집착과 철판이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성공할 수 있을 거라며 혼자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포커페이스를 유지 중인 칼리아는 별다른 말 없이 음식만 먹었다.

"네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뒤에 일정만 없다면 며칠 더 쉬었다 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안쓰러워 보일 정도라 한마디를 보탰다.

그에 고개만 숙이고 앞에 나온 샐러드의 채소만 포크로 찔러대던 휴이가 고개를 들더니 급히 말했다.

"며칠 더 쉬다 가실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다가 뒷말만 들었는지, 휴이가 눈까지 빛내자 칼리아가 얼굴까지 찌푸리고 말했다.

"식사가 끝나면 바로 준비되는 데로 떠날 예정이오"

"네? 조금 더 머물다 가시지..."

이번엔 아만다가 아쉽다는 얼굴로 말하자 칼리아가 더없이 딱딱한 얼굴을 한 채로 말했다.

"이미 일정이 많이 늦어져 지체할 수 없으니, 그동안의 신세는 꼭 갚도록 하지"

어느새 식사를 마친 칼리아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어나 사라졌다.

이 난감한 상황에 나를 두고 가다니....

아까보다 더 불쌍해 보이는 휴이의 표정에 고개를 푹 숙이고 남매와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포크 질을 하며 허겁지겁 식사를 끝냈다.

터덜터덜 내방으로 올라와 문 옆에 놔두었던 캐리어를 끌고 내려왔다.

잠에서 깨어난 레이는 마차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고, 내 뒤로 칼리아가 나왔다.

"나머지 일행들은 게이트 쪽에서 합류하기로 했으니, 출발하지"

성입구에 클라우디아 남매가 아쉬운 얼굴로 마중을 나왔다.

"갑작스러운 눈 때문에 난감하던 차에 따뜻하고 배부르게 잘 있다가 갑니다."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마차에 오르려고 하자 휴이가 내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호...혹시 돌아오실 때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무례인줄 알면서도 휴이는 여유가 없어 보였다.

잡힌 손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

내 뒤에 바짝 서 있던 칼리아가 손을 쳐내며 그의 물음에 답을 주었다.

"오늘 같은 일은 예상에 없던 일이지만 돌아갈 땐 최대한 빨리 돌아갈 예정이라 들릴 여유는 없을 거 같군"

써늘한 말에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칼리아는 나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마차로 들어갔다.

작은 창 너머로 보이는 휴이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휴이는 창에 대고 또다시 물었다.

"영애 그럼 혹시라도 돌아가시거든 나중에 차라도 한잔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그럼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해요"

그제야 표정이 풀리는 휴이에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마차는 서서히 출발했다.

더는 클라우디아의 영지가 보이지 않자 칼리아가 말했다

"언제 클라우디아 경과 친해진 거지?"

"친해진 건 아니고 새벽에 잠깐 정원에서 대화했었죠"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그사이 그렇게 애틋해진 걸까?"

"글쎄요. 전 그냥 정원에 핀 장미 이야기를 했었어요"

칼리아는 더는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며칠째 마차에서 보던 서류를 보기 시작했다.

곧 심심해진 나는 레이가 다 읽고 옆에 내려놓은 책을 읽었다.

알 수 없는 기호들로 이루어진 책이라 한 장도 채 읽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우리는 게이트를 통과했는지 창밖은 온통 새하얀 눈밭이었다

마차 안은 열을 내는 돌 때문에 추운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다.

[작품후기]

루아아님,조아조아해ㅎㅎ님 후원쿠폰 감사합니다.

리수진님,호이챠님,인디70님,물결같이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 평점,추천 감사합니다!!!

다음주 추석인지라... 일주일 휴재합니다~

10월 2일 돌아오겠습니다!!!!

^^^

5화 시작

눈 앞에 펼쳐진 새하얀 눈밭과는 다르게 그들이 사는 곳은 처참했다.

언제 바람에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 짚과 나무로 지어진 집과 눈으로 봐도 얇은 옷을

몇 겹씩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언제 얼어 죽어도 이상할 바 없어 보였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 미소를 잃은 얼굴이었다.

'왜 왕은 이런 곳으로 칼리아를 보냈을까... '

마차는 점차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일을 하던 사람들이 마차를 힐끔힐끔 바라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 추운 곳은 모니알이라고 불리는 북부의 끝쪽 지역이며, 전하가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낸 곳이기도 했다. 또한, 모니알은 수도에서도 유명한 금이 나오는 광산이 있었다.

금을 탐낸 에리엘 후작이 눈독을 들이다 왕권이 약해진 틈을 타 그가 차지해 버렸다. 금에 눈이 먼 에리엘 후작은 광산에 있는 금을 모두 캐자 쓸모가 없어진 땅은 몇 년을 내버려두다 왕에게 인심 쓰듯 다시 돌려주었다.

왕은 그 즉시 칼리아와 시찰을 나와보곤 이 참담한 광경을 보고 조용히 눈물 흘렸다고 했다.

그것이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라고 마차에서 칼리아가 말했다.

"곧 성에 도착할 거다. 우리가 올 거라고 미리 알고 있지만, 보다시피 다들 넉넉지 않은 곳이라 생각보다 편하게 있을 순 없을 거야. 오늘은 편히 쉬고, 내일부터 마을을 시찰하도록 하지"

성 앞에 마차가 서자 머리가 백발의 나이가 많이 보이는 집사가 나와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작님"

"오랜만이군. 루크"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추우실 텐데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익숙한 듯 어딘지 친해 보였다.

"전하께서 공작님이 어릴 때 자주 데리고 오셔서 익숙하시답니다"

어느새 내 뒤에는 집사와 비슷한 또래의 나이가 지긋한 백발의 여자가 말을 걸었다.

"하녀 장을 맡은 엠마입니다"

"아 전 루나라고 합니다. 공작님을 보좌하는 일개 공무원입니다. 말씀 편하게 하세요"

공작 저에서 하녀장이라면 하대하는 것이 맞지만 모니알은 5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영지를 운영한 사람들이라면 대우받아 마땅했다.

"장차 공작부인이 되실분 아니십니까"

인자하게 웃으며 핵폭탄을 던지는 그녀의 말에 한쪽 입꼬리가 경련을 일으키듯 웃었다.

지난번 칼리아가 미리 다녀 갔을때 무슨 소리를 한 것인지, 북부의 땅에도 칼리아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게 알려진 모양이었다.

그녀는 나를 칼리아의 바로 옆방을 배정받았다. 영주가 없어서 관리한 것 치곤 깔끔한 방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들어오는 훈기에 꽁꽁 얼었던 몸이 녹아내렸다.

먼지 하나 보이지 않은 방은 신경 쓴 티가 났다. 하지만 많이 낡은 티가 나는 가구들은 어쩌질 못한 듯 보였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방을 구경하다가 짐을 풀었다.

방안은 따뜻했지만, 성 전체가 따뜻하진 않았다. 내일 칼리아가 마을을 시찰할 때 같이 돌아다녀야겠다며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나는 추운 성 밖을 나갈 생각에 이 옷 저 옷 다 껴입기 시작했다. 확실히 수도에 있을 때와는 뼈속까지 들어오는 날씨라 옷을 사 입어야 되나 잠깐 고민했지만, 어제 오면서 본 사람들의 모습은 딱히 수도에서 온 나와 다른 옷차림이 아니었다.

성 앞으로 나와 있자 칼리아와 레이가 어제와 비슷한 옷을 입고 서 있었다.

둘다 밖을 돌아다니기엔 얇은 옷차림이었다.

"두 분 다 안 추우세요?"

아침 인사도 안 하고 놀래서 물어보자 칼리아가 전혀 아무 문제 없다는 얼굴로 태연히 말했다.

"전혀. 그대는 옷을 너무 입은 거 같은데..."

"추워서요. 전 추위를 많이 탄다고요. 그전에 두분이 너무 비정상적이라구요"

나의 옷차림을 살피던 칼리아가 작게 웃었다.

그다음 눈이 마주친 레이도 딱히 아무렇지 않아 했다.

"레이님은 아침 식사 하셨어요?"

자꾸만 식사를 거르는 레이 때문에 볼 때마다 인사처럼 물어보게 되었다.

"과일 조금...."

몇일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 정도면 많은 발전이었다.

"그 정도면 충분하네요."

레이를 보며 웃으며 대답했다.

"시찰은 아무래도 빨리 끝내기 위해선 말을 타야 될 텐데……. 괜찮겠어?"

"말을 탈까 봐 이리 입었습니다. 어디부터 들리실 계획이신데요?"

"우선은 성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부터 살필 예정이야"

말에 오르며 칼리아가 말했다.

칼리아의 뒤를 따라 레이와 내가 차례로 말을 타고 달렸다.

안그래도 차가운바람이 말을 타자 더 얼굴을 강타했다. 이러단 입돌아 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다음부턴 작은 천으로 마스크라도 만들어서 쓰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마차로 이동하면서 잠깐 본 사람들의 모습은 가까이 보자 더욱 심각한 걸 느꼈다. 어딘지 무기력해보이는 표정, 날씨에 맞지 않은 얇게 입은 옷, 스쳐 지나가듯 짚과 나무로 만든 빈약한 건축물들...

정말 심각하지 않은 게 없었다.

어느새 레이는 사라졌는지 보이질 않았다.

"레이님이 보이질 않으시네요"

"아마 숲 속으로 들어갔을 거야. 식용 가능한 식물과 약초들을 조사하러 들어간다고 아까 말했었어."

"아……. 저도 같이 갈 걸 그랬네요"

"당분간은 나랑 같이 마을을 조사하는 게 좋을 거야. 레이는 자기 몸 하나 정돈 지킬수 있지만, 둘이 간다면 힘들 테니"

레이에겐 내 존재가 방해된다는 말을 돌려 말하는 칼리아였다.

맞는 말이다. 초행길에 눈덮인 산까지.. 내가 따라 갔다면 필시 짐이 되었으리라...

한숨을 쉬곤 칼리아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우리 둘은 가까운 시내를 중심으로 한바퀴 돌고 다시 성으로 들어왔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각해서, 일단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고민해보기로 한것이다.

따뜻한 거실 난로 근처로 자리잡자 엠마는 따뜻하게 데워진 우유를 가지고 왔다.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군"

"그러게요. 이거 입고 있는 옷뿐만이 아니라 살고 있는 집부터 손볼께 너무 많아요"

"자원은 더이상 구할수 없을꺼야. 후작이 돈될만한 건 모조리 다 팔아버렸거든"

"당장 입고 있는 옷부터 두껍게 바꿔야 될꺼같아요. 저런옷을 입고 일한다면 병에 걸리지 않는게 이상할 정도라고요"

우리 둘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작품후기]

진희주님,조아조아해님,킬리언데이지님 후원 쿠폰 감사합니다.

리수진님,솜사솜사솜사탕님,인디70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ㅎㅎ

화요일인줄 모르고 있다가 부랴부랴 올립니다.ㅜ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ㅜㅜㅜ

^^^

5화 시작

해는 이미 한참 전에 졌지만, 레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걱정된 나는 성문 앞까지 나와 레이를 기다렸다.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한 하늘은 새하얀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왔다 갔다 성 앞을 서성이며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고민하던 차에 저 멀리 레이가 보였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레이의 대답도 듣기 전에 그의 양팔을 잡고 이리저리 다친 곳이 없는지 두리번거렸다.

꼼꼼히 더욱 다친 그곳이 없는 것을 확인하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느새 내 뒤에는 칼리아가 성문에 기대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그만 레이를 놔주는 건 어때?"

"아…….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얼른 난로 근처로 가죠"

이번엔 레이의 팔목을 잡고 앞장서서 걸었다.

내 뒤로 칼리아가 한숨을 쉬며 따라왔다.

레이가 편하게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의자에 올려놨던 담요를 치우자 레이가 자리에 앉았다.

레이의 몸 위로 담요를 덮고 따뜻한 우유를 레이의 손에 들려주었다.

그가 따뜻한 우유를 한 모금 마시는 모습을 보며 반대편 의자에 앉았다.

"갔다 온 조사는 잘 마쳤나?"

또다시 내 뒤에 서 있던 칼리아가 레이에게 물었다.

레이는 손에 들고 있던 우유를 내려놓고 근처에 내려놓았던 가방을 뒤적거리며 종이를 꺼냈다.

겨울 산이라서 식물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처음 보는 식물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부터 식용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레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칼리아에게 넘겨 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역시 공작님의 말씀대로 금을 캤던 동굴은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도 처음 보는 식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칼리아의 뒤로 레이가 그린 그림을 살펴보았다.

화가가 되어도 될 만큼의 자세한 그림 실력이었다. 천천히 그림을 넘기던 칼리아의 손에서 어딘가 익숙한 식물을 보게 되었다.

다급한 마음에 칼리아의 얼굴이 볼에 닿는 것도 모르고 칼리아의 손에 있던 종이를 빼앗아 들었다.

"어…. 어머"

레이의 시중을 들기 위해 들어오던 하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 다시 나갔다.

그녀의 목소리에 그림에 빠져 있던 정신이 돌아왔다.

내가 뒤에서 칼리아를 껴안은 모습 그대로 그림에 정신이 팔렸었다.

깜짝 놀라 칼리아에게서 떨어졌다.

"조…. 죄송해요. 그림에 정신이 팔려서…."

"아니야. 좋았어"

칼리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부끄러운 마음에 칼리아를 외면하고 레이에게 말을 걸었다.

"이 그림에 있는 식물……. 혹시 아는 식물인가요?"

레이는 나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혹시 내일 저도 이 식물이 있는 곳에 갈 수 있을까요?"

"왜 이 식물이 특별한가?"

가만히 듣고 있던 칼리아가 옆에서 말을 했다.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식물이라면 옷을 입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나도 내일 함께 하도록 하지. 이만 밤이 늦었으니 오늘은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이곳에서 만나도록 하지"

칼리아의 말에 나와 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응접실에 모였다.

세 사람 모두 말에 오른 뒤 시내를 벗어나 한참을 달렸다.

넓은 벌판을 달려나가며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들어왔다. 점점 움츠러드는 몸을 추슬러가며 달리자 곧 선두에서 달리던 레이가 멈췄다.

"여기서부턴 말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을 나무에 잘 묶어놓고 숲으로 들어갔다.

전혀 사람이 왕래하지 않아 보이는 숲은 이리저리 아무렇게나 자라나 있는 나무와 풀을 해치고 한동안 걸어나갔다.

커다란 동굴 입구 앞에 레이가 걸음을 멈췄다.

"이 동굴 안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동굴 안에서만 자란다고 하네요.

오래전에 사람들의 발길을 끊은 곳이라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 조심하십시오."

칼리아는 나에게 빚을 내는 돌을 쥐여 주며 말했다.

"위험하면 소리부터 크게 질러. 근처에 있을 테니…."

"네"

레이가 처음으로 앞장서서 걸어가자 그다음은 내가 마지막은 칼리아가 걸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각자 걷는 것에만 집중했다.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동굴 안은 걷는 게 참 힘들어서 몇 번이나 넘어 질뻔했지만, 그때마다 칼리아가 뒤에서 계속 나를 받쳐 주었다.

꼬불거리는 동굴 안을 침착하게 걷던 한곳에서 점점 환해지기 시작했다.

그곳을 향해 걷던 레이가 말했다.

"이곳입니다"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오자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며 잠시 뒤 환한 빛에 익숙해지자 천장에 동굴이 뚫려 있어서 빛이 들어와 꽃들을 비추었다. 사방이 막혀 있어 다른 곳보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땀까지 흐르자 우린 겉에 입은 외투를 벗었다.

나는 꽃을 관찰하기 위해 한 발짝 앞서 나가자 칼리아가 급히 나의 손목을 잡고 말렸다.

"아직 안전한 게 아니니 내 뒤에서 걷도록"

얌전히 칼리아의 뒤를 따라 가장 빛을 받는 중앙으로 들어섰다.

쭈그리고 앉아 꽃을 따서 손에 들어 자세히 보았다.

그러다 마찬가지로 꽃밭을 관찰하고 있는 레이에게 큰소리로 물었다.

"이 꽃이 독성이 있을까요?"

"조사해 봐야 될 거 같은데…. 잠깐 본 바로는 아직 인체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거 같아요"

"루나 이제 왜 그렇게 이 꽃에 관심을 가졌는지 알려줘"

칼리아의 말에 머뭇거리며 말했다.

"여기 꽃이 지고 하얗게 올라온 이 부분을 가지고 따뜻한 옷을 만들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만드는지는 잘 모르지만, 모니알에도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테니…. 그 사람들과 상의를 해 볼 생각이에요"

"그런 게 가능한가?"

"해봐야죠."

"그런 건 어떻게 알았어?"

"음……. 책에서 봤던 거 같아요."

저 몽글몽글 보이는 건 목화솜과 닮아 있었다. 어떻게 만들지는 잘 모르지만, 목화솜과 닮은 것을 가지고 따뜻하게 옷을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레이를 따라 나온 것이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한국을 빛낸 100의 위인에 나오는 문익점의 목화씨…. 그걸로 따뜻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이야기는 다 아는 사실이니 이 목화솜으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내가 가지고 온 캐리어 가방에 있는 대로 목화솜을 따다 담아 넣었다.

나의 행동에 레이와 칼리아가 빠르게 목화솜을 있는 대로 따다 넣었다.

우리는 이 목화솜을 가지고 동굴을 나와 빠르게 성으로 복귀했다.

"엠마님 이 마을에 옷을 만드는 사람들을 모아주세요."

몸이 차가운 바람에 녹기도 전에 엠마를 불러 부탁을 했다.

1시간도 되지 않아 사람들이 5명정도 응접실로 모였다.

엠마의 능력이었다.

"갑자기 불러서 죄송합니다. 한시가 급해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곳의 추운 날씨와 지금 입고 입는 옷은 정말 맞지 않는 다는 건 무엇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옷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마을에서 물자 지원받기도 힘듭니다."

나의 말을 듣고 있던 남자 한 명이 손을 들고 억울하다는 듯 말을 했다.

"충분히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며칠 동안 이곳을 관찰해 본 결과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의하고자 불러모았습니다. "

캐리어를 열어 그들의 앞에 펼쳐 놓았다.

"금을 캐던 동굴에 식물이 자라고 있던 건 여러분도 알고 있었습니까? 이것으로 얇은 옷 위에 넣고, 그 위를 얇은 천으로 감싸는 게 가능할까요?"

"하…. 한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식입니다."

누군가 한 명이 당황스럽다며 말을 해왔다.

"재료는 모자란다면 저희가 동굴로 가지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말한 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나의 말에 응접실은 조용해졌다.

말이 쉽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라 다들 선뜻 나서지 못했다.

[작품후기]

리수진님,안녕212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평점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그들은 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하루 정도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나의 말에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뒤돌아 열려 있던 가방 문을 닫으며 방을 나서려는데,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자…. 잠깐 기다려 주세요. 만약 우리가 도운다면…. 성공할까요?"

"그건 저도…. 하지만 시도도 하지 않고, 이대로 살아갈 순 없잖아요."

나의 말에 침묵을 지키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곧 결론이 났는지 그들은 비장한 얼굴로 말했다.

"영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이러나저러나 얼어 죽는 건 똑같을 테니…."

"좋습니다. 재료는 언제든 더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진 데…. 우선 여기 있는 씨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넓고 얇게 펴서 잘 말려서 옷 안쪽에 넣는 방향으로 가야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정확하지 않은 것이니,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말해주세요. "

"저……. 그럼 작업은 저희 작업실에서 하실 건가요?"

"도구가 있는 여러분들 작업실이 더 편하지 않겠어요? 당장은 저와 상의할 일이 많아서, 같이 있는 게 효율적일 듯하군요"

가만히 문 옆 벽에 기대어 있던 칼리 아가 화들짝 놀라 자세를 바로 하곤 나에게 말을 했다.

"그럼 성 밖에서 자겠다고?"

"당분간은 그래야겠죠. "

다시 캐리어를 주섬주섬 챙기며 말하자 칼리아가 인상을 쓰고 말했다.

"성 밖은 춥고 위험할 거야."

"감수하고 있어요."

고집스러운 나의 대답에 칼리아가 인상을 풀고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며 엠마를 찾았다.

곧 엠마를 부른 칼리아가 말했다.

"이들의 작업실로 빈방 하나를 내주도록 해"

그의 말을 들은 내가 급하게 칼리아를 막아섰다.

"그러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나야 앞으로 이들과 한 팀으로 일하면서 서로 믿음을 보여줘야 하지만, 칼리아가 작업실까지 대주면서 같이 있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

칼리아는 내 말을 무시한 채 엠마에게 손짓하자 엠마가 사람들을 데리고 사라졌다.

둘만 남게 되자 칼리아가 말했다.

"모니알은 내 영지다. 영주인 내가 신경 쓰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앞으로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어. "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려다가 그의 굳은 얼굴을 보고 하고자 했던 말을 삼켰다.

방을 안내받은 그들은 다시 응접실로 돌아와 나에게 말했다.

"돌아가서 도구를 챙겨와야 할 거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죠."

"네 그럼 내일부터 같이 힘내봐요"

그들을 배웅하며 내 방으로 들어가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책상 위에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한국에서 입었던 패딩을 생각하며 더듬더듬 말도 안 되는 그림 실력으로 그림을 열심히 그려나갔다.

패딩을 그린 그림 말고도 털모자, 벙어리 장갑, 털이 잔뜩 들어간 장화, 마스크를 그렸다.

엠마에게 부탁해 방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를 입에 물고 목화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생각했다.

여기에도 인터넷이 있으면 찾아볼 텐데….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곳 나름의 방식대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성공할 수 있겠느냔 걱정과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설친 나는 엠마의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잠들지 못한 나는 내가 맡은 일이 크면 클수록 잠을 자지 못했던 장세휘 시절의 버릇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상기시켰다.

떠지지 않는 눈을 억지로 뜬 뒤에 간단한 샤워를 하고 엠마가 손에 들려주는 따뜻한 우유를 들고 응접실로 향했다.

아침까지 도구를 챙겨 온다는 사람들과 그들을 도울 인원으로 응접실은 북적거렸다.

우리는 엠마가 만들어준 간단한 아침식사를 마치고, 작업실로 들어갔다.

어제저녁 그림을 그려 넣었던 종이를 펼쳐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제 그림 실력이 뛰어나질 못해 잘 그리진 못했지만 보면서 설명하는 게 나을 듯싶어서요"

나의 그림을 보던 사람들은 다들 놀라서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다 한 명의 남자가 말했다.

"생각지 못한 방법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따뜻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겠군요."

"문제는 동굴에서 가지고 온 식물을 어떻게 이 안에 넣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느냐는 건데…."

"동굴에서 가지고 온 식물 이름부터 만들어야죠."

"계속 그렇게 부를 순 없으니까요."

그 남자의 말에 여러 사람이 동의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이름 짓기는 그들의 의욕을 상승시켰다.

마땅한 이름이 나오질 않자 잠깐의 침묵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한 남자가 내 얼굴을 빤히 보더니 말했다.

"룬이라고 지으면 어떨까요. 루나님이 발견하신걸 간단히 줄여서요."

"오오!!!"

"그거 좋군요!"

당황스럽게 나의 이름으로 지어진 것에 놀라 그들을 중재하려다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며 손을 내렸다.

약간 쑥스러운 느낌이 들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럼 앞으로 룬이라고 부릅시다!"

캐리어 가득 들어 있던 룬을 구석진 바닥에 쏟았다.

어제 자세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룬에게 다가와 모양새와 촉감, 냄새를 맡으며 관찰했다.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냄새도 햇빛에 말린 보송한 냄새가 나요."

"이렇게 맑은 흰색이라니…."

다들 처음 보는 룬에 정신없이 빠져들었다.

그들이 충분히 관찰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시간은 흘러 나는 그들을 다시 주목시켰다.

"이 정도면 여러분도 많이 관찰했을 그거로 생각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짜보도록 하죠. 먼저 여기 보이는 씨를 다 제거해야 합니다.

씨는 저기 자루에 넣도록 해요. 다시 동굴로 가져가 심어야 하니까…. 그리고 나면 햇빛에 넓게 펴서 말려야 됩니다. 이 뭉쳐 있는 루…. 룬을 펼치는 게 일인데……."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이름에 살짝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들도 나의 말에 바로 바닥에 앉아 씨를 제거했다.

그사이 칼리아가 병사들을 시켜 동굴에서 가지고 온 룬이 든 자루가 계속해서 작업실로 들어왔다.

씨를 제거하는 작업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누구 하나 힘든 내색하지 않으며, 열심히 씨를 제거해나갔다.

한편 나는 그들을 뒤로하고 레이의 방을 찾았다.

-똑똑

말은 없었지만, 레이의 습관을 아는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레이는 수도에서 챙겨 온 실험도구를 꺼내 들고 룬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었다.

아마도 어제 캐리어로 가지고 왔을 때부터 한숨도 자지 않고 연구한 게 분명했다.

"레이님"

당연히 대답은 없었다.

한숨을 쉬곤 아까보단 크게 레이를 불렀다.

"레이님!"

그제야 레이가 나를 돌아보았다.

[작품후기]

리수진님,물결같이님,북끅곰님,배추애벌레님,doansk12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평점 감사합니다.

50화 기념으로 깜짝이벤트로 한편 더 올립니다.~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레이님 급하게 물어서 죄송하지만, 동굴에서 가지고 온 식물의 독성이 없는게 확실할까요?"

아무래도 목화솜과 외형도 비슷하지만 혹시나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희망이 생긴 사람들 앞에서 내색할 순 없었다. 그래서 조용히 레이를 찾아왔다. 나의 염려와는 다르게 레이가 말했다.

"인체에 해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추위엔 강하지 않아서 쉽게 키우진 못할 거 같아요."

"아……."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실험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듯하군요."

아무래도 당장은 동굴에서 자라난 것들로 실험을 해야 할 그거 같았다.

나와 레이가 룬에 대한 거로 바쁘자 주변 탐색을 혼자 다니던 칼리아가 급히 나를 찾았다.

"칼리아님 무슨 큰일이 일어났나요?"

평소에 무슨 일이 생기든 나를 찾지 않는 칼리아 였기때문에 큰일이 난 줄 알았다.

"금을 캐던 동굴이 우리가 갔던 곳 말고도 두 군데 더 있는데…. 거기 안에도 똑같은 식물이 자라고 있더군."

"와 정말 다행이네요.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그거 같아서 걱정했는데…. 좋은 소식이었네요."

"그러니, 물량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동굴 옆 산의 흙도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사하기로 해서"

"흙이요?"

"그래. 흙색이 붉어서 혹시라도 흙에 독성이 있으면 큰일일 수 있어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산에서 독성이 있는 흙에 먹을 수 있는 식물이라도 심으면 큰일이 된다.

"아……. 그럼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레이님도 같이 가시는 건가요?"

"그래야겠지. 아까 잠깐 들었는데, 식물의 이름이 정해졌다면서? 룬이라고"

심각한 주제에서 가벼운 주제로 바뀌었다.

"아……. 네…."

어딘지 부끄러운 기분이 들어서 작게 말하자 칼리아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대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엠마가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닌 모양이던데…."

"헉…. 그렇게 까지요? 당장 엠마님에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야겠네요"

"내버려 둬. 몇 년 동안 버리진 영지에서 좋은 일이 일어난 것에 기분 좋아진 모양이니…."

칼리아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한동안은 부끄러운 마음이 계속 들것만 같았다.

칼리아와 헤어지고, 작업실로 향하자 사람들은 그 재미 없는 단순 작업에도 하하 호호 즐겁게 룬의 씨를 제거하고 있었다.

꽤 많은 작업이 끝난 룬을 커다란 천에 올려놓고는 어떻게 할지 상의가 시작되었다.

"자 이제 이물질 제거를 합시다. 이 기다란 막대기로 팡팡 털어요."

모두 씨를 제거한 룬을 긴막대기로 쳐내자 아까보다 두 배로 커졌다.

"아무래도 이 울퉁불퉁한 부분들을 평평하게 만드는 게 좋을 그거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손으로 한번 해보죠."

그들은 손으로 제멋대로 엉켜 있는 룬을 풀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이거 손으로 하기엔 정교하지 않네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겠네요."

"이렇게 돌로 찧기엔 뭔가 지저분하네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졌다.

그때 구석에서 엄마를 따라온 어린 소녀가 인형 머리를 빗듯 룬을 빗었다.

인형 머리처럼 잘 빗기진 않았지만, 차곡차곡 빗어지는 모습을 본 한 남자가 그 모습을 보고 소리쳤다.

"저거다!!!"

그의 손짓에 모든 사람이 어린 소녀를 바라봤다.

소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룬을 빗고 있었다.

소녀의 엄마도 그 모습을 보곤 소녀를 안고 얼굴에 뽀뽀를 날렸다.

다시 활기를 찾은 사람들은 집마다 빗을 가지고 와 엉켜 있는 룬을 빗으로 빗었다.

물론 엉킨 부분들이 쉽게 풀리지 않았다. 요령이 없어 빗도 여러 번 부러 뜨렷다.

힘든 작업이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 없이 사람들은 작업에 몰두했다.

반나절 한 것 치곤 많이 나온 정리된 룬을 엠마에게 말해 성에서 가장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서 말려달라고 부탁했다.

한숨 돌린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자 한 남자가 말했다.

"루나님. 그려주셨던 그림을 보면 이 펼쳐진 룬을 옷에 넣는 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장은 이 지역에서 가장 부드러운 천과 물에 강한 천을 구해서 부드러운 천을 안쪽에 물에 강한 천을 바깥쪽으로 해서 가운데 룬을 놓고 꿰맬 생각인데…."

"으흠…. 그거 괜찮군요. 여긴 눈도 많이 오니, 늘 밖에 돌아다닐 때면 얇은 옷을 많이 입고 젖었다 싶으면 벗었거든요."

"맞아요. 젖은 옷을 오래 입고 있으면 안 입은 것만 못해서, 늘 여러 겹으로 입었었거든요. "

"하지만 옷이 얇아서 추위를 막아준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다들 평소에 입고 다니던 옷에 대해 불편한 점을 말했다.

지금까지 시도를 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자원도 부족하고, 금이 떨어진 이후부터는 금전적으로 부족함에 그들은 그저 체념한 상태였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희망이었다.

"그럼 우선 시범적으로 몇 개만 만들어 보고,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죠."

"다들 그럽시다! 그럼 내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가장 부드러운 천과 물에 강한 천을 구해오도록 하죠."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들은 서로 웃으며 헤어졌다.

작업실에 몇 명의 옷을 만드는 사람들만 남았다.

"앞으로 우리의 일이 중대해지겠어요. "

한 남자가 말했다.

"집에서 쓰던 빗으로 일일이 정리하기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군요. 햇빛에도 잘 말려야 하는데…. 거기가 튼튼하지 못해 벌써 몇 개나 부러뜨렸는지…."

"혹시 조각가가 있나요?"

"조각가라면 이 친구가 조금 만들 수 있습니다."

"정교한 건 잘 못 만들지만,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거뜬히 만들 수 있습니다."

솝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처음 나에게 말을 했던 남자였다.

"빗을 좀 더 촘촘하고, 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양옆에서 사람이 잡을 수 있게 크게요. 그리고 쉽게 부러지지 않게 튼튼했으면 좋겠네요"

나의 말에 가게는 눈이 커다래져서 말했다.

"좋은 생각이네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밤새 만들어 내도록 하죠."

신이 나서 말하는 솝은 주변의 남자 둘을 데리고 자신의 집에 갔다 온다며 황급히 사라졌다.

[작품후기]

리수진님,킬리언데이지님,아트다크님,doansk12님,배추애벌레님,tmdtmdaka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평점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솝과 그의 친구들만 아침 일찍 오지 않았을 뿐.

다들 양손 가득 어제 말한 천들을 가지고 왔다.

응접실에는 천과 사람들로 정신이 없었다. 엠마는 그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해 주었다.

어제보다 사람들이 많아 그것을 보고 말했다.

"어제 못 보던 분들이 계시네요."

나의 말에 듬직해 보이는 몸을 한 여자분이 말했다.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따뜻한 옷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친한 사람 몇 명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의 말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그들의 모습에 한숨이 나왔다. 물론 좋은 의도로 그런 건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만 많다면 잘 될 일도 되지 않는다. 거기다 부정적인 생각이 섞이기라도 한다면, 사기가 꺾일 수 있다.

"지금 당장 바로 만들어 진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오실 땐 다른 분들을 데리고 오지 말아주세요. 아직 실험과정인데…. 사람들만 늘어나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성공한다면, 마을 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릴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다들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그제야 그들이 가지고 온 천을 볼 수 있었다.

자세히 본 그들이 가지고 온 천은 생각보다 더 질이 안 좋았다.

천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은 근처의 산에 올라 동물을 사냥해 가죽을 쓰기도 했는지, 중간중간 동물 가죽도 보였다.

하지만 물에 강한 천은 어디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을 향해 물었다.

"물에 강한 천은 보이질 않네요?"

"지금 손으로 만지고 있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천중에 가장 물에 강한 것입니다."

이건 너무 약했다. 살짝 물을 뿌려 봤지만 바로 흡수돼서 젖어버린 천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고민했다. 그러다 침낭이 생각났다.

당장 내방까지 달려 침낭을 가지고 작업실로 들어갔다.

다들 룬을 만지작거리다 나를 돌아보았다.

난 넓게 침낭을 바닥에 펼친 뒤에 말했다.

"안쪽 천은 부드러운 동물 가죽으로 하고 그 위에 룬을 올린 다음 이 천이 바깥쪽으로 하는 게 어때요?"

"오…. 확실히 물에 강해 보이는군요. 하지만 가지고 계신 천은 이게 전부 아닙니까?"

"있긴 하지만, 그 점은 공작님과 상의하도록 하죠. 우선은 이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응접실에 있던 사람들은 칼리아가 다른 동굴에서 가지고 온 룬의 씨앗을 제거하도록 했다.

동굴과 그 주변을 수색하다 돌아온 칼리아는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보자 왠지 말을 걸기 미안해서, 뒤돌아서던 차에 칼리아가 어느새 나 뒤에 와 말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피곤해 보이세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넥타이를 끌어 내리며 칼리아가 다시 말했다.

"무슨 일인데?"

"그…. 여기 올 때 만들었던 침낭을 쓰고 싶어서요."

"침낭을?"

"네…. 이 마을엔 물에 강한 천이 따로 없어서 침낭을 사용하고 싶어서요. "

"뭐…. 그대의 의견이었으니 사용하도록 해. 당장 야영하는 일도 없으니까."

"고맙습니다. "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작업실로 달려나가며 말했다.

그는 다시 말을 꺼내려다 급히 뛰어가는 나의 모습에 입을 다물었다.

그리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작업실에는 나의 침낭의 해체 작업이 한창이었다. 최대한 천을 훼손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고자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고 있었다.

"공작님께서 가지고 온 침낭을 전부 사용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

"좋은 소식이군요."

"이 침낭이란 거…. 생각보다 커서 두 사람분의 옷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들은 쉴 새 없이 손을 놀리며 말했다.

"솝은 아직도 안 왔어요?"

"네. 아직 오진 않았네요"

"오전 안에 온다는 녀석이 곧 해가 질 거 같은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니…. 쯧쯧쯧"

솝은 늦은 오후에 밝은 얼굴로 방문했다.

밝은 표정에 비해 그의 눈은 실핏줄이 터져 빨개져 있었고, 옷도 여기저기 나뭇조각을 매달아 지저분했다.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오늘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전까지 온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서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의 뒤로 친구 두 명이 수레로 끌고 온 것을 살펴보기 위해 등불을 비췄다.

일단은 무거워 보였고, 크기도 무척이나 컸다. 한쪽은 촘촘하게 빗처럼 되어 룬을 차분히 눌러 결을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손잡이는 양옆으로 사람이 각각 서서 손잡이처럼 돌릴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그것이 완성돼서기분이 좋았다.

"실험은 해보신 거예요?"

"어제 룬을 조금 가져가 봤는데….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결과물도 챙겨온 솝은 나에게 룬을 보여주었다.

내가 예상한 모습 그대로 룬은 부풀어 올랐던 엉망진창의 모습이 아니라 얇고 결이 정리된 상태였다.결도 한층 부드러웠다.

"오!!! 정말 잘 만드셨네요."

너무 기쁜 나머지 솝을 그대로 껴안았다.

이 정도면 그대로 바로 사용 가능할 정도였다. 한시름 던 나는 솝을 껴안고 펄쩍펄쩍 뛰었다.

내가 뛰는 바람에 덩달아 영문도 모르고 같이 뛰던 솝의 뒤로 확 당기던 손에 의해 우리 두 사람은 떨어졌다.

칼리아였다.

"무슨 일로 두 사람이 그렇게 껴안고 있었지?"

"칼리아님 솝이 만든 것 보셨어요?"

"봤어."

여전히 솝을 바라보며 칼리아가 말했다.

"제가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잘 만들었어요.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한 건데…. 솝이 해냈다고요."

한껏 흥분한 목소리로 칼리아에게 말하자 고개를 홱 돌린 칼리아가 나를 쳐다보았다.

서늘한 얼굴의 칼리아를 마주하자 흥분했던 기분이 한순간에 싸늘하게 식었다.

"그렇다고 이자를 그렇게 껴안고 있었나?"

"그…. 그건 어쩌다 보니…."

점점 고개가 바닥을 향했다.

왠지 죄짓는 마음에 칼리아를 힐끔거렸다.

"조….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야 하는 분위기라 솝과 나는 칼리아에게 사과를 했다.

칼리아는 아까보다 누그러진 얼굴로 말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지. 밤도 늦었는데 내일부터 작업하도록 하고…."

"넵"

"네"

우린 칼리아의 말이 끝나자 각각 작업실과 방으로 들어갔다.

들어오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 쉬었다.

일이 착착 진행되는 그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염려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술술 풀려 왠지 한편으로 불안감이 생겼다.

[작품후기]

따슷님,리수진님,물결같이님,배추애벌레님,dungji님,Ley고동님,리나시타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평점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일은 그날 새벽에 일어났다.

그날도 새벽 늦게 잠든 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엠마가 방문을 두드리고서야 눈을 떴다.

"루나님! 루나님!"

"밖에 무슨 일 있나요?"

"큰…. 큰일이 났습니다."

웬만한 일엔 끄떡도 하지 않았던 그녀였던지라 덩달아 나도 허겁지겁 이불에서 나와 겉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밖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겁에 질려 있는 사람들과 모든 걸 휩쓸려 아무것도 없이 새하얀 세상….

눈사태였다.

성은 높은 절벽 끝에 세워져 있어서 피해는 없었지만, 그 밑에 마을을 이루고 살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사망자는 없는 거죠?"

나의 말에 엠마가 고개를 흔들었다.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실종자는 없습니다. 부상자만 있고요."

"빨리 사람들을 성안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죠"

나의 말에 엠마가 주위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넋이 나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 성으로 들여보냈다.

조금 여유를 찾게 된 나는 칼리아가 어디 있는지 눈으로 찾았다.

저 멀리서 기사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칼리아가 보였다.

다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안심한 나는 엠마를 따라 성안으로 들어갔다.

잠옷을 갈아입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정신없어 보였다.

어떤 이들은 정신이 나가 있었고, 어떤 이들은 화가 나서 소리소리 지르고 있었다.

성의 사람들은 부상자들을 모아 한쪽에서 치료하고 있었다.

"눈사태라니…."

"이런 대규모 눈사태는 몇 년 만인지 모르겠군요".

"점점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불안하네요."

마을 사람들의 소리를 듣다 엠마가 나에게 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들이 전부 성에 묵기에는 부족할 거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마을에서 멀쩡한 곳은 이 성뿐이니…. 혹시 이성의 별채 같은 건 없나요?"

나의 말에 엠마가 생각을 하는 거 같더니, 밝은 얼굴로 말했다.

"뒤쪽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별채가 있었네요. 오래 사용하지 않아서 생각이 바로 나지 않았어요."

"그럼 남자들은 그 별채에서 지내도록 하고, 성의 1층에선 여자, 아이와 노인이 지내도록 하죠. 칼리아님은 아직 안 돌아오셨나요?"

"방금 돌아왔지."

내 뒤에서 별안간 칼리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어깨에 쌓인 눈을 털며 들어왔다.

"괜찮으셨어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시죠?"

"그래. 멀쩡히 돌아왔어. 내 서재로 들어와."

칼리아가 2층으로 올라가며 말했다.

그 잠깐 사이에 엠마가 나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다.

두 잔의 차를 들고 칼리아의 서재로 들어갔다.

젖은 옷을 갈아입었는지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칼리아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을 성안으로 데리고 왔다면서?"

"죄송해요. 멀쩡한 곳이 이곳밖에 없어서 칼리아님에게 여쭤보기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혼내려고 한 게 아니야 좋은 대처였다고. 처음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았어. 에리엘 후작의 영향이겠지….

하지만 루나 덕분에 우리한테 아주 협조적이야."

"무엇을 바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

"알아. 그럼 그동안의 일과 앞으로의 일을 상의해볼까?"

"안쪽은 동물의 가죽으로 하고, 겉의 천은 침낭을 뜯어서 가운데 잘 정리된 룬을 넣어 꿰매 입기로 했어요. 룬도 어느 정도 결이 다듬어져서 거의 성공 직전이고요. 옷은 그럭저럭 완성 될 거 같은데…. 집이 문제군요."

"휴……. 좋은 소식인데, 더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군. 마을은 전부 눈에 매장당했어. 그나마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람이 없어서 망정이지…. 들어보니, 주기적으로 자연재해 때문에 집이 무너지는 게 일상이라더군. 그래서 집도 쉽게 질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다면 주거지를 새로 알아보는 게 좋겠네요. 참…. 지난번 그 붉은 산은 조사는 끝났나요?"

"레이가 말하길 독성은 없다더군. "

"그렇다면 그 흙과 나무를 사용해 집을 짓는 건 어떨까요?"

"그런 방법이 있나?"

"그냥 제 생각인데, 그 흙을 물과 함께 잘 굳혀서 돌로 만든 뒤에 나무와 함께 만들면 좋을 거 같아서요. 물론 건물 짓는 분들한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죠. "

"좀 더 안정된 뒤에 시작하도록 하지. 우선은 식량이 문제인데…. 수도에서 가지고 온 식량으론 몇 달 못 버틸 거야."

"원래 이곳의 주식이 뭔데요?"

"딱히 없다더군. 거의 다른 마을에서 사서 온 거로 연명한다고 들었어."

"하긴 날씨가 추워서 식물들이 자라기는 힘들죠... 그거참……. 가장 커다란 문제가 남았네요"

우리 둘은 엠마가 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침묵을 이었다.

-똑똑

그때 칼리아의 서재를 찾는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내가 대신 문을 열자 그 앞에는 레이가 서 있었다.

레이도 어딘가 다녀왔는지 볼은 꽁꽁 얼어 붉어져 있었고 어깨에 눈이 쌓여 있었다.

"칼리아님 여기 계시다고 하던데…."

"네 들어오세요. "

레이가 성큼성큼 들어와 칼리아를 눈으로 찾자마자 바로 말을 했다.

레이의 뒤로 그의 등에 쌓인 눈을 털어주었다.

"지난번 시키셨던 동굴 속에 있던 식물의 열매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작님의 말대로 식용 가능했습니다."

"좋은 소식이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어리둥절한 목소리에 칼리아가 친절히 말해주었다.

"지난번 룬을 따오다 옆에 열매가 보이길래 레이에게 조사를 시켰지.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군."

"그런데 룬이 뭔가요?"

이번엔 레이가 말했다.

그에 눈까지 접어가며 웃으며 칼리아가 말했다.

"동굴에서 자라나던 식물의 이름을 룬이라고 하더군. 마을 사람들이 루나의 이름에서 지었다더군."

"아……."

지금까지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게 부르던 룬이라는 이름이 다시 부끄러워졌다.

"우선 내일 눈사태가 일어난 곳의 조사활동 조와 마을의 거처로 삼을 수 있는 곳을 조사하는 조와 룬을 재배하는 조로 나눠서 돌아다녀야 겠군."

칼리아의 말에 레이와 난 고개를 끄덕였다.

[작품후기]

킬리언데이지님,리수진님,물결같이님,Ley고동님,리나시타님,tmdtmdaka님,doansk12님,이호수님,쥬디리님,배추애벌레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평점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부족한 글솜씨에도 재밌게 읽어주셔서 힘내서 연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아침 일찍부터 칼리아와 레이,엠마,루크가 칼리아의 서재에 모여 있었다.

제일 늦게 들어간 나까지 모이자 칼리아가 말을 시작했다.

"눈사태 구조작업은 내가 맡아서 하고, 레이가 새로 집터를 알아보면 될 그거 같고, 루크는 별채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엠마와 루나는 옷을 만들면서 성 1층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펴, 기사들은 둘로 나뉘어 눈사태 팀과 룬을 재배하는 팀으로 나뉠 테니 그동안 수확했던 룬의 수확량이 줄어들 거야."

"지금까지 수확했던 룬도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군요."

"성의 별채에 있는 사람 중 지원자를 받아 구조작업을 같이하면 어떨까요?"

루크의 말에 칼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좋은 생각이군"

루크는 바로 성의 별채로 향했다.

"몸조심하세요~"

나의 말에 레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레이는 실력 있는 기사 몇 명과 함께 말을 타고 떠났다.

"루나 집 짓는 기술자들을 불렀으니 어제 말했던 대로 그들과 상의를 해봐."

떠나기 전 칼리아가 나에게 말했다.

어제저녁 늦게 말한 건데도 칼리아가 신속히 알아본 듯했다.

완전히 날 믿는 칼리아의 모습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칼리아는 루크의 말을 듣고 찾아온 지원자들과 함께 눈사태가 난 그곳으로 향했다. 그를 배웅하고 응접실에 도착하자 여러 명의 사람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공작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이곳의 집을 짓는 건축가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루나라고 합니다. 사안이 급해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며칠 전 칼리아님께서 동굴 옆에서 붉은 흙으로 된 산을 발견하셨어요. 전 그 흙과 물을 섞어서 집을 만들 때 사용할 돌을 만들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흙과 물을 섞어서요? 이곳에선 늘 짚과 나무만 사용해서…."

"이번 눈사태로 살던 곳이 사라져서 칼리아님은 보다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만들고 싶어서 하셨어요.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집을 짓고 싶어서 하십니다."

"그 붉은 흙을 사용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 점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레이님께서 이미 조사는 마쳤습니다. 독성은 없다고 했으니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들은 포댓자루에 들어 있던 흙들을 챙겨 별채로 향했다. 그들의 작업실은 별채의 구석진 방에 배치받았다고 했다.

나는 그들이 가는 모습을 보다 엠마에게 솝을 불러 달라고 했다.

"루나님 찾으셨다고요?"

솝은 나의 부름에 한걸음에 달려왔다.

"룬은 잘 정리가 되어가나요?"

"그럼요. 안 그래도 몇 개 더 만들어서, 더 빨리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군요. 바쁘신 거 같은데…. 제가 부탁 하나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루나님이 부탁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솝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다.

"그렇게 말해주시니 고맙네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눈사태로 집도 다 사라져서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나무틀인데, 안에 흙을 넣고 굳힐 거라 안을 파서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요."

"루나님은 언제나 저희 영지를 위해 힘써주시는데, 그 정도는 금방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솝은 나의 대답도 듣기 전에 뛰어갔다.

그의 뒷모습에 큰 소리로 말했다.

"감사해요~"

그러자 솝은 손을 흔들며 대답을 대신했다.

한시름 던 나는 결을 정리한 룬과 침낭의 천,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을 보기 위해 작업실로 향했다.

그들은 나를 환영하며 말했다.

"안 그래도 방금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약간 자리를 비켜주며 완성된 옷을 보여주었다.

안쪽은 동물의 가죽을 사용해 부드럽게 했고, 밖은 눈이 내려도 잘 젖지 않도록 침낭의 천을 사용했다. 길이는 종아리 중간까지 올 정도였다.

한번 입어 보기 위해 옷을 들어 올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조심스럽게 옷을 관찰하든 나의 모습을 보든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옷이 왜 아래쪽으로 쳐지는 느낌이죠?"

"안에 룬을 넣었는데 무게 때문에 아래로 쳐집니다."

"흠……. 그리고 이건 겉에 입는 옷인데, 앞을 여밀 수 없네요? 그럼 앞에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다 들어와서 춥죠"

나의 말에 다들 침묵했다.

"다들 빨리 만들고 싶은 건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옷을 만들어야죠."

옷을 벗으며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그렇다면 중간중간에 바느질을 넣어서 룬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건 어떨까요?"

그중 한 사람이 말 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군요."

"그리고, 앞을 여밀 수 있도록 끈을 다는 건 어떨까요?"

"그건 너무 번거롭겠어요. 단추는 어떨까요?"

한사람이 말을 시작하자 너도나도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흐뭇하게 웃으며 나도 한마디 했다.

"지난 며칠 동안 지켜보니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어쩔 수 없지만, 눈이 조금씩 자주 오는 날을 위해 뒤에 머리를 덮을 수 있도록 후드를 넣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

"그것도 좋은 생각이군요."

"만들면서 다른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아직까진 없습니다. 솝이 만들어 준 결 정리하는 나무도 잘 돌아가고 있고, 점점 일손이 부족할 거 같네요."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옷이 완성되면 성 1층에 머무는 여자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에요~

사정이 급한 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니, 이럴수록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네"

기합이 잔뜩 들어간 사람들이 한꺼번에 대답했다.

점점 룬을 넣은 옷이 완성되어 간다.

다들 따뜻한 옷을 입고 활기차게 보냈으면 하는 게 작은 바람이다.

나는 다시 작업실을 나와 엠마를 찾았다.

[작품후기]

리수진님,tmdtmdaka님,물결같이님,쥬디리님,이호수님,dungji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 감사합니다~

당분간은 연참 이벤트 계획은 없습니다.

꾸준히 연재하는게 목표라...ㅜㅜㅜ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엠마는 1층에서 쉬고 있는 여자들과 함께 있었다.

"절 찾으셨다고요?"

"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엠마는 진지한 나의 표정에 뒤를 흘끔 바라보곤 나를 따라 내 방으로 들어왔다.

"1층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낮에 무슨 일을 하죠?"

"딱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칼리아님이 기사들과 함께 눈사태에서 찾아온 것들을 정리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역시나…….

별장에 있는 남자들은 칼리아를 따라 눈사태 수습에 힘쓰고 있지만, 여자들은 딱히 하는 일이 없었다.

"오늘 생각했던 대로 옷이 완성 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옷을 만들기 위해선 일손이 모자라네요"

"그렇다면 1층에 있는 여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죠"

"안 그래도 손을 보태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될지 몰랐네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루나님!!!"

"루나님!!!"

밖에서 나를 애타게 찾은 소리에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인가요?"

"옷이….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오……. 반가운 소식이군요. 엠마님. 아직 마을 여자들에겐 말하지 말아 주세요. 옷이 만들어진 상태를 보고 제가 직접 말하도록 할게요."

복도를 달려가며 엠마에게 뒤돌아 말했다. 엠마는 나를 보여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작업실로 뛰어들어오며 숨을 고르자 그들은 뭐가 급한지 내 앞에 완성된 옷을 내밀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잠을 못 잔 낯빛이었지만 뿌듯한 얼굴이었다.

"후……."

숨을 다시 한번 더 고르고 진지한 얼굴로 옷을 살폈다.

확실히 완성된 옷은 자세히 보지 않아도 따뜻해 보였다.

룬이 움직이지 못하게 중간중간 촘촘히 박아 넣은 섬세한 바느질과 소매도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단추를 달았다.

기장은 종아리 중간까지 길이였고,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었을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좋군요."

나의 말에 그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고생하셨네요. "

활짝 웃으며 그들에게 말하자 그중 한 명이 말했다.

"루나님 덕분에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이런 옷을 저희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영광이었죠."

"맞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던 사람들이 이리 변했다.

그들이 처음 가지고 있던 적대감과 무기력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성취감과 기쁨, 나를 향한 믿음만 남았다.

새로운 기분이었다.

"앞으로 옷은 이렇게 만드는 거로 하죠. 원래는 좀 더 여유롭게 시작할 생각이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눈사태로밖에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선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

"그래야죠. "

나의 말에 다들 동의를 했다.

나는 바로 1층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했다.

그들은 어딘가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기는 처음입니다. 칼리아 공작님을 따라온 왕실공무원 루나 벨 브라이트입니다. 한시가 급해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은 잊으세요. 제가 새로운 옷을 만들었습니다.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말에 고요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리고 곧 누군가 말했다.

"어떻게 도움을 주면 되나요?"

"한시가 급합니다. 바느질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쪽, 나머지 분들은 이쪽으로 쓰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람들은 곧 두갈래로 나누어 졌다.

먼저 바느질이 가능한 여자들을 데리고 작업실로 갔다.

"옷은 이렇게 완성 될 겁니다. 여기 보이는 바느질 작업을 할 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알려줄 거예요~"

"우와……."

"이런 옷을 우리가 입는다고?"

바느질에 참여한 여자들이 웅성거리며 옷을 관찰했다. 그들의 뒤로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은 룬을 모아둔 창고 방이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척했다.

"여기 보이는 뭉치들이 옷 안에 들어갈 룬이라고 합니다. 안에 들어 있는 씨를 빼고, 저기 보이는 나무판에 넣은 후 결을 정리해야 하는 작업이에요"

"이 하얀 게 옷에 들어간다고요?"

믿지 못하겠는지 반문했다.

나는 다시 옆 작업실로 가서 완성된 옷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말로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나을 듯 보였다.

그들은 대번 옷을 보고 안색이 밝아졌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완성된 옷이에요~ 이 부풀어 올라 보이는 것이 룬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한 룬은 이렇게 옷안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와…. 옷이 정말 가볍네요. 따뜻해 보이고요."

"저런 옷이 우리가 입는다고요?"

"정말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들도 옷을 보고 결의를 다졌다.

그들은 곧 자리에 앉아 햇빛에 잘 말려둔 룬의 씨앗을 빼는 작업을 했다.

처음 하는 일이라 다들 초반은 버벅거렸지만, 곧 손에 익자 다들 빠르게 씨를 제거해 자루에 담았다.

옷을 만드는 작업이 점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먼저 만들어진 옷은 밖에서 작업하는 이들이 입기로 다른 사람들과 말을 맞췄다.

침낭을 많이 챙겨와 부족하진 않았다.

그들의 작업을 보다 솝이 나를 찾아왔다.

"루나님 지난번 말씀해주셨던 나무틀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를 따라 별장 뒤쪽에 가자 나무틀이 보였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안을 비운 나무틀은 내가 말한 그대로였다.

"오…!! 고생하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모양 그대로 네요. "

"이런 틀은 왜 필요한 건가요?"

여전히 잠이 부족해 보이는 듯한 솝이 물었다.

"여기에 짚과 풀, 흙을 반죽한 것을 넣어 네모난 모양으로 굳힐 거예요. 그걸로 집을 만들 거예요. "

"그게…. 가능한 겁니까?"

"해봐야죠. 안 그래도 다른 분들이 힘써주고 계세요. 저희도 열심히 해봐야죠.

틀은 이렇게 똑같이 여러 개가 필요할 것 같네요."

"힘내보겠습니다.!"

[작품후기]

리수진님,Aka01011님,배추애벌레님,킬리언데이지님,디아케데스님,후뿌뿝뿌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별점,추천 감사합니다!!

제가 음식을 잘못먹어 지난 일주일동안 입원하느냐고 ㅜㅜㅜ 갑작스럽게 휴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ㅜㅜㅜ

^^^

5화 시작

룬을 재배해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방에 말린 뒤, 사람들이 씨를 제거하고, 결정기를 한 후 옷을 만드는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다.

처음 만들어진 옷을 포함에 칼리아가 속해 있는 눈사태 수습 조에 전달하자 그들은 매우 놀랐다.

"이렇게 가벼운 게 옷이라니…."

얇은 옷을 겹겹이 입은 것보다 따뜻한 동물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지만, 보온도 충분히 안 될뿐더러 눈을 파헤칠 때마다 푹 젖은 옷은 무게도 무게지만 추위를 더 막아주질 못했다.

"입다가 불편한 점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지금도 계속 제작 중이긴 하지만, 보안을 유지할 점은 보안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옷을 입으며 하나같이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 뒤 칼리아가 나를 불렀다.

"고생했군."

"칼리아님께서 밖에서 더 고생하고 계신걸요. 여기 칼리아님이 입으실 옷은 따로 만들어 놨어요. 이걸 입으시면 돼요~"

"음?"

곧 칼리아가 옷을 입기 시작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의 옷보다 더 두껍고, 안감을 동물의 털로 감싼 옷이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입었던 기억을 살려 최대한 거추장스럽지 않게 힘을 기울여 만든 옷이기도 했다.

"다른 사람들과 옷이 조금 다른데?"

"이건 제가 디자인한 옷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것은 여기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간 거고요."

"그렇군."

어딘지 기분이 좋아 보이는 칼리아였다.

"이번 눈사태가 이렇게 크게 난건 정말 오랜만이라더군. 조금 더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아무래도 누군가의 의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 몸조심하는 게 좋겠어."

"누군가 악의적으로 눈사태를 일으켰다고요?!"

당황한 내가 큰 소리로 말하자 칼리아가 내 입을 손가락으로 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황상 그렇다는 거지 확실하진 않아.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으니…."

칼리아의 말에 갑작스럽게 심란해졌다.

"지난번 숲에서처럼 우리를 노린 걸까요?"

칼리아의 조언대로 작은 목소리로 고개를 조금 숙이고 말하자 칼리아도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그것도 아직 몰라.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

"밖에 나가 있는 레이님이 걱정이네요."

"안 그래도 조만간 돌아온다고 사람을 보냈더군."

"좋은 소식이네요. "

칼리아는 내가 준 옷을 입고 의자에 앉았다.

지금까지 계속 눈사태 수습 조와 함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밖에 있었을 텐데……. 피부조차도 매끈했다.

그냥 앉아 있는 것뿐인데도 어딘지 모를 귀태가 흘렀다.

역시 귀족은…….

"지난번 건축가들이랑은 잘 만났나?"

"네 잘생.....네?"

나도 모르게 속마음이 나올뻔한 걸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물었다.

요즘 한동안 칼리아를 못보다 많이 봐서 면역이 없어졌는지 그의 후광이 눈부셨다.

"지난번 연결해줬던 건축가들이랑은 잘 만났어?"

다시 말한 칼리아의 말에 대답했다.

"네 잘 만났는데…. 그들도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

"곧 그들도 루나를 믿고, 잘 따라올꺼야 "

"절 너무 믿으시는데요."

내가 웃자 칼리아가 따라 웃었다.

"당연히 믿지. 루나는 내가 반한 여자니까……."

갑작스럽게 훅 들어온 칼리아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칼리아도 나와 눈을 맞추고 말이 없었다.

숨 막히는 어색한 공기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루나님 여기 계세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한 손을 번쩍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빠르게 문을 열었다.

건축가들이었다.

"여기 계셨네요. 안 그래도 조언을 구하려고 했는데요"

"네! 가죠."

등 뒤의 칼리아를 두고 그들의 작업장이 있는 별장 뒤로 향했다.

그사이 솝이 내가 말한 나무틀을 많이도 만들어 놨는지, 여기저기 나무틀이 보였다.

칼리아가 기사들과 사람들을 시켜 가져놓은 붉은 흙도 보였다.

"그동안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봤지만 어떤 게 좋은지 몰라서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했는지 구석 한쪽엔 여러 가지 실패한 반죽들이 보였다.

"처음엔 흙과 물만 섞어서 반죽했는데…. 흐물흐물하더군요. 그래서 짚을 섞었는데…. 성공한 거 같아 보이지만 며칠 눈에 맞으니 반죽 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흠……. 혹시 반죽을 높은 온도에 구워보셨나요?"

"반죽을 굽는다고요?"

"네…. 그래야 딱딱해질 것 같은데…."

"솝…!!! 솝!!!"

완성된 나무틀을 옮기고 있던 솝이 건축가의 목소리에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루나님 오랜만이네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번 말했던 나무틀이 정말 많네요. 고생하셨네요."

나의 말에 건축가 한명이 솝에게 말했다.

"솝 자네 혹시 루나님이 말한 반죽을 굽는 곳도 만들 수 있나?"

"반죽을 굽는다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군. 주방에서 사용하는 쿠키를 굽는 곳처럼 만들면 되나?"

솝은 주방에서 사용하는 것도 자신이 만들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네. 우선은 한번 만들어 보죠."

솝은 고개를 끄덕이곤 며칠 시간을 달라며 사라졌다.

눈사태가 나면서 솝의 작업장도 같이 매장당해 최소한의 도구로 본가 1층 한쪽방을 작업장으로 쓰고 있었다.

요즘 솝에게 많은 일을 시키는 거 같아, 룬을 이용한 옷이 완성되면 제일 먼저 가져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우선 여러 가지 반죽을 만들어 보고 굽는 방향으로 하죠. 혹시 여기서 사용하는 그것 중에 풀도 있나요?"

"딱히 풀이라는 건 없고, 취드라는 나무 중에 끈끈한 성분이 있어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흠…. 그렇다면 그 취드를 끓인 물과 짚, 흙을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렇게 하도록 하죠."

"곧 레이님도 돌아오신다고 하시니, 좋은 장소를 발견하셨을 거예요. 이제 저희만 남았네요."

"룬이라는 식물을 이용해 옷도 만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을이 사라질 정도의 재난이 왔는데도 모든 사람이 활기차 있는 이유는 공작님과 루나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 말은 마을이 재건한 다음 해도 늦지 않았어요. 저야 여러분에게 약간의 조언만 할 뿐 실질적인 건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우리 힘내봐요."

그들의 등을 두들기며 내가 말했다.

한층 더 활기차게 그들이 움직였다.

[작품후기]

리수진님,킬리언데이지님,따슷님,babjoe님,인디70님,루단테님,푸른다이아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별점,추천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한 글솜씨에도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착착 들어 맞아갔다.

오전에는 룬의 씨에 걸려주는 작업장에 들러 그들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작업 상태를 점검했다.

룬을 재배하는 기사들과 사람들이 룬을 전달하기 위해 작업장을 찾았을 때 작업장의 사람들은 신기하면서도 기뻐했다.

나는 룬을 입은 그들을 붙잡고 말했다.

"입고 활동해보니 어떠신가요?"

"입을 때도 좋았지만, 활동해보니 더 좋습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 한 명이 옷을 툭툭 건들며 말했다.

그러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심지어 동굴 안은 너무 더워서 벗을 때도 있다니까요. 하하하"

"그래도 혹시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그런 건 딱히 없었는데…."

슬슬 점심시간이 되어가자 그들은 슬슬 식당으로 움직였다.

구석진 곳에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던 어린 남자아이가 머뭇거리며 서 있었다.

무릎을 굽히고 남자애의 시선을 맞춘 뒤 물었다.

"무슨 일 있니?"

"그게…. 그게…."

작은 목소리로 머뭇거렸다.

성급하게 대답을 재촉하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렸다.

그러자 작은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 러니까…. 음……. 저……. 아저씨들은 뭐 이런 거까지 필요하냐고 하셨지만……. 손을 감쌀 수 있는 건 없을…. 까요? 딱히 손이 시려서 그런 건…. 아니지만…. 룬을 딸 때 손을 자꾸...다쳐서..."

그러면서 자신의 손을 보여주었다.

여기저기 까져서 딱지가 앉은 손은 아파 보였다.

"어르신분들은 워낙 거친 일을 많이 하셔서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제 또래 아이들은 이런 일은 처음이라…. 손이 너무 아파요."

가만히 그의 손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혹시 다른 불편한 점은 또 없니?"

"그것 빼곤 없어요."

"고마워. 나중에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생기면 또 말해줘."

미소지으며 말하자, 그 아이는 볼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거리며 식당으로 뛰어갔다.

그 모습을 보며 수첩을 꺼내 들고 적었다.

바빠서 깜박할지도 모르니까….

오후에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벽돌을 만드는 곳을 찾았다.

"오셨어요?"

다들 일하다가 내가 나타나자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인사를 했다.

그것에 맞게 손을 흔들며 하던 일을 마저 하란 손짓을 보냈다.

요즘은 별장 뒤쪽에서 사는 솝과 작업반장이 나에게 다가왔다.

"요즘은 오후 내내 저희와 함께 계시네요"

솝은 무척이나 반갑다는 듯 말을 했다.

"옷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서, 이쪽에 더 집중하려고요."

간밤에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한참을 뒤척거리다 결국 책상에 앉아 구들장을 그렸다.

칼리아와 함께 마을 시찰을 나갔을 때 조사했었지만 이 지역의 난방시설은 유일하게 벽난로 뿐이었다.

칼리아의 말에 의하면 워낙 금광이 크게 있다 보니, 모든 건 무역으로 해결했었다고 했다.

평민들도 금광 때문에 돈이 많아서, 뭐든지 옆 마을에서 사서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금광이 고갈되자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떠나고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다.

어찌 보면 금광이 부와 편안함을 가져다주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의 삶을 좀먹고 있던 것이다.

그나마 고향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모자란 실력으로 그려놓은 집 구조와 구들장을 그린 그림을 솝과 작업반장에게 보여주었다.

"제가 생각한 집은 이런 형태를 생각했습니다."

"오……. 또 새로운 작업인가요?"

솝은 신이 나서 말했다.

그에 작업반장은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한참을 말없이 그림만 보던 작업반장은 나를 보며 말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그….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진지한 얼굴에 한순간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으며 그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솝은 나의 표정을 보며 말을 돌렸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요."

솝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작업반장은 말했다.

"안 그래도 며칠 전 루나님이 말한 대로 집을 만들 때 쌓을 반죽들을 실험 중인데, 좋은 성적을 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 그래요? 보러 가도 되죠?"

"당연하죠"

작업반장은 나를 한쪽으로 안내했다.

그곳엔 내가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실험 중이었다.

"이건 물과 흙만 넣어서 구운 거고, 이건 흙이랑 짚, 물만 넣어서 구운 거고, 풀이랑 흙을 넣은 건……. 반죽 과정에서 이미 실패해서……. 아!! 루나님이 말했던 취드를 끓인 물을 식혀서 짚과 흙을 반죽해 구운 건 이쪽입니다"

차례차례 네모난 모양의 돌들을 소개하며 마지막에 구운 돌을 보여주었다.

"구운 거까진 어찌어찌 됐지만, 비와 눈에 강한지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괜찮네요. 이왕 새로 시작하는 거 튼튼하고 좋은 집이 완성된다면 모든 사람이 기뻐할 거예요."

"네. 지금까진 루나님이 말한 반죽이 가장 튼튼하고 잘 깨지지도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만드는 거로 해야 할 듯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돌을 많이 만들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린 그림처럼 바닥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건 다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죠."

나의 말에 그들이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한편, 칼리아는 요즘 기분이 이상했다.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확인이라도 하려고 하면 재빠르게 눈치를 채고 사라졌는걸 매번 느꼈다.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걸 느꼈다.

"공작님! 이쪽이요!"

칼리아는 저 멀리서 들리는 말에 그곳으로 갔다.

그곳엔 구멍을 파헤쳐져 눈이 잔뜩 쌓여 있었고 그 구멍 안에는 누군가 인위적으로 그려놓은 지난번 숲에서처럼 마법 진의 손바닥만 하게 그려져 있었다. 나머지 부분은 눈과 누군가 지워 놓은 듯 보였다.

칼리아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표식을 관찰했다.

"아무래도 누군가 눈사태를 일으킨 거 같군요."

칼리아의 옆에 같이 무릎을 굽히고 앉은 기사가 말했다.

"이일은 여기 있는 사람들만 알도록 한다. 괜히 마을 사람들한테까지 알릴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이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을 텐데요."

"지금 루나가 성안에서 고군분투 중인데, 이런 일을 알린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선 조사는 우리끼리 진행한다. "

칼리아의 말에 기사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칼리아는 다시 손바닥만큼 남은 마법 진의 그림을 종이에 베껴 넘기며 일어났다.

"이제 슬슬 움직이나 보군. 앞으론 더 바빠지겠어."

[작품후기]

리수진님,따슷님,tmdtmdaka님,킬리언데이지님,너하나만님,아름다운것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별점,추천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대한민국에서 지금껏 사용만 해봤지, 어떤 원리로 온돌방이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없었다. 덕분에 지금 골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대충 아궁이랑 굴뚝, 돌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혼자 침대에 누워서 이것저것 끄적거리며 뒹굴뒹굴하고 있었다.

며칠만의 여유인지….

그 여유를 즐길 틈도 없이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황급히 침대에서 내려와 흐트러진 머리와 치마를 정리하고 문을 열었다.

엠마였다.

요즘 칼리아와 솝,레이, 나를 제외하고 제일 바쁜 사람은 엠마였다.

성안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다.

"바쁘세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엠마의 손에는 뜨거운 차와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디저트가 들려 있었다.

"요즘 못 본 지 오래 된 거 같아 이야기라도 나누자는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엠마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에 나도 같이 웃으며 엠마가 준비한 차를 마셨다.

"이례적인 눈사태가 왔는데도 사람들이 활기가 넘쳐요. 루나님 덕분이에요."

"제가 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들 열심히 살아준 덕분인걸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리 생각 안 한답니다. 이 지역이 다시 옛날처럼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다들 입을 모아 수군거리더라고요. "

"궁금한 게 있는데…. 전하께서는 어린 시절 이곳에서 보냈다고 들었는데, 무슨 특별한 곳인가요?"

몇 달 동안 이곳을 조사하고, 또 조사했지만 가끔 드는 의문은 점점 커져 나갔다.

아무리 금광으로 무역이 발달해도 그렇지,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많지 않았다.

처음 마을을 순회할 때 생각보다 집이 없었다. 중간중간 보이는 여관만 크게 있었을 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몇 달씩 머무를 뿐 이곳을 주거지로 삼지 않았다고 했다.

춥기도 춥고,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 식품을 옆 마을에서 조달해오지 않은 이상 먹는 것에도 한정적이었다.

그런 곳에서 왕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

적당한 온도의 지역에서 배 곪지 않고 보낼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운 이곳에서….

나의 말에 엠마는 한동안 말없이 차만 마셨다.

"역시…. 루나님이라면 궁금해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전하께서 어린 시절을 모니알에서 보내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 지내신 건 아니에요. 저도 여기까지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난처하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저의 작은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니…. 이렇게라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해주셔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방안은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엠마가 그 침묵을 깨고 말을 했다.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건 남아 있는 식료품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먹는 인원수가 늘다 보니,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죠?"

"알고 계셨네요. 칼리아님도 눈치채시곤 이주에 한 번씩 수도에서 식료품을 주문했었는데, 일주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문제는 없지만…. 계속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간에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특히 날씨 때문에 공급이 끊기기라도 한다면…. 모두 굶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칼리아님은 바깥일 그 때문에 상의할 수가 없고…."

"그것도 그렇네요. 따뜻한 옷도 만들고, 살 집도 중요하지만 먹는 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데…. 대책을 생각해야겠네요. 좋은 이야기였어요.

원래 이곳에선 주로 주식이 뭐였죠?"

칼리아는 출발하기 전 수도에서 필요한 물품을 버릴 만큼 챙겨왔었다. 당연히 먹는 것도 포함해서….

이곳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챙길 수 있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서 첫날부터 수도에서 먹었던 그대로 식사를 이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오기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 몰랐다.

"주로 땅속에서 나는 샤감이라는 열매를 수프로 만들어 먹었어요.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 동물을 잡아 오면 고기와 함께 넣어 수프를 만들어 먹죠. "

"아……. 그거뿐인가요?"

"네 "

"그렇다면 그 샤감이라는 열매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식당에도 있을 거예요."

엠마의 말에 우리 둘 다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구석진 곳에 포댓자루에 쌓여 있는 샤감을 하나 꺼내 엠마가 나에게 건네주었다.

감자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감자보단 더 크고 단단했다.

열매를 보고 있는 사이 엠마는 샤감수프를 만들어 달라고 주방장에서 지시했고, 주방장은 금방 샤감수프를 만들었다.

맛을 보자 맛도 감자수프와 비슷한 맛이 났다.

하지만 좀 더 묵직한 맛과 영양이 풍부한 듯했다. 한 그릇 다 먹고 나니 속이 든든하다고 느껴졌다.

"이것 하나만 해도 배가 부르네요. 맛도 있고요."

"네 모니알에서 내려오는 전통음식입니다. "

"하지만 이거론 부족해요. 사람은 먹는 즐거움도 있으니까요. 당장은 어쩔 수 없지만 레이님이 오시면 상의를 해봐야겠군요. 아무 식물이나 채취해서 요리해 먹을 순 없으니까요"

"네 그것도 그렇겠군요."

고민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안 그래도 레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더욱더 빨리 돌아오길 기도했다.

식당에 온 김에 샤감을 쪄서 별관 뒤쪽 작업장으로 가져갔다.

솝과 작업반장은 나무틀 사이에서 심각하게 상의를 하고 있었다.

그러자 샤감의 냄새를 맡곤 이쪽을 동시에 돌아보며 말했다.

"안 그래도 출출하던 차에…. 딱 맞춰서 오셨군요."

"루나님 안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

솝은 샤감을 손에 들고 말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직사각형의 손바닥만 한 돌들은 잘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솝이 가르긴 곳은 오두막집이었다. 견고하게 만들진 않았지만 그 안에는 구워서 완성된 돌들이 바닥에 쌓여 있었다.

"완성된 것들은 저렇게 쌓아 놓고 있어요. "

"잘하셨네요. 아까 오면서 보니까 두 분이 뭘 상의하고 있던데…."

"아!!! 자랑하다가 까먹을 뻔했는데, 지난번 보여주신 그림의 원리를 저희식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우선은 작게요."

"네…. 저도 생각 좀 더 해볼게요."

"완성되면 바로 말씀 드릴게요~ "

솝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와 마주 앉아 같이 웃으며 샤감을 먹었다.

점점 이 마을에 녹아드는 기분이 들어 소속감 같은 게 생겼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꾸만 도움을 주고 싶고, 더 잘하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보람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바위에 걸터앉아 그들과 사담을 나누고 있는데, 칼리아가 나를 찾아왔다.

"어? 칼리아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바위에서 일어나 칼리아에게 말을 걸자 칼리아가 솝을 살짝 째려보곤 나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어느 정도 마을은 정리가 돼서, 일찍 돌아왔어. 그보다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여러 가지 집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 이분들과 실험 중이었어요."

"다들 고생하는군."

칼리아의 말에 나머지 두 명이 화들짝 놀라며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공작님"

그들의 인사에도 칼리아는 나만 보면서 말을 이었다.

"할 말도 있는데 시간 있나?"

"네 들어가죠. 그럼 고생들 하세요."

나의 말에 그들이 손을 흔들어 주었다.

칼리아의 서재에 도착하자 칼리아가 말을 했다.

"그들과 친하게 지내나 보군."

"네. 요즘은 계속 거기서 살다시피 하니까요. 솝은 특히 제가 만들어 달라는 건 다 만들어줘서 더 친해졌고요."

"흐흠……. 여기 데리고 오길 잘한 것인지…."

칼리아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네?"

"아니야. 그보다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 눈사태는 확실히 누군가의 소행으로 밝혀졌어. 다음 식료품이 올 때우기도 함께 올 거야 그자가 그대의 호위를 맞아줄 테니, 한시도 떨어지지 마. "

"칼리아님은요?"

"난 당분간 조사를 위해 성을 떠나 있을 거야."

"네?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조심스럽게 칼리아에게 묻자 칼리아가 웃으며 말했다.

"별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길진 않을 거야."

"그럼 몸조심하세요. "

그는 공작이기 전에 이 땅의 책임자기도 했다.

내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칼리아는 훌륭한 기사임에도 걱정이 안 되진 않았다.

기습적으로 내 손목을 잡고 힘을 주며 나를 끌어안았다.

칼리아의 목소리가 내 귓가 바로 앞에서 들렸다.

"그럼 사고 치지 말고 조용히 있도록 해. 곧 레이가 돌아올 테니."

"네. 정말 몸조심하셔야 해요. "

"걱정하지 말래도…."

내 귓가 앞에서 칼리아가 낮게 웃었다.

[작품후기]

리수진님,아리cat님,물결같이님,슌마망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별점 감사합니다.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더 길게 올렸습니다)

^^^

5화 시작

우리 둘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 안고 있었다.

칼리아는 그날 새벽 기사 3명을 데리고 조용히 성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날 오후 칼리아가 떠나고 레이가 돌아왔다.

조금씩 내리던 눈이 녹아 어깨를 적시고 새하얀 얼굴이 차가운 칼바람에 볼이 빨갛게 변해 성안으로 들어왔다.

따뜻한 차라도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차를 들고 이 층 계단을 올라가던 차에 레이를 발견하곤 후다닥 빠른 걸음으로 레이에게 다가갔다.

집사에게 겉옷을 넘긴 레이에게 내가 마시려 했던 따뜻한 차를 건넸다.

“건강히 잘 갔다 오셨어요?”

“네. 잘 갔다 왔죠. ”

레이는 내가 준 차를 호호 불며, 마셨다.

밝은 곳에서 보니,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다.

“그럼 오늘 푹 쉬고, 내일 봐요~”

나의 말에 레이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레이의 피곤한 뒷모습을 보며 서 있다 다시 주방에 들어가 따뜻한 차를 가지고 나왔다.

그때 성 입구에 반가운 사람이 서 있었다.

“잘 지내셨죠?”

공작 저에서만 보던 우디를 오랜만에 보자 또다시 빠른 걸음으로 우디의 앞에 서자 우디가 나를 끌어안았다.

“아가씨 오랜만이네요. ”

너무 세게 껴안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윽소리가 났다.

손에 들고 있던 차가 쏟아질까 봐 신경이 손끝에 가 있었다.

한참을 가만히 있던 우디가 나를 떠놓고는 말했다.

“확실히 수도보다는 날씨가 조금 쌀쌀하군요.”

온몸이 근육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추위를 덜 타나…. 싶은 정도의 생각마저 들게 하는 발언이었다.

엠마의 안내로 우디의 방은 내 바로 옆방으로 지정받았고, 우디가 자신의 짐을 풀기시작하자 칼리아가 공작저에 요청했던 식료품과 생필품들을 실은 마차가 차례로 들어왔다.

그 덕에 정신없어진 성의 사용인들은 엠마의 지시로 물건들을 옮기기 시작했다.

칼리아가 떠나고, 두 명의 사람을 맞이했다.

성안은 식료품과 생필품,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하지만 칼리아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다.

이른 아침 레이,우디와 함께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레이의 방으로 모였다.

“공작님께서 미리 서신을 남겨두셔서 대강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레이님도 몸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디가 진지하게 말하자 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레이는 모니알의 지도를 넓게 피며 몇 군데를 표시했다.

“표시해 둔 곳이 사람들이 살기에 적당한 곳들이고요. 이중 한군데를 고르면 될 거 같아요”

레이가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말했다.

그의 손가락을 따라 시선과 고개가 뒤따라갔다.

“혹시 지금 룬을 재배하고 있는 동굴이랑 성 위치도 알 수 있을까요?”

나의 말에 레이가 망설임 없이 펜을 들고 표시를 했다.

그러자 동굴과 성 중간의 표시된 한곳이 눈에 들어왔다.

“제 생각엔 동굴과 성 중간인 이곳이 좋을거 같은데요”

나의 말에 레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여겨보고 있던 곳인데, 마음이 통했네요. 이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도 있어서 사람들이 살기에는 적절한 곳입니다. 같이 가보죠”

“칼리아님이 안 계시는데 저희 맘대로 해도 될까요?”

영지를 바꾸는데 영주도 없이 우리끼리 정해도 될까 걱정이 되었다.

“공작님께서는 저희끼리 결정하는 것에 대해 이미 허락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저에게도 이렇게 서신을 보냈거든요”

레이가 내 앞으로 서신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위쪽은 접어서 내용이 보이지 않았지만, 밑에는 칼리아의 필체로 모든 하고 싶은 일은 내가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나는 식물들이나 물에 사는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지 실험도 해볼 생각입니다”

역시 센스가 남다른 레이가 내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생각해 둔 듯했다.

우리는 일정이 빠듯한 만큼 점심도 간단하게 때우고 레이가 말한 장소로 갔다.

땅도 골고루 탄탄했고, 눈사태가 나도 크게 피해를 받지 않는 듯 보였다. 저 멀리 레이가 말한 대로 강이 보였고,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 곳이었다.

“전 마음에 드네요”

나의 말에 주변을 수색하던 우디가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주변에 나무도 많고, 성과도 가깝고 괜찮군요”

레이는 이미 주변에 난 식물들을 조금씩 뜯어 가방에 담고 있었다. 나는 그를 도와 식물을 채취하고, 우디는 강에 사는 물고기를 잡았다. 정신없이 일하고 있자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레이의 방에 들어서자 바로 식물과 물고기가 담긴 자루를 내려놓았다. 방안은 금세 물고기의 비린내로 가득했다.

“아무래도 물고기는 밖에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코를 막고 말을 하자 레이가 말했다.

“어차피 물고기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구워 먹는 게 안전할 듯하니 주방에 내려보내죠”

나는 물고기들이 들은 자루를 잡고 뛰다 싶은 걸음으로 주방에 들어섰다.

마침 주방장이 재료 손질을 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 물고기가 든 자루를 내려놓았다. 자루 밖으로 물고기가 미끄러졌다.

“이 물고기들은 뭔가요? 특이하게 생겼네요”

“물고기들로 요리할 수 있을까요? 굽고, 튀기고, 삭히고 아는 방법을 총동원해서요”

“가능은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의 식량이 될지도 몰라요. 대신 맛은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 만지면서 물고기를 관찰하던 주방장은 나의 말에 얼굴을 굳혔다.

그리고 장갑을 끼고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곧 준비하죠”

“다되면 레이님 방으로 보내주시면 되요 그럼”

나는 다시 레이의 방에 들어가자 레이는 어느새 자신의 실험 도구를 꺼내고 있었고, 우디는 한쪽 소파에 길게 누워 있었다.

“저…. 레이 님”

나의 말에 실험 도구를 꺼내던 레이가 나를 바라보자 말을 이었다.

“이 그림 좀 봐주실래요?”

지난번보다 더 정성을 다해 그린 아궁이와 구들장의 모습, 그리고 집을 그려놓은 그림이었다.

“대충 이렇게 집을 짓고 싶은데….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나의 말에 레이가 그림을 뚫어지기 바라보았다.

“이 그림도 제가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네! 그럼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나의 인사에 별거 아니라며 손짓을 한 레이는 다시 실험 도구를 책상 가득 꺼내 놓고 식물들을 한쪽에 늘어놓았다.

혹시나 그가 집중하는 데 방해될까 우디를 데리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작품후기]

리수진님,물결같이님,슌마망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갑작스럽게 감기와 염증질환에 걸려서 병원만 두군데 갔다오고... 약처방받은거 먹고 자고먹고 자다가 화요일날은 글을 올리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ㅜㅜㅜ

어제부터 조금씩 괜찮아져서 ㅜㅜㅜㅜ 꾸준히 올리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감기조심하세요 ㅜㅜㅜㅜ

^^^

5화 시작

며칠 동안 성안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다.

성안의 여자들이 힘써준 덕분에 밖에 나가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느새 새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었고, 옷도 거의 보급이 끝나가고 있었다.

별장의 뒤쪽 벽돌을 만들던 작업도 새로 발견한 땅으로 옮겼다.

몇 명의 사람들을 간추려 새로운 땅에 데리고 오자 그들도 좋아했다.

곧 집을 짓기 위해 흙을 조금이라도 빨리 조달받기 위해, 벽돌을 더 많이 만들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단축을 위해 작업장도 옮겼다.

솝은 작업장 옆에 크게 구운 돌을 보관하는 오두막과, 반죽이 된 돌을 굽는 곳까지 만들었다.

이곳에서 제일 바쁜 건 레이였다.

그는 쉴 틈 없이 계속 연구에 몰두했다.

늘 그의 방은 불이 꺼질 틈이 없었고, 식사도 제때 하는지 걱정이 될 정도였다.

곧 레이는 나를 찾았다.

“찾으셨다고…….”

며칠 만에 본 그의 모습에 말을 잃었다. 잠을 언제 잔 것인지 얼굴은 초췌해 보이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았는지 얼굴과 머리는 번지르르해 보였다. 그나마 미소년이라서 이 정도였지…….

보통사람 같았으면 초 폐인처럼 보였을 거다.

오기 전에 혹시나 해 엠마에게 부탁해 간단히 먹을 만한 수프와 부드러운 빵을 챙겨온 게 다행이었다.

나는 한숨을 쉬고 레이에게 넘겼다.

멀뚱멀뚱 바라만 보는 레이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어서 이것부터 드시고 말해요. 다들 실 때까지 말은 듣지 않겠어요!”

레이는 단호한 나의 표정에 머뭇거리며 수저를 들고 수프를 먹기 시작했다.

느리지만 깨끗이 다 먹을 때까지 조용히 그 앞에서 지켜보았다.

물까지 마시자 내가 말을 꺼냈다.

“잘하셨어요. 식사는 그래도 드셔야 해요.”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레이가 말을 꺼냈다.

“지난번 그림을 보며 생각한 건데…. 여기 불을 지피고 이 온기로 넓은 돌을 데워서 그 위에서 생활하는 방식인 거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자세히 그린 그림이 아닌데도 레이는 미리 알고 있는 듯했다.

“여기 제가 다시 자세히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설계해서 그린 거예요. 이대로라면 그림처럼 완성 될 거예요.”

“와!!! 제가 그린 그림보다 휠씬 알기 편하네요 역시.”

나는 바로 나가서 솝과 건축가 일행들을 불러모았다.

아무래도 초짜인 나보단 레이에게 직접 듣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레이가 자세히 그린 그림을 책상에 넓게 펼치고 사람들이 빙 둘러 그림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한다면 신발을 신지 않아도 되겠군요. ”

“우선 이 벽난로를 크게 설치하고 그 뒤에 널찍한 돌을 올려 돌을 데워서 사용한다는 거군요.

그리고 벽은 지금까지 만든 돌로 쌓고요. ”

“네.”

그들이 웅성거리며 회의를 시작했다.

늦은 시간까지 회의는 계속되었다.

결론이 날 거 같지 않자 내가 말했다.

“우선은 작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해요. 그다음 수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

다들 동의했고, 그들은 내일 아침부터 일찍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한 둘이 아니라며 그들은 부산스럽게 방을 나갔다.

“휴….”

한꺼번에 사람들이 빠져나가자 순식간에 레이의 방은 조용해졌다.

레이는 또다시 다른 그림을 꺼내며 말했다.

“지난번 가지고 채집해왔던 식물과 물고기에 대해 조사한 건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아 벌써요?”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레이가 많은 일을 해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지 고민스럽군요.”

“우선 당장은 그곳으로 바로 거주하지 않을 테니, 화가를 데리고 와서 그림을 그린 다음 옆에 레이님의 연구결과를 써서 똑같은 책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군요. 그렇다면 화가부터 데리고 와야겠네요”

“시간도 늦었으니 얼른 주무세요. 요즘 잠은 주무셨어요? 다음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푹 쉬어 셔야 해요.”

폭풍 같은 나의 잔소리에 레이가 대답도 안 하고 바로 이불에 가서 누웠다.

“불은 제가 끄고 갈게요.”

레이가 다시 일어날까 봐 빠르게 불까지 끄고 방을 나왔다.

엠마가 내가 나오길 기다렸는지 문 앞에 서 있었다.

“레이님께 할 말이라도?”

“아뇨 루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엠마를 데리고 내 방으로 들어와 테이블에 있던 차를 따라 엠마에게 건넸다.

엠마는 차를 한잔 마시더니, 나에게 종잇조각을 내밀었다.

“공작님이 보내신 전언입니다”

“네? 칼리아님이요? 어떻게요?”

“예전부터 은밀히 키우시던 매가 몇 마리 있습니다. 그 매를 이용해 이렇게 전언을 주고받고 있어요. 물론 몇 명만 이 사실을 알고 있고요 루나님도 앞으론 모른척 해주세요”

“아……. 그래서 수도에서 그렇게 빨리 물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거군요”

“네. 이건 루나님 앞으로 온 겁니다”

종잇조각을 펼치자 익숙한 칼리아의 필체가 보였다.

-나는 잘 지내니 걱정하지 말고, 조사가 길어질 거 같아 예정대로 복귀하긴 힘들어질 거 같아. 레이나 우디가 있으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몸조심하고, 지금 하는 모든 일을 응원한다.

짧은 내용이었다.

하지만 뭔가 든든한 기분이 들었다.

칼리아가 성을 비운 지 며칠째….

어딘지 모르게 불안함이 계속 들었지만, 모르는 척 해왔다.

칼리아의 편지를 받자 불안감이 사라졌다.

어느샌가 그에게 의지하고 있었나 보다.

인정하고 나자 칼리아에게 답장하고 싶어져 엠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종이를 꺼내 편지를 썼다.

-저희는 다 잘 지내고 있어요. 혼자 외딴곳에 계실 칼리아님이 걱정이네요. 부디 몸조심하시고,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매가 들고 갈 무게를 생각해 짧게 남겼다.

“이 편지도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엠마는 작게 미소지으며 종이를 받아 들고 말했다.

“당연하죠. 얼른 전해야겠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내방을 나섰다.

다시 한번 더 칼리아가 쓴 글을 천천히 읽었다.

내일도 힘낼 수 있을 그거 같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으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작품후기]

리수진님,킬리언데이지님,Finaleismine님,가인4551님,슌마망님,물결같이님,꼬마마녀사랑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 감사합니다.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날씨가 또 추워지네요... 감기조심하세요

^^^

5화 시작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맞췄다.

바깥에서 오랜 시간 서 있을 예정이라 옷을 단단히 챙겨 입었다.

어느 정도 옷 만드는 작업이 끝나서 시간에 여유가 있는 여자 중에도 바깥에서 일하겠다고 지원한 사람들도 있었다.

지난번 만났던 소년의 말이 생각나 옷을 만들던 작업실로 들어갔다.

“루나님 오랜만이네요”

“잘들 지내셨죠?”

“얼추 옷 만들던 작업이 끝나가서 이젠 여유롭게 잘 보내고 있어요”

확실히 작업실에 쌓아 놓았던 정돈된 룬들이 바닥을 보였다.

“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루나님 부탁이라면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그들은 흔쾌히 나의 말을 들어주었다.

“손가락에 낄 건데요. 룬을 넣지 않아도 되니…. 옷을 만들고 남은 천으로 손가락을 감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며칠 전 끄적거렸던 그림을 꺼내 보이며 그들에게 설명하자 그들은 금방 만들 수 있다며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다.

의자에 앉아 작업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그들을 기다렸다.

곧 그들은 내가 말한 대로 ‘장갑’을 만들어 보여주었다.

급하게 요청해 만든 것치곤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될까요?”

“네! 잘 만들었네요. 감사합니다”

나의 말에 그들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며 손을 저었다.

“그런데 이건 어디에 쓰시려고요?”

“밖에서 작업하시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거에요. 아무래도 손 시릴 것 같아서….”

“그렇다면 더 만드는 게 좋겠네요. 안 그래도 마을을 옮긴다는 이야기는 저희도 들었습니다. 힘을 보태야죠”

활기차게 말하는 그들에게 웃어 보이며 작업실을 빠져나왔다.

오늘도 간단하게 챙긴 아침 식사를 끝내고 바로 집을 짓고 있는 현장으로 갔다.

새벽부터 나와 준비했는지 작게 만들어 본다는 집은 반쯤 완성되어 있었다.

정신없이 작업하는 그들 뒤로 조용히 벽돌을 만들던 곳으로 갔다.

취드를 꿇리고 있는 커다란 솥의 국자를 떠 만들어진 장갑에 앞면만 취드를 부었다.

추운 날씨 덕분에 취드는 금방 굳었다. 생각대로 미끄러지지 않은 장갑이 완성되었다.

나머지도 취드를 부었고, 장갑을 가지고 지난번 소년을 찾았다.

소년은 건축가들이 지시하는 잡일을 하고 있었다.

만들어진 벽돌을 옮기고, 다듬어진 나무를 옮기며 분주히도 움직이고 있었다.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 아냐…. 부르고 싶은데 이름을 모르네’

주위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그 소년에게 더 걸어가며 이름을 꼭 물어보자 생각했다.

쌓여 있는 눈을 사부작사부작 밟으며 소년의 뒤로 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소년은 갑작스러운 온기에 깜짝 놀라 들고 있던 나무를 떨어뜨리며 소리를 질렀다.

“왁”

“헉”

그 소리에 같이 놀란 나도 소리를 지르고, 주저앉자 소년은 뒤를 돌아 나를 확인했다.

그리고 미안했는지 긴장한 얼굴로 손을 내밀었다.

“죄송해요.”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소년의 손을 잡고 일어나며 웃자, 소년도 따라 웃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네 만드신 옷이 정말 따뜻하다는 걸 알았어요. 동굴에서 룬을 재배할 땐 몰랐는데……. 바람도 잘 막아주고, 눈에도 잘 젖지 않아서 다들 좋아해요”

신나서 더 말하려던 소년의 말을 끊고 말했다.

“혹시 잠깐 시간 돼?”

“그럼요. 루나님과 함께 갔다고 하면 사람들도 다 이해할 거예요”

손을 털며 소년은 내 뒤를 따라왔다.

나는 벽돌을 쌓아 놓은 오두막으로 들어가 대충 자리를 잡고 앉았다.

소년도 머뭇거리며 내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름이 뭐야?”

“바트요”

“아…. 바트였구나…. 아까 이름을 부르려고 했는데 그때 이름을 물어보질 않아서….”

“아…….”

오두막의 공기가 어색함이 감돌 때 오늘 아침 만들어 둔 장갑을 꺼냈다.

“이름 물어보려고 부른 건 아니고 지난번에 말했던 거 만들어 봤는데, 한번 손에 껴볼래?”

바트는 장갑을 보더니 어떻게 껴야 할지 한참을 헤매자 내가 시범을 보이며 장갑을 손에 꼈다.

“자 이렇게 나 따라서 끼면 돼”

“아…!”

곧 나를 따라 하더니 손에 장갑을 낀 바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신기해했다.

“여기 보이는 투명해 보이는 부분이 안쪽으로 해서 끼는 거야. 물건을 잡을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취드를 발라서 굳힌 거고, 별로 튼튼해 보이지 않아도 바로 망가지진 않을 거야”

“고맙습니다”

연신 장갑을 만지던 바트가 말했다.

안 그래도 넘어졌을 때 바트의 손을 잡으며 안쓰러운 기분이 들었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손은 굳은살과 물집으로 까칠해진 손은 그동안 궂은일을 해왔다는 증거기도 했으니….

젊은 청년층이 모자라다 보니, 소년 층도 나와 일을 해야 했으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바트, 또래의 아이들이 많은가?”

“아무래도…. 좀 있죠. 그나마 그중에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제일 어린애가…. 아마 8살인 크리시였던거 같은데….”

“그럼 어린애들을 데리고 이 오두막 앞으로 불러올 수 있니?”

“그럼요”

바트는 곧 뒤에 20명 정도의 아이들을 달고 오두막 앞으로 모였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의 할 말을 잃었다.

수량이 부족하지 않을지…. 걱정하다 우선 제일 어린아이들부터 줄을 세웠다.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웅성거리며 장갑을 손에 쥐고 어리둥절했다.

“자, 여기 계시는 분이 루나님이셔”

바트가 앞에서 큰소리로 나를 소개하자 그들은 나를 보며 더욱 큰소리로 웅성거렸다.

“크흠…. 지금 나눠준 건 장갑이란 건데…. 손에 이렇게 끼면 돼”

왠지 쑥스러워져 헛기침하고 장갑 끼는 방법을 알려주자 곧 나를 따라서 장갑을 꼈다.

“앞으로 밖에서 일할 때 끼라고 나누어 준거니까, 그리고 여기 투명한 딱딱한 부분이 손 안쪽으로 가야 하는 거야. ”

장갑은 내 손을 기준으로 조금 작게 만들자 어린 그들의 손에 딱 맞았다.

하지만 바트 또래의 아이 중 장갑이 작은 아이들도 몇 명 있었고, 수량이 모자라서 못 받은 아이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을 붙잡고 말했다.

“미안. 급하게 만들다 보니, 수량이 모자란 거 같아. 오늘 오후라도 만들어지는 대로 바로 전달해 줄게. 그리고 손이 커서 장갑이 안 들어가는 애들은 손 크기 좀 재서 오늘 오후에 같이 만들어 줄게”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나머지 어린아이들은 장갑을 끼고 신나면서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갔다.

나는 바트를 시켜 손 치수를 잰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치수를 적어놓은 종이를 주머니에 잘 넣었다.

바트도 곧 다시 작업장으로 사라지자 솝과 건축가가 짓고 있는 집을 보러 갔다.

[작품후기]

리수진님,따슷님,인디70님,라떼쟁이님,물결같이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 감사합니다.

벌써 61화네요.

감회가 새롭숩니다!!!(물론 다른 분들 글에 비해 짧지만요ㅜㅜㅜ)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

5화 시작

장갑을 나눠준 사이에 집은 어느새 완성돼서 아궁이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레이도 나와서 한쪽에 앉아 구경하고 있었다.

“어? 벌써 완성된 거예요?”

“네. 막상 해보니 보수할 것도 많고, 할 일이 많아질 거 같네요”

건축가 한 명이 심각하게 말했다.

아궁이 안쪽에 불을 붙이고 다들 바닥이 데워지길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리고 한 명이 대표로 반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따…. 따듯해…. 다들 어서 와봐”

그의 말에 우르르 몰려들어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와…. 정말 따듯하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성공이야!!!”

신이 난 사람들이 서로 소리치며 기뻐했다.

하지만 아궁이 위로 굴뚝을 세우지 않아 곧 방안에 연기가 가득 찼다.

“콜록콜록”

다들 기침을 하며 황급히 밖으로 나왔다.

“이런……. 지난번 그림에서 연기를 배출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던 걸 깜박했군요”

레이는 그들의 모습에 종이에 대고 무언가 써 내려갔다

그들이 나가자 레이도 방안을 살펴보러 들어갔다.

문을 계속 열어두려고 했지만, 레이는 우리들을 만류했다.

레이는 눈 깜박하지 않고 집안을 살폈다.

뿌연 연기 덕분에 꼼꼼하게 벽돌을 올리지 않았거나 사이사이 반죽을 덜 붙인 곳으로 연기가 나가는 부분들을 점검하는 듯했다.

연기가 빠져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사람들을 불러 직접 보게 했다.

“여기 보시면 꼼꼼하게 올리지 않은 부분으로 연기가 나가고 있어요. 이런 나중에 바람이 집안으로 들어온다는 거랑 같은 거죠. ”

레이의 말에 다들 끄덕이며 조심해야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집을 경험 삼아 그들은 또다시 회의에 들어갔다.

“연기가 빠져나갈 통로를 만드는 게 우선이군요”

“그보다 방 입구 쪽은 불붙인 곳과 가까워서 금방 뜨거워지고, 다른 곳보다 너무 뜨거워지니 문제군”

“그건 입구 쪽에 돌을 더 두껍게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땅을 팔 때 뒤쪽보다 앞쪽을 더 파내면 될 거 같군요”

그중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첫 실패작이란 집에 들어갔다.

온돌방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뭔가 새로운 기분이 들기도 했고, 그리운 기분이 들었다.

한 칸짜리 방이었지만 분명 집이었다.

바닥은 돌 위에 아무것도 깔렸지 않은 것을 보고 여기도 반죽한 흙을 올려야 된다고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회의가 끝난 것인지 받아적어 놓은 것들을 보며 집 설계를 다시 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바닥엔 돌 위에 평평하게 반죽한 흙을 올려야 될 거 같네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군요”

부족한 부분들을 적어넣은 그림은 처음보다 훨씬 꼼꼼해 보였다.

“이 정도면 성공할 거 같군요”

“벌써 저녁이라니……. 이 그림은 내일 아침부터 해야겠네요”

“그럼 내일 봅시다”

종일 추운고에서 씨름한 그들의 얼굴엔 어느새 피곤함이 가득했다.

서둘러 헤어진 그들을 보내고 레이와 성으로 들어오자 엠마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레이는 엠마의 말에 고개를 살짝 끄덕이곤 바로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엠마 님도 고생하셨어요. 성안은 별일 없었죠?”

엠마가 내 뒤를 따라 들어오며 말했다.

“네. 요즘은 아주 순조롭답니다. 새로운 집 만들기는 잘 되어가고 있나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처음으로 만들어 봤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내일 또 만들기로 했어요”

“아 오전에 작업실 사람들한테 부탁했던 손 장갑 더 만들어달라고 했던 거 여기 있습니다”

“깜박하고 있었는데, 감사해요”

엠마에게 작은 보따리를 받아 잘 보이는 곳에 놓았다.

추운 곳에서 따뜻한 방으로 들어오니 긴장이 풀어지고 노곤해져서 잠이 쏟아졌다.

하품을 크게 하며 겉옷을 벗고 씻을 준비를 하는데 엠마가 웃으며 아직도 방에 있길래 옷 벗는 걸 중단하고 엠마를 바라보았다.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도?”

“전 아니고, 칼리아님이….”

“아 벌써 답장이 왔어요?”

“네”

엠마는 나에게 편지를 남겨주고 자리를 비켜주었다.

나는 바로 의자에 앉아 칼리아의 편지를 읽었다.

-잘 지낸다니 걱정을 한시름 놓는다. 그래도 어디 다닐 땐 꼭 우디와 동행하도록 해.

짧은 글이었지만 기분은 좋았다.

-오늘은 레이 님과 여기 건축가분들과 함께 새로운 영토에서 시범적으로 집을 지었어요. 물론 실패했지만요. 며칠 고생할 거 같지만, 곧 좋은 성과를 낼 거 같아요. 칼리아님이 오시기 전까지 완성해서 꼭 보여드리고 싶네요.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서 곱게 접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간단한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들어가 누웠다.

어느새 이것저것 시작한 일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었다.

아침 일찍…. 엠마가 다시 날 찾아왔다.

옆에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말이다.

나는 엠마에게 조심스럽게 어제저녁에 써놓은 편지를 손에 쥐여주었다.

엠마는 곧 싱긋 웃어 보였다.

“이분은 누구…….”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었다.

“지난번 부탁하신 미술가입니다”

“아……. 레이 님이 일어나 계실지 모르겠네요. 가죠”

레이의 방앞에서 조금은 크게 문을 두드리자 바로 레이가 나왔다.

또 잠을 자지 않은 것인지 눈 밑에 검었다.

또다시 잔소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옆에 사람이 있는 관계로 꾹 참고 말했다.

“지난번 말했던 미술가를 데리고 왔어요. ”

레이는 다른 말 없이 방에 들어오라며 옆으로 비켜섰다.

[작품후기]

리수진님,sfsdfsd님,물결같이님,인디70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나와 미술가는 레이의 방에 들어가자 커다란 테이블 위에는 각종 식물과 비린내 나는 물고기가 종류별대로 정리되어 올려져 있었다.

나도 할 말을 잃었지만 같이 들어간 이도 말을 잃었다.

“여기 위에 있는 식물이랑 물고기를 다 그려주면 됩니다”

레이는 피곤한지 의자에 앉아 머리에 손을 얹고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오늘은 밖에 나오지 마시고 여기 있어요”

레이의 상태가 걱정되어 내가 말했다.

레이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 도구를 더 챙겨와야 될 거 같네요”

미술가와 나는 조심스럽게 레이의 방을 나왔다.

언제 왔는지 우디가 복도 창문에 기대서 날 기다리고 있었다.

날 바라보고 굳은 얼굴로 우디가 말했다.

“어제 혼자 돌아다니셨죠?”

“아……. 레이 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건 오후부터 아닙니까. 혼자 다니셨다는 걸 공작님께서 아시기라도 하면 제가 죽습니다”

우디가 이번엔 애원하며 말했다.

“알겠어요. 앞으론 더 조심할게요”

“네 그래야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껏 내 옆에서 덩치 큰 우디의 연기를 본 미술가는 굳은 채로 서 있었다.

“레이님이 그림 그리는 사람을 찾아서요. 아무래도 아까 보니, 한사람으론 안될 거 같던데….”

굳어있던 미술가는 나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안 그래도 몇 명 더 데리고 오려고요. 저 정도 양이면 저 혼자 못합니다.”

“네. 한시가 급하니, 여러 명에게서 하는 것도 좋죠”

곧 그는 준비할 것이 많다며 바삐 사라졌다.

나는 복도를 지나던 엠마에게 레이에게 담요와 깼을 때 먹을 수 있는 과일을 부탁하고 작업장으로 갔다.

오늘도 일찍 나온 사람들이 모여 상의를 하고 있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인사를 건넸다.

그들이 펼쳐놓은 그림이 보이자 나도 그사이에 들어갔다.

우디는 어느새 나무 기둥 앞에 자리를 잡고 기대어 있었다.

“제일 중요한 건 연기가 빠져나갈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꼼꼼하게 작업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으니 특히 주의합시다”

그들은 다시 아궁이를 만들기 시작했고, 평평한 돌들을 올렸다.

바닥을 파낼 때도 앞쪽을 깊게 파내서 돌을 두 개를 깔았고, 뒤쪽은 얇게 파 돌을 하나만 깔았다.

그 위에 반죽한 흙을 깔아 한층 더 평평하게 바닥을 만들었다.

순조롭게 집은 지어졌다.

다들 말없이 꼼꼼히 벽돌을 올려 나갔다.

그 옆으로 바트와 아이들이 열심히 벽돌을 옮겨다 주고, 취드를 끓인 물을 올린 솥을 계속 저었다.

그들의 손에 끼워진 장갑을 보고 아침에 챙겨 나온 장갑이 생각났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들 사이로 장갑을 끼지 않은 아이들 곁으로 갔다.

“안녕.”

열심히 솥의 물을 젓고 있던 아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추운 바깥 날씨에도 땀을 줄줄 흘리고 있는 아이의 땀을 닦아주며 어제 만들어 놓은 장갑을 내밀었다.

“자 어제 미처 주지 못했던 장갑이야. 한번 껴볼래?”

물끄러미 나의 손에 올려진 장갑을 보다 손에 꼈다.

“딱 맞아요”

“그리고 자~”

여유분으로 만들어 놓은 장갑을 하나 더 꺼냈다.

“망가지면 쓰라고 더 만들었어. 덥다고 장갑 빼고 일하지 말고 손 다친다. 그리고 장갑이 다 망가지면 언제든 나한테 꼭 말하고...”

“네 고맙습니다”

소년의 어깨를 두드렸다.

소년을 시작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아이들에게 장갑을 나누어 주었다.

다시 집을 만드는 곳으로 돌아오니, 얼추 집이 완성되어 갔다.

굴뚝도 세워 이번엔 더 그럴싸해 보이는 집이었다.

“잘 만들어졌네요”

어느새 내 옆으로 온 우디가 말했다.

“네. 이번엔 잘돼야 할 텐데…….”

“아이들에게 뭘 나누어 준거에요?”

우디가 몇 시간 동안 이곳저곳 다니며 아이들에게 나누어 준게 궁금했는지 물었다.

“아무래도 어른들보단 아이들 손이 약할 거 같아서 손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갑을 만들었어요”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뭐…. 별건 아니었어요. 워낙 여기 사람들이 제 의견을 잘 따라줘서 편했죠”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한다는 게 쉽지 않죠”

우디의 말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과연 그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지….

“그들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눈앞의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해서 말했을 뿐이에요. 결국, 움직이는 건 저기 저들이고요. 전 그냥 숟가락만 살짝 얹었을 뿐이에요”

“숟가락만 얹는다고요?”

우디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곳엔 이런 말이 없었다.

내가 웃으며 말하자 우디도 더 물어보지 않았다.

“그리고 저 그렇게 안착해요.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두죠”

이번엔 우디가 웃으며 말했다.

우디와 웃으며 떠들고 있자 어느새 완성된 집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이번엔 굴뚝으로 연기가 잘 빠져나갔다. 그들은 환호했다.

한참 뒤 완성된 방 안으로 들어가자 잘 평평한 방 안 온도도 알맞게 따뜻했다.

“성공이에요!!!”

“와!!! 드디어…….”

한마음으로 다들 기뻐했다.

밖에서 잡일을 하던 아이들도 궁금했는지 바깥에서 집을 구경하다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눈이 동그래져서 말했다.

“와…. 따뜻해….”

“신기하다”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정말 오래 걸렸을 거야.”

어른 중 한 명이 말하자 아이들도 덩달아 기뻐했다.

앞으로 살집을 자신의 손으로 만든다는 벅찬 기분과 뿌듯함이 얼굴에 보였다.

“이제 앞으로 더 바빠지겠어요.”

건축가 한 명이 말했다.

그러자 언제 왔는지 솝이 말했다.

“안 그래도 내가 생각해 봤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각각 한집당 한 명씩 맡아서 조를 이뤄서 만들도록 하죠”

“그것도 괜찮겠네요. 우선 내일 한가한 사람들을 불러오도록 하죠”

“그럽시다.”

그들은 앞으로 벽돌이 많이 부족할 거 같다며 자진해서 반죽한 흙을 틀에 넣어놓고 가겠다고 했다.

그들의 말에 나와 우디는 먼저 성으로 돌아왔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앞으로 집 만드는 곳엔 가지 않아도 그들이 알아서 해줄 거란 예감이 들었다.

[작품후기]

리수진님,LJLS님,인디70님,sfsdfsd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추천,선작 감사합니다.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칼리아와는 주기적으로 편지로 서로의 안부나 상황에 대해 주고받았다.

소소한 재미가 있다 보니, 어느새 칼리아의 편지를 기다리는 지경까지 왔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엠마가 책상 위에 올려두기도 했다.

요즘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책상 위부터 살피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의 편지를 읽고, 답장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솝이 사람들을 대표해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았다.

다들 열심히 만든 패딩을 입고 밖으로 모였다.

한결 여유로워 보이는 얼굴에, 기분이 좋았다.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모인 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번 눈사태로 더 좋은 영토로 마을을 옮기기로 했어요. 훨씬 살기 좋고 집도 앞으로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고쳤고요. 지금 바로 그곳으로 갈 겁니다”

다들 웅성거리며 솝의 뒤를 따라 걸어, 집을 미리 만들어 두었던 곳으로 왔다.

처음 보는 광경에 다들 어리둥절하다 솝이 다시 설명했다.

“지금 보는 건 작게 시범 삼아 만들어 본 집입니다. 여기에 불을 지피면 이곳으로 연기가 빠져나가고 바닥이 따뜻해지는 원리에요.”

솝이 시범으로 아궁이에 나무를 넣고 불을 붙이자 곧 굴뚝으로 연기가 빠져나갔다.

“조금 더 있으면 바닥이 따뜻해질 거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작은 관계로 여러 명이 조를 나눠 들어가기로 했다.

들어 갔다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닥이 따뜻하다며 좋아했다.

또한, 쉽게 무너지지 않아 불안하지도, 바람이 들어오지 않아서 더 좋아했다.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많은 이들이 만지고, 들어가서 경험해보는 과정만 반나절이 지나갔다.

솝은 다시 모인 그들에게 말했다.

“앞으로 이곳이 우리가 살게 될 집입니다. 하지만 시간도 많이 들겠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죠?”

마을의 한 남자가 물었다.

솝은 이때다 싶을 정도로 준비한 말을 시작했다.

“보시면 벽에 쌓아 올린 돌들이 일정한 게 보일 겁니다. 이건 취드와 물을 끓여 만든 흙을 반죽해서 일정한 크기로 굳혀 불에 한 번씩 구운 거예요. 취드를 끓일 사람도 필요하고, 옆에서 흙을 반죽할 사람도 필요하고, 돌을 쌓아 올린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서 건축가 1명에 마을 사람들 몇 명을 조로 한 집씩 지을 생각입니다.”

건축가 한 명이 말하자 사람들이 웅성대면서 상의했다.

곧 마을 사람 한 명이 다시 말했다.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

“그럼 우선 셋집이나 네 가구당 한 명이 조로 이룹시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여기저기 뭉쳤다.

곧 건축가 한 명씩 그들을 데리고 각자 집을 지을 곳을 물색했다.

어느 정도 옆집과의 거리와 방이 몇 개 필요한지 각자 상의하기 시작했다.

곧 상의를 마친 사람들이 각자 어느 정도의 집 면적을 바닥에 그렸다.

바닥에 그림만 그렸는데도 깜깜한 밤이 되었다.

사람들은 다시 성으로 이동했다.

오늘 한 일보다 사람들의 얼굴이 환했다.

추위 때문에 집에서도 편히 쉬지 못한 이들에게 벽돌집은 희망과도 같았다.

영주가 바뀌면서 그들의 삶이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물론 몸이 피곤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조금만 고생한다면…. 그 뒤의 좋은 삶을 상상했을 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곤 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한 그들 덕분에 일은 한결 수월해졌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은 새로운 영지로 향했다.

건축가들과 한 조를 이뤄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작업은 주로 여자들이 했다.

룬을 이용해 옷을 만들던 사람들이 할 일이 적어지자 많은 이들이 같이 영지로 왔다.

이럴 줄 알았다며 솝은 며칠 사이에 미리 만들어 둔 나무틀과 커다란 솥 등 많이도 만들어왔다.

아침 반나절 내내 그들이 작업하는 일을 구경하며 지시를 내렸고, 어느 정도 안정된 작업 현장에 성으로 돌아갔다.

“이제 집 만드는 곳엔 안 가시는 거예요?”

같이 점심을 먹던 우디가 말했다.

“네. 솝과 건축가들이 있어서 괜찮을 거 같네요.”

“그런데 어제 왜 모든 사람이 새로 만든 집에 들어가게끔 한 겁니까? 그냥 만들라고 했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았을 텐데….”

“직접 경험한 사람은 다르니까요. 새로운 영지에 새로운 집을 지어 살 테니, 도우라는 것보다 직접 그곳에 가서 어떤 집에 살게 될 것인지 경험한 사람들은 임하는 자세부터가 다르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한가한 겁니까?”

우디가 손에 포크를 돌리며 휘파람을 불었다.

난 그의 말에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고 말했다.

“아직도 할 일이 남았어요. 레이 님이 하고 계신 책자 만들고 있는 것도 한번 가봐야죠.”

“거기도 가보시게요?”

“네. 안 그래도 엠마님한테 부탁해서 출판할 수 있도록 사람을 구해달라고 한 것도 있어서….”

말이 끝나자 엠마가 식당으로 들어왔다.

“안 그래도 루나 님을 찾아서 새로운 영지에도 갔다 왔는데 여기 계셨네요”

“거긴 이제 제가 없어도 될 거 같아서 일찍 들어왔어요.”

“아…. 안 그래도 분위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오랜만이라 조금 더 지켜보고 오다 늦게 들어왔지만요”

엠마도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아! 지난번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이곳엔 없어서…. 수도에 있는 공작님 저택으로 요청을 해 두었다는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엠마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말했다.

“역시……. 잘하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레이 님이 하고 계신 작업은 오래 걸릴 거 같으니, 여유가 있게 오시면 될 거 같네요. 참,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글을 다 읽을 수 있죠?”

“너무 어려운 단어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아…. 그럼 너무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네요.”

엠마와 식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레이의 방에 올라갔다.

문을 두드리고, 레이의 방에 들어가자 할 말을 잃었다.

이곳에 있는 종이를 다 긁어모았는지 종이는 수북이 쌓여 사람이 보이지 않는 지경이었고, 그사이에 드문드문 사람들이 앉아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레이는 그들 사이에서 특징을 말하며 그림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바닥엔 잘못 그린 그림들이 여기저기 구겨져 있었다.

한숨이 절로 나오는 방안 풍경에 우디는 휘파람을 불었다.

우디의 휘파람 소리에 레이가 이쪽을 바라봤다.

“세상에…….”

나의 말에 레이가 움찔했다.

하지만 곧 나를 의식적으로 외면한 뒤 다시 그림 그리는 사람들 쪽으로 시선을 두었다.

나의 손에는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한입 크기의 샌드위치와 음료수가 담겨 있었는데, 도저히 책상, 바닥에 놓아둘 데가 없자 대강 발로 종이들을 치우고 그곳에 쟁반을 놓으며 말했다.

“잠깐 쉬면서 이것 좀 드시라고 챙겨왔어요”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눈을 빛내며, 이곳으로 달려들었다.

그 모습에 레이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딱히 뭐라고 하진 않았다.

그들이 앉아 있는 틈에 완성된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았다.

특징을 잘살려 그린 그림들이 실물과 비슷했다.

어느새 옆에 온 레이가 말했다.

“최대한 특징을 살려 그리고 있어요. 옆에 설명 쓰는 건 슬슬 시작하려고요”

“아. 그거 때문에 그러는데, 최대한 간단한 단어들을 사용해야 될 거 같아요. 어린아이들도 봐야 하고, 위험한 식물이나 물고기는 주의하란 의미에서 빨간색으로 강조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군요”

레이가 종이에 적으며 말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수도의 칼리아님 저택에 요청해두었어요. 집도 다 같이 만들기 시작했고요”

나의 말에 레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품후기]

리수진님,LJLS님,킬리언데이지님,sfsdfsd님,바켠바켠님,꼬마마녀사랑님,슌마망님,XIXIS님,milkyskin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 감사합니다.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모든 일은 점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가족 인원수가 적은 작은 집은 벌써 몇 채가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고, 레이가 만들고 있는 안내책에 들어갈 그림도 어느 정도 레이의 생각대로 한 단계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처음 그들은 요령이 없어서 본인들이 본래 그리던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다가 레이의 마음에 들지 않아 전부 다시 그려야 했다.

딱히 이렇다저렇다 하는 것 없이 그저 고개만 저었던 레이 때문에 가끔 방에 가보면 좀비가 그림 그리는 것 같은 풍경이 벌어졌다.

“다시”

레이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지옥훈련을 방불케 한 덕분에 그들은 레이의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방안에는 오직 레이의 다시라는 말만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점점 일의 진행속도를 빠르게 진행했다.

스스로 작업반장을 뽑고, 조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날씨는 여전히 낮에도 매섭게 칼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무턱대고 움직였다 낭패 본다는 걸 누구보다도 그들 스스로가 잘 알았다.

날씨가 유독 지독한 날에는 집을 만들기보다는 흙을 옮기는 작업이나 취드를 끓이고 흙을 반죽해 모양을 잡아 놓고 굳히는 작업을 중점으로 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 없이 다들 기쁘게 일했다.

덕분에 난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너무 한가했다.

그들이 알아서 척척 할 일을 찾아 움직였기에 이젠 내가 할 일이 딱히 없어졌다.

다만 걸리는 게 있다면 칼리아의 편지가 오지 않은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이후로 늦으면 삼일 정도 위엔 반드시 답장이 왔었다.

처음 편지가 오지 않은 사 일째엔 바쁜 일이 생겼나 했었고, 오 일째부턴 편지를 전해주는 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엠마를 조용히 사람 없는 곳으로 불러 물어봤지만, 엠마도 모른다는 듯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오로지 매에게 의지한 편지다 보니, 엠마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어 그저 답답한 심정이었다.

그의 편지의 부재가 나에게 이렇게 커다란 의미였는지 새삼 느끼게 했다.

며칠 후

레이와 미술가들이 심혈을 기울인 초본이 나왔다.

“보십시오!!! 드디어!!!”

다크써클이 진하게 내려앉은 얼굴에 며칠 동안 샤워는커녕 씻지도 못한 몰골로 기쁘게 책을 올리며 뛰어온 미술가를 붙잡고 책을 들여다보았다.

특징을 잘 살려서 그려놓은 그림 옆에는 서식지와 주의사항, 조리방법 등 알기 쉽게 큰 글씨로 쓰여 있었다.

“음…. 특징을 잘 잡아서 그렸네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얼마나….”

끝내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삼킨 미술가를 다른 미술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그 모습을 보며 다시 책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식물뿐만이 아니라 물고기 종류까지도 세심히도 그려 넣었다.

“와……. 글도 알아보기 쉽고, 좋네요.”

“글은 레이 님이 일일이 다 작성하신 거예요. 완전 독종이라니까요”

또다시 울먹거리며 말하는 미술가였다.

“이거……. 수도에서 얼른 사람이 와야 할 텐데…….”

“안 그래도 내일 중으로 온다고 서신이 왔습니다. ”

엠마가 어느새 내 뒤에서 말했다.

“그래도 때맞춰서 온다니 다행이네요. 그동안은 좀 쉬도록 해요”

나의 말이 끝나자 미술가들은 대충 자리를 정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레이에게 당한 게 많은 듯 보이는 뒷모습들이었다.

모처럼 할 일이 마무리되자 할 일이 없어진 나는 성을 구경하기로 했다.

첫날부터 워낙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 성을 살펴볼 기회가 없었다.

먼저 칼리아의 말대로 우디를 불러 같이 다니기로 했다.

허영심 많은 에리엘 후작은 자신이 살 성부터 뜯어고쳤는지 성은 무척이나 화려했다.

물론 쓸모 있게 지어지진 않았지만, 추운 건 싫었는지 성안은 보온이 잘됐다.

돈 될만한 건 다 쓸어갔는지 성안 곳곳은 빈 통만 여기저기 굴러다녔고, 그나마 엠마가 있어 먼지 하나 없었다.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돌아다니기를 반나절….

어느새 도서관에 도착했다.

에리엘 후작은 텅 빈 자신의 머릿속과는 다르게 과시라도 할 생각이었는지, 책이 꽉꽉 차 있었다.

제목들을 눈대중으로 보며 지나다니다 보니, 수도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책들도 보였다.

“그저 과시욕만 있는 노인네 같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조용히 뒤에 서 있던 우디가 혼잣말로 중얼거린 소리를 듣고 물었다.

“이걸 좀 보세요”

나는 수도에서도 보기 힘들다는 책 하나를 꺼내 들고 우디에게 보여주었다.

“이 책은 지난번 칼리아님이 힘들게 구하신 책 제목과 같은데요 어?”

우디는 책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칼리아 곁에 있다 보니, 주워듣는 이야기도 많았다.

이번 왕자님 생일에 친히 구한 책 목록에 있던 책 목록 중 특이해 기억하고 있던 그 책과 같은 것이었다.

책을 받아 들고 관찰을 하던 우디는 첫 장을 펼칠 때쯤 이상한 것을 알았다.

“한 번도 펴지 않은 새 책이군요”

“맞아요. 그저 보여주기 위한 사치품이었겠지요”

하지만 곧 잊었겠지.

어렵게 구한 책의 값은 어마어마했다. 하지만 멍청한 에리엘 후작은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곧 잊었으니, 아직도 이 추운 모니알에 있는 것일 테니....

이 책들은 다시 레이와 상의를 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은 칼리아가 돌아왔을 때 이야기를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도서관의 책을 마저 훑었다.

한참을 여기저기 책들을 보며, 내가 원하던 책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은 구석진 곳, 낡은 책장에 초라하게 꽂혀 있는 책은 모니알의 역사서였다.

“찾았다!!! 우디, 여기 있는 책들을 제방으로 옮겨 주실 수 있나요?”

“전부 다요?”

“네. 아무래도 전부 읽어 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방에 가 계세요. 바로 옮겨 드리겠습니다”

우디는 나를 방으로 돌려보냈다.

그전에 첫 번째 역사서를 들고 방에 들어오자마자 책을 읽기 시작했다.

「본디 모니알 베스리가 찾아낸 땅이였다. 그는 초대 왕 그라니아를 모시던 측근이였지만 역적으로 몰렸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여러 명의 사람을 수도에 풀어놓은 채 이 추운 곳까지 도망쳐 왔다. 그 당시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쳐 온 이곳은 1년 내내 추운 눈보라가 치고, 같이 도망쳐 온 몇몇 이들이 추위에 굴복해 죽어 나갔다.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베스리는 악착같이 살아남았다.

아무도 불러 주는 이 없이 그저 추운 이곳에서 살아남기를 여러 해……. 결국 그의 억울함을 인정받아 다시 수도로 불려 갔지만, 자신을 품어준 이 땅을 쉽게 등질 수 없었던 베스리는 그라니아왕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왕은 그 요청을 들어주었다. 이 추운 땅의 이름은 모니알 베스리의 이름을 따 ‘모니알’이라고 불렀다.」

「‘모니알’의 동굴에서 커다란 금덩이가 발견되었다. 베스리는 바로 그라니아왕에게 이 같은 금덩이를 올렸다. 당시 반란을 수습하고 있던 그 라니아 왕에게는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었다. 그 라니아 왕은 바로 수도의 사람들을 ‘모니알’로 보내 금을 더 캘 수 있도록 도왔다. 이로써 모니알 베스리는 완벽한 그라니아왕의 최 측근이 되었다. 」

그저 춥기만 한 이곳의 역사를 처음부터 알게 되니, 흥미롭게 느껴졌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부분은 아녔다.

다시 천천히 책을 읽기 시작했다.

[작품후기]

리수진님,비안원님,sfsdfsd님,물결같이님,Drill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 감사합니다.

그동안 말도 없이 휴재를 해서 죄송합니다.ㅜㅜㅜ

제 일생 최대의 행사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ㅜㅜㅜㅜ

앞으로는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봐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모니알’은 날씨만 추울 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친절했으며, 금광을 캐기 위해 각 가문에서 사람들을 보냈다. 또한, 몰래 훔쳐 갈 것을 염려해 그라니아왕은 자신의 군대 또한 쉽게 내어 주었다. 금광이 발견된 이후 그저 쓸모없는 땅에서 최고로 주목받는 곳이 되었다. 금광 덕분에 무역은 활발히 이루어졌다. 가난하던 사람들은 곧 무엇이든 살 수 있게 되었고, 추위에 떨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베스리를 신처럼 떠받들었다.」

「‘모니알’은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고, 없어선 안 되는 땅이 되었다. 베스리는 그곳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해 슬하에 3남 1녀의 자식을 두었다. 다들 총명하고, 정의로웠으며 마을을 위해 힘썼다. 처음 초기에는 체계가 잡히지 않아 우왕좌왕했지만 총명했던 베스리의 장남 아비드가 똑똑한 젊은이들과 함께 법과 질서, 규칙들을 만들며 점차 안정되어 갔다.」

「베스리의 차남 레일은 한날 말을 타고 숲 안쪽에 사냥하러 나섰다. 레일은 본디 호기심이 많고, 정의로웠으며, 모험심 또한 강했다. 그는 몇 명의 가신만 데리고 나온 길이라 조촐했다. 이 숲은 모니알에서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금지된 숲이기도 했다. 요즘 새로운 동굴에서 더 큰 금이 발견되어,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온통 그 동굴 이야기 뿐이었다. 그에 지루함을 느낀 레일은 자신의 수하를 끌고 이 숲에 들어오게 된 이유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숲 안쪽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음? 이 부분인가??’

내가 찾고 있던 부분인 듯하여 더욱 자세히 책을 보려던 중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다.

‘똑똑’

“들어와요”

우디가 그 많은 책을 들고 서 있었다.

우디는 나의 모습에 한숨을 쉬었다.

그 모습에 움찔했지만 모른 척 말했다.

“이 많은 책을 한꺼번에 가져오신 거예요?”

“전혀 무겁지 않은 양입니다.”

문 옆으로 비켜서자 우디가 책상 옆 테이블에 책들을 내려놓았다.

초라한 책장에 있었던 것치곤 책들의 상태가 깨끗했다.

“엠마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군”

새삼스럽게 엠마의 위대함을 책에서 찾게 되었다.

그녀는 분명히 이 모니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구석진 곳에 처박혀 있던 역사서까지 관리 되어 있는걸 보면…….

다시 책을 읽으려고 하자 우디가 저지했다.

“밤이 깊었어요. 내일은 수도에서 사람이 올 텐데…. 그만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우디의 말에 창밖을 보니, 벌써 깜깜한 밤이었다.

조금 더 읽다가 자고 싶었지만 우디의 눈빛이 너무 단호해 그럴 수 없을 듯했다.

할 수 없이 보던 책을 내려놓았다.

“벌써 그렇게 됐군요. 자야겠네요”

우디는 나의 말에 인사를 꾸벅 마치고 내 방을 떠났다.

아직도 오지 않은 칼리아의 편지를 생각하며 책상 한쪽을 습관처럼 바라보았다.

그곳은 늘 엠마가 칼리아의 편지를 놓던 곳이었다.

나쁜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았다.

단 한 줄이라도 좋으니 그의 소식을 알고 싶었다.

뒤척거리며 잠을 설친 탓인지 몸 상태가 별로였다.

하지만 칼리아가 자리를 비운 지금 그가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했다.

간단한 준비를 마치자 엠마가 수도에서 사람이 왔다며 응접실로 불렀다.

얇은 옷을 입고 나타난 남자는 덜덜 떨며 엠마가 준비해준 따뜻한 허브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내가 등장하자 그가 마시던 허브 티를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다.

가까이서 본 그 남자는 약간 탁한 노랑머리에 얼굴엔 주근깨가 있었고, 손등에는 여기저기 다친 흉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전 에단입니다. 수도에서 작게 인쇄소를 하고 있죠”

“반가워요. 전 루나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아닙니다. 공작님께서 불러주신다면 당연히 와야죠”

“아. 공작님은 지금 사정이 있어서 당장은 보기 힘들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가 인사하고 있는 사이 레이도 응접실로 내려왔다.

한층 더 피곤해 보이는 몰골로 레이는 에단을 바라봤고,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맞췄다.

“그런데 이곳은 정말 춥네요.”

다시 따뜻한 허브 차를 마시며 에단이 말하자, 나는 엠마에게 손님용으로 만들어 놓은 여분의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

“우리가 작업할 곳은 따뜻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작업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오면서 대강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초본은 만들어 진 건가요?”

“네, 그건 만들어 놨어요”

“다행이군요.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

눈을 빛내며 에단은 말했다.

엠마가 때맞춰 겉옷과 레이의 방에 들려 만들어 놓은 초본을 들고 들어왔다.

“앞으로밖에 나가실 땐 이 옷을 걸치고 나가시면 됩니다. 수도의 옷은 이곳과는 맞지 않으니까요.”

엠마가 들고 있던 옷을 에단에게 건넸다.

에단은 고개를 끄덕이며 옷을 받아들자 엠마가 다시 말했다.

“레이님의 방 바로 옆으로 작업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가지고 오신 물건들도 그쪽에 놓아두었습니다”

엠마의 안내로 우리는 새로운 작업실로 들어섰다.

커다란 나무판들이 구석진 곳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고, 잉크로 보이는 커다란 통도 있었다.

“똑같은 활자를 찍어낸다는 건 결국 나무판에 조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판을 보고 작업을 해야 하니,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군요. 그리고 이곳의 종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에서 종이를 챙겨오긴 했지만, 양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결국 이곳의 종이를 사용해야 할 거 같은데요”

팔을 걷어붙이며 에단이 말하자 엠마가 말했다.

“여기는 딱히 종이를 쓰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먹고 사는 게 시급하다 보니……. 매일 봐야 한다면 나무에 새겨 넣어 보고 있습니다.”

의욕적이던 에단은 엠마의 말에 풀이 죽어 걷었던 옷을 내리며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되어 있지 않다니…. 그렇다면 종이를 만들만한 나무부터 찾아야겠네요”

“아!!! 이곳은 눈과 비가 자주 내려서 최대한 종이가 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급하게 말하자 에단은 더욱 의욕을 잃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바로 찍어내기만 할 줄 알았는데……. 일이 어렵게 됐군요.”

“오늘은 멀리서 오셨으니, 푹 쉬고 내일부터 조사를 시작하죠”

그의 실망감 가득한 얼굴에 내가 급히 말하자 에단은 푹 숙인 머리로 힘들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의 방이자 작업실에서 레이와 나, 엠마가 나와 다시 응접실로 내려갔다.

엠마는 식당에 들러 나와 레이가 먹을 수 있게 음식을 가지고 왔고, 레이와 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을 했다.

“수도에서 종이를 공수해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이 어렵게 됐네요”

“안 그래도 오늘 오후에 재료를 물색하러 다녀야 될 거 같네요”

“레이님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데……. 혼자서 절대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나의 말에 레이가 말없이 차를 들이켰다.

그의 행동에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그는 혼자서 갈색 각이었다.

“혼자서 갈 생각이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레이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곤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나마 같이 다니던 기사 2명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엠마가 뒤에서 우리의 대화가 끝나자 어두운 얼굴로 말을 꺼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내가 뒤를 돌아 엠마를 바라보자 그녀답지 않게 머뭇거리며 말했다.

“요즘 이상하게 악몽을 계속 꿉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저 꿈이려니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수도에서 급하게 편지가 왔습니다”

「칼리아님이 성을 비웠다는 소식이 은밀히 퍼졌는지, 에리엘 후작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대한 빨리 성을 비우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 모니알로 최대한 빨리 병사들을 보내니, 그동안 어떻게든 버텨라 -아놀드- 」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상황이 아녔다.

[작품후기]

리수진님, Aka01011님, 슌마망님, ㅋㅎㅎㅎ님,Drill님,숙취에는견디셔님, 킬리언데이지님, 비안원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 감사합니다.

칼리아가 안나온지 꽤 됬네요;;;

곧 나올 예정이니, 기다려주세요~

재밌게 읽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새로 집을 짓고 있는 땅 중간 부분엔 커다란 회관을 만들어 놓았다.

그 회관을 기준으로 시장을 형성하자는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이었다.

지어진 순서로는 끝까지 거리가 너무 멀고, 재료를 운반하기에도 불편했기에, 생각해 낸 방법이기도 했다.

또한, 날씨의 변덕으로 갑자기 내리는 눈과 바람을 피하기에 적절했기에 다들 동의했다.

지금은 건축재료들이 구석에 쌓여 있는 이곳에 모인 이들은 나와 엠마, 계속 밖에서 일을 도운 루크, 우디, 작업반장, 솝이 호출을 받고 급히 모였다. 레이는 몇 날 며칠을 밤샘으로 일하더니, 결국 쓰러졌다. 결국, 그를 뺀 다른 사람들만 모였다. 수도에서 보낸 편지를 테이블에 놓고, 회의가 시작되었다.

“갑자기 에리엘 후작이라니?”

우디도 어이가 없었는지 비웃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자, 다들 한숨을 쉬었다.

“빼먹을 대로 다 빼먹고 버리더니, 지금 와서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엔 이제 돈 될만한 게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일 텐데…….”

“이제 좀 살 만해졌더니, 또다시….”

한층 더 우울해진 분위기였다.

“지금 그가 왜 이곳에 오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인명피해가 없을지 의논해야 합니다”

나의 말에 다들 뒤통수를 맞은 표정이었다.

그리고, 우울했던 분위기에서 결의에 찬 얼굴들로 가득했다.

“루나님 말씀이 맞네요. 우선 살아남고 봐야죠”

엠마가 나의 말에 동의하자 우디가 말을 이었다.

“이곳의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곳의 구조는 성문을 빠져나가야지 마을로 갈 수 있으니, 이곳이 뚫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에리엘 후작이 빨리 온다고 해도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그전에 함정을 설치해 놓고, 기사들을 성에 배치해 놓아야겠군요”

“집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로 알고 있으니, 마을 사람들부터 이곳으로 대피시키죠”

나의 말에 작업반장도 말을 이었다.

가난하지만 평화롭게 지낸 이들이 피해 보는 건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

“거의 완성되었지,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곳을 대피소로 사용해야겠군요. 내일 아침 일찍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알리는 게 좋을까요?”

수심 가득한 엠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은 공작님의 땅이라고 하나 이곳의 본래 주인은 그들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가만히 우리의 이야기만 듣고 있던 루크가 한마디를 보탰다.

“저도 루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물론 처음은 우왕좌왕하겠지요. 하지만 우린 루나님이 오시기전에도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아남았어요. 그들을 믿읍시다”

루크의 말에 엠마가 안심한 듯 보였다.

그제야 회의의 방향이 제대로 잡혔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할까요?”

“우선 성에 쌓아놓았던 식재료들을 기사분들을 남기고, 이곳으로 옮기도록 하죠. 성에서 작업하던 모든 것들도 되도록 빨리 옮겨야겠네요. 그건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면 좋을 거 같고....에리엘 후작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는 건 아무래도 우디와 솝이 하는게 좋겠어요.”

“루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디가 말하자 지금까지 대화에 참석하지 않았던 솝이 말했다.

“제가 우디님과 같이요?”

의아해하는 솝에 다시 말했다.

“아무래도 성 앞쪽에 함정을 설치하는 일은 우디에게 지시받아 솝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솝의 능력을 많이 보았다. 그의 기술력과 빠른 행동들을 난 높이 사고 있었다.

분명 그곳에서도 그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것이라 믿었다.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루크님과 반장님은 지금 이곳에 부족한 것들을 빨리 보수하는 게 좋을 거 같군요. 수도에서 지원병력이 올 때까진 버텨야 할 텐데…….”

“결국, 시간 싸움이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겠군요. 아직 공작님의 소식을 알 길이 없으니, 우선 지원병력이 올 때까지 버팁시다.”

“이곳 날씨를 누구보다 견뎌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을 함락하지 못한다면, 저희가 무조건 이길 겁니다”

결의를 다지며 우리는 회의를 급히 마무리했다.

그리고 다시 성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새벽….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시간,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고요해야 할 시간에 성은 시끄러웠다.

엠마와 난 성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대피시키기 위해 움직였다.

일단 모든 사람을 불러 보았다.

급한 연락에 자고 있던 모든 이들이 헐레벌떡 성안으로 모였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에리엘후작의 군대가 쳐들어올 겁니다.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우린 이 성을 버릴 겁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이곳에 쌓아두었던 식량, 물품들 전부 빨리 옮길 겁니다.”

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모든 사람이 웅성거리며 동요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에리엘 후작이 왜 쳐들어와?”

“이 땅은 버린 지 오래잖아”

“또 우리를 못살게 굴려고 하는 건가?”

그들의 시끄러운 소리에 내가 크게 소리쳤다.

“이렇게 있을 시간이 없어요.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그때까지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엠마는 그 와중에도 사람들에게 착실히 지시하고 있었다.

나 또한 그 사이에서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있었지만, 사실은 무섭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살고 싶었다. 그건 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성이 빠르게 비워지자 내가 쓰던 방에 올라갔다.

급히 챙겨야 할 물건들을 보다 어제까지만 해도 열심히 읽고 있던 책들을 발견했다.

이것을 챙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우디가 문을 두드리곤 내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책은 제가 챙기도록 하죠”

이번에도 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우디가 책상에 있던 책들을 싸기 시작했다.

한꺼번에 옮기기엔 힘들었는지 침대 위에 있던 이불로 책들을 싸곤 한 손으로 쉽게 들고 밖으로 나갔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당황할 새도 없이 복도를 나와 벌써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는 우디를 따라나섰다.

“책은 제가 옮길게요. 우디는 다른 사람들을 챙겨요”

“이 정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휴……. 책을 옮겨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도와주시니…….”

“공작님께선 예전에 그러셨습니다. 과거를 잊은 자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이 책은 이곳의 역사 아닙니까. 당연히 챙겨야죠”

우디의 말에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작품후기]

리수진님,파괴소녀3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 감사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

5화 시작

처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던 사람들도 차츰 이성을 찾았다.

그리고, 엠마와 함께 성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기 시작했다.

동굴에서 사용하던 수레까지 동원되자 일의 속도가 붙었다.

우디도 솝과 기사들을 성 밖으로 나가 무언가 만들고 있는 듯 보였다.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내가 가봤자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었다.

어느 정도 내 방에 있던 짐들을 옮기자 마을로 향했다.

작업반장은 사람들을 데리고 열심히 일해 온 덕분인지 어느 정도 마을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작은 집들은 이미 완성이 되어,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인원이 많은 큰집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가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보던 일반적인 집 형태를 생각했었지만, 이곳 사람들은 둥근 지붕의 형태로 만들어 눈이 쌓일 수 없도록 만들었다. 또한, 그 둥근 지붕 가운데 굴뚝도 네모난 모양이 아닌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 재미난 모양에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돌아다니자 예전에 만났던 바트가 작은 집에서 나왔다.

바트는 곧 나를 발견했는지 환하게 웃으며 나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루나님 오랜만에요~”

“바트 잘 지냈니?”

소년은 더욱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루나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옷도 따뜻하고, 손도 다칠 일도 없고, 무엇보다 집이 마음에 무척 들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 놀러 오실래요?”

처음엔 자랑하듯 말하던 소년은 말을 할수록 머뭇거리며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의 수줍음에 귀엽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갈 수 있지”

소년은 다시 밝아진 모습으로 말을 했다.

바트의 집은 정말 아담했다.

작은 거실 겸 주방, 그리고 아궁이가 보였다.

그래도 사람 사는 집이라 이것저것 꾸며놓은 것을 보니, 바트를 닮아 귀여웠다.

바트는 아궁이 위에 올려두었던 주전자를 꺼내 차를 우렸다.

그리고 테이블에 올린 후 나를 불렀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구경을 마친 난 테이블에 앉기 위해 의자를 빼냈다.

거기엔 귀여운 토끼 인형이 이미 앉아 있었다.

“음?”

토끼 인형을 발견한 바트가 화들짝 놀라며 급히 토끼 인형을 치우고 얼굴이 붉어져 말했다.

“이…. 이건 동생이 가지고 노는 건데…. 왜 거기에….”

“동생이 있었니?”

“네. 엄마랑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바트의 말에 분위기가 어색해져 말을 돌렸다.

어색한 분위기를 만회하기 위해

“집은 어때? 살만해? 살아보니 불편한 건 없고?”

“이렇게 따뜻한 집은 처음이에요. 에바도 맨날 달고 살던 콧물도 안 나고,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바트가 내어준 차를 홀짝거리며 의자에 앉자 바트가 다시 말했다.

“따뜻한 집도 루나님의 생각이었다고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단 인사를 하고 싶어서…. 지난번에도 인사를 제대로 못들인 거 같아서 작지만 이렇게 대접 한 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바트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지만, 그의 마음이 참 기특했다.

“그렇게 생각해 주니 되려 내가 고맙네”

“마을 어른들은 어린 저희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세요. 특히….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다 보니, 더 힘들었거든요. 그런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부드러워진 바트의 손을 바라보며 같이 웃어주었다.

“별것도 아닌데 뭘……. 그보다 지금 밖이 어수선하니까 절대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되도록 집에만 있고, 식사시간에만 회관에 동생 손 꼭 잡고 오고”

“안 그래도 에리엘 후작 때문에 이 소동이라고 들었어요”

“휴……. 그러니까……. 괜한 사람들이 다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럼 난 이만 가봐야겠다. 차 잘 마셔서 다음에 또 보자”

바트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다시 회관으로 들어섰다.

여기저기 성에서 가지고 온 물품들로 여기저기 어수선했다.

사람들도 정리하느냐 정신이 없어 보였다.

“루나님!”

마을의 한 여자가 나를 알아보고 곁으로 왔다.

“아…. 안녕하세요”

“전, 샬럿이라고 해요. 밥의 안사람입니다”

“밥이요?”

처음 듣는 이름에 반문하자 샬럿은 웃음을 터트리며 말했다.

“지금 여기 작업반장으로 계신 분이요”

“아……. 제가 이름은 처음들이어서……. 실례했네요.”

“아니에요.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보다 반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괜찮아요”

소탈한 그녀는 손까지 저으면서 웃었다.

“제가 이곳의 식재료 담당을 맡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쪽이 루나님 방으로 정했으니, 이곳에서 쉬시면 돼요”

그녀가 안내한 방은 성에서 넓게 쓰는 방만큼 넓었다.

혼자 이런 호사스러운 방은 필요 없었다.

방을 나가려던 샬롯을 황급히 붙잡고 말했다.

“이렇게 큰방은 필요 없어요. 무엇보다 전 회관에서 지낼 생각이 아닌데요”

“네? 엠마님은 회관에 루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라고…….”

“지금 엠마님은 어디 계시죠?”

“창고에 물품을 확인하러…….”

그녀의 뒷말을 듣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도착한 창고에는 엠마님이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엠마님!!!”

“아 루나님, 방은 마음에 드십니까?”

웃으며 말하는 엠마의 손을 붙잡고 급히 말했다.

“할 말이…. 할 말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창고의 위치를 물어본지라 거칠게 숨을 내쉬며 엠마를 붙잡자 엠마는 손에 든 종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무 그늘로 갔다.

거칠게 쉬던 나의 숨소리가 어느새 차분해지자 엠마가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전 전쟁이 일어나면 회관에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같이 성에 있겠습니다.”

엠마와 루크는 에리엘 후작이 쳐들어와도 성에 있겠다고 했었다.

당연히 나도 그럴 생각이었고…….

“왜 루나님이 성에 계신다고…. 안전하게 회관에 계시는 편이 좋을 겁니다”

“아니요. 전 성으로 가겠습니다”

엠마는 단호한 나의 말에 한숨을 쉬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미 충분히 저희를 위해 애쓰셨잖아요. 그곳에 가면 지켜줄 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이 사태에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성을 지켜야죠”

“공작님께서 아신다면 저희를 크게 혼내실 거에요”

“이렇게 위급한 사항에도 돌아오지 않으시니, 괜찮습니다. 만약 도셔도 절대 엠마 님이 혼나는 일은 없도록 할게요”

“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엠마는 그제야 체념했다.

[작품후기]

리수진님,Aks01011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 감사합니다.

내년에 만나요~ㅎㅎㅎ

^^^

5화 시작

일주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다.

그동안 앓아누웠던 레이가 일어나 우디와 솝을 도와 성 밖에 함정을 설치하는 작업에 아이디어를 보탰다.

점점 에리엘 후작이 도착한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칼리아에게선 소식이 없었다.

어른들은 시간이 갈수록 긴장된 얼굴과 두려운 얼굴로 경직되어 있었고, 어린이들은 그런 어른들의 모습에 어리둥절했다.

우디는 평소와 같이 농담을 건네며 웃었다. 나름대로 험악한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그의 노력이기도 했다.

나 또한 지난번 읽다 만 역사서를 꺼내 읽으며 긴장을 풀었다.

「숲에서 길을 잃은 레일은 앞으로 계속 걸어갔지만, 점점 더 숲 안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때 그들의 앞에 나타난 이는 털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잔뜩 경계한 모습의 사람이었다. 반가운 레일은 말에서 내려 여기가 어딘지,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하자 근처에 있던 나무 위에서 부스럭거리며 나뭇잎이 떨어지자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화살이 이쪽을 향했다. 놀란 레일은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리며 정중히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요?”

가운데 서 있던 여자가 칼을 겨눈 채 말했다.

“그러는 당신들은 누구지? 여긴 우리가 사는 숲이다. 외부인은 더 이 안으로 갈 수 없다”

“사는 곳이라고?? 이 숲을 포함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베스리 모니알이오. 숲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말은 못들었는데….”

레일의 말이 끝나자 일제히 털가죽을 입은 사람들이 비웃었다.

“다스린다고? 누구 허락을 받고? 이 숲은 원래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사는 곳이다. 고작해야 얼마 안 된 너희가 주장하기엔 억지 아닌가?”

여자가 비웃으며 말하자 레일은 그녀의 비웃음에 기분이 나빴지만, 그녀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뭐? 몇십 년? 그렇다면 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군…. 모니알에서 사는 사람들 모두 이 숲 또한 모니알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오. 이 사실을 얼른 가서 말씀드려야겠군요.”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우리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대들만 조용히 입 다물어준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을시 여기서 모든 이들을 사살하겠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활시위가 더욱 당겨져 레일을 겨누자 레일이 급하게 말했다.

“우리도 문제를 일으킬 마음은 없소. 그저 숲에서 나가고 싶은데, 길을 잃은 거뿐이오.”

“그렇다면 우리가 도와주지”

그녀가 손을 들자 나무 위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가 앞장서서 말했다.

“나를 따라와라. 이 숲은 미로처럼 되어 있어 밖으로 나가는 게 쉽지 않지!”

레일의 일행은 그녀의 뒤를 따라 걸었다.」

“음? 숲 안쪽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나 보군”

책을 읽다가 발견한 사실에 혹시 엠마가 숨기고 있는 사실이 이것인가란 생각이 들었다.

때마침 문을 두드리며 누군가 찾아왔다.

엠마였다.

‘양반은 못 되는구나…. 하긴 여긴 양반이 없지’

시답지 않은 생각을 하며 자세를 바로 했다.

“무슨 일인가요?”

“땅 울림이 심상치 않아요. 에리엘 후작의 군대가 오고 있는거 같군요”

“보이진 않고요?”

“눈발이 심하게 날리고 있어서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대로라면…. 내일 아침때쯤이면 도착할 거 같군요”

“준비해야겠네요.”

나의 말에 엠마가 머뭇거렸다.

“정말 마을로 갈 생각 없습니까?”

“왜 그러세요. 저도 여기 있겠습니다.”

“제가 안심이 안 돼서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아 물어 볼 것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역사서 초반에 나온 미지의 숲 안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역사서는 어떻게 찾아내셨어요?”

“음……. 도서관 구석진 곳에서?”

“바쁘신 와중에도 찾아낸 걸 보니…. 궁금한 게 있었나 보군요”

“네 아무래도 칼리아님이 돌아오시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려서요”

“그것이 역사서를 찾아보는 것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서요?”

“무역과 광산만 발전했던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전하도 이상하고, 칼리아님도 벌써 돌아오셨을 분인데 아직 오지도 않는 것도 이상하고, 자꾸만 드는 생각에 찾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나는 그동안 생각했던 이상한 점을 엠마에게 말했다.

엠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역시…. 똑똑한 분은 다르네요. 칼리아님이 오시면 말씀해 드린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더 숨기는 것도 힘들겠군요.”

“시간이 없으니, 요점 말 말해주세요. 나머진 일이 끝나고 듣도록 하죠”

내가 엠마를 의자에 앉게 하고 잘 들을 준비를 하며 말했다.

엠마는 크게 숨을 내쉬고, 빠르게 말했다.

“그들의 이름은 체로키 부족입니다. 모니알이란 이름이 붙기도 전에 미지의 숲 안쪽 깊은 곳에서 사는 이들이지요. 공식적으로는 숲 사냥꾼이 발견한 거로 알려졌지만, 원래는 레일 영식이 마주쳤지만 묵인했기 때문에 후에 알려지죠. 그들과 모니 알을 놓고 싸우기도 수십 번…. 그러다 레일과 체로키 부족의 부족장의 딸 미셸과 혼인을 하며 잠정적으로 휴전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은 외부인에게 자신의 부족을 알리는 것을 꺼려 미셸은 모니 알에서 살고 나머지 부족민들은 여전히 숲 안쪽에서 살아 대부분 사람은 그들의 존재를 몰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그들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리고, 체로키 부족은 워낙 체술이 뛰어나고, 사냥을 기반으로 하는 부족이라 전하께서 어린 시절 체로키 부족에게 맡겨져 사냥, 검술, 활 쏘는 방법을 배웠어요. 가끔 공작님도 같이 오셔서 배웠고요. 공작님이 지금 자리를 비운 것도 그들을 만나러 간 것이고요”

“역시…….”

“공작님도 부족을 만나고 온 뒤에 모든 걸 설명할 거라며 모른 척해달라고 하셔서….”

“엠마님을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연락이 오지 않는 걸까요?”

“그건 저도 잘…….”

“휴…….”

다시 무거운 한숨이 나왔다.

“우선 우리부터 살고 봐야죠.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가죠”

나는 엠마에게 감사를 표했다. 엠마는 손을 저으며 아니라고 했다.

“지난번에 룬이 자라고 있던 동굴 안의 환경은 어떻게 됐나요?”

“레이 님이 그곳은 안전하다고 하더군요.”

“일부 식량도 그쪽으로 옮겨 놓았으니, 어린아이들은 그쪽으로 대피하도록 하죠”

“좋은 생각이네요”

나와 엠마는 마을로 향해 이 사실을 말하자 다들 찬성했다.

10살 미만의 아이들을 데리고 몇 명의 어른들과 함께 동굴로 아이들을 대피시켰다.

나오면서 동굴의 입구는 커다란 나뭇입과 바위로 가려버렸다.

작업을 마치고 성으로 돌아오자 드물게 굳은 얼굴로 우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모습에 황급히 성밖을 바라보자 선두에 말을 탄 에리엘 후작과 그의 군대가 보였다.

[작품후기]

이슬공주연이님 후원쿠폰 감사합니다 ㅜ

리수진님,아리cat님,AshLee님,행복과행운7님,귀여운서니공주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관심,선작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네요~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되셨음 좋겠네요.

초반 글에서 맞춤법과 허술한부분, 다듬지 못한 문체때문에 엄청난 코멘트......

줄거리 위주로 지금 쓰고 있지만....계속된 코멘트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작품을 다시 수정해서 올릴까..... 고민중입니다 ㅜㅜㅜ

부족한 저의 맞춤법 때문에 ㅜㅜㅜ 정말 죄송합니다.ㅜㅜㅜ

^^^

5화 시작

선두에 서서 신나게 달리고 있는 사람은 에리엘 후작이 맞았다.

멀리서 봐도 온통 금으로 도배되어 반짝거리는 갑옷을 입고 휘두를 수나 있을지 걱정되는 칼을 들고 오고 있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려는지……. 과연 그자가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인지….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녔다.

성문이 뚫릴 가능성을 생각해 혹시라도 모를 인력을 배치해 두었다.

더 가까이 그들이 성 근처로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들이 다가오는 순간도 긴장되긴 마찬가지였다.

드디어 그들이 성 가까이 다가오자 커다란 함성과 함께 지진이 난 거 같은 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마침 레이와 솝이 설치해 두었던 함정들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또다시 눈이 내려 새하얀 들판에는 그저 하얀 눈밭이었기에 아무 의심 없이 달려오다 커다란 구멍 안으로 에리엘의 사람들이 사라졌다.

구멍 안으로 사라지지 않은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도 했다.

그 모습에 힘차게 줄을 맞춰 달려오고 있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다.

우디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활을 쏘라 지시했다.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자 그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활을 맞고 쓰러지자 말들은 일제히 혼비백산해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그나마 적게 다친 사람들을 밟고 다녔다.

함정으로 파놓았던 구멍도 얼마나 깊은지 속이 보이지 않았지만 솝의 말로는 아래에 창살을 촘촘히 박았다고 했다.

그래서 구멍에 빠진 이들이 기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끔찍한 상황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일방적인 우리들의 승리였다.

에리엘 후작은 이런 상황까진 생각하지 못했는지, 자신만만하게 있던 표정은 사라지고 이리저리 날아오는 화살과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함정을 피해 정신없이 왔다갔다했다.

곧 그는 살아 있는 사람들을 방패로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했다.

처음 그와는 다른 모습이였다.

그의 군대는 어느새 3분의1만 남아 그를 지키고 있었다.

많은 인원이 줄어들었지만 무슨 생각으로 에리엘 후작은 계속성을 향해 오고 있었다.

“이상하군요. 저리 목숨을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닌데….”

우디가 이상하다는 듯 말하자 나도 동참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가 있는 거 같아요”

어딘가 초라해 보이긴 하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에리엘 후작은 연신 뒤를 쳐다보며 무언가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곧 그 궁금증은 풀렸다.

저 멀리 보이는 수십 명의 군대가 이쪽을 향해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오고 있었다.

“후작이 기다리고 있던 것이 저거군요”

내가 말하자 우디가 큰소리로 지시했다.

“무기를 재정비해라!!! 한 놈도 들여보내선 안 된다!!!”

우디의 말에 활시위를 당기는 소리가 더욱 빨라졌다.

솝은 사람들을 데리고는 어딘가로 사라졌다.

“루나님 여긴 위험하니, 성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엠마가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며 말했지만 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여기서 저도 돕겠습니다. 비록 활을 쏘지 못해도 잡일 정돈 할 수 있어요”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여기서 함께 있는 게 나았다.

물론 이들에게 방해가 될진 모르지만…….

이리저리 파놓은 구멍을 피해 앞으로 오던 후발대 기사들은 우리가 던지는 활에 머뭇거렸다.

그리고 뒤쪽에서 커다란 방패를 든 이들이 앞으로 나왔다.

화살이 쏟아지는 비를 방패를 든 채 성문까지 도달했다.

성문을 부수기 위해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울림은 성 전체에 울렸다.

사람들을 데리고 사라졌던 솝은 무언가 하나씩 손에 들고 나타났다.

그리고 성문을 부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쏘았다.

묵직한 쇠가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맞췄다.

화살로도 뚫을 수 없었던 방패도 속수무책이었다.

하나둘씩 성문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을 향해 다 같이 나무로 만든 총을 쏘기 시작했다.

최대 연속으로 쏠 수 있는 총알은 3개였기 때문에 옆에서 나와 엠마가 총알을 죽어라 날랐다.

그 많은 인원을 감당하기엔 우리의 인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곧 성문이 뚫리고 다시 한번 함성과 함께 에리엘 후작이 뒤쪽에서 칼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앞으로 전진!!! 전진하라!!! 우리의 목표는 루나 벨 브라이트다!!! 반드시 생포해라!!! 나머진 다 죽여도 상관없다”

그의 목적은 나였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나는 휘청거렸다.

“왜……. 왜 나를…….”

“아무래도 공작님이 없는 틈을 노려, 인질극을 하려고 하는 거 같군요. 루나님 이젠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엠마가 다급하게 말하며, 나를 잡아끌었다.

멍하니 그저 엠마가 끄는 대로 따라갔다.

“죄송해요. 저들의 목적이 저일 줄…….”

“아닙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도망가는 게 급해요”

울먹거리는 나의 말에 엠마는 계속 성 깊은 곳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리고는 치마 안쪽의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훅 들어왔다.

작게 기침을 하자 엠마가 다시 나를 끌며 앞으로 나아갔다.

“이곳은 에리엘 후작도 모르는 방입니다. 여기 계시면 나중에 꼭 제가 찾으러 오겠습니다”

“더 제가 있어봤자 방해만 될 테니……. 여기 조용히 숨어 있을게요. 엠마 님도 몸조심하세요”

엠마는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이곤 다시 문을 잠그고 사라졌다.

문에 귀를 대고 있으니, 엠마가 황급히 뛰어가며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시 커다란 물건들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했다.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방은 사용하지 않은 오래된 방인 듯했다. 여기저기 거미줄과 먼지가 잔뜩 쌓여있었다.

엠마도 이방은 관리하지 않은 듯 보였다.

밖은 정신없을 텐데 혼자 이곳에 앉아 있으니 괴리감이 느껴졌다.

지금까지 이 세계에 와서 나름 유능했다고 생각했던 점이 부끄러워졌다.

내 몸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우디에게 호신술을 배우고 있었지만, 고작해야 기초체력을 늘리다 끝이 났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육탄전과 다름없는 전쟁은 서로 살기 위한 몸 무림이었다.

이곳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겁이 났다.

[작품후기]

리수진님, 행복과행운7님,아리cat님,푸른달의여신님,퓨라스님,샤를로테움님,AshLee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ㅜㅜㅜ

부족한 글임에도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밖과 차단된 공간에 있기를 몇 시간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자꾸만 안절부절 왔다 갔다 했다.

꽤 먼 곳이었는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안 좋은 생각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때 멀리서 이쪽으로 오고 있던 사람들의 수만 해도 우리가 밀렸다.

바깥과 전혀 닿지 않은 이 방에 쌓아 놓은 상자를 여기저기 보며 바람이 들어오는 곳을 확인했다.

작은 바람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곳을 확인하자 그 앞에 쌓여 있는 상자를 치웠다.

아주 작은 창문이 보였다.

차마 창문을 열진 못하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창문을 대충 입김으로 불자 먼지가 날리며 기침이 나왔다.

“콜록콜록”

연신 기침을 하며 대충 옆에 있던 커튼으로 창문을 닦자 밖이 조금씩 보였다.

더러운 커튼으론 더 깨끗해지지 않자 이번엔 손으로 열심히 창문을 닦았다.

손이 더러워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환해진 창으로 밖이 보였다.

찰싹 달라붙어 밖의 동태를 살폈다.

성안의 어딘가 불이 났는지 여기저기 환했다.

살짝 티 나지 않게 창문을 열었다.

오래된 창문은 듣기 싫은 소리를 내며 열었다.

순간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지만, 창밖으로 들리는 소리에 금세 잊어버렸다.

바깥은 혼란 그 자체였다.

우디가 선두에 서서 지휘하며 더 이상 성안 건물로 들어올 수 없게 막고 있었다.

나머지 기사들도 힘겹게 막아서고 있었다.

우디의 칼은 멀리서 보기에도 새빨간 피로 물들어 원래의 색을 잃었다.

그런데도 태연히 앞에 있는 사람들을 베어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비명과 사람이 죽어가는 소리에 넋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러다 사람을 방패로 제일 안전해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있던 에리엘 후작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이번엔 큰소리로 위치를 말하지 않고 주위에 서 있던 기사들에게 나를 손으로 가리킨 후 나를 보고 씩 웃었다.

기사들은 후작이 가르친 곳을 바라보곤 급히 움직였다.

후작을 에워싸고 있던 기사들이 몇 명 빠져나가 우디쪽으로 붙자 우디가 더 힘겨워 보였다.

결국, 수적으로 밀린 우디는 몇 명을 성안 건물로 보내고 말았다.

당황한 나는 얼른 그 방을 뛰쳐나와 복도를 달렸다.

무조건 잡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거란 생각에 앞도 안 보고 미친 듯이 달렸다.

어느 창고에 들어간 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구석진 곳에 주저앉았다.

바깥에서는 요란스럽게 나를 찾고 있는 건지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다.

긴장된 채 혹시라도 숨소리가 들릴까 봐 입까지 틀어막고 그들이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어지럽게 들릴 때 문이 열었다.

‘달칵’

그 어떤 소리보다도 문 열리는 소리는 크게 들렸다.

그 문으로 에리엘 후작의 기사들이 들어왔다.

“찾았다”

쉽게도 나를 찾은 그들은 쉽게도 나를 끌고 에리엘 후작의 앞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오랜만이군”

사방이 엉망진창인데도 여유로워 보이는 에리엘 후작은 날 보고 웃으며 말했다.

내가 끌려오는 모습을 봤는지 우디가 급하게 달려오다 뒤에서 오던 공격을 미처 보지 못하고 팔뚝을 베였다.

그것을 시작으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오자 우디는 여기저기 베이며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 모습을 끝내 지켜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뜨며 에리엘 후작을 노려보았다.

“나한테 무슨 용건이지?”

존대해줄 가치를 못 느꼈다.

제발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라며 당당한 척 말했다.

“요즘 공작이 애지중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때맞춰 자리를 비웠다는 말도 들었고, 거기가 내가 잘 알고 있는 이 모니 알에 머물고 있다는 말도 들었고….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지”

“그게 이유라고?”

어이없다는 듯 말하자 에리엘 후작이 비열하게 웃었다.

“계획대로라면 조금 더 후에 일어날 일이었지만, 이렇게 날 위한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그 상황을 이용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내가 그리 멍청하진 않거든. 그 잘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리고 공작의 재산 또한 내 것이 되겠지. 하하하”

우디 마저 무릎을 꿇고 나의 옆에 같이 붙잡혀 있자 우리의 사람들은 전의를 잃고 포로가 되었다.

“이 얼마만의 모니 알인가…. 이제는 쓸모없는 땅이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데려다 노역에 사용하면 그것마저도 좋겠지. 마을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와라!!”

“네”

에리엘 후작이 명령을 내리자 기사들이 빠르게 움직였다.

에리엘 후작은 다시 내 쪽으로 걸어와 내 얼굴을 붙잡고 이리저리 관찰했다.

“흠…. 그리 특출난 미인은 아닌데…. 그 애송이가 푹 빠져 있다지. 내 첩으로 들여 오늘 밤이라도 예뻐해 주마 하하하”

그의 질 나쁜 말을 들으며 분노가 일어났지만 묶여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막으려 입술을 꾹 깨물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떨고 있는 모습이 아주 마음에 드는구먼”

에리엘 후작의 더러운 목소리에 결국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 묻은 내 침을 거칠게 닦고는 붉게 달아오른 채 손을 들어내 빰을 내리쳤다.

‘찰싹’

“루나 님!!!!”

우디가 옆에서 내 이름을 황급히 부르며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어깨를 뒤에서 눌러 다시 무릎을 꿇었다.

평소에 훈련이라곤 하지 않은 배 나온 아저씨 체형의 에리엘 후작이라도 남자의 힘인지라 나는 힘없이 옆으로 쓰러졌다.

볼을 제대로 맞았는지 입안에서 쇠 맛이 느껴졌다.

“고얀 년!!! 얌전히 있었다면 첩으로 삼아주려 했다만, 오늘 밤 니들이나 가지고 놀다가 죽여라”

옆에 있던 기사가 닦으라고 주었던 손수건을 땅에 버리고 씩씩대며 말했다.

이렇게 맞아본 건 처음이라 너무 아파 정신이 없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다시 한번 지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땅이 울릴 정도로 큰소리였다.

[작품후기]

리수진님,카나오님,행복과행운7님,soogyung님,숙취에는견디셔님,헤윰s님,빅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 감사합니다.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레이와 솝은 성벽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운반하던 중 포로로 일찍이 붙잡혔다.

레이는 귀족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어서 에리엘은 레이만은 귀중히 가두어 두었다.

분명 비싼 값에 팔아넘길 게 분명했다.

무릎을 꿇고 있어서 성 밖이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만은 확실하게 들렸다.

혹시 이번에도 에리엘 후작의 기사들인가…….

성안 앞마당은 여기저기 불에 타고 있는 시체와 나무 때문에 지독한 냄새를 풍겼다.

욱신거리는 볼 때문에 도저히 좋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근처에서 호시탐탐 나를 노리는 불쾌한 눈에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눈에 힘을 주었다.

점점 다가오는 소리에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후작의 기사들이 아니었는지, 성안으로 다가올수록 비명이 들렸다.

허겁지겁 도망쳐 온 기사 하나가 깃엘 후작의 앞에 엎드리며 말했다.

“기…. 기습입니다! 행방불명 된 공작이….”

이미 승리에 심취되어 있던 후작은 어디서 구한 것인지 와인을 마시다 화들짝 놀랐다.

“뭐? 그 자식이 왜? 분명 후작님이 처리했다고…. 빨리 나를 보호해라!!!”

우왕좌왕하게 움직이던 후작은 재빨리 기사들을 불러 자신을 보호하게 했다.

이미 갑옷까지 벗어 던진 후작은 손에 들고 있던 와인을 던지곤 허겁지겁 갑옷을 다시 입었다.

“혹…. 혹시라도 모르니 저것이 도망가지 않도록 단단히 감시해라!”

후작은 갑옷을 입다 말고 나를 가르치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에 기사들은 히죽거리며 나에게 붙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후작님”

비명과 함께 사람을 칼로 베는 소리까지 점점 크게 들리자 주변에서 마른 침을 삼켰다.

검을 잡는 손도 긴장감에 꽉 쥐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드디어 저 멀리 칼리아가 선두에 말을 타고 나타났다.

그의 모습에 기사들이 그에게 집중되어 하나같이 그곳으로 달려들었다.

칼리아는 끄덕하지 않고 말 위에 앉아 하나하나 베었다.

칼리아의 뒤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동물의 털로 만든 옷을 두르고 있었고, 검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동물의 뼈로 만든 둔기와 활을 들고 싸우고 있었다.

저들은 분명 책과 엠마에게 들었던 체로키 부족이었다.

그들은 여유롭게 에리엘의 기사들을 죽였다.

멀리서 말을 타고 활을 쏘며 이쪽을 향해 오고 있었고, 그 앞으론 둔기를 든 사람들이 기사들의 칼을 막아서고 있었다.

수가 밀리기 시작하자 나를 지키고 있던 기사들 몇 명이 눈치를 보며 앞으로 나서서 칼리아를 막아서기 위해 뛰어가자 나무 뒤에 숨어 있던 엠마가 조용히 접근했다.

내가 눈치채자 엠마가 입에 손가락을 대고 조용히 해달라고 신호하자 나는 고개를 작게 끄덕거렸다.

엠마는 조용히 기사의 뒤쪽까지 접근해 한 번에 뒤통수를 나무막대로 후려쳤다.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기사가 그대로 쓰러졌다.

엠마는 나에게 다가와 나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며 말했다.

“조용히 그곳에 있으면 들키지 않았을 텐데…. 어쩌다 들키신 거예요?”

“그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계속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다리려니……. 궁금해져서…. 상황이 거의 끝나가는 줄 알고…….”

호기심이 화를 불렀고, 오만이 나를 방심하게 했다.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한 것에 부끄러워져 고개를 푹 숙이고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엠마가 내 기어가는 목소리를 들었는지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그렇지…. 평소의 루나님 답지 않으셨네요”

“판단력이 흐려졌나 봐요. 우리가 무조건 이길 거라고 멍청한 생각을 했어요. 죄송해요”

“이미 벌어진 일…. 지금이라도 공작님이 나타나셔서 다행이죠. 얼른 자리를 피하죠”

“네!”

이번에는 엠마의 말을 듣고 빠르게 움직였다.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누가 되면 안 된다는 마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엠마의 손을 잡고 달려 숲속에 숨었다.

몸을 숨기고 나니, 그제야 내가 사라진 걸 알고 에리엘 후작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년이 없어졌다!!! 다들 뭐 하고 있던 게냐!!!”

호들갑다운 후작의 목소리에 안 그래도 우왕좌왕한 기사들이 더욱 혼비백산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나를 찾아다니는 듯했다.

그러다 칼리아의 사람들에게 당했는지 소리가 점점 사라져갔다.

하지만 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저 소리에 의존해 상황을 유추할 뿐이었다.

아까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몸을 땅에 붙이고 고개까지 푹 숙이고 숨어 있었다.

또다시 나를 찾기 위해 숲을 수색하는 소리가 들리자 침을 꿀꺽 삼켰다.

머뭇거리며 잠깐의 소리가 들리지 않더니, 그대로 팔이 들려 강제로 일어났다.

내 앞에는 우디가 서 있었다.

“이제야 찾았네요”

여전히 여기저기 찢긴 상처로 가득한 채 웃고 있는 우디의 모습에 나오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으신 거죠?”

나의 말에 우디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어 보였다.

“이젠 상황이 끝났어요. 고생하셨네요”

그러면서 손을 어딘가로 가르쳤다. 그곳엔 칼리아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피를 온몸으로 뒤집어쓴 그는 칼에 묻은 피를 털며 천천히 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다친 곳은?”

점점 가까워지자 여기저기 베인 곳이 보이는 그에게선 평소의 시원한 향이 아닌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그의 모습에 왠지 눈물이 날 거 같았다.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칼리아만 바라보고 있자 칼리아가 내 볼에 시선이 닿았다.

그의 인상이 한순간에 구겨졌다.

“누가 그랬지?”

본인은 피를 뒤집어쓰고 있으면서 고작 나의 볼 때문에 화를 내고 있었다.

이번엔 눈물을 참을 수 없어 본능적으로 그에게 뛰어들어가 안겼다.

그는 처음에 당황해 칼을 놓쳤지만, 곧, 나를 안아 주었다.

“걱정 많이 했지? 미안”

지금까진 목숨이 위험한 순간마다 칼리아가 옆에 있었다.

그래서 몰랐다. 진짜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도 그가 나타날 거라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믿고 있었나 보다….

그러다 방심한 탓에 정말 죽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겁이 났다.

에리엘 후작에게 따귀를 맞고, 붙잡히자 현실감각이 돌아왔다.

이런 상황을 만든 칼리아에 대한 원망과 정말로 어떻게 된 건 아닐까 하는 걱정,그러다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번은 보고 싶다는 생각, 그를 보자마자 결국 나는 인정했다.

나도 그를 좋아한다는 걸…….

[작품후기]

sfsdfsd님,잭잭3님,킬리언데이지님,다르하시안님,AshLee님,빅님,콩콩이큰언니님,숙취에는견디셔님,행복과행운7님,도용직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 감사합니다~

^^^

5화 시작

칼리아는 안 본 사이에 볼이 홀쭉해져 더욱 날렵해진 턱선과 여기까지 오면서 고생한 티가 났다. 그는 나를 한 손으로 안고, 한 손으로는 연신 얼굴에 튄 피를 닦아냈다.

그러다 문득 우리 둘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란 생각에 칼리아에게서 떨어졌다.

얼굴이 붉어져 괜히 얼굴을 만졌다.

삭막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핑크빛이 감도는 듯했다.

그 분위기를 깨고 그사이에 잡힌 에리엘 후작이 발악했다.

“놔라!!! 감히 누구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냐!!!”

크게 저항했지만, 뒤에서 그의 몸을 누르고 있던 기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후작님이 나를 이렇게 놔둘 것 같으냐!!!”

목청도 좋은지 쉬지 않고 떠드는 에리엘 후작에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우디는 그 앞에 서서 연신 에리엘 후작을 약 올렸다.

“아깐 나를 죽일 거같이 그러더니, 지금은 반대네. 거기! 무릎을 확실하게 꿇리도록!”

우디는 에리엘 후작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그러자 강제로 고개까지 푹 숙어진 에리엘 후작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야 조용해졌군”

에리엘 후작이 잡히자 제일 뒤쪽에서 싸우던 기사들은 슬며시 말을 타고 도망갔고, 맨 앞에서 싸우던 기사들은 에리엘 후작과 함께 잡혔다.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마을 쪽에서 함성과 함께 남자들이 농기구를 들고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이…. 이런 상황이 다 끝난 거 같군”

그들은 성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칼리아를 발견하자 바로 뛰어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저희를 대피시킨 것을 이해하지만 이 땅은 저희가 살던 곳이라…. 명령을 어기고 함께 싸우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미 상황은 끝났다. 하지만 이렇게 도와주러 온 마음은 잊지 않겠다!”

칼리아가 떨어져 있던 칼을 칼집에 넣으며 그들에게 말했다.

다시 엉망이 되어 버린 성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리하고, 에리엘 후작은 수도로 이동하기 전 지하감옥에 수감할 참이었다.

물론 반항은 심했지만 우디가 귀찮다며 목 뒤쪽을 가격하자 에리엘 후작은 기절했다.

“오늘은 모두 고생했으니, 저녁은 파티를 열도록 하지. 그동안은 쉬도록 해”

칼리아의 말에 다들 환호성을 질렀고, 엠마는 준비해야겠다며 주방 사람들과 사라졌다.

나 또한 긴장하고 있던 몸이 풀리면서 잠이 쏟아졌다.

무거운 걸음으로 2층의 내 방으로 가려는데, 저 멀리 복도에서 레이가 나왔다.

레이의 모습에 잠을 쫓으며 그의 앞으로 다가섰다.

“어디 다친 곳은 없죠?”

나의 말에 레이는 고개를 저으며 나의 얼굴을 뚫어지기 바라봤다.

정확하게는 볼을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황급히 손으로 가리며 웃었다.

“이건…. 조심성이 없어서……. 크게 신경 쓸 정돈 아니에요”

레이는 주머니를 뒤지며 꺼낸 동그란 통을 나에게 내밀었다.

얼떨결에 받아들고 레이를 쳐다보자 레이가 말했다.

“상처에 바르는 약입니다. 제가 만든 것이니 상처에 잘 들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쉬십시오”

레이도 피곤했는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내방으로 들어섰다.

순식간에 잠이 몰려 왔지만, 흙과 땀, 피로 범벅된 모습에 따뜻한 물을 받아 욕조에 앉았다.

여기저기서 비명을 질러대던 근육들이 풀어지는 거 같았다.

“후…….”

순간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끝났다’

모두를 긴장케 하던 전쟁이 끝이 났다.

생각했던 것과 책으로 보기만 했던 것과는 역시나 달랐다.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버틸 수 있을지 장담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두려웠다.

그러다 칼리아가 나타났다.

정말 그의 뒤로 후광이 비치는 그것 같은 등장이었다.

나도 모르게 안심이 되었다.

지금까지 그에게 의지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에게 많은 의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도 잊을 만큼 그 밖에 보이지 않았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생각에 따뜻한 수증기 때문에 붉은 얼굴에 더 피가 몰리는 게 느껴지자 두 손에 물을 모아 세수했다.

“아야”

상처가 났던 볼을 생각 못 하고 거칠게 문지르다 신음이 흘러나왔다.

이번 일은 겸손하지 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며 물 밖으로 나와 몸에 묻은 물을 닦고 옷을 갈아입었다.

노곤해진 몸으로 거울 앞에 앉아 레이가 주고 간 연고를 바르자 시원한 느낌과 따가운 느낌이 들었지만, 얼른 나아야 한다는 생각에 듬뿍 발랐다.

파티준비로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그동안 잘 생각에 침대에 몸을 누웠다.

곧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잠에 깊이 빠졌다.

루나가 잠이 들고 얼마 뒤 그녀의 방을 두드린 사람이 있었다.

‘똑똑’

하지만 깊이 잠이 든 그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보통 이럴 경우 대부분 사람은 그냥 갔겠지만 칼리아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침대에는 칼리아가 들어왔는데도 정신없이 자는 루나가 보였다.

칼리아는 조심스럽게 루나가 잠든 침대로 향했다.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을 때어주며 아까 자신에게 달려와 안기던 루나가 생각나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그러다 파랗다 못해 보라색으로 변한 볼에 시선이 가자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예전부터 에리엘 후작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런 일을 벌일 거란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루나에게까지 손찌검할 줄 몰랐다.

지금이라도 당장 지하감옥에 가 그를 루나가 받았을 공포와 충격, 아픔을 100배는 돌려주고 싶었지만, 더한 고통을 주기 위해 참았다.

루나를 깨우기 위해 들어왔지만, 너무 깊이 잠들어 있는 그녀를 보자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다 책상 위에 있는 책을 발견했다.

“음?”

책을 들어 읽기 시작하자 이곳의 역사서였다.

루나가 일어날 때까지 읽기 위해 의자에 앉았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엠마가 나를 찾아 루나의 방까지 찾아왔다.

호들갑스럽게 문을 두드린 엠마의 소리에 루나가 깨어났다.

“으아……. 잘자……. 헉 칼리아님”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던 루나가 나를 보고 놀라 손을 황급히 내리는 모습이 귀여워 웃으며 책을 덮고 말했다.

“이제 일어나야 할 시간이군. 파티가 시작될 거야”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방금?”

루나는 나의 말을 믿지 않는 듯 보였지만 엠마가 들어와 옷을 주며 빨리 갈아입으라 성화여서, 나에게 별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모습에 웃으며 손을 흔들며 방을 나섰다.

나 또한 방에 들러서 대기하고 있던 이들의 손에 맡겨진 채 준비가 끝나자 홀로 내려오자 다들 조용해지며 나를 맞이해 주었다.

곧 루나도 뒤따라 나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다들 내가 없는 동안 고생했다. 또한, 에리엘 후작을 막아주어 고맙고 나를 위해 주민 앞에 나서는 것을 꺼리는 부족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오늘은 모니알의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오늘 준비한 파티를 즐겨주길 바란다”

나의 말이 끝나자 다들 손뼉을 치며 축하했다.

곧 음악이 흘러나오자 다들 나와 춤을 추기 시작했다.

파티는 이제 시작이었다.

[작품후기]

도용직님,킴배신자님,행복과행운7님,SjCbx님,지니니니2님,curious111님,미소팡님,푸른장돌님,adias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추천,선작 감사합니다.

^^^

외전-그남자이야기1

칼리아 딘 베네치아는 어릴 때부터 무엇하나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자라왔다.

당시 왕권이 약했지만, 베네치아 후작은 그것과는 별개로 역사가 깊고, 사람들에게 선망받아오던 귀족 중 한 명이었다. 그런 그가 왕에게 힘을 실어주며 그의 아들인 칼리아가 공작이 되었고, 단숨에 나라에서 왕을 제외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자가 되자 너도나도 그의 눈에 들려고 노력했다. 그는 그것이 우스꽝스러웠고, 모든 것이 하찮게 느껴졌다.

남자들은 그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여자들은 그의 아내가 되기 위해 모여들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의감이 든 칼리아는 남쪽의 몬스터 토벌을 빌미로 한동안 전쟁터에서만 살았다.

반년을 남쪽의 전쟁터에서 보내다 돌아온 수도는 많이 변해있었다.

왕을 견제하는 세력이 나타났다.

클라우디아 후작….

그도 베네치아와 같이 오래된 귀족 중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욕심이 많은 그가 드디어 조금씩 발톱을 들어내기 시작했던 것….

사사건건 왕이 하는 일을 은밀히 훼방을 놓거나 다른 사람을 움직여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

다시 전쟁터로 향하기엔 칼리아도 왕도 불안했다.

결국, 수도의 치안을 맡는다는 핑계로 남았다.

매일 전쟁터를 휩쓸고 다니던 그가 종일 책상에 앉아 글자만 보고 있으니, 좀이 쑤셨다.

하지만 무엇하나 대충하는 법이 없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던 중 하급 공무원을 레이에게 배정한다는 말을 들었다.

지금까지 레이에게 배정된 사람 중 그만두거나 다른 부서로 옮기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말주변도 없고, 워낙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 그가 또 이번엔 무슨 핑계로 사람을 내칠지….

골치가 아팠다.

“이번에 들어오는 사람은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고 내보내. 나 때문에 그 큰 건물을 혼자 사용한다는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으니까…….”

레이는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런 그의 모습에 한숨을 쉬며 말했다.

“조금만 더 양보하면 될 것을….”

“그동안 제대로 된 사람을 보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참아봐, 그들에게 빌미를 줄 순 없으니까”

그래도 레이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마지못해 레이를 돌려보냈다.

얼마 뒤 레이에게 배정된 하급 공무원은 레이가 내치지도,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제야 자신의 조언을 잘 지켜주었다는 생각에 피식 웃었다.

하지만 곧 있을 무도회 때문에 바빠진 그는 잊어버렸다.

왕실의 보안 때문에 바빠진 그는 저택에 가지도 못하고 서류에 파묻히다시피 보내던 어느 날 그녀를 처음 보았다.

왕실의 명단을 작성하는 일은 하급 공무원들이 작년의 명단을 토대로 정리해서 올렸는데, 엉망진창으로 올리기 일쑤였다.

이번에도 다시 작성해야 될 거란 생각에 옆에서 보좌관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지고 온 명단을 슬쩍 바라본 보좌관은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바로 나에게 서류를 올렸다.

계속 아무 말 없이 서류만 보고 있자 화색이 돌던 보좌관의 얼굴이 다시 흙빛이 돌았다.

“완벽해”

“네. 완벽한……. 네?”

작년보다 정리가 잘되어 있는 명단이지만 고칠 데가 하나 없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던 보좌관은 칼리아가 내민 서류를 황급히 읽었다.

어디 하나 고칠 때 없이 한눈에도 잘 보이게 정리된 명단에 감탄했다.

“이번에 들어온 신입 공무원이 아주 완벽히 일 처리를 잘하나 봅니다”

“아까 제1 과학관 소속이라고 안 했나?”

“맞습니다. 거긴 레이 조우 남작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신기하네요”

“흐음”

칼리아는 그제야 이번에 레이가 자신의 말을 잘 지켜주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명단 밑에 작성자인 이름을 기억했다.

루나 벨 브라이트.....

왠지 자주 만날 거 같은 예감이 들었다.

무도회가 있기 전 레이를 불렀다.

그중 레이를 탐내는 자들도 올 것이 분명했다.

“무도회가 있을 동안 태자 저하 응접실에 있으면 될 거 같군. 내가 미리 말해 두었다”

“네”

레이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 들어온 하급 공무원이 일을 잘하더군”

“만나보셨습니까?”

“이번 무도회 명단 작성을 맡았더군. 일 처리가 아주 깔끔하고 좋아”

“지금까지 배정해 줬던 사람들과는 다르더군요. 일머리도 좋고, 융통성도 좋고, 무엇보다 저한테 추파를 던지지 않아서 좋습니다”

워낙 말이 없는 녀석이 그녀에 관해 길게도 말했다.

“그렇군. 이번엔 잘 데리고 있어 봐. 매년 너를 눈엣가시처럼 생각하는 이들에게 보여줄 겸….”

레이는 아까보다 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도회 당일 아침부터 시끄러웠다. 지방의 귀족들까지 올라오다 보니, 성 입구는 부산스러웠다.

하지만 이번 년에는 명단을 작성한 것과 같이 지역별로 나눈 뒤 초대장을 받자 그래도 작년보단 덜 부산스럽게 사람들이 빨리빨리 입장했다.

무난히 입장하는 그것을 더욱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이 벌어졌다.

성 입구 한가운데서 큰소리를 내며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인가 본데, 우리 저택으로 온 초대장을 받지 못했다.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웃음거리가 되게 생겼단 말이다!!!”

꽥꽥거리는 소리에 서둘러 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시마 클리프 갈리 남작님, 집사 이름이 알티 맞나요?”

“......그…. 그걸 어떻게……?”

“시마 클리프 갈리 남작님 북부지역에서 꽤 떨어져 혹시라도 초대장이 도착 안 했을까 싶어 집사에게 초대장을 받고 이렇게 서명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녀의 조곤조곤한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지금까지 이렇게 일 처리 하는 신입은 없었다. 매년 이와 같은 일은 발생했지만, 언제나 무릎 꿇고 사죄하는 신입들이 많았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행사와 같았다.

수도에서 이름을 날리고 싶지만, 딱히 재주가 없는 그는 북쪽의 작은 땅을 받아 늘 수도로 오고 싶어서 했다.

작년에도 난동을 부린 그의 얼굴은 꽤 유명인사였다.

“감히 니년이!!!”

결국, 남작은 화를 주체 못 하고 손을 올리는 걸 그의 손목을 잡았다.

“조용히 입장하시는 게 좋을 듯하오”

입꼬리만 살짝 올려 말하자 그는 황급히 사라졌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내리며 말했고, 그녀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할 일을 한 것뿐, 그보다 손에 든게 뭐지?”

“초대장을 받은 집사들의 이름과 서명입니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받아 들고 꼼꼼히 살폈다.

이런 식으로 꼼꼼히 일을 할 줄 몰랐던 그는 그 서류를 들고 조용히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밖은 시끌벅적했지만, 그의 보좌관은 피곤한 얼굴로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건 뭡니까?”

“보기나 해”

보좌관은 서류를 꼼꼼히 읽더니 눈이 커졌다.

“이런 방법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잘 작성했네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저희 쪽으로 데리고 오고 싶을 지경입니다.”

“레이가 이번에 아주 운이 좋아서”

“이것도 그녀의 작품입니까?”

내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보좌관은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셨다.

[작품후기]

bb로즈님 쿠폰 감사합니다!!!

도용직님,파괴소녀3님,sfsdfsd님,AshLee님,하늘의별림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 감사합니다.

나름 70화 기념 외전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1부가 거의 끝나갑니다~

부족한 글에도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외전-그남자이야기1

보좌관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물었다.

“정말 데리고 올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와서 그녀를 이곳으로 데리고 온다면 분명 뒷말이 나올 것인데…. 감당할 수 있나?”

나의 싸늘한 말에 보좌관은 그제야 미련을 털어냈다.

그런 그의 시무룩한 모습을 외면 후 급하다며 내민 서류를 검토했다.

밖은 화려한 불빛과 사람들로 시끄러웠지만, 이곳은 이질적으로 되게도 고요하고 적막했다.

그러던 중 보조관이 그에게 말했다.

“공작님, 무도회에는 참석 안 하십니까?”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안가”

“왜요? 많은 젊은 귀족 아가씨들이 공작님이 나오길 바라고 있을 텐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따라 그답지 않게 흥분되어 말하는 보좌관을 못마땅히 바라보았다.

그는 칼리아의 매서운 눈빛에 움찔했지만, 다시 당당하게 말했다.

그런 그의 모습에 한숨을 내쉰 칼리아가 그를 무시하고 서류를 마저 보자 그는 안절부절못했다.

부산스러운 그의 행동에 결국 그를 다시 바라보며 짜증스레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그는 더욱 안절부절못하다 번뜩 생각이 났는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공..공작님, 오늘 지방에 있는 귀족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가 아닙니까…. 성의 경계근무를 더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작님께서 한번 가…. 보셔야……. 할…….”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기어들어 갔다.

그의 모습에 결국 칼리아가 일어났다.

“오늘따라 정말 이상하구나. 오늘은 속아주지만,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

재킷을 어깨에 걸치고 결국 집무실을 나왔다.

칼리아가 나오자 보조관은 재빨리 나와 어디론가 사라졌다.

칼리아는 자신이 무도회장에 한번은 눈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척 나온 것이다.

하지만 가고 싶지 않았다. 분명 후작이나 백작 등 자신에게 잘 보이고 싶어 아부를 떨 인간들과 자신의 딸과 어떻게든 혼인시켜는 자들, 그의 외모에 반해 불나방처럼 달려들 여자들을 생각하니 도저히 가고 싶지 않았다.

결국, 평소보다도 미적거리며 도착한 곳은 사람들이 잘 오지 않은 정원이었다.

이곳에서 대충 시간을 보내다 끝날 때쯤 등장할 생각이었다.

커다란 나무 아래로 향하던 중 인기척이 들렸다.

레이의 부하직원인 그녀가 아무렇게나 앉아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설마 이곳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다니….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보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고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대로 얼은 게 눈에 보였다.

“아까 봤던 신입이 아니던가?”

나의 말에 그녀가 정신을 차렸는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또 뵙습니다. 공작님, 아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뒤를 힐끔거리며 본인이 먹고 있던 술을 몸으로 가렸다.

이미 다 봤지만, 못 본 척하며 말을 꺼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지난번 명단도 그렇고 오늘 서명도 그렇고 혼자서 한 일인가?”

“제가 했는데요”

“아주 참신한 방법이 흥미로워, 혹시 나와 일해볼 생각 없나?”

레이의 밑에서 일하는 걸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녀가 출세하고 싶다면 분명 동의할 것이 분명했다.

보좌관에게는 미련을 버리라고 했지만, 눈앞에 있으니 탐이 안 날 수가 없었다.

“전 제가 지금과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공작님과 일할 능력 또한 부족합니다”

그녀의 말은 정중한 거절이었고, 그녀의 눈에는 정말로 출세욕은 보이지 않았다.

“흠”

잠시 생각에 빠진 순간 그녀가 어느새 자리를 정리하고 인사를 남기고 사라졌다.

“그럼 전 이만…….”

“아쉽군”

이미 사라진 그녀는 듣지 못했겠지만, 칼리아는 정말로 아쉬웠다.

칼리아는 이젠 무도회장에 가야겠다며, 다시 천천히 걸어갔다.

거의 끝나고 있던 분위기인지라 발소리도 죽이고 조용히 입장했다.

하지만 나를 발견한 영애들이 순식간에 나를 둘러싸고 빠져 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들 사이에서 여기저기 무도회장을 힐끗거리자 한껏 멋을 낸 보좌관이 어느 여인과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들어왔다.

그도 여기 오기 위해 칼리아를 그리 쪼았던 것이다..

한숨이 나오려는 데 한 영애가 말을 걸었다.

“공작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설비 가문의 여식 원가입니다”

“공…. 공작님 전 부아 가문의 여식 르네입니다”

그녀들이 움직일 때마다 역한 향수 냄새와 분 냄새로 인상이 절로 찌푸려 지려는 걸 간신히 참으며 말했다.

“제가 지금 바로 전하께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해서…. 실례 하겠습니다”

그녀들을 뿌리치고 전하가 쉬고 있는 휴게실로 황급히 걸음을 옮겼다.

익숙하게 들어온 휴게실 앞의 기사들이 인사를 올렸다.

왕은 칼리아가 올 줄 알았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또 내 핑계를 대고 여기로 도망쳐 왔나?”

“놀리지 마십시오. 이래서 무도회는 영…….”

“그러니 자네도 슬슬 결혼하면 될 게 아닌가. 결혼하지 않으니, 침을 흘리며 달려드는 게 아닌가?”

“후. 전하 저는 결혼은 생각이 없습니다. ”

“그렇다면 마땅한 영애를 내가 찾아 주겠네”

눈을 빛내며 말하는 왕에 칼리아는 아까 쉰 한숨과는 다른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저를 놀리고 싶어서 그러신 거 압니다”

“후후후”

왕은 칼리아의 말에 웃으며 차를 마셨다.

“안 그래도 입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더니, 잘 해결했다면서?”

“늘 있는 작은 행사였습니다.”

“갈리 남작은 그래서 출세를 못 하는 걸 본인만 모르는 게 아쉬워”

칼리아는 잠깐 잊었던 아까의 장면이 떠올랐다. 본인의 두 배의 덩치인 남자에게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히 눈을 보며 할 말을 했다.

그 모습도 새삼스레 떠올리며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그녀가 다시 탐이 났다.

칼리아가 자신의 말에 대답이 없자 왕은 의아해서 물었다.

“칼리아!”

“...아! 죄송합니다. 잠시 다른 생각을…….”

“자네가 그럴 때도 있었나?”

“아까 갈리남작과 싸우던 이번에 들어온 신입 공무원이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아 나도 그녀에 대해 조금 들었다네. 배포가 남다르단 이야기는 들었네”

“안 그래도 제 밑으로 끌어들이고 싶은데, 거절당했습니다”

칼리아가 가볍게 거절당한 이야기를 하자 왕은 크게 웃었다.

“자네를 마다한 여자가 있는단 말인가? 아주 좋군. 나도 한번 보고 싶군 하하하”

“하아….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자가 있기 쉽지 않지. 아주 재밌군”

그때 시종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전하 이젠 궁으로 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그리되었군. 그다음은 나중에 듣도록 하지”

“살펴 가십시오 전하”

칼리아도 곧 자리를 일어났다.

첫날 얼굴을 비쳤으니, 마지막 날만 잠깐 참석해야겠다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작품후기]

라인베르크님,아니스타님,킬리언데이지님,adias님,도용직님,행복과행운7님,숙취에는견디셔님,curious111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 감사합니다.

항상부족한 글에도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외전-그남자이야기1

첫째 날 잠깐 얼굴을 비춘 이후로 무도회장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누군가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멀리 순찰을 했고, 그도 아니면 집무실에 처박혀 서류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첫날 본 보좌관의 모습은 신기루가 아닌 듯 그는 무도회 내내 이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덕분에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아주 좋았다.

하지만 아주 좋았던 것과 그가 실없이 웃으며 무도회장에서 즐기는 모습은 여간 못 봐줄 만했다.

복귀하면 더 많은 일을 시키리라 생각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마지막 날이 되었다.

이날은 꼭 참석해야 했다.

심지어 짓궂은 전하의 장난에 옷까지 갈아입었다.

기사단 정복을 입고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전하께서 서신을 보냈다.

「마지막 날이니, 기사단 정복은 꿈도 꾸지 말게」

“하아…….”

마지 못해 옷을 갈아입고 무거운 걸음으로 무도회장을 향했다.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하나둘 자신에게 모여들었다.

적당한 미소를 유지하며 적당한 예의로 사람들을 상대했다.

하지만 끝도 없이 밀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곧 그는 피로해졌다.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하던 차에 뒤쪽에서 작게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예전 같았으면 무시했겠지만, 빠져나갈 구실을 발견한 그는 주변의 귀족들에게 난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제가 가봐야겠군요”

“이런 작은 소동에 공작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셔도…….”

빠져나가게 둘 수 없다는 듯 말을 건네는 이에게 눈을 맞추며 말했다.

“이곳의 치안을 담당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무슨 일인지 가봐야겠군요”

할 수 없다는 듯 그제야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었다.

빠른 걸음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뒤쪽을 향하자 어느새 일은 해결되었는지, 다들 사라지고 없었다.

빠져나갈 좋은 구실이었기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은 휴게실로 향했다.

휴게실에 도착하자 어느 영애가 와인을 뒤집어쓴 채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가는 이상한 광경에 뒤돌아 바라보다 휴게실 문을 열던 차에 또다시 큰 소리가 들렸다.

“여기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딘가 급한 여자의 목소리에 목소리가 들려오는 휴게실로 향했다.

점점 크게 들리는 목소리에 칼리아는 급히 문을 열었다.

그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첫인상부터 좋았던,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눈독을 들였던 그녀가 자신의 몸의 두 배는 되는 성인 남성을 구두 굽으로 찍어 때리는 모습은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진정하라고 했지!!! 첫날부터 짜증 나게 굴더니!!!”

갈리 남작은 그 작은 여인에게 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었다.

아마 또 술에 얼큰히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니, 반항도 못 하고 있겠지….

그는 한숨을 쉬며 그녀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았다.

그녀는 놀란 기색도 없이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기며 말했다.

“휴…. 좀 늦으셨네요”

가까이서 본 갈리남작은 어느새 기절했는지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을 뒤집어 까고 누워있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이젠 어쩔 셈이지?”

“밖에서 제가 소리 지르는 걸 들으신 분들이 많을 그거로 생각해요~ 설마 제가 남작님을 이렇게 만들 그거로 생각하겠어요?”

차분히 옷을 정리하며 말하는 그녀의 말에 다시 물었다.

“그리고?”

그제야 내 눈치를 살피며 그녀가 머뭇거렸다.

“저 좀 도와주세요……. 목격자가 되어 주세요”

“그럼 나는 무슨 이득을 볼 수 있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흐음…….”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그녀의 말에 며칠 전 정원에서 그의 제안을 거절하던 그녀가 떠올랐다.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가리기 위해 고민하는 척 입을 손으로 가렸다.

“좋아”

나의 말이 끝나자 대기하고 있던 기사들이 들어와 남작을 끌고 나갔다.

마지막으로 나가려다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조만간 연락하도록 하지”

남작을 뚜드려 팼을 때와는 달리 하얗게 질리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뒤돌아 나왔다.

밖을 나서자마자 웃음이 나왔다.

유능한 인재가 제 손에 저절로 떨어졌다.

기사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남작을 보며 매년 입구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던 갈린 남작의 처분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한편으론 고맙다고 해야 하나 고민했다.

칼리아는 우선 갈리남작이 깨어나길 기다렸다.

물론 치료도 덤으로 미리 해두었다.

그 나름의 작은 고마움이랄까…….

“으흠…….”

곧 갈리남작은 깨어났다.

초점을 맞추기 위해 그는 눈을 몇 번이나 깜박거렸고, 정신이 들자 온몸이 뚜드려 맞은 것처럼 아팠다. 실제로 뚜드려 맞기도 했지만…….

곧 자신의 앞에 칼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랬다.

“공…. 공작님”

“갈리남작 정신이 좀 드나?”

“제가 왜 여기에……. 무도회장에서….”

“아아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니 넘어가도록 하지”

그 일은 잊으라는 그 나름대로 인정을 베풀었다.

하지만 멍청한 남작이 그럴 리 없다는 걸 모르는 이는 없었다.

남작은 말도 안 된다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년을!!! 감히 귀족인 저를 이리 만들다니!! 가만두어선 안 됩니다”

“진탕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된 남작이 혼자 넘어져 있는걸 그녀가 부추긴 거 말인가?”

결국, 쐐기를 박듯 칼리아가 말하자 갈리남작은 그제야 깨달았다.

칼리아가 그렇게 무마하고 싶어서 한다는 걸…….

그리고 그렇게 무마될 거라는 걸…….

매년 무도회가 있을 때마다 상놈 짓을 하는 그였지만 크게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정도껏 하고 적절한 시기에 빠진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런 그가 모를 리 없었다.

“그…. 그렇습니까? 그…. 그렇다면 그런…….”

권력 앞에 한없이 작아진 그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그제야 칼리아는 웃으며 말했다.

“이미 치료는 다 끝났으니, 조용히 영지로 돌아가도록”

결국, 갈리 남작은 자신의 여식과 조용히 영지로 돌아갔다.

앞으로는 진상도 부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시간은 지났다.

보좌관은 며칠 동안 빠져서 밀린 일 처리를 하느냐 집에도 가지 못하고 매일 밤 철야를 했다.

애처롭게 칼리아를 바라보던 그를 칼리아는 비웃으며 바라보았다.

보좌관은 자신의 눈빛에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체념하듯 다시 일에 몰두했다.

그것도 며칠…….

보좌관은 점심시간만 되면 칼같이 사라져서 몇 시간 동안 보이지 않았다.

푹 쉬고 오는지 낯빛도 좋아졌다.

한껏 여유로워 보이던 보좌관이 말했다.

“공작님, 그거 아십니까?”

“뭘?”

“요즘 도서관에 유령이 나타난답니다.”

“유령이라…. 그런 걸 믿을 나이는 아니지 않았나?”

칼리아의 말에 보조관은 얼굴을 붉혔다.

“안 믿습니다! 안 믿지만, 궁의 치안을 담당하는 자가 어찌 가볍게 듣고 넘길까요? 그리고 벌써 기절한 이가 7명이나 된다 하니, 기사들을 시켜 검문이라도 해야겠다. 이거죠”

“그저 재밌어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칼리아의 날카로운 지적에 보좌관은 결국 실토했다.

“무도회가 끝나고 허한 마음에, 재밌어 보여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7명이나 기절한 건 사실입니다”

“알겠어. 내 나중에 한 번 들리지!”

“직접이요?”

보좌관은 눈을 크게 뜨며 묻자 칼리아가 말했다.

“뭐 작은 재미라고 해두지”

[작품후기]

파괴소녀3님,도용직님,아나스타님,有恩宥互님,킬리언데이지님,curious111님,라인베르크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 감사합니다.

요즘 외전때문에 1화부터 다시 보는중인데..맞춤법이랑 띄여쓰기 틀린게 심각하게 잘보이네요 ㅜㅜㅜ

내용도 너무 짧은거 같고.... 수정해서 다시 올릴까 고민중입니다.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외전-그남자이야기1

칼리아는 그날도 늦은 시간까지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 문뜩 보좌관이 한 이야기가 생각났다.

머리 좀 식힐 겸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이라 안 그래도 조용한 건물은 유령소동으로 더 한산했다.

그래도 늦게까지 남아 공부하던 이들도 있었지만, 요즘은 해가 지기 전에 다들 돌아간다고 했다.

느긋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또각거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저 멀리 보이는 인영에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다.

내가 다가오는 걸 느꼈는지, 한번 멈칫하던 인영의 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혹시, 유령소동의 진범일까 싶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러자 갑자기 주저앉으며 책을 휘둘렀다.

“저리 꺼져! 사라져!!!”

아무 말도 없이 지켜보고 있자 이제는 울면서 말했다.

“살려주세요!! 엉엉”

그제야 누군지 알고 작게 한숨을 쉬었다.

“휴”

나의 한숨 소리에 눈물을 닦으며 뒤를 돌아보는 루나는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내 눈을 피하며 눈 주변을 꾹꾹 손가락으로 누르며 말했다.

“흠흠 여긴 무슨 일이세요?”

여전히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말하는 그녀를 쳐다보다 말했다.

“하도 흉흉한 소문 때문에 불시검문으로 와봤지. 그대는 여기 주저앉아 뭐 하고 있는 거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요….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나를 향해 손을 뻗은 루나의 팔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볍게 일으켰다.

휘청거리던 그녀는 다리에 힘을 더 주자 간신히 서 있는 수준이었다.

그녀는 주변에 떨어진 책들을 잘 정리 후에 양손으로 껴안자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그 정도 간단한 지식이면 레이가 알려줄 텐데?”

“레이 님은 제 상사지만 개인 선생이 아니니깐요, 업무적인 일은 가르쳐 주실 수 있지만 이런 지식적인 건 제가 익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녀의 말은 지금까지의 귀족들 생각과는 달랐다.

“귀족영애치곤 색다른 발상인데?”

“그냥 남들한테 폐 안 끼치고, 있는 듯 없는 듯 있다가 조용히 저희 영지로 가는 게 꿈입니다”

“왕실 공무원이 됐는데 후작이나 공작 눈에 띄어 혼인하는 게 아니라니…. 꿈이 굉장히 소박하군”

“죽고 싶지 않으니까요, 여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이 맞는다.

지금이야 왕권이 안정되어 괜찮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정부패도 심했고, 뒤로 뇌물이 오갔던 시절엔 말 한마디만 잘못하거나 줄을 잘못 쓰던 귀족들은 눈 깜박할 사이에 사라졌다.

백작이나 후작 정도 되는 이들은 그 당시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신입 공무원이 된 그녀가 깨우치기엔…….

심지어 자신 밑에서 일하고 있는 보좌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땐 꿈많은 청년이었다.

하지만 점점 많아지는 일과 야근으로 찌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를 데려다주기 위해 도서관 건물을 나와 정원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환해졌다가 깜깜해졌다.

그녀와 나 동시에 도서관을 봤지만 불은 다시 켜지지 않았다.

“보……. 보셨어요?”

“다시 가봐야겠군, 혼자 갈 수 있겠나?”

“같이 가시죠, 혼자 있으면 죽어요”

그녀의 알 수 없는 말에 다시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녀는 나를 지나쳐 도서관으로 앞장서서 걸어갔다.

순식간에 도착한 문 앞에 그녀가 침을 꿀꺽 삼키며 긴장했다.

망설임 없이 문을 열자 갑자기 검정 팔 하나가 나를 공격했다.

빠르게 내 옆에 서 있던 그녀를 내 뒤로 보내고 공격하던 팔을 잡아 손에 있던 무기를 내려쳤다.

아무도 없는 넓은 공간에서 무기가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펴졌다.

또다시 공격을 가하기 위해 잡힌 팔에 손을 올렸지만,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못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손에 힘을 풀자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누구시죠?”

루나가 내 뒤에서 얼굴만 내밀고 물었다.

“............전 휴 필레타 가문의 장남 이반입니다”

에반은 연신 나를 힐끔힐끔 바라보았다.

“필레타 가문에서 왜 이 시간에 도서관에서 사람이 아닌 척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지?”

“그……. 그것이 이번 왕실 기사단 모집에 기본소양 과목은 아무래도 이곳에서 하는 게 잘돼서…….”

“그래서 아직 기사로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대충 상황은 이해가 되었다.

전하는 뇌물이나 줄 대는 이들을 싫어했다.

그리고, 젊은 인재를 발견하는 것도 좋아했기에 궁에 사람을 뽑을 때 철저한 실력주의를 고수했다.

처음 시행되었을 때 많은 가문에선 원성이 자자했지만 합격한 이들에겐 그만큼의 자부심과 긍지가 높았다.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었다.

“아버님께서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절대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녔습니다”

에반은 무릎까지 꿇고 다리에 매달려 울면서 말했다.

무기가 부서지는 큰소리에 밖에 있던 필레타경이 들어왔다.

그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바로 내 앞으로 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공작님!!! 한 번만 봐주세요”

양다리에 남자들이 매달려 우는 꼴에 괜히 보좌관의 말을 듣고 온 게 후회되고 있었다.

한걸음 물러나서 멀뚱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루나는 어딘지 웃음을 참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미 다친 사람도 여러 명 나오고, 소문도 왕자님도 알고 계신다. 이사 안은 조용히 넘길 순 없다. 조용히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처벌은 그 뒤에 자택으로 사람을 보내지”

그들을 떼어놓고, 뒤돌아 나가려다 아직도 서 있는 루나를 바라보고 말했다.

“여기 계속 있을 건가?”

“네?! 아닙니다. 저도 같이 가요”

루나가 황급히 나를 따라 나왔다.

그녀를 데려다준 뒤에 다시 집무실로 돌아오자 아직도 퇴근하지 않은 보좌관이 시름시름 앓으며 서류를 보고 있었다.

“어디 다녀오십니까?”

“도서관”

나의 말에 보좌관은 눈이 커다래 지며 물었다.

“유…. 유령은 보셨습니까?”

“필레타 가문 앞으로 공문을 보낼 거니, 준비하도록”

“엥? 왠 갑자기 필레타 가문이요?”

“이번 사건의 주범이니까”

아까 내 다리에 매달려 울던 부자의 얼굴이 떠오르자 머리가 아파졌다.

“역시 사람의 소행이었군요. 이맘때 이런 일이라면……. 기사시험 때문일까요?”

보좌관은 아쉽다는 듯 입맛을 쩝쩝거렸다.

“어떻게 처벌을 내릴지…….”

“음……. 그 필레타 경에게만 죄를 물으심이 어떨까요?”

“왜? 제 아비를 따라 같이 도서관에 숨어든 자식 또한 죄가 없는 건 아니지!”

“그렇긴 하지만….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나이도 어린데…….”

“하아……. 왜 그렇게 필레타경을 위하지?”

보좌관은 그제야 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평민으로 기사시험을 쳐서 준남작을 내려받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들도 절실한 거죠. 마을엔 제대로 된 도서관도 없으니, 아들을 가진 이들이 출세할 수 있는 건 왕실 기사 아니면 공무원인데…. 남자아이면 아무래도 기사가 더 나은 확률이죠.”

“그것도 그렇군. 내일 필레타 경에게 집무실로 오라고 하도록”

“네”

아침 일찍 필레타 경은 칼리아공작의 집무실로 불려왔다.

어제 일어난 소동 덕분에 그는 한숨도 자지 못해 눈 밑이 검었다.

“왜 불렀는지는 알고 있을 테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는 큰소리로 씩씩하게 대답했다.

칼리아는 그런 그의 모습에 다시 머리가 아팠다.

“원래 평민이었다지.?”

“네? 네!!!”

나의 말에 더욱 긴장한 그가 대답했다.

“평민에서 준 남작까지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능력도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소속이 제4기 사단 부대장이라……. 이대로 박탈시키기엔 능력이 아쉽군. 당장은 6개월 감봉처리로 어제 일은 없었던 거로 해주지.”

“.........그럼…. 저희 아들은…….”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자네가 부족한 소양을 쌓기 위해 남몰래 도서관에 왔다 갔다 한 거로 처리하도록 하지. 사람들은 남들이 알아볼까 봐 기절시킨 거로.”

“감사합니다…!!! 공작님 정말 감사합니다”

“단, 앞으로 부르면 바로 달려오도록!”

“네!!! 감사합니다. 공작님”

그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이로써, 왕실 도서관의 유령소동은 끝이 났다.

[작품후기]

파괴소녀3님,도용직님,likechoco님,아니스타님,curious111님,라인베르크님,그리네님,adias님,킬리언데이지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 감사합니다

^^^

외전-그남자이야기1

이번 기사 소양 과목은 생각보다 어려웠는지 필기시험에서 꽤 많은 인원이 떨어진 거로 알고 있었다.

또한, 왕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반기 평가도 어려웠다고 들었다.

간만에 귀족들의 원성이 자자했지만 어린 왕자님의 말 한마디에 다들 체념 후 돌아갔다고 했다.

백작이나 공작, 또는 남작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시험을 보진 않았지만, 시험 채점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행정업무에 치여 사는 그들에게도 힘든 일이었다.

레이에게 살짝 물으니, 루나는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도 알게 되었다.

아직 본격적으로 그녀를 써먹기 전이니, 불합격이라도 했다면 골치가 아팠을 것이다.

시험은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가을 추수 전 토벌전이 있었다.

매년 있는 행사지만 기사단을 움직이는 이로서는 여간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았다.

보좌관은 사람을 더 뽑아 달라며 징징거리자, 필레타경을 불러 잡일을 시키기 시작했다.

행정반 소속인 공무원을 집무실로 불러들였다.

“이번에도 인원 부족으로 지원 요청할 생각인가?”

“네…. 매년 정해진 시간에 업무가 끝나야 하니…. 잡일은 주로 말단공무원들이 하고 있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공무원 중 제1 과학관 소속 루나 벨 브라이트는 토벌전 귀족명단을 맡기도록 하지”

“네? 알겠습니다”

그는 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보였지만 시키는 대로 하겠다며 말하고 돌아갔다.

그가 돌아가고 보좌관이 들어왔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지난번 무도회 초대장도 그렇고, 아마 이번엔 본인이 직접 가까운 곳은 돌아다닐 거야. 내 저택에도 와보고, 재밌잖아”

보좌관은 내가 웃고 있는 모습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며칠 뒤 저택으로 공문이 왔다.

집사 제임스는 공문을 들고 나를 찾아왔다.

토벌전 안내공문을 들고 직접 찾아온다는 공문이었다.

나의 예상이 맞았다.

“왕실에서 사람이 나오면 아놀드를 보내서 내 집무실로 올려보내도록”

“알겠습니다”

루나가 저택을 방문하자 칼리아의 말대로 아놀드가 맞이했다.

아놀드도 제임스 못지않게 베네치아 공작 저를 모셔온 유서 깊은 가문이었지만 명단에 올라간 건 제임스였다.

루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택 안을 천천히 구경하며 아놀드를 따라 내 집무실로 안내되었다.

일부러 천천히 발소리를 내지 않고 들어가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녀가 보였다.

조용히 앉아 그녀가 정리 중인 서류를 슬쩍 보았다.

한눈에도 보기 편하게 정리된 서류, 정갈한 글씨체, 앞으로 해야 할 일까지…. 도무지 귀족영애라곤 생각되지 않은 솜씨였다.

그녀는 정리를 마치고 앞에 놓여 있던 차를 마셨다.

고개를 들며 나와 눈이 마주치자 놀랬는지 차를 뿜으며 벌떡 일어나 인사를 했다.

“콜록콜록, 안녕하세요 배네치아 공작님”

“밝은 곳에서 보는 건 오랜만이군”

“여…. 여긴 왜?”

당황한 그녀가 말을 더듬거리며 물었다.

“내 집무실에 내가 있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네? 공작님 집무실이요? 제임스 집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내가 여유롭게 말했다.

“제임스보단 나한테 직접 갖다 주는 편이 확실하지 않을까?”

그제야 그녀는 제임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아무 말도 없었다.

그에 내가 초대장을 달라는 손짓을 하자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곤 가방에서 초대장을 꺼내 주었다.

나는 그녀가 작성한 초대장에 필요한 물품까지 정리되어 있는걸 꼼꼼히 읽었다.

“이것도 직접 준비?”

“네”

점점 그녀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초대장도 건네 드렸으니 그럼 전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돌아갈 채비를 끝내고 일어나려는 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임스가 디저트를 가지고 들어왔다.

케이크와 그에 맞는 차를 대접하자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오랜만에 오신 손님이신데 조금 더 쉬다가 가시지요”

그녀가 경계심으로 아무것도 손대지 않을까 내 앞에 있던 차를 먼저 마셨다.

그녀에게 먹으란 의미로 눈짓을 보내자 그녀가 머뭇거리며 케이크를 한입 먹었다.

그리곤 케이크 맛에 빠져들었다.

미리 그녀의 취향을 조사해 둔 덕분에 곧 아무 생각 없이 그녀는 그 커다란 케이크를 혼자 다 먹었다.

행복한 얼굴로 그녀는 먹었던 케이크에 아직도 빠져 있는 거 같았다.

“내 여자가 되는 게 어때?”

그녀가 케이크를 다 먹은 걸 보고 바로 물었다.

쨍그랑

나답지 않은 성급한 단어 선택에 입에 물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리고 그녀는 당황해서 물었다.

“무…. 무슨 소릴 하시는…….”

얼굴이 새빨개진 그녀는 말까지 더듬자 그 모습이 참 귀여워 보였다.

다른 귀족영애 같으면 바로 빠질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다.

“난 그대가 마음에 드는데……. 내 밑에서 일할 생각 없나?”

나의 말에 정신을 차린 그녀가 어쩐지 아쉬운 표정을 하며 말했다.

“흠…. 전 이미 왕실 공무원입니다”

그러곤 다신 홀리지 않겠다는 듯 다 식은 차를 한 번에 마셨다.

“그런 것쯤은 아무 문제 없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전 2~3년 뒤에 그만두고 영지로 돌아갈 예정이라…….”

“거기 가서 뭐 할 예정인데?”

“먹고 놀건대요”

당당한 그녀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대부분 귀족 영애라면 왕실에 왔다 갔다 하는 고위 귀족들 눈에 띄어 결혼하거나 중매를 받고 싶어서 했다.

아니면 능력을 인정받아 고위 직급을 달고 싶어서 하거나…….

“흠……. 내 밑으로 오면 아쉽지 않게 챙겨줄 수 있는데?”

모르는 척 그녀를 다시 떠보았다.

“돈은 많아 봤자 저 같은 여자한테 도둑이나 사기꾼만 꼬이겠죠…. 그 정도로 많을 필요도 없고, 가지고 싶지 않아요”

단호한 그녀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겠지만 보통의 여자들은 내가 웃기만 해도 얼굴을 붉히며 원하는 걸 들어주곤 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녀의 모습에 싹싹 비운 케이크 접시가 눈에 보였다.

“내 저택의 요리사를 전속으로 주지…. 어때?”

그녀는 아까와는 달리 눈동자가 흔들리며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꽤 솔깃했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여전히 미련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말했다.

“귀족이라면 명예나 출세, 돈을 바랄 줄 알았는데?”

“전 그냥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다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러다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싶은 게 목표라서요”

“그렇담 내 밑에서 2년만 일한다면 그 뒤로 브르노이성에서 평생 놀고먹도록 해주지!”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그만큼 그녀가 탐이 났다.

왕께서 하사한 영지에 있는 브르노이 성은 오래되었지만, 가끔 기분 전환하러 가기 좋은 곳이었다.

“큼….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제야 그녀는 나에게 이유를 물었다.

“난 내가 눈독 들이는 건 가져야 하는 성미라……. 어떤가? 내 밑으로 올 건가?”

“한 가지 걱정되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왕실 공무원이 된 걸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그만두는 건 어려울 거 같은데요”

마지막 보류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녀가 말했다.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 적당히 병행하면서 일하게 해줄 테니…….”

이젠 그녀가 넘어 온 거나 다름없기에 바로 제임스에게 손짓하자 바로 계약서 두 장을 내밀었다.

“난 모든 확실한 게 좋아서….”

“제 신변을 보호해주신다는 조항도 있으면 좋겠군요. 무슨 일을 시키실지 모르겠지만…….”

귀하게만 자랐을 그녀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철저한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흠….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오늘부터 기사 하나를 붙여주지!”

그리고 그녀는 꼼꼼히 몇 장이나 되는 계약서를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읽은 후에 사인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루나라고 불러주세요”

드디어 그녀가 내 손에 들어왔다.

[작품후기]

파괴소녀3님,도용직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 감사합니다.

다음주 명절이라...이번주 힘내서 왕창 올려볼 생각입니다~

^^^

외전-그남자이야기1

루나가 돌아간 뒤부턴 일거리가 미친 듯이 들어왔다.

궁에서 토벌전에 대한 준비가 끝나자 우리 쪽으로 일거리가 쌓였다.

이번 토벌전에서는 기사실기시험도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 명단과 그들의 출신 같은 서류와 각 가문에서 보내는 기사 명단과 준비 물품에 대한 승낙서류가 산을 이루고 있었다.

시간도 촉박했다.

궁에는 보좌관이 서류를 보고 있었고, 나는 서류를 챙겨 저택에서 잠잘 시간도 줄인 채 서류를 보고 있었다.

피곤한 어조로 제임스에게 말했다.

“루나를 데리고 오도록”

곁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다.

다음날 바로 저택으로 루나가 왔다.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었다.

“안녕하세요. 각하”

“오래간만에 잠은 잘 잤나? 난 토벌전 때문에 바쁠 지경인데, 이 시기에 기사시험까지 몸이 두 개가 돼도 모자랄 지경이야.”

“힘드시겠네요”

루나는 건성으로 말을 하더니 테이블에 올려둔 쿠키와 차를 내려다보곤, 조용히 앉아 쿠키를 집어 먹기 시작했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다가 무심하게 말을 꺼냈다.

“이번 토벌전에 인원이 부족해서 벨라레드에 자네도 함께 가는 게 좋을 거 같군”

그녀는 여전히 쿠키에 정신이 팔렸다가 뒤늦게 벌떡 일어났다.

“각하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저 같은 연약한 인간이 그런 곳에 갔다가 개죽음 당할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죽어봤자 일간지에도 실리지 않을 거라고요!!!”

“걱정하지 마. 계속 내 옆에 있을 테고, 혹시라도 나와 떨어지면 다른 기사들이 보호해 줄 거야”

“제가 계약 전에 분명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이러시면 계약 위반 아닙니까?”

그녀는 먹던 쿠키까지 내려놓고 나에게 항의했다.

“안전하다니까 그대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시 복귀시켜 준다니까”

“..............계약 무효는 안 되겠죠?”

“당연한걸”

“................그럼 위험수당이나 따로 챙겨주세요”

체념한 그녀가 힘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도록 하지. 그럼 토벌전까지 쉬도록”

그녀는 앞에 있던 쿠키와 차를 다 마시곤 한숨을 쉬며 나갔다.

토벌전을 떠나는 당일이 되었다.

저 멀리 죽상을 하는 커다란 짐을 짊어진 그녀가 보였다.

곧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했다.

“꼴이 그게 뭐야?”

“저도 살아야죠”

그녀는 야무지게 가방끈을 두 손으로 잡고 말했다.

“...........내가 지켜준다니까”

“혹시 모를 조난에 대비하는 겁니다”

칼같이 거절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흔들었다.

곧 왕의 긴 연설이 끝나자 작은 이벤트가 시작되었다.

“그대를 위해 커다란 놈으로 잡아 오리다”

마침 바로 옆에서 기사 한 명이 비장하게 검을 들고 외쳤다.

그의 외침을 시작으로 근처에서 얼굴만 붉히던 여자들이 너도나도 몰려와 나에게 손수건을 내밀었다.

얼굴이 구겨질 뻔했지만 웃으며 정중히 거절했다.

모두 아쉽다는 얼굴로 미련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떠나갔지만 외면하고 루나에게 말을 걸었다.

“왜 받고 싶은가?”

“아뇨. 귀족 여자가 죽은 짐승으로 뭘 할까 궁금해서요”

본인도 귀족영애면서 저런 말을 하다니…….

“그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

바로 내 옆에서 다른 인기척이 느껴졌다.

클라우디아 영애였다.

그의 아비인 클라우디아 후작은 언제나 호시탐탐 왕권을 노렸다.

그런 그의 딸이 좋게만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관심을 표했지만, 그녀와 엮이기라도 해서 혼인이라도 한다면 문제가 커진다.

“안녕하세요. 베네치아 공작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만다 벅 클라우디아입니다.”

입꼬리만 올리고 웃으며 말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영애”

클라우디아 영애는 나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 지…. 지난번 도와주신 보답으로 손수건을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애, 전 손수건은 받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다. 클라우디아 영애는 울먹거리며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이며 꾸벅 인사를 하고 사라졌다.

그녀가 사라지자 뒤에 서 있던 클라우디아경이 사납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는지만 모르는 척 말에 올라탔다.

기사시험의 첫 번째는 체력이었다.

말을 타고 오는 우리들의 뒤를 대형을 맞춰 따라오고 있었다.

벨라레드 산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다들 멈추어 섰다.

시험을 담당한 기사가 나왔다.

“도착한 자들은 나에게 와서 이름을 말해 주면 된다”

기진맥진한 그들을 뒤로 호수로 향했다.

미리 와 있던 루나가 말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다.

루나는 기사 하나가 죽은 사슴피를 뿌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사슴피 냄새를 맡은 육식동물들이 오면 그때 기사시험을 진행할 거다. 그 옆에서 호명된 이름과 채점하는걸 잘 기록하도록 해”

“네”

그녀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며 커다란 바위 위에 자리를 잡았다.

내일은 숲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준비사항을 상의하기 위해 제일 먼저 지어진 막사 안으로 블리스, 해리와 들어갔다.

“공작님, 이번 토벌전에도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겁니다”

“나도 알고 이서”

“더 경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충분하다”

곧 시험이 끝났는지 채점을 담당하는 이와 루나가 들어왔다.

표를 만들어 한 장에 5명의 인적사항과 특이사항이 적힌 서류를 내밀었다.

“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편하군요”

블리스는 표를 보더니 감탄했다.

“이런 방식으로 기록한 건 처음 보는군요. 아주 완벽히 기발해요”

해리도 한마디를 보탰다.

그들의 말을 들은 루나가 구석에서 웃고 있었다. 그녀를 보고 눈짓으로 그만 나가보라고 하자 그녀는 꾸벅 인사를 하곤 막사를 나갔다.

“이 정도라면 금방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나오겠군요”

“얼른 시작하지”

그들은 나의 말에 서류를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다.

곧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가려졌다.

그들은 피곤한 얼굴로 인사를 마치고 각자의 막사로 돌아갔다.

그들이 나가고 나서도 밀린 서류를 보다가 문득 저녁 시간이 된 걸 깨닫고 루나의 막사로 향했다.

“들어가도 되겠나?”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말을 했지만, 안에선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조용히 발소리를 내지 않고 막사 안으로 들어서자 아직도 곤히 자는 루나를 보았다.

대충 짐을 내려놓고 그녀는 깊이 잠이 든 듯했다.

그녀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생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마저 살피자 그녀가 인상을 쓰며 일어났다.

“일어났군”

미리 준비해 둔 과일과 육포, 수프 냄새로 곧 그녀는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 음식을 바라봤다.

곧 일어나 수프를 떠먹기 시작했다.

그녀의 곁으로 가서 과일 하나를 집어 먹었다.

“식사하라고 말하러 들어왔더니, 자고 있길래…….”

“첫날부터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닌가요? 계약조건을 수정해야 될 거 같아요”

수프를 다 먹은 그녀가 약간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잘 해내니 그런 거지, 앞으론 이런 일 없을 거야. 덕분에 합격자도 빨리 나오고 좋지 뭘”

덕분에 골머리를 썩이던 일이 해결되어 웃자 그녀가 인상을 찌푸렸다.

“저택으로 돌아가면 당분간 주방장에게 최고급 디저트를 준비해놓으라고 할 생각이었어”

“전 숲 안쪽까진 절대 안 가요. 때려죽여도 안갑니다”

그녀가 결의에 가득 차 말했다.

“안 그래도 여기서 대기하라고 할 참이었어. 아니면 내일 탈락자들과 돌아가도 되고”

“아니요. 아까 잠깐 호수 주변을 보니까 레이님이 평소에 자주 쓰시는 약재들이 많이 그거나 뜯어가려고요”

그녀의 말에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그럼 오늘 밤은 편히 쉬도록”

그녀의 식사가 끝난 걸 확인하고 막사를 나왔다.

[작품후기]

연참입니다~

^^^

외전-그남자이야기1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다시 막사에 들어와 내일 숲 안쪽으로 들어갈 채비했다.

겨우 새벽이 되어야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났다.

합격자 발표로 막사 밖은 시끄러웠다.

불합격자들을 추려 다시 돌아가려는 무리가 어수선하게 모여 있었다.

그들을 뒤로 호수로 갔다.

그곳엔 아침 안개와 어우러져 루나가 세수하고 있었다. 여전히 그 커다란 짐가방을 메고…….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그녀는 곧 호수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어제 말처럼 풀을 뜯기 시작했다.

“여기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지 몰랐군”

그녀의 옆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말을 걸자 그녀가 발길질했다.

살짝 피하자 균형을 잃고 호수로 빠질뻔하자 그녀의 허리를 잡았다.

“놀랐잖아요”

전혀 놀란 기색이 없이 차분한 그녀의 말에 코웃음을 치고 말했다.

“난 줄 알고 발길질하는 거 같았는데…….”

“으흠 그럴 리가요”

그녀는 눈을 흘기다 내 말에 눈을 피하며 환하게 웃으며 다시 앉았다.

“채비가 끝나는 대로 숲 안쪽으로 출발할 거야. 진짜 같이 안 가도 되겠어?”

“거기가 더 위험 할 거 같네요. 갔다 오세요. 여기서 기다리면 되죠”

단호한 그녀의 말에 더는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 그럼 해리는 여기서 대기할 거니까 같이 있도록 해. 그런데 그 가방을 아직도 메고 있나?”

“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녀가 인사를 하자 막사로 돌아와 짐을 챙기고 게이트로 향했다.

게이트는 숲 안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먼저 실력 좋은 이들부터 게이트로 이동했다.

어느 정도 귀족들과 기사들이 이동 후에 이동하기 위해 마법 진을 밟으려던 순간, 이상한 빚을 내며 마법 진이 빛났다.

그리고 숲 여기저기서 폭발이 시작되었다.

큰소리에 말들을 놀라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놀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그 와중에 루나를 눈으로 찾았다.

멍하니 서서 정신이 없어 보였다.

“루나!!! 루나!!!”

그녀를 붙잡고 흔들자 곧 초점이 돌아왔다.

“정신 차려”

“카…. 칼리아?”

그녀가 나를 알아봤다.

내 이름을 부르는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에 왠지 심장이 어쩐지 두근거렸다.

하지만 이럴 때가 아녔다.

그녀의 손을 잡고 빛이 나지 않은 곳으로 달렸다. 내가 이끄는 대로 그녀는 잘 쫓아왔다.

큰소리에 주변의 몬스터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주변을 경계하며 허리에 차고 있던 검을 뽑아 들었다.

몬스터가 모습을 보이자 앞으로 뛰어나가 단숨에 베었다.

몬스터는 레드무스였다. 분명 숲 안쪽에서 사는 머물 일 텐데…….

마법 진부터 레드무스까지……. 단순한 사고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가자”

루나에게 말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계속 우리의 앞을 가로막아선 레드무스를 계속 쉬지 않고 베었다.

어느 순간 루나가 어느 그곳을 가리키며 뛰어갔다.

“각하!! 이쪽으로 오세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에는 바닥에 잘 보이지 않은 마법 진이 보였다.

다급하게 루나 쪽으로 뛰어가며 외쳤다.

“빨리 떨어져!!! 여긴 이동 마법 진이…….”

발밑에 마법 진이 빚을 내며 시야가 환해졌다.

이동 마법 진이 발동한 듯했다.

“아무래도 숲 안쪽으로 들어온 거 같군”

손에 든 검을 다시 허리에 찬 검집에 넣으며 주변을 탐색했다.

“어째 숲 안쪽이 더 안전한 거 같습니다”

그녀가 침울하게 말했다.

해가 지면 더 위험해지므로 적당한 안전한 곳을 찾아 걸었다.

그녀가 따라오기 편하게 잡초를 꾹꾹 밟아 가며 앞장서서 걸었다.

“아무래도 오늘은 노숙해야 할 거 같군. 저기 보이는 동굴로 가지”

한참을 걷다 동굴을 가르치며 말했다.

동굴에 혹시라도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자 루나가 근처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왔다.

그리곤 메고 있던 작은 가방에서 성냥을 꺼내 붙을 붙였다.

역한 몬스터의 피 냄새 때문에 혹시라도 냄새를 맡고 쫓아올 동물들과 찝찝함으로 근처 호수로 가 몸을 씻었다.

클라우디아 후작이 무슨 일을 벌일 그거로 생각했지만, 방심했다.

설마 마법 진에 손을 댔을 줄이야…….

‘꿀꺽’

동굴의 벽에 기대 생각을 하던 중 어디선가 침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루나가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 던졌다.

“ㄱ…. 감기 걸리시겠어요. 닦는 게 좋을 거 같네요”

“미안하군…. 자꾸 고생만 시키는 거 같아서…….”

괜히 그녀까지 이번 일에 말려들게 한 거 같아 미안했다.

이런 일을 당하게 하고 싶어서 끌어 들인 건 아니었는데…….

“네 저도 공작님을 만나고 사건 사고 중심에 늘 있는 거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그녀의 말에 웃음이 났다.

“그래도 못 놔줘”

나의 말에 그녀는 말이 없었다.

조용히 정적이 흘렀다.

동굴 안은 장작이 타는 소리만 울렸다.

그러다 그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녀는 불 때문인지, 아니면 창피해서 인지 얼굴이 붉어져 가방을 뒤적거렸다.

가방에서 육포, 물병, 건과일을 꺼냈다.

“별거 아닌데 좀 드세요”

그 커다란 가방이 요긴한 순간이었다.

음식을 하나씩 집어 먹었다. 체력을 비축해야 했다.

곧 해가 지자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의 냄새도 사라질 것이다. 안심되었다.

“비가 오기 전 불을 피워서 다행이네요”

그녀는 말을 건네며 몸을 떨며 모닥불로 더 붙었다.

그러더니 다시 가방을 뒤지며 커다란 천을 꺼냈다.

그녀와 내가 눈이 마주쳤다.

“덮으세요”

아직 마르지 않은 옷을 보고 그녀가 나에게 천을 건넸다.

“가방에서 별것이 다 나오는군”

“이런 상황까진 생각 안 해봤지만 혼자 조난할걸 생각해서 준비한 거뿐이에요”

“이건 뭐지? 그냥 담요가 아닌데?”

담요라 생각했는데, 더 두껍고 처음 보는 모양이었다.

“아……. 제가 특별제작한 침낭이란 건데…. 숲이 워낙 습해서 최대한 물이 스며들지 않은 천을 겹쳐서 만든 거예요”

“음……. 생각보다 괜찮네…. 앞으로 야영하게 되면 요긴하게 쓸 수 있겠어.”

출전을 할 때마다 병사들의 몸 상태를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이 침낭은 그들에게 보급하면 참 좋아 보였다.

“혹시 아까 싸우시면서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없어”

그녀가 보이지 않게 팔을 슬쩍 가리며 말하자 그녀가 다시 가방에서 무언가 꺼냈다.

“아까 레이님 갖다 드리려고 슈를 뜯었어요. 이리 줘보세요”

“없는 게 없군….”

정말 귀족영애라곤 생각할 수 없는 철저한 행동들이었다.

한숨을 쉬며 그녀의 앞에 팔을 내밀었다.

“경황이 없어 지금에야 말하는 거지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붕대를 감으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말려들게 돼서 원망한다는 둥, 화를 내거나 울었을 상황에서 감사의 인사라….

“지켜준다고 했잖아”

“크흠! 피는 멈췄고, 이 정도면 며칠은 견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나의 말에 멀리 떨어지며 말했다.

우리는 할 일이 없어지자 루나는 여유분으로 챙겨온 침낭을 모닥불 근처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곧 눈을 감는 루나를 보고 눈을 감았다.

주변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 경계를 하던 중에 어디선가 한숨 소리가 들렸다.

“휴…….”

“잠이 안 오나?”

내가 말을 걸자 그녀가 흠칫거리며 말했다.

“네. 바람 소리 때문에요”

“아직 해가 뜨려면 멀었는데, 자두는 게 좋아”

“이미 잠도 깼는데요. 저 때문에 깨신 거면 더 주무세요”

그녀의 말에 눈을 뜨고 밖을 바라봤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녀가 다시 말을 걸었다.

똑똑한 그녀가 이런 사고가 단순히 우연에 일어난 그거로 생각하지 않았다.

“각하와 전화를 곤란하게 하려는 걸까요?”

“이제 알아봐야지”

이미 진범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장담할 수 없었다.

영악한 그 노인네가 증거를 남길 리 없었다.

해가 뜨는 걸 바라보자 루나가 다시 남은 육포와 말린 과일을 내밀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마을까지 가야 하겠어.”

나의 말에 루나가 가방에서 지도를 꺼내 주었다.

설마 이런 것까지 준비했을 줄이야…….

지도를 보니, 레이의 글씨체였다.

그녀를 걱정해 레이가 챙겨준 게 분명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레이의 마음도 사로잡은 듯했다.

우리는 오늘 안에 무조건 마을에 도착할 계획을 세워 움직였다.

반나절이 지나서 마을에 도착했다.

그동안 그녀는 힘들다는 내색 없이 내 뒤를 잘 따라왔다.

“빈방 두 개 주시오”

허름한 여관에 들어가 여관 주인장에게 말하자 그는 우리를 뚫어지기 바라보더니 방으로 안내했다.

“난 바로 옆방이니 편히 쉬도록”

루나가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다.

여관주인에게 미리 말해두어 새 옷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간단히 씻고, 루나의 방앞으로 갔다.

“다 씻었으면 준비하고 밑으로 내려와”

그리고 바로 1층으로 내려가 음식을 주문했다.

조금 있으니, 루나가 대충 만든 신발을 신고 내려왔다.

아까는 몰랐지만,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의 발상태가 보였다.

여기저기 까져서 피가 보였고, 퉁퉁 부어 있었다

이 정도 상태라면 웬만한 병사들도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 상태로 아무 내색 없이 나를 따라 걸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지금까지 모든 이들은 늘 자신에게 기대어 무언가 해주길 바라는 모습들만 보인 이들이 많았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가슴 한편이 따듯해지는 기분이었다.

그저 일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강단 있는 모습이 새로이 보였다.

“왜…. 왜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대는 참 이상해. 귀족이 아닌 거 같담 말이지”

“제가요?”

“보통의 귀족 아가씨라면 발이 그렇게 되기 전에 내게 불평이라도 했을 텐데…. 그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단 말이지”

내가 그녀의 발을 가르치자 그녀가 뒷걸음을 쳤다.

“그…. 그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빨리 마을에 도착해서 쉬고 싶었고요”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여전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어떨 때 보면 어른스러운 모습과 단 걸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 같은 면이 귀여워 보였다.

곧 음식이 나왔고, 우리는 말 없이 음식만 입에 넣었다.

식사를 끝내고 해가 뜨는 대로 바로 출발할 거라며 푹 쉬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아주 조용한 기척이 창문 밖에서 느껴졌다.

옆에 놔둔 검을 손에 잡자 바로 창문 안으로 복면을 쓴이가 검을 들고 나에게 덤볐다.

그를 시작으로 계속 창문 안으로 복면을 쓴이가 들어왔다.

좁은 공간에서 싸우다 보니, 오래된 바닥은 계속 소리가 났다.

그러자 옆방 벽에서 쾅쾅 소리가 나자 루나의 걱정이 되었다. 빠르게 복면 쓴이들을 베고, 루나의 방문을 열었다.

생각외로 루나만 놀란 채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나?”

“괜찮습니다”

루나는 나의 손에 든 검을 보며 상황파악이 됐는지 작은 가방을 챙겼다.

“가자”

그녀의 앞에 서서 계단을 내려갈 때쯤, 복면 쓴 남자들이 덤벼들었다.

일격에 끝내기 위해 급소만을 노려 베었다.

밖으로 나가자 이미 대기하고 있던 복면을 쓴이들이 있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미리 이곳으로 올 걸 알고 준비한 듯 보였다.

뒤에 루나를 두고, 그들을 상대했다.

이번에도 어설프게 베었다간 루나가 인질로 잡힐 수 있기에 최대한의 집중력으로 그들의 급소만 노려 베었다.

얼굴에 피가 튀는 것도 모른 채 빠르게 일격에 끝냈다.

“괜찮으세요?”

주변의 피바다가 되고, 상황이 종료되자 몇 명의 복면 쓴이들이 사라졌다.

루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물었다.

“후…. 아무래도 당장 돌아가야겠군”

피가 묻은 볼을 대충 소매로 닦으며 말했다.

여관주인에게 미리 말해놨던 말을 보며 루나에게 말했다.

“방금 같은 일이 또 생길지도 모르니 말은 함께 타고 가도록 하지”

“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태연한 척 말 고비를 같이 쥐고 있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다 출발했다.

긴장한 듯 그녀가 흠칫 놀라는 거 같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정말로 그녀를 놔줄순 없을 듯 했다.

[작품후기]

파괴소녀3님,도용직님,인디70님,행복과행운7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 감사합니다.

연참에 길게 한번써봤습니다~

이제 칼리아외전이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좋아하게 되는 과정도 써보고 싶어서...조금 본편이 늦어졌습니다!

다음화부턴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모니알

오랜 시절 그들은 파티나 축제는커녕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던지라 활기가 넘쳤다.

너도나도 새로운 마을 건국을 축하했다.

또한, 그동안 에리엘 후작에게 받은 핍박과 서러움을 간접적으로나마 없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더욱 파티는 더욱 활기찼다.

칼리아가 오늘을 위해 미리 수도의 저택에서 자신의 요리사와 식재료를 제공했다.

평소와 다른 요리에 다들 입을 척하니 벌리며 이 음식 저 음식 음미하느냐 정신이 없었다.

나는 왠지 칼리아의 얼굴을 보는 게 부끄러워 파티가 시작되고, 모두 먹고 노느냐 정신이 없을 때 조용히 합류했다.

엠마가 그런 나를 보며 눈인사를 건넸고 나도 머쓱하게 인사했다.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은 구석으로 자리를 잡고 음식을 먹고 있던 차에 내 앞으로 그림자가 졌다.

그 그림자를 따라 고개를 올려다보자 칼리아가 방긋 웃고 있었다.

먹고 있던 음식이 목에 걸린 거 같았다.

“쿨럭”

“이런……. 목에 걸렸나 보군. 여기 음료수”

칼리아가 건네주는 음료를 꿀꺽꿀꺽 마셨다.

칼리아는 내가 음료를 다 마시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정도 진정되자 여전히 컵을 입에 물고 눈동자를 굴려 도망칠 않는 곳을 찾았다.

‘도망가야 하나? 어떻게 하지? 아직 마주칠 자신이 없는데…….’

칼리아는 이런 나의 모습을 유심히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만 머리 굴리고 이야기 좀 하지”

“네…….”

도망갈 길은 막혔다. 칼리아는 내가 도망갈 그거로 생각했는지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았다.

차마 칼리아와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꼼지락거리자 칼리아가 말을 꺼냈다.

“어디 특별히 다친 곳은 없나?”

“네……. 없습니다. 카…. 칼리아님이 일찍 오신 덕분에 험할 꼴은 면했어요. 감사했습니다. ”

“자꾸 나와 엮일수록 험한 일을 당하는 거 같아서 미안하군”

“칼리아님이 의도하신 것도 아닌데요….”

“보는 눈이 많으니, 조금 있다가 내 집무실로 와”

칼리아는 작게 마지막 말을 건네곤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떠났다.

그의 말에 주변을 둘러보자 다들 칼리아와 나를 흐뭇하게 쳐다보다가 아닌 척 흩어졌다.

그 모습들에 부끄러워져 다시 접시에 얼굴을 박고 음식을 먹었다.

무도회도 이제 슬슬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벌써 집으로 귀가했기 때문에 무도회장은 어느새 빈 곳이 보이기 시작했다.

엠마도 성안의 시녀들에게 정리를 지시했고, 다들 아쉬워하며 헤어지는 분위기였다.

더 미적거릴 핑계가 없어져 천금 같은 발걸음으로 칼리아의 집무실로 향했다.

‘똑똑’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칼리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칼리아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다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는 나를 테이블 반대편으로 손짓했고, 소파에 앉자 그도 앉았다.

창가에 오래 서 있었는지 그에게선 차가운 바람 향이 났다.

우리가 앉자 어느새 나타난 집사가 차를 준비해 올렸다.

그리곤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한동안 우리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달그락 소리를 내며 천천히 마셨던 차를 다 마시고 나자 칼리아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동안 편지는 잘 받았어”

그의 말에 지난날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칼리아의 답장을 기다렸던 자신이 떠올랐다.

칼리아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자신이 부끄럽기도 한마음에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흠흠 그런데 왜 답장은 안 보내셨어요?”

“그건 미안하군. 하지만 내부에 내통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소식을 끊어야 했거든.”

실제로도 에리엘 후작이 타이밍 좋게 모니알을 쳐들어왔다는게 의문이었다.

수도에서 이곳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 버려진 땅에 대해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

내통자가 없을수 없었다.

“그래도 언질 한번 정돈 주시지 그러셨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편지가 올 때까지 잠을 설치며 걱정…….”

거기까지 말한 나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칼리아는 나의 말을 들었는지, 기쁜 듯 보였다.

“걱정했어?”

그의 물음에 결국 한숨과 함께 대답했다.

“네…….”

나의 대답에 한층 더 환하게 웃는 칼리아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 모습이 얄미워 나도 모르게 눈을 흘기며 그를 바라보자 그가 헛기침했다.

“여기 일은 이제 마무리되어 가니, 우린 수도로 돌아갈 거야”

말을 돌리는 그 모습에 더 추궁하지 못하고 그의 말에 대답했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도 있고…. 저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이제 이곳에 볼일은 없어. 그대와 레이가 진행하고 있던 ‘책’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 알고 있으니, 당분간 레이는 이곳에 있기로 해서”

“네? 그래도…. 저도 남아 있는 것이….”

“아니. 레이만으로도 충분하니 서둘러 수도로 돌아갈 거야. 후작에 대한 처벌도 수도에 도착하면 이루어 질 거고….”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미 결정된 일인 듯 보였다.

사실 그의 말이 맞았다. 후작은 성 지하에 갇혀 있었지만, 그것도 임시였다. 언제 또다시 그를 옹호하는 누군가 나타나 그를 도주하게 할지도 모른다. 이는 칼리아와도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칼리아….

그가 모니 알을 떠난다면 이곳의 사람들은 안전하리라….

그동안 이곳의 사람들에게 정이 들어 버린 나는 갑작스러운 이별에 말을 잃었다.

그러다 나의 직속 상사는 레이라는 것을 깨닫곤 칼리아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레이님이 이곳에 남으시면, 전 궁으로 돌아가도 할 일이 없을 거 같은데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 출근하면 내 집무실로 오면 되니까”

이제 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정들어 버린 이곳과는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에 얼굴이 어두워졌다.

칼리아도 나의 어두운 표정에 별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바로 출발하진 않을 테니, 그렇게 나라 잃은 표정을 할 건 없어”

그의 말에 밝아지는 표정은 어쩔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전부 인사하고 가려면 시간이 촉박했다.

아직 일러두어야 할 것도 많고…….

“어째 내가 돌아온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군”

칼리아가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하지만 루나에겐 닿지 못했다. 그녀는 바로 인사를 마치고 제방으로 뛰어들어갔으니…….

[작품후기]

인디70님,파괴소녀3님,도용직님,라인베르크님,curious111님,투마로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 별점감사합니다.

^^^

모니알

곧 떠난다는 말을 들은 나는 바로 책상에 앉았다.

레이가 남는다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과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들을 종이에 정리를 시작했다.

혹시라도 빼먹을 수도 있는 이야기는 꼭 해야 한다며 별표까지 그려 넣었다.

그 작업만 하는 동안에도 벌써 밤이 깊었다.

내일 아침부터 일찍 돌아다니려면 지금 자도 얼마 자지 못한다는 생각에 침대에 몸을 뉘었다.

자려고 눈을 감으니, 아까 집무실에서 칼리아와 이야기하던 순간이 떠올랐다.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과 여유롭게 말을 하던 칼리아의 모습이 떠오르자 이불을 발로 퍽퍽 차 냈다.

연애를 해본 적이 있어야 칼리아처럼 여유로워 보일 텐데….

본인은 고작해야 칼리아의 목깃을 바라보는 게 전부였다.

그것보다도 자신의 이런 부자연스러운 행동들을 이해한다는 얼굴로 있는 칼리아가 괘씸했다.

언젠간 반드시 여유 없는 그의 얼굴을 보겠다며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뒤척거리다 마지못해 일어난 나는 컨디션이 최악이었다.

생각해보니, 무도회장에서 술도 몇 잔 마셨더니, 머리도 지끈거렸다.

머리를 부여잡고 고양이 세수하듯 대충 씻고 나오며 식당으로 향했다.

어제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배에선 배고프다며 아우성이었다.

이미 식사를 하고 있던 칼리아는 나를 향해 눈짓을 보냈다.

그의 반대편에 앉으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랜만에 성에서 주무신 거잖아요.”

“원래 난 아무 데서나 잘자”

‘체.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더 입 다물고 앞에 놓인 음식만 입에 열심히 날랐다.

깨질듯한 두통은 어느새 가라앉았다.

칼리아는 자신의 몫을 다 먹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차를 음미하며 앉아 있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음식을 씹어 삼키고, 조심스럽게 묻자 칼리아가 말했다.

“오늘부터 마을 순찰할 거야. 말만 순찰이고 인사지”

“네……. 그럼 저도 함께 갈게요”

조금 남은 음식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켜 버렸다.

그리고 어제 정리해 둔 종이를 들고 칼리아의 뒤를 따라나섰다.

엠마는 어느새 칼리아가 걸칠 겉옷을 건넸다.

지난번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옷이었다.

“공작님, 이걸 걸치고 나가세요”

칼리아는 룬을 꽉꽉 채운 옷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옷을 입었다.

“처음에 만든 옷과는 조금 다르군”

“공작님께서 입으실 옷이니까요. 물론 처음에 만들었던 옷에서 조금 보완한 거예요”

엠마를 대신해 내가 말하자 칼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온 우리는 차갑게 부는 바람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정말 따뜻하군. 개량할 수 있다면 수도에서 팔아도 될 정도야”

“안 그래도 수도로 룬을 납품할까 생각 중이에요. 먹는 것까지 이루어지면 모든 게 순조롭지만 돈벌이 수단도 필요하니…. 이곳 날씨보단 수도 날씨가 훨씬 따뜻하지만 예쁜 드레스를 뽐내야 하는 여인들에게 추위란 늘 견뎌야 하는 일 중 하나였으니, 수도의 디자이너를 고용해 그곳의 옷도 따뜻하게 바꿀 수 있다면 아마 불티나게 팔릴 거에요. 또, 늘 야영을 하는 기사들의 제복도 바꿀 수 있다면 좋겠고요”

“벌써 거기까지 생각해 둔 건가?”

“수도로 돌아가면 바로 시작하려고요. 그래도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에요”

그와 걷다 보니, 벌써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저마다 다르게 생긴 집 굴뚝에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알록달록한 외벽에 저마다 다른 집 지붕까지....

“신기하군.동화 속에 있는 마을에 온 거 같아”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빼곡히 채운 집들은 겉으로 보아도 단단해 보였다.

칼리아는 나를 두곤 외벽을 만졌다.

“튼튼해. 이것도 그대가 만든 건가?”

“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이곳의 사람들과 함께 만들었죠. 아직 보충해야 할 것도 남았고, 부족하죠”

마을 중앙에 들어서자 제일 처음 작업실로 사용했던 집이 보였다.

“저 집 안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나의 말에 칼리아가 긴 다리로 성큼 들어갔다.

집안에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사용했던 흔적과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이곳이 뭐 하는 곳인가?”

검게 그을린 자국과 함께 깊게 구멍 나 있는 곳을 가르친 칼리아가 묻자 내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다.

“그곳에 여기 있는 나무를 넣고 불을 피우면 집안의 바닥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연기는 저기 보이는 굴뚝을 통해 빠져나가고요”

“그렇군. 이 집안의 흙은 뭐지? 평소의 흙과는 조금 다른데….”

“그것도 동굴 근처 산의 빨간 흙과 여러 가지를 반죽해서 만든 흙이에요. 쉽게 비나 눈에 쓸리지 않고, 집안 온도를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죠”

“내가 없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했군. 고생했겠어”

“저야…. 약간의 조언을 했을 뿐. 모두 여기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 운 거죠”

쑥스럽다는 듯 내가 머리를 긁적거리자 칼리아가 집 안을 천천히 구경했다.

“지금 레이가 하는 일은 이 근처에 나는 식물과 물고기를 조사하는 일이라던데…….”

“네. 아무래도 먹는 게 중요하니까요. 근처에 나는 식물들과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책으로 만들어 나누어 줄 예정이고요”

“둘 다 너무 열심히 일에만 몰두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군”

“그동안 다들 너무 힘들었어요. 조금의 조언으로 이렇게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 될 수 있었던 건 부지런한 사람들 덕분이죠”

“너무 겸손하군”

우리가 집구경을 마치고 나오자 솝과 바트가 나와 있었다.

“공작님을 뵙습니다”

한껏 긴장한 바트와 솝이 인사를 했다.

내가 방긋 웃으며 그 둘에게 손을 흔들자 솝이 작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지.”

“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공작님께서 이곳에 오신 뒤로 고생하신 건 아니신지요”

손사래까지 치며 솝이 말하자 칼리아도 작게 웃었다.

“험한 일도 있었지만, 이제 더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우리야 곧 돌아가지만 당분간 레이는 이곳에 머물며 하던 일을 마무리 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칼리아의 말에 바트가 굳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바트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거리자 바트가 울먹거리는 얼굴로 변했다.

나는 칼리아에게 작은 목소리로

“바트와 따로 할 말이 있으니, 조금 있다가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바트를 데리고 바트의 집으로 향했다.

바트는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바트의 집도 온기로 가득 차 따뜻했다.

“정말로 돌아가세요?”

“아무래도 그렇게 될 거 같아. 원래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갈진 나도 몰라서”

“조금 더 계시면 안 돼요?”

울먹거리며 말하는 바트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그건 힘들 거 같아. 그렇지만 룬을 수도로 납품할 때 볼 수 있을 거야.”

“수도로 납품한다고요?”

“그래. 지금 모니 알은 겨우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었지만, 돈이 생기진 않잖아. 옆 마을과 거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지난번 솝과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룬을 수도로 납품할 생각이야.”

“그럼 어른들만 수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텐데요….”

“열심히 레이 님의 뒤를 따라다니면 수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레이 님께 바트를 조수로 써달라고 말해 놓을게”

“정말요?”

“그래. 바트는 다른 애들보다 훨씬 용감하고 영리하니, 레이 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말이 많지 않으신 분이니 언제나 귀 기울이고”

“네!!!”

바트는 내 손을 잡고 크게 위아래로 흔들었다.

그 모습이 귀여워 같이 웃었다.

[작품후기]

curious111님,파괴소녀3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별점 감사합니다.

^^^

모니알

모든 일은 일사천리 이루어지고 있었다.

엠마도 우리가 떠난다는 걸 듣고는 열심히 따라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연신 아쉬워했다.

“레이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안에 계실 거에요. 어제 또 새로운 식물을 발견했는지 손에 쥐고 들어가시는 걸 봤거든요”

“아……. 그럼 레이님 방으로 솝과 솝의 동료, 밥과 그의 동료, 바트 까지 불러 주실래요?”

“그러도록 하죠”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바로 성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바로 레이의 방으로 향했다.

‘똑똑’

한참을 기다렸지만 역시나 연구에 몰두 중인 것인지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내 생각대로 레이는 창가 책상에 앉아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레이님”

작게 한번 불렀지만, 레이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레이님!!”

이번엔 조금 큰 소리로 부르자 레이가 나를 쳐다보았다.

“할 말이 있어서요”

그제야 하던 일을 내려놓고 레이가 내 곁에 와 앉았다.

“혼자 모니알에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레이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동의했다.

“오래 걸리실 거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 보는 식물들이 많다 보니….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거 같네요”

레이답지 않은 확실한 대답이 아녔다.

이곳에서 레이의 연구를 도울 인원을 뽑아야 할 텐데…….

“아!! 영리한 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잔심부름은 그 아이를 시키면 될 거에요. 마음에 안 들면 잘라도 됩니다”

가슴을 펴고 말하자 레이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식사는 꼭 챙기셔야 해요. 엠마 님한테 미리 말해 둘 거니까 제가 없다고 끼니 거르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레이는 말이 없었다.

‘똑똑’

“이제야 도착했나 보네요”

몇 명의 인원이 우르르 레이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사이 바트도 긴장 한 채로 들어왔다.

뒤이어 엠마가 차를 준비해 마지막에 들어왔다.

대충 깔끔한 곳을 찾아 다들 앉자 엠마가 차를 한 잔씩 따라 주었다.

어리둥절한 그들을 하나하나 보다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꺼냈다.

“여러분들을 제가 불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와 칼리아님은 곧 이곳을 떠납니다. 레이님은 여기 남아 계시지만...”

“정말 그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아직 해야 할 일도 남았는데….”

다들 한층 어두워진 얼굴을 했다.

나는 그동안 정리한 종이를 꺼내 들었다.

“그래도 바로 떠나는 건 아니니, 그동안 보안을 유지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우선 집 만드는 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거 같은데….”

“네. 거의 끝이 나서 보수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한 점을 물어보고 보안을 유지하는 거로 해요. 아! 제가 지난번 말했던 구멍 위엔 커다란 물 주전자를 놔두는 것도 좋을 거예요. 따뜻한 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나의 말에 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안 그래도 그렇게 했더니, 다들 물 끓이는 시간도 줄어들고 좋아하더라고요.”

난 미리 그려 두었던 수도시설에 대한 건 밥에게 넘겼다.

“이건 집마다 사용한 물을 집 주변에 수로를 내서 떠내려가게 하는 방식인데…. 이러면 위생적으로 좋을 거 같아서 그려 봤어요. 이곳에 맞게 바꾸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힘든 부분은 레이 님에게 상의해도 될 거에요.”

“매번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하시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밥은 대충 그린 그림들을 보며 연신 신기해했다.

그는 바로 자신의 동료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며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그런 밥을 뒤로 솝에 말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솝이 없었다면 이 마을이 이만큼 발전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나의 말에 솝이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모니알이 발전할 거라는 걸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과 같은 인재가 없다는 것과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쉬웠다.

그런 그를 구원하기 위해 루나가 찾아왔다. 생각해 보지 않은 일하며 솝은 늘 즐거웠다.

그를 따라 사람들이 점점 활기찼고, 늘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수도로 돌아가면 연락을 끊는 건 아니니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지난번 솝이랑 이야기 했던 부분도 있고..”

“무슨 이야기죠?”

“지금 입고 있는 룬을 수도로 납품하고 싶어요. 수도의 겨울은 이곳보다 춥진 않지만 분명 붐을 일으킬 거에요. 집도 생겼고, 먹을 것도 걱정 없다면 당연히 돈을 벌어야죠”

“그거 좋은 생각이군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수도로 돌아가면 칼리아님이 가지고 있는 의상실에 납품해서 개발할 거고요. 수도까지 납품할 인원도 뽑아야 하고, 가격도 정해야 할거고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레이님이 총괄하실거에요”

사람들은 레이에게 시선이 쏠렸다.

레이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말했다.

“마을 근처에 동식물을 연구 중입니다. 먹을 수 있는 식물과 독을 가진 식물, 약초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 등…. 마을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그림과 함께 책을 만들 거고요. 그래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네요. 보고는 제가 수도로 보내도록 하죠”

“레이님 제가 아까 말했던 소년이 이 소년이에요. 아주 영리한 소년이니 잘 해낼 거에요”

구석진 곳에서 우리의 말만 듣고 있던 바트가 화들짝 놀랐다.

나는 바트의 손을 잡고 레이의 앞에 데려갔다.

한껏 긴장한 바트가 레이에게 인사를 건넸다.

“바트라고 합니다. 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레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리고 나서도 한참을 회의했다.

해가 떨어지는 것을 보며 회의를 마치고 다들 각자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다들 지쳐 보이는 얼굴로 인사를 하고 하나둘씩 성을 빠져나갔다.

마지막으로 바트가 내 눈치를 보며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여 바트와 함께 마을로 걸어가며 말을 걸었다.

“무슨 할 말이 있니?”

“그…. 루나 님…. 아까 회의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는데…. 이런 엄청난 일에 감히 저 같은 게 끼어도 될까요? 전 이제 글을 읽기 시작했고, 딱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풀이 죽어 말하는 바트의 양어깨를 잡고 말했다.

“할 수 있어. 지금까지 몰랐던 걸 배운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내가 바트를 뽑은 이유는 여기 있는 또래 아이 중 가장 똑똑하고,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에게 필요한 말을 전한 그 용기를 높게 평가해. 그건 아무리 가르쳐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타고난 성품이지 그러니 자신감을 가져. 글이야 배우면 되고, 잘하는 거야 앞으로 찾으면 돼. 물론 그 과정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난 믿어”

나의 진지한 말에 바트가 조금은 자신감을 찾은 듯 보였다.

“정말 저 같은 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보증할게. 정 힘들면 내가 수도로 널 부를게”

“네!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바트는 신이 나서 말했다.

[작품후기]

킬리언데이지님,행복과행운7님,curious111님,내사랑둘님,구미호양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별점 감사합니다~

^^^

모니알

잔뜩 긴장한 바트를 안심시키며 성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벌써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깜깜한 밤하늘에 쏟아질 듯한 별과 어우러진 성은 정말 장관이었다.

지금까지 바빠서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다. 떠나기 전에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넋을 놓고 하늘만 바라보다 앞에 있던 누군가와 부딪쳤다.

“죄송합니다”

“어디에 정신을 팔고 걷고 있는 거야?”

익숙한 목소리는 칼리아였다.

단단한 손으로 나의 팔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었다.

“밤하늘이 멋있어서요. 곧 별이 떨어져도 이상할 거 없이 보이는 이 장관이 너무 멋있어서요. 그동안 바빠서 이런 멋진 풍경도 놓칠 뻔했어요”

“그래도 앞은 보고 다녀야지. 어딜 다녀오는 모양이지?”

“레이 님 조수로 쓸 아이를 바래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유독 그 아이를 챙기는군”

“이상하게 자꾸 정이 가네요.”

씩씩하게 사는 바트를 보면 자꾸만 도와주고 싶었다.

동생도 귀여웠고, 없던 동생이 생긴 기분이기도 했다.

“요 며칠 정말 바빠 보이는군”

“바쁘죠. 그동안 벌인 일들을 마무리해야 하니까요. 칼리아님도 바쁘신 거 알고 있어요”

나와는 다르게 칼리아도 무척이나 바빴다. 얼굴 볼 틈도 없이….

그동안 자리를 비운 그의 부재 때문에 확인해야 할 서류도 잔뜩 있었고, 이번 일을 도와준 체로키 부족에 대해 함구하는 일까지 맡았다.

칼리아는 이번 기회에 마을 사람들과 부족이 교류했으면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반대했다.

설득에 실패한 칼리아는 이번 일에 대해 부족에 대한 기록을 지우고, 사람들을 모아 그들의 존재에 대해 잊으라고 당부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 사태의 은혜를 잊는 것으로 갚기로 했다.

“이 마을에선 바쁘지 않은 사람은 없지.”

“다들 열심히 사는 것요. 곧 수도로 돌아가다니…. 이곳의 생활이 그리워질지도 모르겠어요”

다들 따뜻한 눈빛으로 열심히 서로를 보듬으면서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이곳은 점점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위기는 때론 사람을 강하게 만들곤 하니….

어느새 칼리아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나란히 서서 걸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우뚝 섰다. 나도 덩달아 멈춰서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러세요?”

“궁금한 게 있거든.”

진지하게 말하는 그의 모습에 덩달아 긴장한 내가 말했다.

“무슨??”

“그때 날 껴안았잖아. 그 뒤론 그대는 말할 기미가 보이질 않아 내가 조급해졌어”

아마 칼리아도 내가 그때 껴안았던 순간 나의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 그게…….”

훅 들어온 그의 질문에 다시 난 그날의 그 장소로 돌아갔다.

내 감정을 깨닫고 칼리아에게 뛰어든 그 날의 기억으로…….

칼리아는 찬찬히 내 얼굴을 쳐다보며 나를 기다렸다.

누군가를 좋아한 적은 처음이었다.

전생에서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언제나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기에 이런 감정을 죽이고 살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자 칼리아가 천천히 내 앞으로 다가와 한쪽 무릎을 꿇고 내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내가 그대를 좋아해. 그대도 나와 같다면 고개만 끄덕이면 돼”

밤하늘의 촘촘히 박힌 별을 배경으로 무릎을 꿇은 칼리아의 모습은 흡사 왕자님과 같은 모습이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저도 칼리아님이 좋아요”

나의 떨리는 대답에 칼리아가 지금까지 봐왔던 미소와는 다른 환한 얼굴을 보여주며 웃었다.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내 남자가 되다니….

이 꿈같은 장면이 거짓일까 칼리아 몰래 불안 쪽 살을 씹었다.

아픔이 느껴지는 것을 보니 꿈은 아니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성까지 들어왔다.

그는 내 방문 앞까지 바래다주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의 발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걸 문 앞에서 듣다가 그대로 침대로 누웠다.

아직 남아 있는 그의 온기를 다른 손으로 감싸며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내일은 수도로 돌아가는 날이라 일찍 잠을 자야 했지만, 설레는 마음과 마을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쉽게 잠들지 못했다.

결국, 침대를 굴러다니다 새벽녘에 잠들어 버려 엠마가 직접 나를 깨우러 왔다.

“루나님 이제 일어나셔야죠”

“네…….”

그녀는 나를 일으켜 세우며 세숫물을 준비시켰다.

마지못해 씻고 옷을 갈아입고 식당으로 미적거리며 움직였다.

이미 말끔한 모습을 한 채 식사 중이던 칼리아가 나를 반겼다.

“어제는 잘 잤나?”

“네…….”

여전히 잠에 취해 멍하게 말하자 칼리아가 작게 웃으며 내 음식을 준비시켰다.

뜨겁게 데운 수프를 마시며 잠을 깨려 노력했다.

샐러드를 먹을 때쯤 잠을 깨자 칼리아가 턱을 괴고 나를 쳐다보고 있다 눈이 마주쳤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예뻐서”

“네? 콜록콜록”

그의 말에 사레가 걸려 기침을 하자 어느새 가까이 온 칼리아가 물컵을 내밀었다.

그 물을 꿀꺽꿀꺽 마시곤 칼리아에게 작게 말했다.

“왜…. 이러세요. 아침부터....”

“좋아서 그렇지!”

칼리아도 나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모습을 본 사용인들은 얼굴이 붉어져 자신들끼리 속닥거리는 게 느껴졌다.

“큼…. 언제쯤 출발하실 거에요?”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성안도 둘러보고 출발해야겠지!”

내가 말을 돌리며 묻자 칼리아는 바로 대답했다.

“그…. 그럼 지금 마을로 가시게요? 저도 같이 갈게요”

칼리아가 손을 부드럽게 내밀자 자연스럽게 그의 손위로 내 손을 겹쳤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우리는 어제와 같이 손을 잡고 마을을 시찰하러 나섰다.

[작품후기]

파괴소녀3님,싱싱쿠리미16님,내사랑둘님,행복과행운7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독 짧네요 ㅜㅜㅜ

주말 잘보내세요~

^^^

모니알

마을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칼리아와 손을 잡은 우리의 모습을 알면서도 모른 척해주었다.

나는 부끄러운 마음에 손을 놓으려 하자 칼리아가 더 힘을 줘서 손을 꼭 붙잡았다.

그걸로 부족했는지 그는 내 손을 끌어 자신의 팔을 잡도록 했다.

의도치 않게 팔짱까지 끼게 되자 도저히 앞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결국, 참지 못하고 칼리아에게 작게 말하자 칼리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좋아서 그래”

눈부신 그의 미소에 할 말을 잃은 나는 마지못해 그와 걸음을 맞추며 걸었다.

우리의 바로 뒤로 레이와 솝, 밥, 마지막으로 바트가 따라 걸었다.

본격적으로 마을로 들어서자 밥이 말했다.

“마을을 재건하는데 최소한의 구성은 갖춰졌어요. 어제 다녀가신 뒤로 꼼꼼히 살폈는데, 처음 짓기 시작한 집들은 아무래도 보수가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전적으로 그 일은 밥이 책임지고 마무리해주세요. 아마 집 보수 건이 끝나도 해야 할 일은 많으니까요. 이제 말했던 수도 시설에 관해 이야기 한 건 어떻게 됐나요?”

밥이 눈이 초롱초롱해서 말을 했다.

“쌓였던 눈이 녹아 땅을 파내기 좋아 땅부터 파고 있습니다. 곧 레이 님께서 설계도를 넘겨 주실 예정이고요”

밥의 말이 끝나자 솝이 나서며 말했다.

“계속해서 룬을 재배해서 창고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좋군요. 제가 바로 수도로 떠날 때 룬도 가지고 갈 거예요. 수레에 실어주세요. 그리고 레이 님의 총괄 아래 룬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수도에 도착해서 서신을 보낼 테니 꾸준히 수도로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해요. 본격적으로 의상실에서 옷을 만들기 시작하면 체계적으로 움직일 인원도 필요하고요. 아직 마을이 어수선한데 이런 일까지 하게 돼서 미안해요”

솝이 종이를 꺼내 들고 내 말을 적었다.

“아닙니다. 다 저희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 인걸요. 다른 사람들도 알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솝은 안심하라며 웃으며 말했다.

그들과 이야기를 하다 어느새 마을 한 바퀴를 돌았다.

처음에 왔을 때와는 정말 많이 달라진 마을에 안도의 숨을 쉬었다.

칼리아는 연신 우디에게 마을의 안전문제를 상의하는 듯 보였다.

그런 그를 보다 한숨을 쉬며 말했다.

“조금이라도 수도로 돌아가는 걸 미루면 안 될까요?”

“안돼. 후작 때문에…. 그가 여기 계속 남아 있다면 분명 그를 빼내기 위해 또다시 이곳이 위험할 거야. 그러니 빨리 돌아가야지.”

“그것도 맞는 말이군요.”

한 바퀴 돌고 나자 다시 마을 입구에 돌아서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인사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공작님과 루나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마음으로 우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웃어 보이며 말했다.

“마무리까지 짓지 못하고 떠나서 정말 안타까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라면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꼭 만나러 올게요”

그새 정이 든 사람들이 훌쩍거리며 손을 흔들었다.

“다음엔 두 분의 좋은 소식도 전해주세요!!”

어디선가 큰 소리로 말했다.

누군지 모를 목소리에 다들 울다가 웃었다.

칼리아도 아무 말도 없다 조용히 그들과 같이 웃어주었다.

“그럼 이만 돌아가겠다.”

성 앞엔 우리가 떠날 준비가 끝나 있었다.

바리바리 싼 짐에 칼리아를 보며 말했다.

“저렇게 많이 가져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지.”

칼리아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짐만 챙기겠다고 말하자 실망한 얼굴로 엠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곧 룬을 실은 수레와 에리엘 후작을 실은 감옥수레, 최소한의 음식만 실은 마차만 준비되었다.

“엠마 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보고 싶을 거예요”

칼리아가 자리를 비웠을 때 가장 의지가 된 사람이었다.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다.

눈물이 찔끔 나오러 같아 일부러 입술을 깨물며 엠마를 껴안았다.

“저도 정말 고마웠어요. 루나 님 덕분에 모니 알이 이렇게 활기찬 게 몇 년 만인지……. 수도에서도 잘 지내세요”

제일 먼저 마차에 앉은 칼리아를 따라 마차에 오르다 뒤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더 성을 바라보았다.

처음에 왔을 때보다 훨씬 정감 있는 모습을 눈에 새기듯 꾹꾹 눌러 담곤 마차에 올랐다.

내가 마차에 앉자마자 서서히 마차가 출발했다.

정든 모니 알을 뒤로 마차의 작은 창을 통해 휙휙 바뀌는 배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차 안은 고요했다.

오로지 규칙적으로 들리는 마부의 채식소리만 크게 들렸다.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바로 옆에서 들리는 칼리아가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다.

칼리아의 어깨에 기대어 자고 있었다.

혹시 침이라도 흘린 건 아닐까 걱정하며 기지개를 켜며 몸을 일으켰다.

슬쩍 입 옆을 훔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하아. 언제 잠든 거지”

“벌써 게이트를 통과했어. 오늘은 여기서 머물 예정이야.”

“이번엔 클라우디아 영애의 영지는 들리지 않을 예정이신가 봐요”

칼리아가 마차에서 먼저 내려 나를 부추기며 말했다.

“에리엘 후작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클라우디아 후작의 땅에 들어서는 건 에리엘 후작을 넘기겠다는 것과 같은 거지. 이번 일에 분명 그도 연루되어 있을 거야. 우리가 도착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하겠지만…….”

“그렇군요. 제가 잘 몰랐어요. ”

“그래서 이렇게 은밀히 최소한의 인원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오랜만에 야영하게 되섰다.

난 마차의 짐 속에서 처음 사용한 침낭을 찾아 꺼냈다.

엠마가 잘 관리해서 깨끗한 침낭을 한번 쓰다듬으며 가슴에 안았다.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야영하는 건”

“날씨가 좋아서 오늘만 야영한 후 내일 밤늦게 수도로 들어갈 거야”

다른 사람들이 분주히 야영 준비를 맞췄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눈도 많이 내리고 추웠지만, 다들 룬을 이용한 옷을 입고 있어 끄떡없어 보였다.

대신 휑하니 뚫린 창살 안에서 덜덜 떨고 있는 에리엘 후작이 보였다.

하도 시끄럽게 떠들던 그의 입에는 자갈이 물려 있었다.

그런 그에게 천막을 씌었다.

“바람막이인가요?”

의외로 그에게 인정을 베푸는 건가 싶어 물었더니, 병사 한 명이 공손히 대답했다.

“이곳이 어디쯤인지 모르게 하려고 씌우는 거예요. 만약을 위해서요”

“아…….”

분명 칼리아의 지시였을 것이다.

더 그들을 방해 할 수 없어 근처 나무 아래에 앉아 그들을 구경했다.

[작품후기]

트와일라잇95님,파괴소녀3님,인디70님,vior님,내사랑둘님,행복과행운7님,sky0325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 감사합니다.

어제 본의아니게 병원을 갔다오느냐고... 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ㅜㅜ

죄송합니다.

^^^

모니알

최소한의 인원이라 다들 바쁘게 움직였다.

숲의 밤은 눈 깜박할 사이에 찾아오니까…….

모니 알에선 늘 할 일이 많아 잠을 잘 시간도 쪼개서 생활했었는데….

이곳에선 내가 할 일이 딱히 없었다.

뭘 거들까 싶어서 병사 옆으로 다가가기라도 하면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까지 치는 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책을 꺼냈다.

그들이 마련해준 모닥불 옆에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칼리아가 내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를 받았다.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 새벽 일찍 떠날 거야"

"시간이 빠르네요. 오는 건 참 오래 걸렸던 거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 사안이 워낙 복잡해서"

나는 칼리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시 시끄러운 정치판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하아……. 그렇게 되겠지. 그대는 앞으로도 내 저택에서 지내. 내가 그대를 귀히 여긴다는 게 수도에는 소문나진 않았겠지만 곧 이야. 그렇게 되면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이들도 이용하려는 이들이 나타나겠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네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게 좋지"

"어쩌다가…. 이렇게….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게 소망이었는데…."

모니알에서 먹었던 빵보단 딱딱한 빵을 씹으며 한탄스럽게 말하자 미안하단 얼굴로 말했다.

"괜히 나 때문인 거 같아 미안하군."

"칼리아님을 탓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지난번 클라우디아 영애도 칼리아님을 좋아하는 거 같던데……."

"그 집안과는 얽히고 싶지 않아. 절대 얽혀서는 안 돼"

"저도 조심할게요."

"꼭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

"네. 믿을게요."

식사가 끝나고 우린 바로 취침을 하기로 했다.

마차에서 그렇게 자고도 피곤했는지 금방 잠이 들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각이지만, 분주히 움직였다.

하품하며 멍하니 앉아 그들을 바라보다 마차에 올랐다.

칼리아가 마지막으로 올라타자 마차는 빠르게 야영지를 벗어났다.

오늘 안으로 수도에 들어간다는 게 빈말은 아니었는지, 중간에 마차가 잠깐 멈췄고, 그 뒤로는 계속 쉼 없이 달렸다.

최고급 마차였지만, 오래 타는 건 역시나 힘들었다.

얼굴이 핼쑥해지기 시작했고, 속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내색할 순 없었다.

곧 수도로 들어서기도 했고, 빨리 가서 쉬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찬바람이라도 쐬려 작은 창을 열고 열심히 숨을 내쉬었다.

열심히 서류를 살피던 칼리아가 내 옆에 와 앉아 말을 걸었다.

"많이 힘들어?"

"괜…. 읍…. 괜찮습니다."

헛구역질까지 올라오려는 걸 참고 힘겹게 웃어 보이며 말했다.

"많이 안 좋아 보이는군. 잠깐 쉬도록 하지"

"아니에요. 읍……. 그냥 빨리 가서 쉬고 싶어요."

칼리 아는 더 말을 하려다가 내 얼굴을 다시 보더니 알겠다며 물러났다.

난 다시 창밖을 보며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기를 반복했다

잠이 잠깐 들었다가 정신을 차렸다. 아주 정신적으로 고문당하는 기분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우리는 조용히 수도로 들어왔다.

칼리아의 저택에 멈춰선 마차에서 난 황급히 뛰어나와 나무 기둥을 붙잡고 속을 게웠다.

"욱…. 웩!!!"

뱃속에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게워 내자 힘이 빠져 휘청거리며 돌아오자 칼리아가 번쩍 나를 안아 들었다.

밖에 나와 있던 제임스 집사와 오랜만에 보는 제인 뒤로 사용인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들 놀라는 분위기였지만 대놓고 티 내는 이들은 없었다.

하지만 환하게 웃는 제임스와 제인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다.

칼리아에게 그만 내려 달라고 해야 했지만, 도저히 기운이 나질 않았다.

그저 얼굴을 가린 채 칼리아에게 기대어 방까지 도착했다.

"고생했어. 앞으로는 힘들면 참지 말고 말해줬으면 좋겠군. 늘 무리하는 거 같아 내 마음이 안 좋군."

"네. 앞으론 조심할게요."

입을 가리며 말했다.

"내일부턴 얼굴 보기 힘들 거야 난 바로 궁으로 갈 거고, 그대는 며칠 정도 쉬도록 해"

"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칼리아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며 침대로 직행했다.

그 뒤로 기억이 없었다.

아침 일찍…….

속에 있던 모든 걸 게워 내고 배가 고파진 나는 일찍 눈이 떠졌다.

포근한 공기와 실질적으로 우리 집이 아닌데도 돌아왔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사이 모니알의 추운 날씨에 적응이라도 된것인지 살짝 더운 감도 있었다.

사뿐거리며 식당으로 향했다.

"일어나셨어요?"

주방장이 인사를 하며 분주히 나의 식사를 준비했다.

혹시나 칼리아를 볼수 있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하고 흘끔힐끔 거리자 어느새 내 곁으로 온 제임스가 말했다.

"공작님은 일찍 성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마워요."

식기를 들고 식사에 집중했다.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라 한입 음미해가며 먹었다.

신경 쓴 티가 많이 나는 음식이라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며 평소보다 2배에 시간을 들여 식사를 마쳤다.

제임스가 다가와 물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따뜻한 곳에서 푹 쉬어서 몸 상태도 좋았다.

"칼리아님이 가지고 계신 의상실에 연락 좀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전 방에 가 있을게요."

내 방으로 올라가기 전 창고에 들러 룬이 담긴 자루 하나를 챙겨왔다.

룬의 상태를 체크 하고 있던 차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

"들어오세요."

모니알로 떠나기 전 독점 계약을 원했던 한이 들어왔다.

"잘 지냈어요??"

내가 반갑게 인사하자 한이 호들갑을 떨면서 말했다.

"저야 잘 지냈죠. 언제쯤 연락해주실까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그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거 같은 예감이 들었다.

[작품후기]

트와일라잇95님,내사랑둘님,파괴소녀3님,curious111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작,추천 감사합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어서 죄송합니다. 항상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